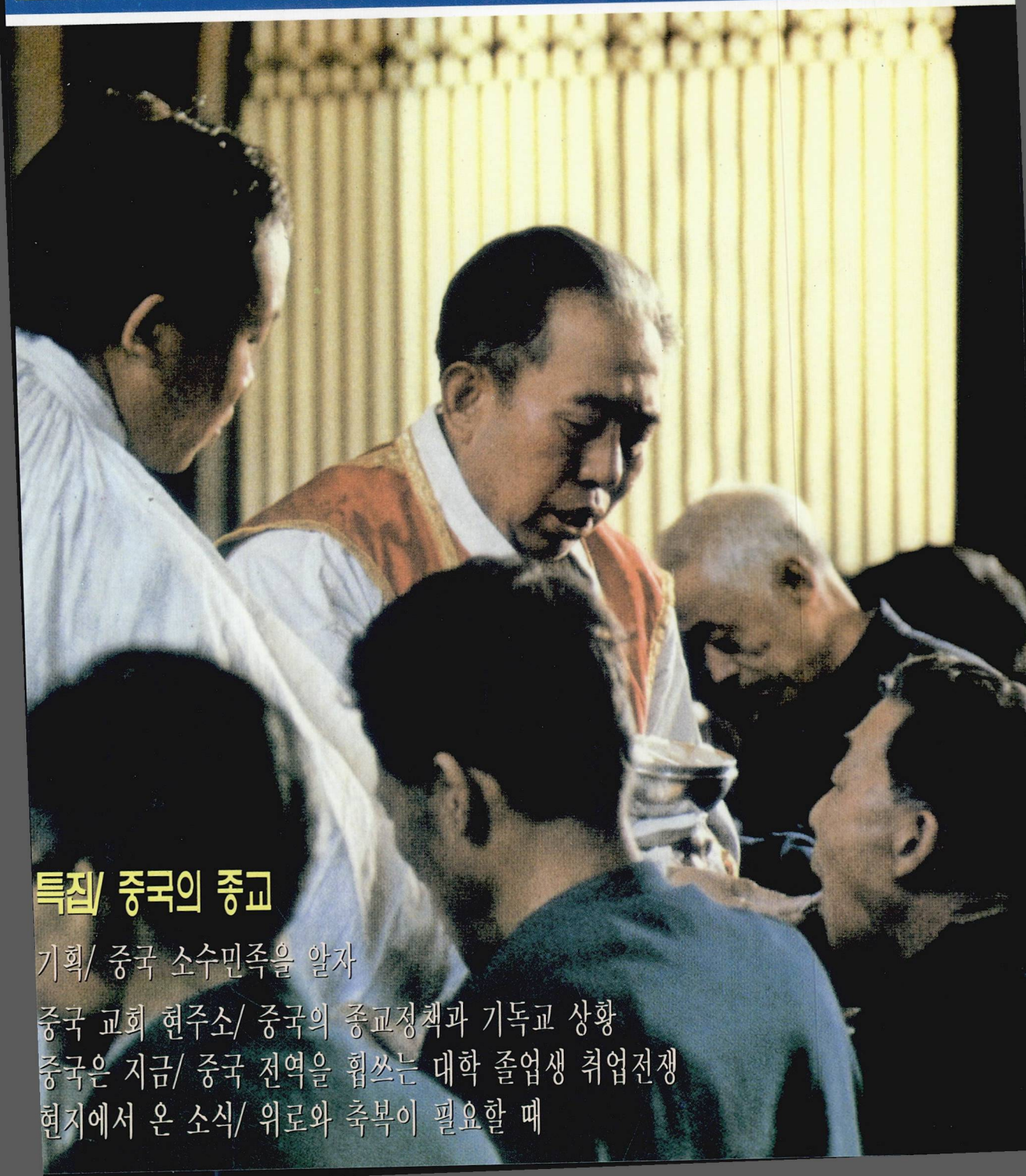
중국을 사랑하는 이들의 동반자

중국을 주께로

98/11·12 별책부록 『중국기도』

격월간 중국을 주께로/ 발행처.시님(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주소.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5-11(3층) 우137-069
전화.02)533-5497, 592-0132 발행인.이동화/ 발행일.1998. 10. 20/ 등록일 1994. 2. 14일자 (등록번호/ 바 - 2078)
통권54호



특집/ 중국의 종교

기획/ 중국 소수민족을 알자

중국 교회 현주소/ 중국의 종교정책과 기독교 상황

중국은 지금/ 중국 전역을 휩쓰는 대학 졸업생 취업전쟁

현지에서 온 소식/ 위로와 축복이 필요할 때

중국에 대해 아십니까?
중국선교의 동역자를 찾습니까?
『중국을 주께로』가 있습니다

『중국을 주께로』는
여러분의 마음과 눈으로 읽혀지기 원합니다.

희어진 밭,
중국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중국교회의 외침이 당신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까?
중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때
여러분은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복음을 위해
여러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는 **눈과 귀**요,
중국인을 사랑하는 한국인,
교회를 깨우는 목회자와 평신도들에게는 **선교의 봉홧불**이요,
선교사로 파송된 현지 사역자를 돕는 후원자들에게는
기도의 보고요,
국내 중문과 학생들과
중국에서 유학하는 크리스천 모두에게는
유익한 정보지입니다

『중국을 주께로』는
여러분의 손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1년(6권) 구독료 30,000원을
정확한 주소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TEL:02)592-0132, 533-5497, 594-8038, 535-4255, FAX: 599-2786
『중국을 주께로』 담당자 앞
구독료 납부: 국민은행 008-01-0454-178 박성주
시중은행 지로용지 7602362(회지구독요금이라 적어주십시오.)

발행인 칼럼

자생적 지도력 개발

이동화

최근 정부는 『재외 동포 출입국 특례 법안』을 확정하여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 특례법안에 의하면 한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다른 나라 영주권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은 물론 조선족처럼 외국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동포에게도' 거소등록증 제도'를 도입하여 2년동안 자유로운 출입국을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장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처럼 조선족들의 한국 출입국이 용이해짐에 따라 특히 조선족을 한국에 데려와서 신학교육을 시켜 보내는 사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심하지 않을 경우 자칫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왜냐하면 과거 7, 8년 동안 적지 않은 조선족 형제 자매들이 한국에서 신학공부를 하고 중국에 돌아갔지만, 성공적인 목회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선족을 초청하여 신학교육을 시킬 경우 자생적 지도력 개발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의 몇가지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장래가 촉망된다고 해서, 혹은 적극적인 열의를 보인다고 해서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을 무턱대고 한국에 데려오는 것은 금물이다. 소명감이란 무엇보다 시간의 검증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주의 일에 헌신하지만, 끝까지 소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것은 중국의 조선족교회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므로 헌신을 작정하면 우선 중국현지에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고 적어도 2, 3년간 그들을 지켜보면서 과연 그들이 평생사역자로서 소명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렇게 해서 소명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신학교육은 중국현지에서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삼자교회나 가정교회를 막론하고 모두 적용된다. 우리는 흔히 한국에서 높은 수준의 신학교육을 받고 중국에 돌아가면 자연히 중국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중국현지교회 지도자들과 불화하거나, 중국실정에 맞지 않는 사변적인 목회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비록 현지의 신학교육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신학훈련을 받는 것이 목회적 뿌리를 내리는데 훨씬 유리하다.

셋째, 한국에 데려와서 신학교육을 시킬 대상으로는 일반 목회자보다 앞으로 신학교수 사역을 할 사람들이 더욱 좋다. 지금 중국교회에는 목회자도 부족하지만 그것보다 더 부족한 것은 신학교의 교수인력이고, 이들이 유학을 통해 양질의 신학교육을 받는다면 그 파급효과가 훨씬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또한 최초신학교육은 중국현지에서 받도록 권하고 싶다. 그래야만 유학 후 중국에 돌아가서 자리를 잡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중국의 신학교육 현장이나 목회현장과 유리되지 않는 신학교수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유학을 마친 후 중국으로 돌아갈 때 여기서 목사안수를 준다든지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삼자교회나 가정교회를 막론하고 중국교회는 외국교회에 예속되는 것을 매우 싫어 한다. 심지어 세례를 외국선교사에게 받았다는 이유로 목사안수를 받지 못할 정도이니 외국에서 목사안수를 받거나 선교사로 파송받는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거부감을 갖을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지도력은 인위적으로 키울 수 없다. 세상의 지도력은 어느정도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도력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다. 자칫 의욕이 앞선 나머지 이점을 간과한체 한국교회가 중국선교에 임한다면 중국교회에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점을 명심하고 한국교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국교회의 자생적 지도력개발을 도와야 할 것이다.

이동화/ 본지 발행인

중국을 주께로

특집 / 중국의 종교

8 중국의 종교 현황 편집부

10 중국교회 얼마나 알고 있나? 석은혜

16 중국의 이슬람교 장경희

22 중국의 도교와 불교 손바울

27 티벳불교의 이해와 선교적 전망 한윤숙

32 유교는 과연 중국에서 부활될 것인가? 원빈(文彬)

선교나침반

4 선교일언 중국이 이 세대 안에 복음화될 수 있을까? 김형익

38 중국 교회 현주소 중국의 종교정책과 기독교 상황 판옌(凡言)

44 선교전망대 지식인 선교-캠퍼스 사역의 실제 마민호

50 디아스포라 한국인 패션의 도시 따롄(大連) 밀한알

54 중국의 관문도시(5) 복음의 관통로, 중국의 관문도시들 연구부

58 궁금합니다 중국 대학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석은혜

헌신의 삶

60 현지에서 온 소식 위로와 축복이 필요할 때 김아람

62 중국성도 간증 황야에서 만난 예수님 어메이(蛾眉)

70 중국 교회 체험기(17) 추수할 곡식과 부족한 일꾼 무명

인물·역사

67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사(6) 33년 간 중국 선교사로 활동한 이대영(李大榮) 목사 김교철

72 중국선교의 발자취 21년 선교의 결산 방지일

75 중국 교회 순례(13) 산골짜기의 백합화 리펑페이(李鵬飛)

78 중국선교사 행전(8) 투기장이의 무대에 선 이소벨 쿤의 삶 김종형

중국은 지금

82 중국은 지금 중국 전역을 휩쓰는 대학 졸업생 취업전쟁 장쉰(江迅)

86 중국동향 초점 중국에 부는 인터넷 열풍 연구부

기획 / 중국 소수민족을 알자

91 윈난성의 소수민족(V)-리쑤족(傈僳族) 김중하

1998년 11, 12월 통권 제54호

중국을 알자

37 중국 · 중국인 **중국 도시민들은 무엇으로 바쁜가?**

100 중국체험 **내가 만난 베이징의 보통 여성들** 석은혜

106 중국단기선교여행코스(10) **찬란한 고대의 유적지로 남은 란저우와 둔황** 유재승

110 중국 문화 **중국인의 무속관념** 이민선

자료실

122 유럽 및 미대륙에서 중국에 파송한 선교단체 명단

1 발행인 칼럼 **자생적 지도력** 이동화

6 묵상의 샘 **자의식**

53 중국인의 유모어 **不識人(양보를 모르는 사람)**

104 선교 중국어 **醫病禱告(치유 기도문)**

105 중국어 복음성가 **更新我心意(항상 진실케)**

113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 중국동향

118 선교 다이제스트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소중한 사람들 외1권**

119 신간도서 **『중국의 어제와 오늘』 외 2권**

120 선교단신/ 새 일꾼을 찾습니다.

121 알려드립니다.

별책부록 『중국 기도』(98.11,12월)

표지설명

중국 국무원 발표에 의하면 현재 중국의 종교 신도는 1억여 명이다.
그 중 기독교(개신교) 교인은 1천만 명이다.
그러나 가정교회 교인을 포함하면 교인은 7천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진은 중국 천주교회에서 '영성체' 의식을 행하고 있는 모습)

중국이 이 세대 안에 복음화될 수 있을까?

김 형 익

100년 전의 열정

100여 년 전, 구미의 선교계는 '1900년까지 세계복음화를 끝내자'고 하는 움직임으로 적잖은 긴장과 흥분을 느꼈었다. 리더십을 발휘했던 이들 중에는 피어슨(Arthur Tappan Pierson) 박사가 있었다. 1881년 미국에서 발행되던 Missionary Review에 피어슨 박사가 쓴 한 논단이 실렸는데, "세계가 20년 안에 복음화될 수 있을 것인가?"하는 제목이었다. 이 논단은 이후 20년 동안 많은 논란을 낳기도 하였지만, 사도행전 시대 이후 가장 흥분된 시간들 중 하나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전적으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피어슨 박사의 이런 비전과 열정의 상당부분은 1877년의 상하이(上海) 선교대회(Shanghai Conference)에서 불붙어진 것이다.

1877년 5월이었다. 당시 중국에서 사역을 하던 대부분의 교단을 대표한 120여 명의 선교사가 중국의 복음화를 논하기 위하여 상하이에 모였다. 그들이 이 회의를 통하여 발표한 선언의 내용은 오늘날 중국 선교를 염두에 둔 우리에게 대단히 의미심장하다.

"우리는 중국이 이 세대 안에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란다. 그것은 가능하다. 우리의 주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교회가 자신의 대사명(great commission)에 성실하기만 하다면, 그것은 성취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이여, 우리는 중국의 수억의 영혼들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너무나도 부족했고, 더욱이 우리의 움직임 또한 왕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만일 오늘 이 밤의 회의가 우리가 이전에 해왔던 것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에 중국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 회의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온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그 고귀하고 영광스러우며 위대한 사역을 위해 깨어 일어나도록 하는 탄원문-호소문-이 나올 수 있다면, 이 회의는 결코 헛되이 열린 것이 아닐 것이다."

이 탄원서는 중국의 현장에서 사역을 하던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신념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소위 '중국의 신속한 복음화'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오늘의 중국 선교를 생각하는 우리 자신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그리고 어떤 신념이 있는가?

하여간, 이들의 최후의 개척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중국에서만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대륙, 모든 인종에게로 확산되었고, 19세기는 그야말로 근대선교를 시작한 첫 세기로서 라투렛(Kenneth Scott Latourette) 박사가 표현한 대로 '위대한 세기(The Great Century)'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들의 비전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피어슨(A.T. Pierson) 박사가 1895년에 인정하였듯이, 1900년까지 세계는 완전히 복음화되지 않았고, 미완성의 과업은 그 다음 세대들에게로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왔다.

우리 시대의 도전

다시 일백 년이 흘러서 우리는 세 번째 천년을 불과 두 해 남짓 남겨둔 시점에 서 있다. 100여년 전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대도 시대적 특성상 '2000년까지의 세계복음화'라는 한시적 목표가, 구미만이 아닌, 세계의 선

請問, 寄到南京的信要貼多少錢郵票?/ Qǐngwèn, jìdào de xìn yào tiē duōshao qián yóupiào?
(칭원, 지따오 난징 더 신 야오 티에 뚜오사오 치엔 요우파오?) 실례지만, 남경에 부치는 편지는 얼마짜리 우표를 붙여야 하죠?

교계를 흥분시켰지만, 우리는 다시 한 번 실패를 자인해야 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전세계적인 부흥을 부어주시는 예외적이고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다.

피어슨 박사가 지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보고 있는 것 같다. 헌금, 믿음, 그리고 개인적 거룩함, 무엇보다도 기도의 결핍이 이 실패를 가져온 것이다. 말하자면 교회가 영혼을 경시한 것이다.

남아 있는 과업을 보자. 큰 그림을 그리자면, 두 거대한 그룹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 바로 이슬람과 중국이다. 그들은 모두 12-13억이라는 인구와 신도수를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이 두 세력의 복음화는 미완성 과업의 성취를 생각할 때, 넘어서지 않을 수 없는 두 고봉(高峰)이다.

이슬람은 그렇다 치고, 중국을 생각해보면 고봉이라 해서 정복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필자는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로부터 개방에 이르기까지의 현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분명하다고 믿는다. 공산화 이후 근 반세기 동안 하나님이 중국에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중국 복음화율에 대한 어떤 통계자료에 의거하든지 놀라운 것임에 틀림없다. 하나님은 한 세기 전의 사람들, 특별히 1877년에 상하이에 모였던 중국 주재 선교사들이 꿈꾸고 바랐던 세계복음화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놀랍고 신속하게 실증하신 것이다.

오는 세대의 새로운 가능성

중국의 개방과 한국과의 수교는 중국 선교의 가능성을 한층더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게 느끼게 해준 것만은 틀림없다. 다만, 이것이 대다수의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것이어서 예측과 전략에 근거하여 접근하지 못하였던 점이 아쉬움이긴 하지만 말이다. 수교 후 6년이 지나가는 동안 수를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한인 청년들이 중국으로 유학의 길을 떠났고 공부를 마쳤거나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다. 마치 우리 역사의 어느 시간에 중국을 큰집으로 생각했던 때에, 많은 우리 청년들이 중국으로 유학의 장도에 올랐던 것처럼 말이다. 세월이 흘렀고 관계도 바뀌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많은 청년들이 북경만이 아니라 온 중국에 다 퍼져서 중국을 배우고 있다. 물론 그들 모두가 다 주님을 아는 자들은 아니다. 그러나 필자는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오는 세대의 중국 선교의 가능성을 읽는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원래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은 중국에 가 있던 디아스포라 조선인을 통해서였다. 처음부터 조선에 선교사가 들어온 것이 아니지 않은가? 중국 만주에 와서 사역을 하던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선교사 존 로스(John Ross) 목사를 통해 서상륜이 복음을 받으면서부터가 아닌가?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이 땅에 발을 내딛기 전에 이미 서상륜의 활동을 통하여 황해도 장연군에 소래교회가 이미 세워지지 않았던가?

이제는 우리가 빚을 갚아주어야 할 때가 된 듯하다. 그것도 역시 중국에 임시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 청년들을 통해서 말이다. 그들이 한국에서도 만나지 못하였던 예수를 그 땅에서 만나고, 급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져서는 중국의 복음화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중에 누가 그들보다 더 중국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중국의 전문가들이다. 가장 순수하게 동력화 될 가능성이 많은 잠재적 자원들이다. 어떻게 그 자원들의 잠재력을 현실화하고 동력화하여 신속한 중국의 복음화를 이루어 갈 것인가?

빅토리아 여왕의 명령이라면

19세기 말 빅토리아 여왕이 다스리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의 놀라운 제국주의적 확장이, 신속한 세계 복음화의 소망을 부추긴 것도 사실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것이다. 빅토리아 시대에 한 영국 목사가 대영제국의 군인들에게 물어보았다. "만일 여왕이 한 칙령을 발표하면서 대영제국의 군대에 명하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그 칙령을 선포하라'고 하였다면, 당신 생각에는 대영제국 군대가 그 명령을 수행하는 데 얼마나 걸릴 것 같소?" 그러자 명령수행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은 어느 한 군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글쎄요, 내 생각에는 한 18개월 정도만 주어지면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대영제국 당시 여왕의 명령만큼도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100여 년 전 우리 선배들의 기개와 비전 그리고 열정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중국은 그리 크지 않다. 그리고 그 일은 오래지 않아 성취될 것이며 중국은 이 세대 안에 복음화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김형익/ 선교사 · PWM 한국상임총무

자의식

내게로 오라. (마 11: 28)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숙한 생활을 하기를 바라신다. 그런데 우리 생활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자기 속만 드려다보는 함정에 빠지는 때가 있다. 자의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온전한 삶의 조화를 파괴하는 첫 번째 요소이다. 자의식은 갈등을 연속적으로 자아낸다. 자의식은 죄가 아니다. 그것은 기질상의 이유나 새 환경에 갑자기 던져졌을 경우에 생길 수도 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일만 분의 일이라도 부족한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 안에서의 안식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즉시 제거되어야 한다. 그냥 무시해 버린다고 될 일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써만이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의식을 달라고 청하면 주 안에서 거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때까지 항상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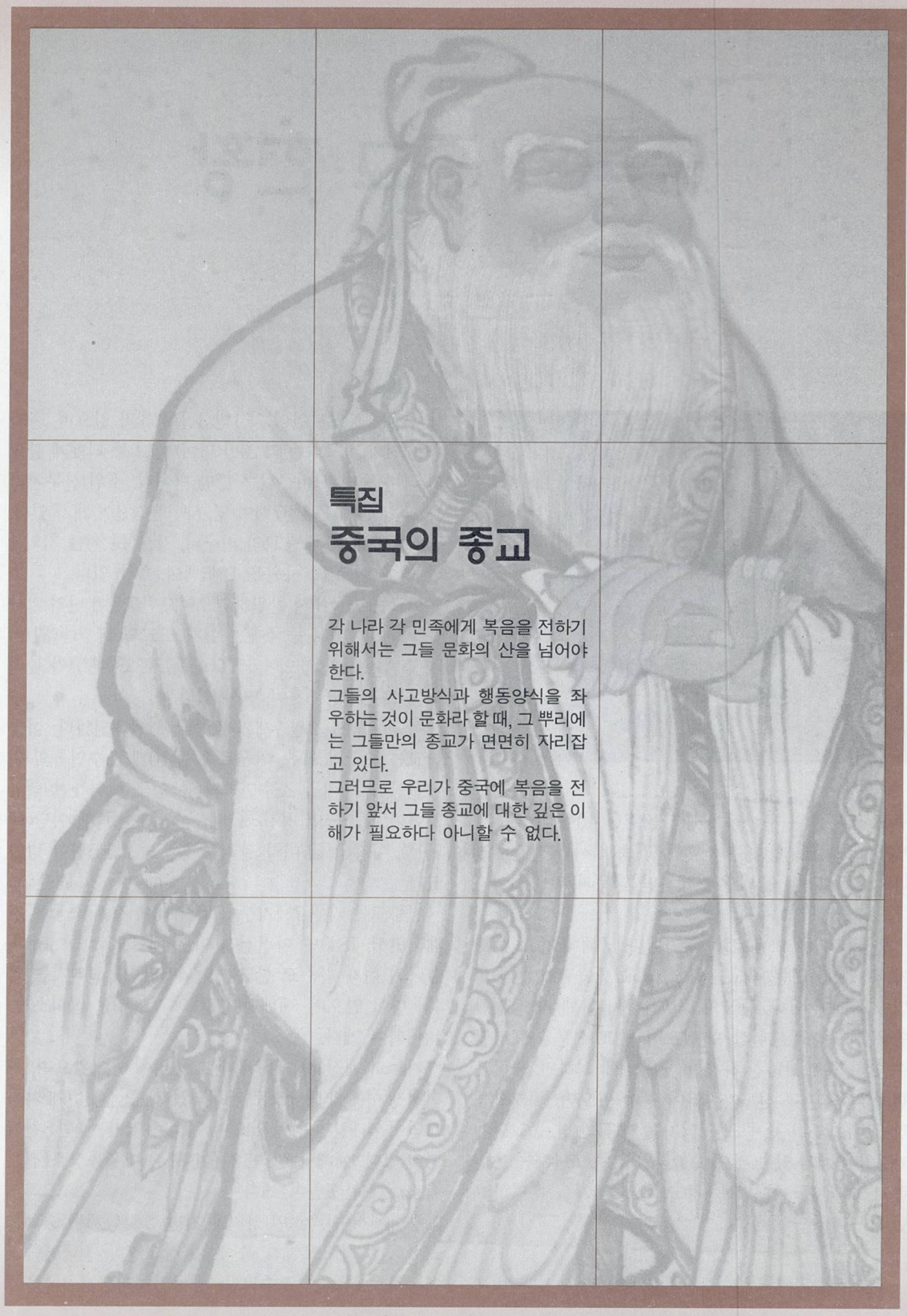
당신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친구나 환경의 영향에 좌우되며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면서 살라. 주님과의 연합일치를 갈라놓으려는 것을 경계하라. 주님으로부터 이탈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영적으로 바른 삶을 유지하는 것처럼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비결은 간단하다.

"내게로 오라."

우리 삶의 심층의 깊이를 지적, 도덕적, 영적으로 잴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하나로 판정된다. 그런데 우리는 참되지 못한 것을 놓고 주님께서 나아가는 대신 구구한 이론과 구실을 끌어대고 있다.

이 글은 기독교문서선교회에서 출판한 오스왈드 챔버스 저, 「주님은 나의 최고봉」 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您奇平信還是掛號信? / Nín jī píngxìn háishì guàhàoxìn?
(닌 지 핑신 하이스 꽈하오신?) 일반우편으로 부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등기로 부치시겠습니까?



특집
중국의 종교

각 나라 각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 문화의 산을 넘어야 한다.
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좌우하는 것이 문화라 할 때, 그 뿌리에는 그들만의 종교가 면면히 자리잡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국에 복음을 전하기 앞서 그들 종교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我要寄航空掛號信。 / Wǒ yào jì hángkōng guàhàoxìn.
(워 야오 지 항콩 꽈하오신.) 나는 항공등기우편으로 부치려 합니다.

중국의 종교 현황

편 집 부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1997년 10월 16일자로 "중국의 종교신앙 자유 상황"이라는 백서를 발간하였다. 그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은 다종교(多宗教) 국가이다. 중국의 종교 신도가 주로 신봉하는 종교는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및 기독교가 있다. 중국의 공민은 자유롭게 자신의 신앙을 선택하고 표현할 수 있으며, 종교 신분을 표명할 수 있다. 불완전하긴 하지만 한 통계에 의하면, 중국은 현재 각종 종교 신도가 1억여 명이 있으며, 종교활동 장소는 8만 5천 곳, 종교 교역자는 약 30만 명, 종교단체가 3천여 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종교단체는 또한 종교 교역자를 양성하는 종교 학교 74개를 운영하고 있다.

불교는 중국에서 이미 2천년 역사를 갖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불교사원이 약 1만 3천여 개가 있으며, 출가한 승려와 비구니는 약 20만 명이며, 그 중 티벳계 불교의 라마 승려와 비구니는 12만 명이다. 소위 산부처라는 활불(活佛)은 1천7백여 명, 사원은 3천여 개가 있다. 팔리어(Pali語)계 불교의 비구니, 장로(長老)는 거의 1만 명에 이르고, 사원은 1천6백여 개가 있다.

도교는 중국에서 발원하였으며, 1천 7백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국에는 현재 도교의 궁관(宮觀)이 1천 5백여 개가 있으며, 건도(乾道), 곤도(坤道)라 불리는 신도는 2만 5천여 명이 있다.

이슬람교는 기원 7세기에 중국에 전래되었다. 이슬람교는 중국의 회족, 위구르족 등 10개 소수민족의 민중신앙이다. 이들 소수민족의 총 인구는 약 1천8백만 명이며, 모스크인 칭전스(淸眞寺)는 3만여 개, 이맘(伊瑪目), 아훙(阿訇)이라 불리는 신도는 2만 5천여 명이 있다.

천주교는 기원 7세기부터 몇 차례에 걸쳐 중국에 전래되면서, 1840년 아편전쟁 이후 대규모로 들어왔다. 중국의 현재 천주교 신도는 약 4백만 명, 교역자는 약 4천 명이 있으며, 예배당(教堂), 회소(會所, 집회소)는 4천6백여 개다.

기독교(개신교)는 19세기 초 중국에 들어왔으며, 아편전쟁 이후에 대규모로 전래되었다. 중국에 현재 기독교인이 약 1천만 명이 있으며, 목회 사역자는 1만 8천여 명이 있다. 예배당은 1만 2천여 개, 간이활동장소(집회처소)는 2만 5천여 개다.

중국에서 전국적인 성격을 지닌 종교단체는 중국불교협회, 중국도교협회, 중국이슬람교협회, 중국천주교애국회, 중국천주교주교단,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

這封航空信寄到倫敦貼一塊錢郵票夠嗎?/ Zhè fēng hángkōngxìn jìdào Lúndūn tiē yí kuài qián yóupiào gòu ma?
(쩌 펑 항콩신 지 따오 룬둔 티에 이 콰이 치엔 요우퍄오 꺼우 마?)
이 항공우편을 런던에 부치는데, 1원 짜리 우표를 붙이면 됩니까?

위원회, 중국기독교협회 등이다. 각 종교단체는 각자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도자를 선거하고, 지도기구를 결성한다.

중국의 각 종교단체는 자주적으로 교무(教務)를 운영하고 처리하며, 또한 필요에 따라 종교 학교를 개설 운영하고, 종교 경전을 인쇄 발행하며, 종교 간행물을 출판하고, 사회공익 봉사 사업을 전개한다. 중국은 세계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종교와 교육을 분리하는 원칙을 실행하며, 국민 교육 중 학생들에게는 종교 교육을 시키지는 않는다. 일부 대학교 및 연구기구에서는 종교학을 가르치며 연구하고 있다. 각 종교조직이 개설 운영하는 종교학교에서 각 종교의 필요에 의거하여 종교학을 전공으로 교육시킨다.

종교 교역자가 수행하는 정상적인 교무활동은 종교활동 장소 및 종교 습관에 의거해 신자 자신의 집에서 행하는 모든 정상적인 종교활동으로, 예를 들면 참배, 경전낭송, 예배, 기도, 경전 강해, 설교, 미사, 세례, 수계(受戒), 봉재(封齋: 라마단과 관련된 제전), 종교절기 행사, 종부(終傅), 추도 등으로 모두 종교조직과 교도(教徒)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고,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발생한 「문화대혁명」은 종교를 포함한 중국 사회 각 방면 모두에게 대재난이라 할 만한 파괴를 가져왔다. 따라서 중국의 각급 정부는 「문화대혁명」의 과오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종교신앙 자유정책도 회복하고 정착시켰다. 대단히 큰 노력을 기울여 종교계 인사 중 억울하거나 착오로 누명을 쓴 자들을 복귀 복원시켰으며, 종교활동 장소를 회복시키고 재개방하였다.

중국정부는 종교 광신을 이용하여 인민과 국가를 분열시키거나, 각 민족 사이의 단결을 파괴하는 민족분열주의를 단호히 반대한다. 또한 종교를 이용하여 불법활동과 공포주의를 조장하는 활동을 단호히 반대한다. 국가의 통일과 소수민족 지역의 사회 안정을 단호하게 지키며, 소수민족 종교 신자들의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

중국정부는 국제 사회의 종교신앙 영역에서 공인된 원칙을 존중하며, 이런 원칙이 반드시 각국의 구체적인 상황과 서로 결부되어야 하며, 또한 각국의 국내 법률을 통해 실시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종교 영역에서 대항을 일으키는 것을 반대하며, 종교를 이용하여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대혁명으로 소멸된 종교를 1979년에 시작한 개혁개방과 함께 부활시킨 중국은 정부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외국 선교사들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삼자원칙 아래서 허용하고 있다.

1억여 명의 종교 신도 외에도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각종 점, 역술, 관상 등 미신의 열풍에 사로잡혀 있다. 정치, 교육, 문화의 중심지인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도 근래 몇 년 사이에 점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국가중앙기구 등에도 역술(易術)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 역술이나 점술에 빠지거나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과는 달리 소위 지식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중에는 심리학자나 천문지리학자도 있다.

최근 한 연구단체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충칭(重慶), 선전(深圳), 하얼빈(哈爾濱), 홍콩(香港) 등 중국의 주요 7개 대도시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직접 만나 이들이 점을 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점과 운명에 대한 생각을 들어본 결과, 도시에 거주하는 지식인 혹은 해외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조차도 운명은 개척하는 것이라는 사회주의적(?) 사고보다는 운명을 믿고 따른다는 숙명론적인 대답이 많았다고 한다.

그 외에도 많은 중국인들은 마오쩌둥(毛澤東)이나 저우언라이(周恩來)의 사진을 택시나 자동차 운전석 앞에 걸어 놓고 다닌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마오쩌둥이나 저우언라이가 자신들을 지켜주고 복 주는 수호신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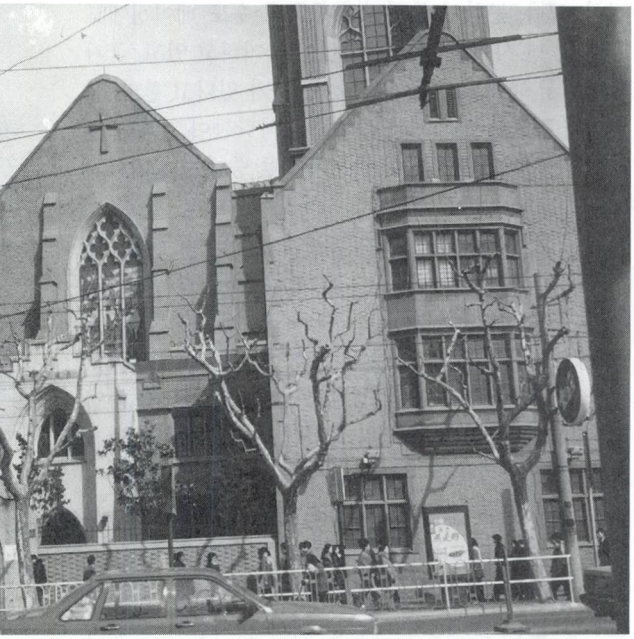
이렇게 종교 신도뿐만 아니라 미신을 추종하거나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중국이 개방화되면서 부딪친 심각한 배금주의 현상으로 중국인들이 정신적, 영적으로 기갈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지에서 특집으로 중국 종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국 신도들이 신봉하고 있는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도교, 라마불교, 유교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나마 다루었다.

편집부

중국 교회 얼마나 알고 있나?

석 은 혜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IMF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대대적인 통화 평가절하의 영향으로 수출감소를 기록했다. 또한 이번 여름의 홍수로 인한 피해가 커서 금년도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듯하다.

그러나 중국은 중·미(中·美)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과 관계확대를 위한 걸음을 바쁘게 하고 있고, 정치, 경제적으로 세계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교회도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있다. 많은 중국선교 전문가들은 중국교회가 앞으로 21세기 세계선교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교회가 언제부터 존재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는지와 현재 그들의 문제점과 필요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교회는 삼자교회와 가정교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다. 중국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삼자교회는 다 나쁘고, 가정교회는 다 좋다는 식의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다.

중국 교회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존재하고 있는 교회로, 한국 교회와는 다른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과 삼자, 가정교회 각자 고유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중국 교회를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한 후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긴다면 중국 선교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의 중국 전래 역사

기독교는 635년 중동으로부터 들어온 네스토리우스파 선교사들을 통해 중국에 유입되었다. 경교(景教)라 불리운 네스토리우스파는 고위층을 중심으로 210년 간 전파되다가 845년에 있었던 당(唐) 무종(武宗)의 반불교도 박해시기에 소멸되었다. 781년에 건립되어 현재 시안(西安)에 전시되어 있는 「대진경교유행중국비(大秦景教流行中國碑)」만이 그들의 선교적 노력을 증거할 뿐이다.

그 후 원(元)나라 때 카톨릭 선교사들이 파송되었다. 프란체스코회 선교사였던 몬테코르비노(John of Montecorvino)가 1294년 원나라에 도착해서 고아 소년들을 훈련시켜 현지인 성직자로 세우려고 시도하는 등 많은 선교사역을 하였다. 1305년에는 6천 명의 세례자가 있었다. 그러나 그가 죽자 천주교가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끊어져 버렸다.

중국을 복음화 시키려는 세 번째 시도는 명(明) 왕조

這封信超重五克, 要貼一塊四毛錢的郵票。/ Zhè fēng xìn chāozhòng wǔ kè, yào tiē yí kuài sì máo qián de yóupiào.
(쩌 펑 신 차오중 우 커, 야오 티에 이 콰이 쓰 마오 치엔 더 요우퍄오.)
이 편지는 5g을 넘었어요. 1원 40전 짜리 우표를 더 붙여야 합니다.

(1368-1644) 말기에 예수회 소속의 신부였던 프란시스 사비에르(Fransis Xavier)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사비에르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숨졌으나 예수회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중국에 파송하였다. 그 중에 성공한 사람이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1552-1610) 신부였다. 그는 1582년에 중국에 처음 도착한 이후 18년 동안 많은 인내와 신중함으로 토착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 1601년에 드디어 베이징에서 전도하게 되었고, 1610년 사망할 때까지 중국에 있었다. 그가 보여준 우정과 서양의 과학적 지식을 중국 땅에 전해 준 공로 때문에 그는 중국의 관리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1584년에 천주교인이 단 세 사람이었는데, 1670년에는 27만 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예수회는 중국인이 공자를 공경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것을 허용하며 선교적으로 접근하고있었다. 프란체스코와 도미니쿠스회가 중국에 정착함에 따라 이것이 '의례논쟁(儀禮論爭)' 이 되어 이들 사이에 내적 갈등이 야기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중국황제와 교황 사이의 권위의 충돌로까지 발전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더 악화되어 급기야는 1724년에 옹정 황제의 칙령이 공포되어 천문학자로서 베이징(北京) 정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소수의 예수회 과학자들을 제외한 모든 카톨릭 선교사들이 추방되기에 이르렀다. 교황청은 1775년 예수회를 해산시켜 버렸다.

중국 개신교, 오늘이 있기까지

1807년 영국 런던선교회 소속이었던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이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중국선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는 중국선교를 위한 네 번째 시도이다. 당시 외국인은 중국에 들어갈 수 없었기에, 그는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카오에서 거주하면서 중국어 사전 편찬, 성경번역 등의 문서사역을 하였다. 그러나 아편전쟁에서 영국에 패한 중국은 난징조약(1842년)을 조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외국 선교사가 중국 연안 5개 항구(광저우(廣州), 샤먼(廈門), 푸저우(福州), 닝보(寧波), 상하이(上海)) 범위 내에서는 전도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는 1853년에 중국에 첫 발을 내딛었고, 1865년 중국내지선교회(China Inland Mission)을 설립했다.

제2차 아편전쟁에서 패한 중국은 텐진조약(1858년)과 베이징조약(1860년)을 체결하게 되었고, 외국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기독교를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외국 선교회들은 많은 선교사들을 중국에 보냈고 전도, 학교설립, 병원설립, 출판사업 등의 사역을 했다. 이러한 선교사역의 형태는 중국이 공산화된 1949년까지 계속되었으며, 중국의 선교사역이 활발해지면서 중국 현지의 전도 동역자도 양육되기 시작했다.

1900년 의화단(義和團) 사건인 반기독교 운동으로 2,000여 명의 개신교 신자, 189명의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들이 순교를 당했다. 1911년 청 왕조는 손문의 민주주의 혁명에 의해 붕괴되었다. 민국(民國) 성립 후 기독교는 합법적 지위를 얻게 되어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었다. 중국 신도들은 선교 책임을 느껴, 뜻을 세워 자립교회를 설립했다. 1918년 중국교회 지도자들은 중화내지전도회를 발기하였고, 최초로 중국인이 조직한 선교회가 생겼다.

1920년부터 1922년까지 중국의 학생들과 지식인들은 신문화운동(New Culture Movement)을 벌였다. 그들은 오직 과학과 민주주의만이 중국을 구해낼 수 있다고 믿고, 기독교를 미신적인 것으로 여겨 이를 거부하는 반기독교운동(1992년)을 일으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기에 많은 자립교회가 건립되었는데 경전잉(敬奠瀛)이 세운 예수가정(耶穌家庭), 왕밍따오(王明道)가 세운 기독도회당(基督徒會堂), 워치만 니(倪柝聲)가 인도하는 소군교회(小群教會) 등이다. 교회는 핍박을 받았으나 끊임없이 성장하였다.

1930년대 교회는 더욱 서로간의 단합과 '토착화운동'을 중시하고 삼자운동인 자치(自治), 자양(自養), 자전(自傳)을 강조했다. 삼자 정신은 적지 않은 중국신도들에 의해 인정받게 되었으며, 20, 30년대의 교회는 이미 서양적 색채에서 탈피하여 중국에 맞는 교회를 건립하고자 했다. 그러나 삼자는 다만 하나의 구호일 뿐이었고,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고, 1951년에 이르러서야 하나의 조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오요종(吳耀宗)이 주석이 되어 이 운동을 주도해서 서양교회 배척운동을 했는데, 서양 선교사들 배척 뿐만 아니라 서양교회와 무관한 자립교회 지도자인 워치만 니, 왕밍따오 등도 모두 투옥하였다. 1949년 당시 기독교인은 80만 명 정도였다.

1954년 7월 중국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가 정식으로 설립되었으며, 이에 가입치 않으려는 전도인은 모두 체포되었다. 목회자들은 모두 노동생산에 투입되었고, 예배 드리고자 하는 신도들은 비밀리에 가정집회를 조직하게 되었다. 1955년 10월 정부는 삼자 이외의 어떤 기독교 활동도 불법이라고 선포하고 전국 교회를

중국에서는 18세 이하의 어린이를 입교 시킬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사진은 어느 삼자교회 성가대 모습)

대대적으로 합병하여 교회 숫자를 크게 감소시켰다. 상하이에서 약 200개의 교회가 15개로, 베이징에서는 64개의 교회가 4개로 합병되었다.

문화대혁명(1966-1976) 시기에는 삼자의 활동조차도 정지되고 교회는 큰 핍박을 경험하였다. 1976년 모택동이 죽고 문화대혁명이 끝이 나자, 1979년에 삼자교회가 다시 문을 열렸다. 이 삼자(자치, 자양, 자전)는 일찍이 중국 교회에 존재하던 것이었기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종교정책,

1979년 중국의 강력한 개혁자인 덩샤오핑(鄧少平)이 통치자가 되면서 중국 공산당은 제한적이나마 종교를 허용하는 종교정책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삼자애국운동위원회가 재건되었고, 종교사무국의 지도하에 당의 종교정책을 대행하는 일이 삼자회에 위임되었다.

문화대혁명동안 중국공산당의 종교정책은 강제적으로 종교를 근절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76년 마오쩌둥의 죽음과 사인방의 몰락은, 앞으로 중국공산당이 실질적인 모든 분야에서 정책의 전환을 보일 것을 예고해 주었다.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말이 슬로건이 될 정도로 중국은 4대 현대화의 노선에 맞추어 그 정책의 방향도 재조정해갔다.

1980년대 후반에 중국공산당의 철학자들은 현재의 중국은 사회주의 초기단계에 있다고 천명했다. 따라서 당의 지도자들은 국가적인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생산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력이며, 우리가 가장 우선 해야 할 일은 인간 안에 있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기질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종교인들을 포함한 전 인민이 4대 현대화 작업에 자신을 폭넓게 투자하도록 그들을 고무시키는 것이다."

이들 지도자들은 중국 공산당이 종교를 근절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견해는 오로지 고통당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만이 종교를 필요로한다는 신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이 빈곤과 후진성의 문제, 그리고 자연재해와 인간 생활고의 문제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한, 몇몇 인민들이 종교에 의존하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고 여겼던 것이다. 오직 중국공산당은 어떻게해서든 인민 모두를 현대화 작업에 동원시키려고 했다.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 내에서, 종교는 당의 목적을 위해서는 때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조정될 수도 있는 하나의 현상이었다. 4대 현대화가 성취되면 종교는 결국 소멸하게 될 거라고 그들은 확신한 것이다.

중국은 1982년에 개헌을 했는데, 그 중 제36조에 "중화인민 공화국은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국무원과 종교국에서는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의 5대 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중국의 종교정책을 주관하는, "사회주의 시기의 종교문제에 대한 국가의 기본입장과 정책에 관하여"라는 표제가 붙은 19호 문건에서 "공민은 종교 신앙 자유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불신앙 종교의 자유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문건에서 "절대로 어떠한 사람에게도 종교를 강요할 수 없으며, 특히 18세 이하의 어린이를 입교시킬 수 없다."는 등 신도의 활동을 제한하는 항목들이 있다.

이 문서에는 "정상적인 종교활동"과 "비정상적인 종교활동"이 존재하고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여기서 "정상적인 종교활동"이란 삼자애국운동위원회와 중국기독교협회 등 중국이 인정하는 애국적 종교단체들의 감독하에서 행해지는 활동들을 의미한다. 정상적 종교활동을 좀더 풀어 설명한다면, 삼정정책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삼정(三定)이란 정편(定片-지정된 사역의 범위), 정점(定点- 지정된 교회), 정인(定人-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새로운 정책은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순회설교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법률이 정해놓은 법조문과 정부의 종교 정책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래로 종교는 계속 발전하여 결국 종교의 붐과 과열현상이 나타났다. 게다가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선교사들도 여러 모양으로 들어가 중국 교회를 돕고 있다. 삼자원

您喜歡哪套, 請自己挑吧。/ Nín xǐhuan nǎ tào, qǐng zìjǐ tiāo ba.
(닌 시환 나 타오, 칭 쯔지 티아오 바.) 어느 세트를 좋아하시는지요, 손수 골라보세요.

칙을 주장하면서 외국인의 활동을 규제해 오던 중국 정부는, 1994년 1월에 국무원령으로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과 "종교활동장소 관리조례"를 발표해 외국인들의 중국 내에서 활동 규제를 문서화하였다. 1995년 11월에는 "상하이시 종교 조례법"이, 1997년 12월에는 "지린(吉林)성 종교사무 조례"와 "광저우(廣州)시 종교사무 관리조례" 등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계속적으로 종교정책을 법제화하여 외국선교사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있으며, 사역을 하다 발각된 사역자는 벌금을 물리고 추방시키는 등 최근들어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삼자교회와 가정교회

다시 삼자교회가 문을 열었지만, 어떤 기독교인들은 삼자교회의 정치적인 색깔을 인식하여 여전히 가정교회에 남아 있기로 했다. 이 때부터 삼자교회는 공산당과 연합하여 가정교회 및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삼자에 가입하도록 강요하거나 공안국에 고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삼자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로 변하고 있으며, 해외교회들도 '삼자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인정하면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이들을 돕는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중국 국무원에서 밝힌 <백서>에 의하면, 1980년대 이래 매년 회복되어 새로 건축된 교회가 6백여 개소이다. 1966년 말까지 인쇄된 <성경>의 발행 총수는 1천8백여만 권에 이르고 있고, 중국기독교협회가 1983년부터 편집 출판한 찬송가 <찬미시(讚美詩)>는 발행 총수가 8백여만 권에 달한다.

또한 현재 성도수는 약 1천만 명, 목회자는 1만 8천여 명, 예배당은 1만 2천여 개소, 간이활동장소(집회처소)는 2만 5천여 개소이다. 교회는 계속 부흥되고 있고, 성도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일례로 베이징에 있는 충원먼(崇文門)교회의 주일예배를 보면 매주마다 3천여 명이 참석하여 예배를 드린다.

그렇다면 현재 삼자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 여전히 지도자가 부족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삼자교회는 1천8백여 명의 목사가 있는데, 이들이 1천만 명 정도의 신도를 양육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정저우(鄭州)에 있는 어떤 목사의 경우 그가 담임하는 교회는 한 곳이라 하더라도 동시에 100여 곳의 집회소를 돌보아야 한다. 원래 맡겨진 설교, 양육사역 및 회의 등은 이미 빈틈없이 시간이 짜여져 있는데, 또 덤으로 각 집회소의 지체들의 필요를 돌아본다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들다고 말한다.

둘째, 삼자교회는 주일학교 발전에 어려움이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삼자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없다. 어떤 지방에서는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주일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어떤 지역에서는 은밀하게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들어 많은 교회에 주일학교가 세워지고 있지만 경험이 없기에 주일학교 교육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셋째, 공개적인 전도대회는 가질 수 없다. 삼자교회의 어느 목사의 말에 의하면 개방 후 교회의 성장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일부러 전도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현재 신도들이 대부분 자기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고 있고, 교회 내의 교인수가 많아짐에 따라 목사의 목회능력을 초과하고 있어 목회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 내의 전도집회는 필요치 않다고 말한다.

중국 가정교회는 공산당의 통치하에서 생긴 교회이다. 문화대혁명 기간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되자 그리스도인들이 집에서 몰래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교인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중국선교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의 기독교인 수가 7-8천만 명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중국 기독교인의 80% 이상이 가정교회 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회는 대부분 평신도 사역자들에 의해 인도되어 오고 있다.

1982년 3월, 중국 종교사무국이 발표한 19호 문건에 의하여 가정교회는 정부와 삼자교회의 규제와 통제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계속적인 복음 전파와 성장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다. 그러나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더욱 조직적이고 순교자적인 믿음과 신앙으로 전국에 걸친 복음 전파와 교회 확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백성을 보존시키시고 자신의 목적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이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개별적으로 소그룹 기독교인 모임들이 발생하여 중국의 가정교회는 계속하여 성장, 부흥하고 있다. 가정교회는 주로 저장성(浙江省), 장시성(江西省), 허난성(河南省), 허베이성(河北省), 후베이성(湖北省), 산둥성(山東省) 등에 많이 있다.

這幾種郵票我每樣要兩套。/ Zhè jǐ zhǒng yóupiào wǒ měi yàng liǎng tào.
(쩌 지 중 요우피아오 워 메이 양 야오 량 타오.) 이 몇 종류의 우표에서 각각 두 세트를 주세요.

산간 벽지나 농촌의 편벽된 지역일수록 가정교회가 발달되어 있다. 중국의 비교적 편벽된 지역에는 한두 곳 정도 위임받은 소재지에만 삼자교회를 설립하였다. 그래서 비교적 편벽된 작은 현(縣)이나 작은 도시(城), 작은 향(鄕)에는 삼자교회가 없기 때문에 자연 가정교회가 발달하게 된 것이다.

중국의 가정교회는 형제회를 근거로 한 가정교회, 예수재림교에 근거한 가정교회, 참예수교회에 근거한 가정교회 등 약간 독특한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어떤 가정교회는 삼자교회에서 분열되어 나와 형성된 가정교회로 이런 교회는 매우 많다. 분열된 데에는 매우 많은 원인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의견의 불일치, 지도자의 권력 다툼, 신앙의 견해차이 등등이다.

가정교회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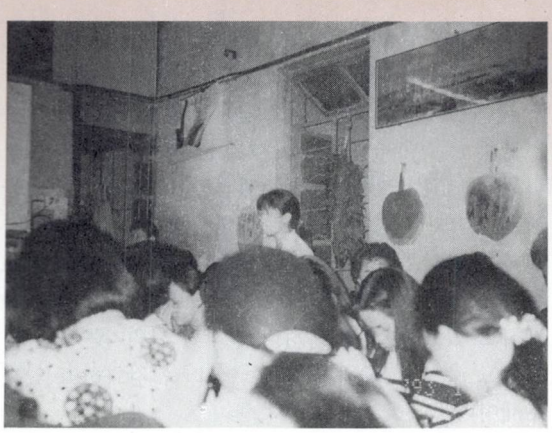
첫째, 훈련된 사역자가 부족하다. 가정교회는 지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여서 찬송 한 시간(부를 수 있는 곡도 극히 제한되어 있음), 기도 한 시간, 말씀을 나누기 보다는 간증식으로 돌아가며 교제하다가 모임을 마치곤 한다. 현재 많은 사역자들이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사역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둘째, 이단이 성행하고 있다. 교회 역사상 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 이단 문제가 늘 따랐듯이, 중국 교회 역시 현재 크게 부흥하고 있는 가운데 이단 문제의 심각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다. 중국 교회 이단으로는 후한파, 중생파, 링링교, 동방의 번개, 토론토의 복, 빼이리 왕이 있다(『중국을 주께로』, 98.9/10월호 참조). 이 외에도 한국에서 들어간 이단도 많이 있다.

가정교회는 복음 전파에 상당히 열정적이다. 전도자들은 이 마을 저 마을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한다.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복음 전파를 위해 시골까지도 간다. 가정교회는 평신도 운동으로 고난을 통하여 부흥되었으며, 그러한 부흥은 전도로 이어져 계속해서 복음이 흥왕하게 증거되고 있다.

중국 천주교의 부활과 부흥

중국에 천주교가 다시 들어오게 된 것은 1842년이다. 1724년 천주교가 철저하게 탄압된 지 약 100년 후에 이루어진 일이다. 1842년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패한 중국은 난징조약에 의해 5개의 항구를 개항하고 영국 상품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기독교 선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따라서 이 때 천주교가 다시 중국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1858년 체결된 톈진조약에서



중국교회는 계속 부흥되고 있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사진은 어느 가정교회 예배 모습)

는 한 걸음 더 나아가 5개 항구 외에도 중국 내지에 천주교 신부들이 들어가서 선교할 수 있었고, 천주교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

그러나 1870년 프랑스 천주교에서 톈진에 세운 고아원에서 유아를 납치해 간다는 소문이 고조되어 중국인들의 불만이 높아져 톈진교안(天津教案)이 발생하였다.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 프랑스 교회당, 고아원, 영사관저 및 영국과 미국의 교회를 불태우고 수십 명의 선교사와 외국인을 죽였다. 또한 1891년 안휘(安徽)성, 장쑤(江蘇)성, 후베이(湖北)성 등지에서 천주교 교회당이 파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1900년 일어난 의화단 사건으로 25,000명의 카톨릭 신자들이 죽기도 했다. 의화단 사건의 주동자들은 서양 원수들을 멸하고 중국을 구하자는 의도에서 난을 일으킨 것이었다.

그런 핍박 중에서도 천주교는 꾸준히 발전하였으나 1949년 마오저뚱(毛澤東)이 정권을 잡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면서 선교사들은 중국을 떠나거나 쫓겨나야 했다. 공산당 정부는 천주교회를 로마 교황청의 스파이로 간주하였고, 로마 교황청 역시 무신론을 신봉하는 공산주의와는 타협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 천주교 선교사는 대략 5천 명, 신도수는 350만 명, 중국인 전도인이 1만 명, 병원 216개소, 고아원 254개소 진료소 781개소 등 대단한 규모였다.

1954년 12월까지 중국에 남아 있던 2,500명의 외국인 신부들은 추방되거나 옥에 갇혔다. 또한 2,700명의 중국인 신부들 중 약 400명이 성직을 박탈당하였다. 개신교와 마찬가지로 천주교가 운영하던 교회, 학교, 병원들이 정부의 손에 넘어갔다. 1957년까지 200여 개 지역에서 애국성향을 띤 천주교 단체들이 설립되었다. 이

我再買五張明信片。/ Wǒ zài mǎi wǔ zhāng míngxìnpiàn.
(워 짜이 마이 우 장 밍신피엔.) 엽서 다섯 장도 더 사겠습니다.

해 7월에 천주교 애국회가 정식으로 발족되어 중국의 천주교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독립하였다.

이제 바티칸은 새 주교를 임명하지 않았고, 중국 천주교인들은 스스로 주교를 선출하게 되었다. 1958년 4월 새로 설립된 천주교회가 로마 교황청을 무시하고 우한(武漢)에서 2명의 주교에게 성직을 수여하였다. 이로 인하여 중국 천주교와 로마 교황청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중국 천주교는 로마 교황청과 결별되었다. 그러나 로마 교황청에 충성하는 신자들은 지하로 숨어 들었고 별도의 모임을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천주교회 역시 삼자교회와 지하교회가 생긴 것이다.

문화대혁명으로 천주교 역시 소멸되었다가 1979년에 천주교 애국회가 개편되었으며, 천주교회도 중국 전역에서 문을 열기 시작했다. 최근 중국 정부측에서 밝히는 바에 의하면 현재 천주교 신도는 약 4백만 명, 교역자는 약 4천 명, 예배당과 집회소는 4천 6백여 개다. 그러나 다른 통계에 의하면 1997년 현재 중국 천주교 신자는 1천만명, 공개된 교회의 주교 68명, 지하교회 주교 58명, 신부는 2,200명, 공개된 교회 신학생은 2,500명, 지하교회 신학생은 700명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 천주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삼자 천주교회와 지하 천주교회와의 갈등이다. 천주교 애국회는 로마 교황청의 권위를 부정하며, 낙태와 피임에 관한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에 함구하고 있다. 이들 중 어떤 신부는 독신의 서약을 파기하고 결혼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정통적인 천주교의 후견인임을 나타내고자 열심을 내고 있다.

지하 천주교회 신자들은 이런 천주교의 신부들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하고 로마 교황청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공인된 천주교회와 지하 천주교회는 적대적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 정부와 로마 교황청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하 천주교회에 대한 탄압과 갈등은 계속될 것이고, 공인된 천주교회와의 적대적 긴장관계는 계속될 것이다.

중국교회 바로 세우기

중국의 신자들은 늘어가고 있는데 공급이 수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어 성경책과 신앙서적이 아직도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성경, 신앙 서적의 부족으로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는 이단이 많이 출현되고 있어 건전한 교육 및 성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유물론 교육을 받고 있는 수 억의 중국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신앙교육을 받기란 너무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주로 연안개방지구나 외국인이 전해주는 도서를 쉽게 접촉하는 일부 지역의 신도들은 많은 신앙 서적과 훈련교재가 있어도 어떻게 활용하는지 몰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기 때문에 서적들이 낭비되는 경우도 많다.

중국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으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선교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중국 교회를 돕고자 하는 자들이 중국의 종교정책과 중국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잘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사역하다가 추방당하기도 한다.

우리는 선교에 앞서 중국의 문화와 종교정책, 중국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것을 선행해야 한다. 중국을 이해하고 나서 중국 선교를 한다면 그 동안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선교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 나와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중국 형제는 한국 선교사들이 너무 가정교회 위주로 선교하고 있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삼자교회를 돕는 사역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잘못된 선교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중국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한 선교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필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앞으로의 중국선교를 장기적이면서도 지혜롭게 하는 방법은 '전문인선교' 라고 중국선교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아무튼 우리가 중국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겸손하고 신중하게 여러 모양으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복음화될 것이고 마침내 21세기 선교의 주자는 그들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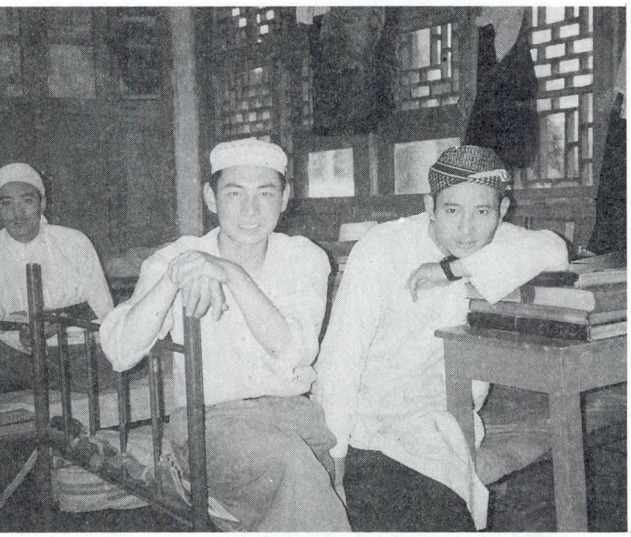
참고서적

『중국선교핸드북』, 조나단 차오 지음, 중국어문선교회 편역, 두란노서원 출판, 1991.
『중국과 교회- 제4호』, 중국복음선교회 연구소, 1998.
『중국기독교사』, 이관숙 저, 쿰란출판사, 1995.
『중국을 알자 III』, OMF Korea, 1994.
『중국천주교』, 로만 말렉 엮음, 정한교 옮김, 분도출판사.
『중국교회의 부활』, 토니 램버트 저, 김창영 외 1인 옮김, 생명의 말씀사
『십자가와 면류관』, 브라이슨 부인 저, 김진선 역, 성광문화사, 1996.

석은혜/ "중국을 주께로" 편집장

중국의 이슬람교

장 경 희



훨씬 더 많은 수의 모슬렘이 중국에도 있다는 사실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위기와 기회의 도전 속에서 아직도 불모지로 남겨져 있는 이슬람권을 소개하는 것은 균형있는 중국 선교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의 이슬람에 대해 인구 및 분포, 사원(모스크)과 교육, 유래와 역사적 발전 과정 및 현황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이슬람권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중국 이슬람을 알리는 기회가 되길 소망한다.

중국에도 모슬렘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중국 선교에 헌신한 한 형제와 이슬람권 선교에 헌신한 한 자매가 만났다. 이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지만, 자매는 소위 말하는 확신(?)이 서지 않아서 쉽게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이게 되었다. 자매는 너무나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모슬렘을 위한 사역자로 소명을 받았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인도함을 구하고 있던 중 이들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취는 순간이 왔다. 바로 중국에 많은 모슬렘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현재 이들은 북서부의 이슬람지역으로 사역자로 파송을 받아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실이다.

흔히들 이슬람은 중동,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다고 생각한다. 이슬람교에 관심을 갖거나 사역자로 헌신한 사람들은 이러한 지역에 나아가기 위해 훈련을 받고 준비를 하는 것이 통례다. 그러나 서울 인구보다도, 아니 남한 기독교 인구보다도

중국 이슬람교의 이모저모

먼저 중국 이슬람에 대한 명칭, 민족, 분포, 교파, 사원, 교육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자.

초기의 모슬렘들은 따스(Tashihs, 大食), 써무(Semu, 色目)라고 불렸다. 색깔있는 눈동자를 가진 외국인 중 90%가 아랍 모슬렘들이었고, 10%가 조로아스터교인, 네스토리안이었기 때문에 후에 모든 Semu를 모슬렘으로 본 것이다. 이것이 14세기 경에 오면서 후이(Hui, 回)로 변하게 되었다. 당시 중국과 가장 밀접하게 살았던 위구르를 비롯한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일대의 모슬렘을 부르는 통칭이 후이꾸(回鶻)였는데, 이것을 한어로 후이후이(回回)라고 불렀다. 이것이 모슬렘을 통칭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에는 중국에 완전히 동화된 모슬렘들을 망명자란 의미에서 후이(Hui)라고 부르며, 이들은 중국 모슬렘을 대표하는 소수민족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이슬람이라고 하

請問, 寄到南京的信要貼多少錢郵票?/ Qǐngwèn, jìdào de xìn yào tiē duōshao qián yóupiào?
(칭원, 지따오 난징 더 신 야오 티에 뚜오샤오 치엔 요우퍄오?) 실례지만, 남경에 부치는 편지는 얼마짜리 우표를 붙여야 하죠?

면, 으레 후이족을 떠올린다.

그러나 중국의 이슬람은 후이족만이 아니다. 후이족 외에도, 위구르, 카자흐, 키르키즈, 타지크, 우즈벡, 타타르, 싸라, 둥샹, 바오안 등 무려 10개의 소수민족이 이슬람을 신봉한다. 이들 민족 중 샤머니즘이나 라마불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으며, 반면 멍(蒙), 바이(白), 짱(藏)족 중에서도 일부 이슬람을 신봉하는 이들이 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중국의 이슬람 인구는 위의 10개 민족 인구를 합한 것으로 보는데, 1990년 통계에 의하면 1,760만 명 정도이다.[1] 이슬람을 신봉하는 민족과 그 인구는 아래의 표와 같다.

〈중국의 이슬람 10개 민족 인구통계표〉

년도 / 민족	1953년	1964년	1982년	1990년
후이(回)	3,559,300	4,773,000	7,228,398	8,602,978
위구르(維吾爾)	3,640,100	3,996,000	5,963,491	7,214,431
카자흐(哈薩克)	509,400	492,000	907,546	1,111,718
둥샹(東鄕)	155,800	147,000	279,523	373,872
키르키즈(柯爾克孜)	70,700	70,000	113,386	141,549
싸라(撒拉)	30,700	35,000	69,135	87,697
타지크(塔吉克)	14,500	16,000	26,600	33,538
우즈벡(烏孜別克)	13,600	7,700	12,213	14,502
바오안(保安)	5,000	5,100	9,017	12,212
타타르(塔塔爾)	6,900	2,300	4,122	4,873
총 계	8,006,000	9,544,100	14,613,431	17,597,370

이들 중 후이족의 경우는 칭하이(靑海)성, 간쑤(甘肅)성, 닝샤(寧夏) 회족자치구에 전체의 3분의 1이상이 분포해 있으며, 그외 허난(河南), 허베이(河北) 등 전국 각성과 도시에 두루 흩어져 살고 있다. 그 외의 민족들은 주로 서북변방지역의 신장(新疆), 칭하이, 간쑤성을 중심으로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을 이루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후이의 경우 한어(보통화)와 중국어 문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고유의 민족언어와 한어를 병용하고 있다. 외부와의 접촉과 개방의 정도가 확대될수록 한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이들의 주요 교파는 수니파의 하니피파, 시아파의 이스마엘파 및 수피파 등이다. 위구르, 카자흐, 후이, 우즈벡, 타타르 등의 대다수가 수니파이고, 위구르와 우즈벡의 일부가 수피파이다. 타지크, 키르키즈 등은 기본상 시아파의 이스마엘파에 속한다.

중국어(한어)로 된 최초의 코란은 한학자인 리톄쩡(李鐵錚)에 의해서 1927년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일본어 번역본을 중국어로 옮긴 것이다. 그 후 중국어 코란은 지금까지 10여 차례 이상 번역 출판되었다. 1932년에 원본 코란에 기초한 중국어 번역본이 출판되었으며, 1988년에 아랍어와 중국어가 동시에 사용된 최초의 원문대조판으로 출판되었다. 특히 1981년 마진(馬堅)에 의해 번역되고 중국사회과학 출판사에서 발행된 코란이 공개발행량이 제일 많았으며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소수민족어로 된 코란으로는 1987년 10월에 초판된 위구르어 코란과 1990년 10월에 초판된 카자흐어 코란이 있다. 기타 소수민족은 한어로 된 코란을 통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종교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이 아랍어를 배워 원문으로 이해하기를 선호한다.

한편, 중국에서는 모스크, 즉 이슬람 사원을 가리켜 칭전스(淸眞寺)라고 한다. 이는 명청(明淸)시기에 부여된 이름으로 '칭(淸)'은 알라의 종교는 맑고 깨끗하며, 더러움과 혼합이 없다는 뜻이고, '전(眞)'은 알라는 유일하고 지존하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다. 현재 전국에 약 37,000여 개의 칭전스가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교직원 수는 4만 명에 이른다. 칭전스의 건축양식은 다양하다. 둥근 지붕과 반달 표시의 전통적 아랍양식이 있는가 하면, 마치 불교사원인 것으로 보이는 중국식 전통양식도 있다. 아랍 양식으로 된 크고 대표적인 칭전스를 이들은 몹시 자랑스럽게 여긴다. 대부분의 시골지역 칭전스는 중국양식으로 지어져 있는데, 이는 중국식 이슬람을 대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중국의 전통 이슬람 교육은 주로 칭전스 내에서 이루어지며, 경당교육 또는 사원교육이라고 일컬어진다. 경당교육은 명(明)대에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선생이 가정에 제한된 수의 학생을 불러들여 수업하는 방식의 사숙 교육이었다. 이것이 후에 칭전스 내에서 행하는 경당교육으로 발전되었다. 보통 소학부와 대학부로 나뉘어지며 이슬람교의 각종 경전 및 관련과목을 학습시켜 종교신앙 활동에 필요한 인재를 충원하고 있다. 소학부에서는 아랍어, 기초 종교지식, 잡학 등을 배

1) 1930년 중국연감에 의하면 4800만 모슬렘과 4만 개의 모스크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1951년 집계는 1100만으로 줄었는데, 이는 공산정부 아래서 그들의 신앙을 밝히기를 꺼려한 결과였다. 현재 일부에서는 중국의 이슬람교도가 5000만 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우며, 대학부에서는 아랍어 외에 페르시아어, 인주학(認主學), 교법학(教法學), 코란경(古蘭經) 등을 배운다. 현재 전국에 5년제로 공식 운영되는 8개의 경학원이 있으며, 이러한 경학원 외에도 각종 형식의 독경반, 훈련반, 진수반 등이 있어서 아훙(阿訇)과 모라(毛拉) 등의 전문적인 종교인을 배출해 내고 있다.

〈각지 이슬람교경학원 개황표〉

명 칭	위 치	건교 시기
(선양 이슬람교경학원)沈陽伊斯蘭教經學院	선양	1982년
(란저우 이슬람교경학원)蘭州伊斯蘭教經學院	란저우	1984년 12월
(정저우 이슬람교경학원)鄭州伊斯蘭教經學院	쩡저우	1985년 11월
(닝샤 이슬람교경학원)寧夏伊斯蘭教經學院	인추안(銀川)	1985년
(베이징 이슬람교경학원)北京伊斯蘭教經學院	베이징	1986년 4월
(칭하이 이슬람교경학원)青海伊斯蘭教經學院	시닝(西寧)	1987년 4월
(신장 이슬람교경학원) 新疆伊斯蘭教經學院	우루무치(烏魯木齊)	1987년 6월
(쿤밍 이슬람교경학원)昆明伊斯蘭教經學院	쿤밍	1987년 11월

중국 이슬람의 유입과 발전 과정

그렇다면, 중국의 이슬람은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입된 것일까? 중국의 이슬람 유입 시기에 대한 학설은 다양하다. 빠른 경우 수나라 개황(開皇, 587년) 시기로부터, 당나라 영휘(永徽, 651년) 시기, 당나라 대종(代宗, 762~766년) 시기에 전래되었다고 하며, 늦게는 15세기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651년이 통설이다.

이슬람의 전파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구분에 따라 민족적인 특성도 함께 공유하게 된다. 첫째, 해안 지역를 통한 전파이다. 이는 복건성, 광동성의 해안을 통해 중국으로 전파되었다는 설이다. 당제국 시대(618-905년), 광동성의 광주, 푸젠(福建)성의 몇 도시에 외국인 특별지구가 설립되어 있어서, 이곳을 통해 중국과 무역하도록 했다. 이들은 아랍인이 주를 이루었고, 소수의 페르시아인,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었다. 당말 송초에(880~990년) 이러한 이민자들은 12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고, 그 중 80%가 아랍인들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외국인 거주지역의 규율이 없어지거나 느슨해져서 이들 외국인들은 양쯔강을 따라 점차 북쪽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장안, 개봉 등지에까지 이르렀다. 또한 원명시대부터 부단히 서역으로부터 내지로 들어온 모슬렘도 그 숫자가 확대되어 기존의 집단에 합류하게 되었으며, 중국 봉건사회의 상황에 적응하여 독특한 중국 내지의 이슬람문화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대다수가 한족, 몽골 등의 민족과 통혼하게 되어 후이(回)족의 조상이 되었다. 현재의 후이, 둥샹, 싸라, 바오안 등이 이러한 전파 경로에 의해 형성된 내지의 이슬람 민족들이다.

둘째, 서부 지역을 통한 전파이다. 주로 승려들의 포교활동, 상인들의 상업활동과 정복전쟁(지하드)을 통해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으로 이슬람이 전파된 경로이다. 사실 중국과 아랍은 기원전 2세기 한(漢)나라가 서역을 평정한 이후부터 교류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실크로드의 기원이며, 바로 이 실크로드가 이슬람 전파의 중요한 통로가 되었던 것이다.

8세기 말엽 중앙아시아가 페르시아계의 사만조의 지배에 들어가면서, 이들의 상인들에 의해 투르크계에 점진적으로 이슬람이 전파되다가 9세기 말엽부터 본격적으로 이슬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10세기 초 커라칸조(喀喇汗朝, 카룰룩과 위구르족이 연합하여 세운 나라)의 3대 왕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면서 커라칸조의 수도인 카쉬카르는 이슬람교 전파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로 인해 커라칸조의 20만 투르크족들이 일시에 모슬렘이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는 이슬람의 세력은 불교에 비해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

그 후 13세기에 몽고 차카타이칸국의 투르크 티무얼왕이 모슬렘이 되어 16만의 몽고인들이 일시에 모슬렘이 되면서 이슬람의 세력과 영향권이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16~19세기에, 초기의 난장(南疆)중심에서 전체 신장으로 확대되었으며 톈산(天山) 이북의 이리지구와 중앙아시아 초원 유목지대까지 확대되었다. 현재의 위구르, 카자흐, 키르키즈, 우즈벡, 타타르, 타지크 등의 이슬람 민족이 이러한 전파 경로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상의 두 경로를 통해 중국의 이슬람은 7세기 중엽부터 13세기에 이르는 6세기에 걸쳐 북서부의 통치 종교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 후 이슬람은 중국 역사와 함께 부단히 변화를 거듭하면서 발전과정을 거치게 된다.

당송시대, 모슬렘은 중국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들이

您奇平信還是掛號信? / Nín jī píngxìn háishì guàhàoxìn?
(닌 지 핑신 하이스 꽈하오신?) 일반우편으로 부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등기로 부치시겠습니까?

중국의 이슬람은 후이족만이 아니다. 위구르, 카자흐, 타지크, 싸라, 둥샹 등 10여개의 소수민족이 이슬람을 선봉한다(사진은 싸라족의 여인들).

었다. 비공식적으로 수출입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중요한 해외 사업의 이익을 차지하고 있었다. 원대, 몽골족의 통치자들은 거대한 중국의 통치를 위해 다루하치와 같은 서아시아 모슬렘을 정치적 고문으로 초빙할 정도로 이슬람에 관대했다. 모슬렘들은 중국의 문화와 이름을 널리 전파하는 데 크게 공헌했으며, 관료, 과학자 저명한 문필가 등도 많았다. 이때 많은 몽골인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현재의 닝샤와 주변지역으로 이슬람이 전파되었다. 이는 오늘날 내몽골에 수많은 모슬렘이 존재하게 된 배경이 된다. 원명시대에 이르러 이주해 온 모슬렘과 본토 모슬렘은 '모든 모슬렘은 형제들이다'라는 모토 아래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회심한 한족 모슬렘과 이슬람에 매료된 한족으로 인해 결국 모슬렘은 한족 및 중국문화와 동화되었고, 이로 인해 이슬람은 중국에서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청대에 이르러 이들의 운명은 큰 변화를 맞이했다. 서북지역과 서남지역에서 20-30년 간 한 번꼴로 크고 작은 반란이 계속되었으며 많은 모슬렘들이 죽음을 맞았다. 이는 이들이 청나라, 즉 만주정권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정권에 동조하는 한족에 의해 압박과 억압을 당했다. 특히 신장, 산시(陝西), 간쑤(甘肅), 윈난(雲南)에 살았던 많은 모슬렘들이 크게 고통을 겪었다. 게다가 한족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교육을 등한시하여- 특히, 한어교육- 더욱 뒤쳐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실제적인 모슬렘의 수는 배가되었고 칭전스의 수도 증가되었다. 정치적인 지위는 약화되었으나 마음속으로 이슬람이 전파되었으며, 대중에 뿌리박힌 견고한 힘을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중화민국이 들어서면서 이슬람은 중국에 있는 대표적인 다섯 민족 중의 하나로 인식되었으며,[2] 현대식 교육시설과 국가적 차원의 연합체들이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동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신장지역에서는 계속적인 내전이 있었다. 1933~1934년 사이 위구르를 중심으로 동투르크공화국이라는 이슬람국을 설립했다가 실패했으며, 1944년에도 이러한 시도가 계속되었다.[3]

공산화 이후 개혁개방 이전까지는 중국 정부는 모슬렘들을 위한 자치지역을 창설하면서,[4]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든 종교를 말살하기 시작했다. 이슬람 또한 예외일 수는 없어, 이슬람 사원의 폐쇄, 연합회 폐지, 순례금지, 코란 낭독 금지, 전통 이슬람 장례식 폐지 등을 강요당했다. 그러다가 개혁개방과 더불어 서서히 종교적 활동을 풀어주고 있다. 일례로 1985년에는 약 2천 명에게 메카순례를 허락했다. 이슬람 종교실천 사항에 관한 제한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2) 중화민국의 국기는 오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각각 한족(적색), 만주족(노란색), 몽골(청색), 후이족(흰색), 티벳족(검정색)을 의미한다.

3) 사실상 위구르를 비롯한 터어키계 모슬렘과 후이와는 지역적, 문화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 후이는 오랜 기간 한족과 동화되면서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크게 이질감 없이 중국 문화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위구르의 경우는 문화적으로 중앙아시아와 연계된 상태로 이들의 특성을 지닌채 뒤늦게 중국으로 유입되어왔기 때문에 중국화 되기에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슬람 민족들을 하나로 묶으려는 정부의 동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이에서는 계속된 불화가 있었으며, 위구르족은 자신들만의 독립된 국가를 세우기를 소망했던 것이다.

1990년대 이래 중앙아시아의 여러 민족들이 독립하게되면서, 후이보다는 중앙아시아의 여러 민족과 더 깊은 동질성을 느끼는 위구르족은 독립에 대한 열망을 더 강렬히 표방하고 있다. 근래 신장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갈등과 긴장은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4) 뒤 페이지에 제시된 <민족자치기관표>를 참조하라.

<민족자치기관표>

행정구획	명 칭	건립시기	소재지
자치구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	1955년 10월 1일	新疆
	(닝샤회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	1958년 10월 25일	寧夏
자치주	(창지회족자치주)昌吉回族自治州	1954년 7월 15일	新疆
	(키즈리스 키르키즈자치주)克孜勒蘇柯爾克孜自治州	1954년 7월 14일	新疆
	(린샤 회족자치주)臨夏 回族自治州	1956년 11월 19일	甘肅
	(이리 하자크자치주)伊犁 哈薩克自治州	1954년 11월 27일	新疆
	(바리쿤 하자크자치주)巴里坤 哈薩克自治州	1954년 9월 30일	新疆
	(하이시 몽고 장족 하자크 자치주)海西 蒙古族藏族哈薩克族自治州	1954년 1월 25일	青海
자치현	(따한 회족자치현)大厂 回族自治縣	1955년 12월 7일	河北
	(멍춘 회족자치현)孟村 回族自治縣	1955년 11월 30일	
	(아커써 하자크족자치현)阿克塞 哈薩克族自治縣	1954년 4월 27일	甘肅
	(둥샹족 자치현)東鄉族自治縣	1950년 9월 25일	
	(장자촨 회족자치현)張家川 回族自治縣	1953년 7월 6일	
	(화룽 회족자치현)化隆 回族自治縣	1953년 3월 1일	青海
	(쉰화 싸라족자치현)循化 撒拉族自治縣	1954년 3월 1일	
	(먼위엔 회족자치현)門源 回族自治縣	1953년 12월 19일	
	(바리쿤 하자크자치현)巴里坤 哈薩克自治縣	1954년 9월 30일	新疆
	(다스쿠얼칸 타지크자치현)塔什庫爾干塔吉克自治縣	1954년 9월 17일	
	(무레이 하자크자치현)木壘 哈薩克自治縣	1954년 7월 17일	
	(옌치 회족자치현)焉耆 回族自治縣	1954년 3월 15일	
	(웨이산 이족회족자치현)巍山 彝族回族自治縣	1956년 11월 9일	雲南
	(셔우톈 회족 이족자치현)壽甸回族彝族自治縣	1979년 12월 20일	
	(웨이닝 이족회족자치현)威寧彝族回族苗族自治縣	1954년 11월 11일	貴州

중국 모슬렘들은 최대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중국정부는 이슬람을 하나의 국제관계를 위한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변화에 직면한 이슬람과 열려진 기회

그렇다면 이슬람을 신봉하는 소수민족들의 실제적인 상황은 어떠한가?

과연 이슬람은 부흥을 맞고 있는가?

현재, 중국의 구석구석이 그렇듯이 이슬람의 세계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한편으로는 이슬람의 부흥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반가이 맞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낙후성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해 전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종교적 회복과 경제적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이들은 혼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싸라, 둥샹, 바오안 등 아직 개방되지 않았거나 개방의 초기에 있는 민족들 또한 이슬람은 이들의 강한 구심점이 되고 있으며, 위구르의 경우도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 이슬람을 중심으로 결집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가장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이슬람이 특성상 오랜 역사를 통해서 문화적 종합체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슬람은 중국의 오랜 문화적 전통과 융합되면서 중국 특색의 이슬람 문화를 형성시켰는데, 특히 중국 유가(儒家)의 가치관과 민족 고유의 샤머니즘을 흡수하여 토속적인 형태의 이슬람 문화를 형성시켰다. 이것은 종교신앙, 제도, 도덕과 철학, 교육, 법률, 과학, 예술, 음악, 건축, 풍속 등 각 방면의 문화에 깊고 풍부한 영향을 미쳐 하나의 커다란 종합체로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겉모습으로 이들이 이슬람의 다섯 기둥을 철저히 지키지 않고 변화하는 듯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슬람은 이들의 민족성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어서, 단시일 내에 종교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세계와의 접촉과 개방정도

這封航空信寄到倫敦貼一塊錢郵票夠嗎?/ Zhè fēng hángkōngxìn jìdào Lúndūn tiē yí kuài qián yóupiào gòu ma?
(쩌 펑 항콩신 지 따오 룬둔 티에 이 콰이 치엔 요우파오 꺼우 마?)
이 항공우편을 런던에 부치는데, 1원 짜리 우표를 붙이면 됩니까?

가 높을수록 이슬람을 중심으로한 구심점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듯하다. 특히 후이를 비롯한 대부분의 민족들이 경제적인 발전과 변화를 더 열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5] 일례로, 1985년 건립된 인촨(銀川)에 있는 닝샤 이슬람교경학원은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이다. 초기에 이 경학원은 국가의 보조 아래 운영되었으며, 학생도 몇백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97년 현재, 국가의 보조가 줄어듦에 따라 학생들이 직접 학비를 내야 하기에 학생 수가 50~60명으로 줄어들었다.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이제 경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돈을 벌기 위해 기술학교로, 도시로 나가기를 더 선호한다고 한다. 깨진 유리창이며, 손질이 안 된 외관만 보더라도 한눈에 그 위세가 퇴락해 감을 느낄 수 있었다. 방문객에게 2원(인민폐, 한화 약 300원 정도)씩의 입장료를 받고 있어서, 이 곳을 경제적인 수익처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수익 사업을 위해 호텔, 이용원, 음식점, 선물의 집, 진료소 등을 칭전스 내에 설치한 곳도 있다고 했다.

또한, 카자크의 경우 이들은 변화와 갈등을 겪고 있다. 목축 중심의 산간지방에서는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나, 도시나 농촌지역,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슬람은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들의 이슬람에 대한 이해는 극히 저조하며, 그것이 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다. 카자크족의 청년들은 '우리는 코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코란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단지 1년에 한두 차례 칭전스에 갈 뿐' 이라고 말했다.

글을 맺으면서

중국의 이슬람은 그 허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복음의 접촉을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경제발전을 위하여 도시로, 타지로 이동하면서 종교적 전통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한국 교회의 관심이나 사역은 아주 미미한 상황이다. 전통적으로 이슬람으로 알려진 후이족, 요즘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 위구르족은 다른 민족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상황이다. 우루무치(烏魯木齊), 시닝(西寧), 란저우(蘭州), 인촨(銀川)을 중심으로 몇 가정이 사역을 준비하거나 사역에 들어갔지만, 전체 대상에 비하면 사역자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둥샹족을 위한 성경번역 사역이 진행 중인데, 이를 위하여 한 가정이 인근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다. 싸라족의 경우 한 가정이 이제 막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 전 한 정탐대가 정탐을 하고 돌아왔다. 그외 다른 민족들은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도 않은 상황이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중국은 사회, 정치, 문화적으로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중국 속의 이슬람 역시 변화를 맞고 있다. 중동을 비롯한 다른 이슬람 세력들은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사회변동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큰 변화를 겪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상황이 다르다. 이들 이슬람 세력들은 소수민족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역사를 거듭해 오면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심한 변동을 겪어 왔다. 이제 다시 한 번 선교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더 깊은 관심과 연구, 그리고 중보 기도가 일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중국의 이슬람권을 위하여 국내의 많은 모슬렘 사역 헌신자들이 일어나길 소망한다.

〈참고도서〉

HJ. Ibrahim T.Y.Ma, Muslims in China, Islamic Da'wah Centre Ministy of Religious Affairs, 1991.

Richard Brent Turner, "Muslims and Chinese Political Culture", The Muslim World, vol. LXXXVII, No.2, Aprill, 1997.

馬洪眞(編), 中國穆斯林民居文化, 銀川: 寧夏人民出版社, 1995.

番夢陽, 伊斯蘭和穆斯林, 銀川: 寧夏人民出版社, 1996.

楊懷中, 余振貴(編), 伊斯蘭與中國文化, 銀川: 寧夏人民出版社, 1995.

余振貴, 中國歷代政權與伊斯蘭教, 銀川: 寧夏人民出版社, 1996.

李冊主(編), 當代伊斯蘭教, 北京: 東方出版社,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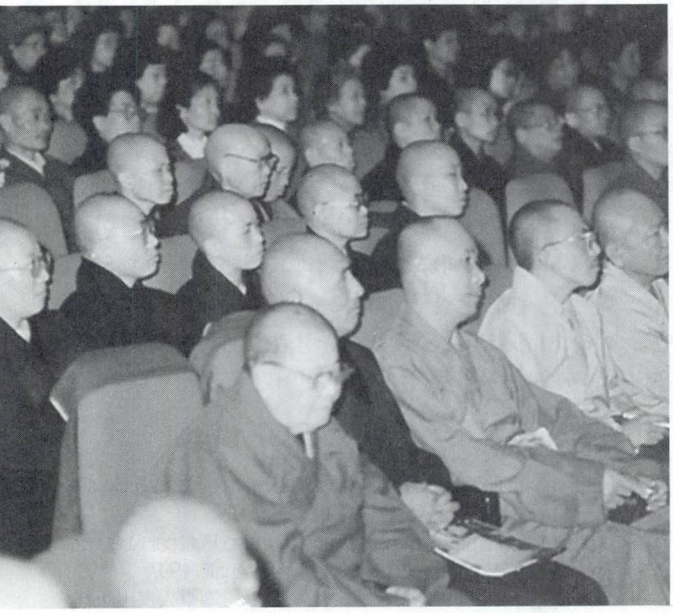
張天路, 宋傳升, 馬正亮(共著), 中國穆斯林人口, 銀川: 寧夏人民出版社, 1991.

胡振華(編), 中國回族, 銀川: 寧夏人民出版社, 1993.

5) 필자는 97년 여름 한 달여 동안 북서부 지역을 돌보면서 이슬람을 신봉하는 제민족들을 방문조사했다. 이하는 당시의 인터뷰 등을 토대한 자료임을 밝힌다.

장경희/ AAP 종족과도시선교연구소 연구원

중국의 도교와 불교



손 바 울

너무나 중국적인 종교-도교

현재 중국에는 불교, 기독교, 회교 등 다양한 종교들이 있다. 이들 종교들은 모두 외국에서 들여온 이른바 수입 종교다. 그러나 중국이 원산인 종교가 있다. 바로 도교이다. 도교는 중국에서 생겨나서 중국에서 발전한 거의 유일한 중국의 민족종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인의 사고 방식과 그들이 추구하던 것들이 잘 나타나 있다.

중국 문화는 용광로처럼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고유함을 잃지 않고,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 내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종교면에서 볼 때, 중국에서 태어나 자란 토착 종교인 도교는 그 시작부터 중국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토착 종교와 같이 도교는 한나라 말엽,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다. 삼국지의 발단이 된 황건적의 난은 쌀 다섯 마지기를 바치게 했다는 데서 유래한 오두미도(五斗米道)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이것이 종교적인 모습을 띤 최초의 도교의 형태였다.

한(漢) 나라를 거쳐 중국은 춘추전국시대의 혼란에 빠져들고 각 지역 우두머리들이 머리 터지는 싸움을 벌이는 지역 할거 과정을 거친 후 하나의 통일된 제국이 탄생하게 되는데, 도교는 이런 역사를 배경으로 각 지방, 각 계층의 다양한 문화요소를 흡수, 종합적 문화를 지닌 종교로 발전시켰다. 각지방의 다양한 문화들이 어우러진 만큼 도교의 교리도 다양해 삼라만상 모든 사상들이 도교에 유입되었다. 도교는 성립 후 처음에는 노자를 신격화하여 섬겼지만, 이 외에도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불로장생의 신선술, 예언, 점술, 강신술 등의 무속 신앙들도 교리에 접목시켰다. 또 모든 만물에 영이 있다고 하는 만물유령(萬物有靈) 관념도 도입했다. 타종교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불교의 전래시기와 같은 시기에 전래된 도교는 불교와의 대립과 융합과정을 거치면서 불교의 종교의식을 따오게 되었으며, 불교 세속화에 큰 공헌을 한 인과응보의 사상도 유입했다. 엄격한 도덕주의 요소 또한 도교 수련생들의 규칙에 포함시켰다. 내용만을 놓고 본다면 도교는 좋은 사상, 좋은 교리들은 모두 받아들여 짜집기 해놓은 이른바 짬뽕 종교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도교는 수많은 작은 물줄기들이 한데 모여 넓고 깊은 바다가 되듯 민간의 풍속, 미신, 사상들을 모두 모아 놓아 독특한 종교 체계를 이루고 있다.

這封信超重五克, 要貼一塊四毛錢的郵票。/ Zhè fēng xìn chāozhòng wǔ kè, yào tiē yí kuài sì máo qián de yóupiào.
(쩌 펑 신 차오중 우 커, 야오 티에 이 콰이 쓰 마오 치엔 더 요우퍄오.)
이 편지는 5g을 넘었어요. 1원 40전 짜리 우표를 더 붙여야 합니다.

도교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신을 섬기는데, 여기에는 신령, 신선, 신격화 된 우상들이 여기에 속한다.(사진은 스촨성 청두의 도교사원).

도교 조직과 예배활동

서기 2세기경 후한시대에는 사천성을 중심으로 한 종교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의 주동자 장릉(張陵)이라는 사람. 전설에 의하면 노자가 어느 산속 동굴에서 은거하고 있던 장릉 앞에 나타나 세상 사람들이 진리에 귀를 귀울이지 않고, 악귀를 신봉하는 것을 개탄한다면서 장릉을 하늘의 스승으로 임명해 악령을 물리치고 진리를 바로 세우는 사명을 부여했다고 한다. 이것을 조직화된 도교의 발단으로 보고 있다. 장릉은 죽은 사람의 영혼에 산 짐승을 죽여 바치는 대신 요리한 채소를 바치도록 했다. 또 병든 사람에게는 죄를 참회시키고 도사가 병자를 위해 기도한 후 죄를 기록한 종이를 산꼭대기에서 하늘에 바치고 땅에 묻은 다음 강물에 흘려 보냈다고 한다. 장릉은 이러한 예식을 행해주는 댓가로 쌀 다섯 마지기를 받았다.

장릉은 자신의 교단을 교구 조직으로 통솔하는 한편, 남녀 사제들을 임명했는데, 이것이 도교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는 기초가 된 것이다.

이 천사도는 중국남부에서 인기가 있었는데,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자 천사도는 대만으로 본거지를 옮기게 되었다. 그리고 세습되는 도사들을 중심으로 남녀 신자 대표와 교단 지지자들로 구성된 교구회의를 통해 교단을 운영하고 있다. 도교는 여성을 성직자로 임명하지만 특수한 예식에는 참여를 제한시키고 있다. 또 예배의식으로 불교의식을 도입해 "찬미가"를 만들었고, 영보(靈寶)라는 경전을 암송하도록 하고 있다.

도교의 특성

도교는 사람을 구제하고자 하는 일종의 구제종교이다. 또 도교는 초자연적인 힘으로부터 도움과 보호를 얻으려 한다. 도교에서는 정신과 육체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영혼은 물론 육신까지도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결과로 그들은 생명이 기(氣), 정(精), 신(身)의 세 가지에서 나온다고 믿었다. 이것들이 몸 안의 소우주와 우주에 있는 대우주에 동시에 존재한다고 한다. 또 도교에서는 불로장생하는 기를 기르기 위해 단전호흡, 명상, 성생활과 관련된 기술들이 개발되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들은 공개적이 아니라 비밀리에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 전수되므로 비밀종교가 되는 것이다. 도교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신을 섬기는데, 여기에는 신령, 신선, 신격화된 우상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만신전(萬神殿)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신들 중 일부는 신화적 존재이지만 일부는 신격화된 실제 인물이다. 신들은 천일(天一), 지일(地一), 태일(太一)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다가 후에 원시천존(元始天尊), 영보천존(靈寶天尊), 도덕천존(道德天尊)의 삼청(三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도교종파는 삼동사보(三洞四輔)로 나뉘어져 있다. 각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도덕경(道德經)』과 『태평경(太平經)』을 주요 경전으로 삼는다. 도교는 비밀종교로서 내려오다가 1966년 시작된 문화대혁명 기간에 다른 종교와 함께 미신으로 취급되어 큰 수난을 겪었다.

도교와 단전호흡

단전호흡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보급된 일종의 양생술(養生術)로, 얼마전 타계한 S.K 그룹 회장도 단전호흡의 열렬한 수련생이었다. 특수 신체 훈련으로 생명을 연장코자 하는 노력이다. 도교는 불로장생 약이 큰 효험이 없자 내적 연단인 단전을 고안해 낸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의 인체는 머리, 가슴, 배의 세 부분

불교는 대체로 중국에서 흥성했는데 그 이유는 불교가 기근, 폭정, 내란 등이 만연하던 시기에 전래되었으며 불교가 한 종교로서 엄격한 조직과 강력한 계율, 체계적인 이론 등이 지식인을 비롯, 일반 백성들에게 파고 들었기 때문이다.

이 단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들 단전에 여러 신들이 기거하며 지탱해 준다는 것이다. 보통 곡식, 고기, 술 등을 끊는 금욕생활에서 시작하여 차차 호흡과 침만으로 살 수 있다고 한다. 도교에서는 요가와 명상을 통해 마음의 잡념을 버리고 하늘의 정기를 받으며 수많은 신과 만나고자 한다. 이런 신과의 만남을 통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나아가 정신력으로 몸 안에 약을 만들어 영생하는 몸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도교는 이후 불교와 융합하면서 이러한 명상과 정신력 이론을 더 한층 발전시켰다.

근세 이후 오늘날의 도교와 도교의 종파

도교에는 다양한 종파가 있다. 종파간의 차이는 교리보다는 치뤄지는 의식에 따라 나뉘어진다. 예를 들면 영보계(靈寶系)는 공식적 의식 행위를 중시하는데 반해, 모산파(茅山派)는 명상을 강조하는 것 등이다.

17세기 이후 도교는 쇠퇴일로를 걷게 된다. 도교 종파 중 천사도(天師道)로 대표되는 정일교(正一敎)와 원나라 때 흥성했던 전진교(全眞敎)가 명맥을 유지해 올 뿐이다. 불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전진교는 출가한 독신 도사들이 금주와 계율을 지키면서 단전과 명상에 힘쓰고 있다. 반면 천사도의 도사들은 결혼도 하고 음식에 관한 금지사항도 거의 없다고 한다.

전진교의 도관으로는 1981년 이후 일반인에게 공개된 백운관(白雲觀)이 가장 유명하다. 전 중국의 도교업무를 관장하는 중국 도교협회도 이곳에 있다.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도교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미신으로 취급되어 외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한때 사장된 것으로 보이던 도교가 개방화에 따라 다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도교사찰은 외국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중국의 관광 수입원으로 크게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중국에서 뿌리내린 불교

중국의 불교의 전래

불교의 창시자는 인도의 싯타르타(기원전 563-480)이다. 불교가 중국에 전해진 것은 기원전 67년 후한 명제 때, 차이인과 친징이 불경을 백마로 싣고 온 때로 보고 있다. 전설에 따르면, 후한의 명제가 하루는 금빛이 나는 거인이 궁전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그가 신하들에게 꿈에 대해 물어보자, 금 빛나는 거인이 다름아닌 고타마라는 서방의 현자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황제는 즉시 인도에 사절단을 파견, 이 현자에 대해 묻고 인도승려들이 중국에 와서 포교활동을 하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대승불교와 소승불교

대승, 소승의 승(乘)이란 '배나 수레와 같이 물건을 싣는다'는 의미이다. 즉 대승은 크게, 소승은 작게 싣고 간다는 뜻이 된다. 대승은 수많은 중생들을 번뇌로부터 깨달음과 해탈로 이끄는 대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만민구제를 중시하였고 작은 것을 담는 소승불교는 개인의 수행과 금욕을 중시하였다.

您喜歡哪套, 請自己挑吧。/ Nín xǐhuan nǎ tào, qǐng zìjǐ tiāo ba.
(닌 시환 나 타오, 칭 쯔지 티아오 바.) 어느 세트를 좋아하시는지요, 손수 골라보세요.

불경의 번역

인도 싼스크리트어로 된 불경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막대한 국가적 원조와 지원이 없이는 안 되는 방대한 과업이었다. 또한 이를 위해 천재적인 인물도 필요했다. 이 때 등장한 사람이 구라마십으로 알려진 구마라지마와 현장법사이다. 구라마십은 중앙아시아에서 브라만 아버지와 독실한 불교도 신자인 공주신분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대승소승의 경전을 다 배운 사람이었다. 당시 중국은 동란 중이었지만, 불경전문가인 그의 명성이 중국에까지 알려져 중국측에서 납치하다시피 중국에 데려왔다. 서기402년 그는 장안에 도착, 국가적 스승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당시 일류 학자들을 이끌고 번역작업에 착수해 아미타경, 반야경, 대반야지도론, 유마경, 법화경 등을 번역해냈다. 또 당나라 때 가장 유명한 번역가로 현장이 있다. 산 넘고 물 건너 인도에 간 현장은, 수백 부의 불경을 중국에 가지고 돌아와 왕성한 정력과 불굴의 집념으로 20년 간을 장안에 머물며 대승불교 경전 전부, 주요 논술, 주해서를 중국어로 번역해 냈다. 현장이 인도에 가기까지 겪은 숱한 어려움은 훗날 『서유기』의 소재가 되었다.

중국에서 불교의 발전

불교는 한왕조가 멸망하려는 혼란스런 시대에 중국에서 홍성하기 시작했다. 처음 2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개종했지만 황실에서 불교를 외래종교로 규정하고 승려가 되는 것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한때 승려가 없었다. 그러다 한나라 헌제 때는 불경 낭독, 불상에 향 뿌리기, 채소만 먹기 등 불교 수련법이 전파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삼국시대가 되자 불교는 광동지방과 월남지방까지 세력을 넓힐 수 있었다. 당시 광동지역은 불교의 남방중심지가 되어 서역의 불자들이 자주 왕래했다고 한다. 인도의 불교종파는 중국에 그대로 전파되어 한나라, 위나라, 진나라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함께 발전했다. 이 시기는 불경번역에 힘쓰며 종파별로 변론과 화합에 주력하던 시기다. 그러나 남북조부터 수당을 거쳐 북송까지는 대승불교만이 성행했다. 이는 중국이 인도보다 계급적으로 덜 나뉘어져 있고, 대중적인 것을 선호하는 이유 때문이었다.

중국 불교의 여러 종파

중국의 불교종파는 모두 11개가 있다. 불교는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 종교였기에 중국화 작업이 필요했다. 불교가 처음 들어온 당시 사람들의 최대 희망은 죽음 이후의 삶에 있었다. 원래 인도의 불교는 인생을 영혼이 해탈하기 위한 긴 윤회 과정 중 한 부분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 사상은 현실을 중시하고 현실의 기초 위에서 생각하는 중국인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염불과 참선을 통해 번뇌를 벗고 부처님에 대한 헌신과 적선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정토종이 등장하자, 여러 종파 중 가장 큰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

불교종파 중 삼론종(三論宗), 화엄종(華嚴宗), 천태종(天台宗), 선종(禪宗), 법상종(法相宗)등은 중국의 학술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화엄종은 석가모니가 도를 깨달은 직후에 행한 설법을 담았다는 화엄경을 경전으로 삼는 것으로 생성과 소멸하는 것이 현재 처한 상태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천태종은 반면에 수많은 경전들의 차이점들을 석가모니 생애의 여러 단계와 설법의 차이에서 오는 방법으로 분류,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천태종에서는 이로써 불교 내에서 상호 모순되는 가르침들에 조화를 만들어내는 절충적 종파를 만들어냈다. 이는 극단적으로 나가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중국사람들의 사고경향을 드러낸 것이었다. 화엄종과 천태종은 둘 다 선종에 영향을 끼쳤다. 선종은 이들에게서 철학적 사고를 빌리고 명상, 참선과 같이 실제적인 수행에 중점을 두었다. 정토종의 정토는 아미타불이 관세음보살의 도움으로 다스린다는 불교의 이상향, 낙원을 가리킨다. 부처님에게 독실한 믿음과 선행을 중시하고, 염주를 가지고 아미타불을 수천 번 되풀이 외우며 자비를 구할 것을 강조한다. 정토종은 중국에서 동남아 전역으로 퍼져나갔는데, 구원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의지할 것이 필요했던 일반민중들에게 큰 매력을 끌었다.

다른 종교들과의 관계

불교는 대체적으로 다른 종교와 평화롭게 공존했지만 충돌한 경우도 있었다. 유교측에서는 중국 외부에 큰 사상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들은 불교 승려들이 부모님이 주신 몸을 해치는 삭발을 하고, 독신주의와 금욕주의를 함으로 조상숭배와 효도에 역행한다고 반대했다. 도교 쪽에서는 불교에 대해 적대감과 경쟁의식을 가졌다. 그들은 노자가 인도에 가서 그들을 가르쳐 그런 지혜를 지닐 수 있었다는 터무니없는

這幾種郵票我每樣要兩套。/ Zhè jǐ zhǒng yóupiào wǒ měi yàng liǎng tào.
(쩌 지 중 요우피아오 워 메이 양 야오 량 타오.) 이 몇 종류의 우표에서 각각 두 세트를 주세요.

주장을 했다. 그러나 도교는 후에 비밀종교로서 불교의 금욕주의를 이해하고 불교의 교리를 소화해, 도교의 교리에 반영시켰다.

불교는 대체로 중국에서 흥성했는데 그 이유는 불교가 기근, 폭정, 내란 등이 만연하던 시기에 전래되었으며 불교가 한 종교로서 엄격한 조직과 강력한 계율, 체계적인 이론 등이 지식인을 비롯, 일반 백성들에게 파고 들었기 때문이다. 또 불교 교리와 중국 전통문화 사이에도 비슷한 점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중국에 끼친 영향과 오늘날의 불교

초기 불교는 중국인의 정신수준을 높이고 중국문화에 기여했다. 사상, 건축, 미술 등 문화 예술 각 분야에서 불교의 영향력이 컸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정적인 내면세계를 지향하는 불교의 특성으로 인해 현실과 멀어지고 중국사회의 정체를 가져왔다. 또 깊은 산 속에서 고행과 수행만 하는 현실감 없는 지식인들을 많이 길러냈다.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1966년~1976년 사이에 있었던 문화대혁명때 심한 탄압을 받았다. 불교 승려들과 사찰들은 구식 사고, 구식 풍속, 구식 습관, 구식 문화로 낙인 찍혔다. 대부분의 사찰들과 예술품 등이 파괴당했으며, 승려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욕설과 수치를 당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일부 사찰들이 다시 문을 열면서, 종교 행사가 다시 열리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종교정책을 시행하면서, 각 종교마다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명분하에 불교 건물들이 다시 등장하고 불교사찰에서 의식이 거행되고 있으며, 기성세대들의 종교적 관심이 표출되면서 정부당국 일부에서는 불교의 재등장에 대해 관심과 우려를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중국종교 사상사』 · 王治心
『佛教的 起源』 · 揚曾文
『중국 종교와 그리스도교』 · 한스큉/줄리아칭
『현대 중국의 종교』 · 로버트 오어

손바울/ 본 선교회 연구부 간사

중국 이동전화 가입자 2,000만 명 선을 넘어섰다.

전세계의 '7분의 1'이나 가입

금년 8월 18일을 기해 중국의 이동전화 가입자수가 2,000만 명대를 돌파했다고 중국 언론이 이날 일제히 보도했다.

중궈뗀신(中國電信)이 지난 87년 이동전화 업무에 착수한지 10년이 되는 지난해 7월 17일 이동전화 가입자가 1,000만 명에 도달한 뒤 불과 1년 1개월만에 다시 1,000만명이 늘어나는 놀라운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이로써 중궈뗀신은 세계 최대 GSM 이동전화 경영자로 부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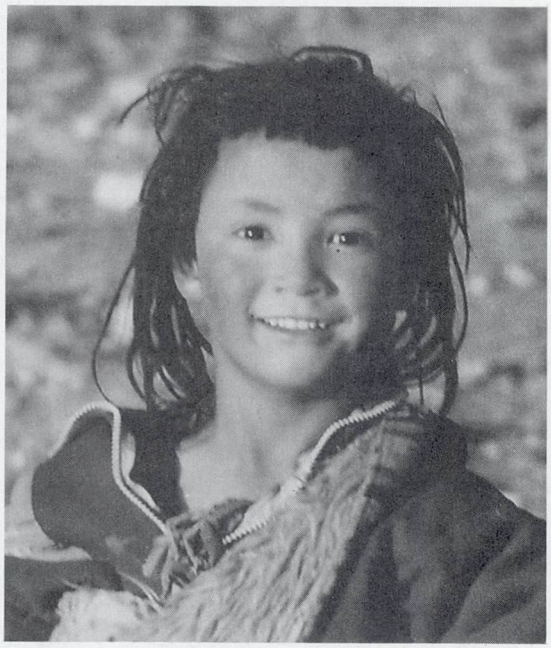
현재 전세계적으로 1억명에 달하는 GSM 이동전화 가입자 가운데 중국이 7분의 1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금년 6월말 현재 중궈뗀신의 이동통신 전화망은 이미 전국 31개 성 · 시 · 자치구(省市自治區)의 308개 지구급시(복개율 91%) 및 1,856개 현급시(복개율 86%)로 확대됐다.

我再買五張明信片。/ Wǒ zài mǎi wǔ zhāng míngxìnpiàn.
(워 짜이 마이 우 장 밍신피엔.) 엽서 다섯 장도 더 사겠습니다.

티벳불교의 이해와 선교적 전망

한 윤 숙



여는 말

티벳은 현재 영토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해 있으며, 정식 행정구역 명(名)은 시짱자치구(西藏自治區)이다. 공식적으로 티벳은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한 민족이다. 하지만 현재 인도의 달람살라에 달라이 라마의 티벳 망명정부가 있으며, 또한 티벳인들은 역사, 종교, 문화적으로 자신들이 유구한 전통과 문화를 지닌 독립 국가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1951년 중국 공산당에 의해 무력으로 강제 점령당한 이래, 계속적으로 종교적인 탄압과 민족 말살을 당하고 있다며, UN 등 전세계에 독립을 호소하고 있다. [1]

한편 티벳이 중국 역사 속의 몽고족, 만주족 등과 달리 중국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이 지닌 종교 때문이다. 티벳은 보통 티벳불교(속칭 라마교라고도 하는데, 이유는 라마에 대한 절대적 권위 인정과 달라이 라마 등 활불라마를 석가모니의 현현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불리는 불교의 한 분파의 발상지이다.[2] 티벳불교는 티벳의 전민족 신앙이라는 결집력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티벳이 공산화 이후 아무런 변함없는 것으로, 오늘날 티벳이 독립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종교 탄압과 종교 자유 때문이다. 따라서 티벳에 대한 선교적인 접근과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티벳의 현상황과 티벳불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티벳의 현상황

1951년 티벳은 역대 중국의 통치체제 중 가장 강력한 통치 스타일을 가진 중국공산당에 의해 무력으로 공산화되면서, 중국의 직접적인 통치와 함께 행정구역상 중국의 한 소수민족 자치구로 통합되었다. 티벳은 중국과 티벳의 통치를 중국에 내주는 「17개조 협정」을 맺었다. 이후 티벳에는 티벳불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대신,

1) 달라이 라마를 대표하는 인도의 티벳 망명정부와 실질적으로 티벳자치구(중국어로는 西藏自治區라고 함)를 다스리는 중국 공산당 측은 티벳 문제에 있어 한치의 양보와 타협도 보이지 않고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티벳 망명정부는 달라이 라마의 세계 순방과 강연, 각종 출판물을 통해 티벳의 독립국가와 종교 자유 보장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편 중화인민공화국 역시 티벳에 관한 여러 출판물과 티벳 관련 세미나 등을 통해 티벳이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음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2) 라마교라고 하는 것은 활불(活佛)라마에 대한 광적인 존숭과 추종으로 인해, 티벳불교를 비하해서 부르는 것이므로, 티벳인들은 이렇게 불리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티벳불교의 이런 특성에 대해 잘 논한 책으로 야마구치 즈이호와 야자키 쇼켄의 『티벳불교사』(서울 : 민족사, 1995)를 들 수 있다.

這封信寄到東京要一個星期。 / Zhè fēng xìn jìdào dōngjīng yào yí ge xīngqi.
(쩌 펑 신 지따오 둥징 야오 이 거 싱치.) 이 편지가 동경에 도달하는 데는 1주일 걸립니다.

모든 외교 업무와 군사적인 면에서 중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1956년에는 티벳자치구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그 이후 1965년에는 정식으로 티벳자치구(西藏自治區)가 탄생하게 된다.

한편 티벳인들은 강제적인 토지개혁과 반종교 선전, 사원의 특권 박탈 등으로 반중국(反中國) 의식이 높아가면서, 불만을 표출하다가 마침내 1959년에 대대적인 유혈 폭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현재 티벳 망명정부에서는 당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120만 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3] 유혈 폭동 이후 6만 이상의 티벳인들이 달라이 라마와 함께 인도, 네팔 등지로 도피하였다.

계속해서 1966년에 시작된 문화대혁명은 티벳에 더욱 강력한 탄압과 상처를 가져왔다. 중국 내지에서 온 홍위병들은 승려, 구귀족, 관료들을 반동분자로 비판, 살해하고 투옥시켰다. 당시에 대부분의 승려들이 강제로 환속당했으며, 간덴사 등 크고 작은 사원과 불상이 훼파되고, 불교 경전이 소각되었다.[4] 중국 공산당의 티벳에 대한 강압적인 탄압과 민족문화 말살 정책은 사인방(四人幇)의 몰락과 더불어 끝을 맺었지만, 이는 향후 중국의 티벳 통치에 많은 난점을 가져왔다. 바로 티벳인 전체의 정신적 핵심인 종교와 그 문물에 대한 파괴로 중국과 티벳 간의 갈등의 골을 격화시켰으며, 더 나아가 인도에 있는 티벳 망명정부의 독립 주장을 정당화하는 구실과 세계 각국의 티벳 독립운동에 대한 공감을 확대시켰다.

티벳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강경 정책은 80년, 84년, 85년에 각각 후야오방(湖耀邦), 후치리(胡啓立)의 티벳 방문을 통한 현지 실정 조사와 「티벳공작 좌담회」를 통해 티벳의 경제, 사회적 환경 개선과 함께 티벳 불교 사원에 대한 참배와 순례 허용, 종교 신앙 자유 정책으로 변화를 맞게 된다. 이로 인해 조캉 사원을 위시한 많은 사원이 재개방되고, 라마 승려들의 복직과 사원 재산이 사원에 반환되었다. 인도 등 해외로의 출국과 유학도 가능하게 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80년 후반부터 현재까지 매년 티벳에 재정 보조금을 10억 원이 넘게 지원하였다. 이는 티벳에 사는 각 사람들이 매년 정부로부터 인민폐 500원씩 받는 것과 같은 금액이다.[5]

공산화 이후 티벳에 대한 강경 정책은 개혁개방 시기에 들어와 회유와 온건 노선으로 변화되었음에도, 87~89년 3년 동안 연속적으로 티벳 독립시위가 벌어졌다. 특별히 89년에 달라이 라마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뒤로는 다시 이를 계기로 티벳의 인권문제 부각과 독립을 쟁취하려는 티벳인들의 시위가 90년대 들어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공산당은 시위를 그 근원에서부터 무력으로 원천 봉쇄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강경책을 펴기도 하였다. 9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국 공산당은 티벳의 안정을 저해하는 근원이 달라이 라마에게 있다고 보면서, 달라이 라마의 사진, 책자 등을 소지하거나 토론하는 행위를 일절 금하였다. 이에 반발하는 티벳인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체포와 구속 사태가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

티벳불교의 특성과 그 영향

티벳불교의 특성

티벳에 불교가 유입된 것은 AD 7세기였다. 이 때 티벳 지역에는 원래부터 존재해 오던 전통 종교인 본교(本敎)가 있었다.[6] 본교는 일종의 다신(多神)적 종교로 애니미즘과 샤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본교는 기복 신앙과 무당 등 샤만을 신의 대리자로서, 사후 세계에 천당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로 중시하여 이들의 영향력이 막강하였다. 티벳불교는 토착종교인 본교의 요소를 흡수하여 현재 티벳불교 안에는 본교의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있으며, 주술적인 요소와 의식도 상당히 많다. 10세기경에 이르면 풍토로서의 불교로 티벳에 뿌리를 내리고 발전하게 된다.

티벳불교의 가장 큰 특성은 속칭 라마교(喇嘛敎)라고 불리는 티벳불교가 항상 티벳 사회의 정치적인 세력과의 역학 관계 속에서, 그 변혁이 초래되고 그에 대응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7] 이는 티벳 내부에서는 물론, 몽고 등을 포함한 총괄적인 티벳 불교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종교와 정치와의 결탁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심하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정권과 종교 발전이 같은 발전 선상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3) 정희상, "티벳인 1백20만 비명횡사" 『시사저널』, 1996. 8. 1

4) 중국공산당과 티벳의 갈등을 비교적 잘 다루고 있는 책으로 로버트 오어, 『현대중국의 종교』(서울 : 로출판사, 1987)를 참고할 수 있다.

5) 개혁개방 시기 이후 티벳과 중국의 갈등과 중국공산당 정부의 티벳지원 현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면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廖曉强, "中國的政治火山—西藏", 『當代』 1991. 5
徐明旭, "西藏示威的眞正幕後鼓動者", 『九十年代』 1991. 3

6) 중국 책에는 본교(本校)로 표기하고 있으며, 영어 책에는 Bon으로 표기하고 있다. 우주만물에 영이 있다는 정령신앙이며, 샤머니즘이다. 본교에도 주술사인 무당이 있는데, 불교가 티벳에 정착되기 전 이들의 영향력은 대단히 컸다. 현재 티벳에 라마의 주술행위는 상당부분 전통종교인 본교에서 흡수한 것이다.

7) 이런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위에서 언급한 『티벳 불교사』를 쓴 야마구치 즈이호, 야자키 쇼켄 이다.

請問, 寄到南京的信要貼多少錢郵票?/ Qǐngwèn, jìdào de xìn yào tiē duōshao qián yóupiào?
(칭원, 지따오 난징 더 신 야오 티에 뚜오샤오 치엔 요우파오?) 실례지만, 남경에 부치는 편지는 얼마짜리 우표를 붙여야 하죠?

티벳 불교의 또다른 한 특성은 바로 활불(活佛) 사상으로 인한 광적인 라마에 대한 존숭(尊崇)이다.

있다.

티벳 불교의 또다른 한 특성은 바로 활불(活佛)사상으로 인한 광적인 라마에 대한 존숭(尊崇)이다. 티벳 불교에서는 불교의 삼보귀의(三寶歸依)에 라마보(喇嘛寶)를 추가하여 소위 「사보귀의(四寶歸依)」를 주장할 정도로 라마를 신격화하였다. 이는 전통 종교인 본교의 샤만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이런 성격으로 인해 라마교로 격하되기도 한다. 어찌되었든 이들은 고위의 상층 승려인 라마가 자기의 영혼을 육체에서 쉽게 버리고 자유로이 다른 육체로 옮길 수 있다고 하면서, 활불전세(活佛轉世)를 석가모니의 현현으로 믿고, 전적으로 신봉하고 있다. 이런 활불전세의 정점에는 달라이 라마의 법왕제(法王制)라는 티벳의 독특한 통치 형태로 구현되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티벳불교는 그 담당자들이 소수의 권력자들이었으며, 그들의 지상 목표는 권세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권력 추구에 주력하였다. 그래서 점차 티벳불교는 본래 그 주인공이어야 할 대중이 거의 무시되어 버리거나, 혹은 수동적인 입장밖에 취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티벳인들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티벳불교를 그대로 신봉하는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로부터 티벳 불교 특색 중의 하나인 불변성이 형성되었으며, 불변성의 그 정점에 바로 달라이 라마 법왕제가 존재했던 것이다.

티벳불교의 인생관과 그 영향

티벳불교의 인생관과 세계관에서는, 모든 인간의 현실세계를 '고통'으로 보고 있기에, '열반(涅槃)'의 상태에 들어가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극락세계에 가기 위해 빈 마음으로 부처를 예배하고, 수도(修道)에 힘쓰며, 윤회를 신봉하기에 금생에 선(善)을 행해 내세에 복을 누리며, 더 잘 태어나길 원한다. 따라서 티벳인들은 파리나 지렁이 같은 미물도 죽이지 않으려 노력한다. 특히 달라이 라마가 참선을 하던 3년 동안에는 전국의 건축업자들에게 산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포고령이 내려져, 건축 공사 시에 부주의한 삽질로 애벌레와 곤충을 죽일 수 있기에 공사 자체를 전면 금지시키기도 하였다.[8]

티벳인들은 라싸의 조캉 사원에 오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따라서 중국의 칭하이성(青海省) 등에서 1년 정도 걸려 순례 길을 걸어오면서 내내 오체투지(五體投地)를 하며, 깊은 신심(信心)을 표명하기도 한다. 오체투지란 사원과 라싸를 향해 절을 하는 종교의식이다. 먼저 두 손을 모아 합장한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갔다가, 머리에서 내려오는 손이 입술을 한 번 건드리고 가슴에서 멈춘다. 이후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땅바닥을 밀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땅에 밀착하여 엎드린 뒤,

8) 이 부분에 대해서 재미있게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책이 바로 얼마 전에 영화화되어 화제가 되었던 하인리이 하러, 『티베트에서의 7년』(서울 : 수문, 1989) 이다.

平信八分, 航空一毛。/ Píngxìn bā fēn, hángkōng yì máo.
(핑신 빠 펀, 항콩 이 마오) 일반 우편은 8전, 항공우편은 10전입니다.

맨 마지막에 두 팔을 머리 위로 곱게 편다. 이런 행위를 오체투지라고 하는데, 이 의식은 세 발짝 걸어가 절 한 번하고 일어날 때마다 네 걸음씩 전진하는 것인데, 이런 의식을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한다. 따라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흙 먼지투성이가 된다. 이때 이들의 팔 다리에는 찰과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대가 둘러져 있다. 티벳인들은 하루 종일 이 의식을 행하는데, 입으로는 끊임없이 경전을 암송하고, 두 눈은 종교적 기원을 담아 매우 진지하다. 이들은 매 순간의 행위를 통해 좀 더 나은 내세와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간절히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9]

티벳인들의 일상생활에서 티벳불교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들의 의, 식, 주, 결혼, 죽음 등에 티벳불교는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티벳인들은 물고기, 새우, 닭과 같은 작은 생명체는 금기시하여 먹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식사 전에 꼭 경(經)을 외우고 밥을 먹는다. 집집마다 경문통(經文桶)을 비치하여, 신앙의 열심을 표하고 있으며, 또 모든 가정마다 지붕에다 각양각색의 헝겊으로 된 티벳불교의 깃발을 걸어 놓고 있다. 이는 집에 상서로움을 가져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티벳인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불교의식이 생활화 되어 있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기도 바퀴(일명 經典桶이라고도 하는데 이 안에 불교 경전이 적혀 있다)'를 굴리며 '옴마니 밧메홈'이라고 중얼거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티벳인들은 호신용의 부적과 불경 경문, 사리, 옥 등을 지니고 다니는데, 이는 재앙을 피하기 위함이다.

티벳의 종교와 정치적 갈등 및 당면 문제

티벳의 독립 문제

현재 티벳이 당면한 갈등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티벳의 독립과 연관된 갈등이다. 이 문제는 티벳 망명정부와 중국 공산당 중앙 간에 좁혀질 수 없는 견해차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티벳이 독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중국 공산당의 통치 및 영토 문제, 통일 문제에 관련된 복잡한 것으로, 중국은 서구의 티벳 인권 보장과 종교 자유 보장 압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신적인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리더십 약화 문제

중국 공산당은 티벳 사회에 달라이 라마가 지닌 영향력을 잘 활용하여 티벳의 온건 통치를 통해 중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국제 사회에 민족 정책에 대한 성공적인 선례를 남기길 원한다. 한편 달라이 라마 역시 1959년 이후 계속된 해외에서의 망명 생활로 티벳 지역 내에서의 영향력이 갈수록 분리, 약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급진주의자들과의 티벳 독립에 대한 노선 차이로 같은 티벳인 사이에서도 달라이 라마에 반대를 표명하는 자들이 늘고 있어서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10] 이는 티벳의 유일한 정신적인 지도자로서의 달라이 라마의 지위와 위상, 역할을 흔드는 것으로, 이 점에 중국 공산당과 달라이 라마의 타협 가능성이 있다.

티벳인 공산당 관리와 중앙의 티벳 보조금 증가를 둘러싼 갈등과 문제

80년대 후반 들어 계속된 티벳 시위의 진정한 막후 주동자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티벳인 공산당 관리인 것으로 밝혀졌다.[11] 이들은 티벳불교 승려들을 앞세워, 현상태에서 아직 외부의 도움 없이 경제적인 자립과 발전이 불가능한 낙후된 티벳경제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위를 막후에서 조정하여, 티벳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시키고 있다. 또한 보다 더 내면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이들은 시위를 조정한 능력을 인정받아 공산당 간부로서 한 단계 더 승진을 하고, 중국 중앙의 인정을 받아, 자기 기득권을 계속 확대 유지하려고 한다. 이들은 결코 달라이 라마의 전통적인 티벳 봉건 통치를 환영하지 않는다.

한편 개혁개방 시대에 중국 동부 지역의 경제발전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경제적으로 발전한 성(省)에서, 티벳에 대해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티벳 통치에 대한 대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12] 이들은 다른 성이나 민족과 달리 티벳이 이런 특혜를 받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티벳불교와 사회주의 중국 간의 조화 문제

라마교의 인생관인 윤회설과 전생설은 티벳의 현실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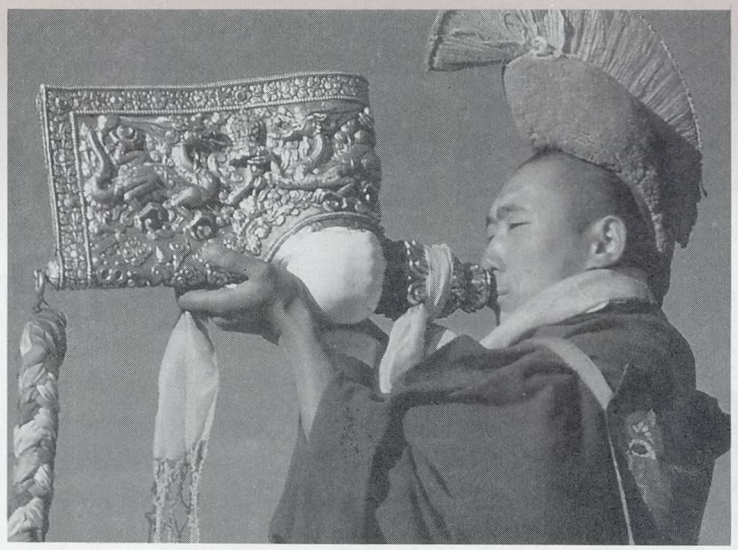
9) 본인 역시 이들이 오체투지하는 의식을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몸에 전율이 날 정도로 종교적인 경건과 열심이 대단했다. 티벳불교의 성지(聖地)와 성물(聖物)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오체투지 의식을 행하는 티벳인들을 볼수가 있다.

10) 王美, "流亡四十年, 達賴累了", 『九十年代』 1996. 10

11) 이와 같은 내막을 밝히고 글을 쓴 사람은 위에서 언급했던 "西藏示威的眞正幕後鼓動者"의 徐明旭 이다.

12) 이 부분은 王兆國 · 吳國光, 『鄧小平 이후의 中國』 (서울: 조선일보사, 1994)에서 잘 나와 있다.

您奇平信還是掛號信? / Nín jì píngxìn háishi guàhàoxìn?
(닌 지 핑신 하이스 꽈하오신?) 일반우편으로 부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등기로 부치시겠습니까?



라마교의 인생관인 윤회설과 전생설은 티벳의 현실 경제 발전과 근대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 발전과 근대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티벳 불교와 그 문화적인 영향으로 인해 티벳이 전근대성,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어, 바로 이 부분에서 사회주의 중국과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하나 중국 공산당 역시 강력한 토탈리즘(totalism) 체제[13]로 공산당과 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외에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강권 통치를 하고 있는데, 티벳 불교는 유일한 구심점으로 달라이 라마에 대한 법왕제를 근본으로 하고 있어서, 이 역시 사회주의 중국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가 회의적이다.

선교적 전망

티벳에 대한 기독교 선교는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왔던 네스토리안들의 발자취가 있다.[14] 하지만 자료로 그 흔적이 분명하게 남아 있지 않다. 기록상으로는 15, 16 세기에 들어와 예수회, 프란시스칸 등의 신부들이 티벳에 들어와 활동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근대 역사로 들어오면 1910~1920 년대에 인도의 썬다싱, 카타르 싱 등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티벳에 들어와 선교 활동을 하다가 고난을 겪고, 카타르 싱은 순교를 당한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티벳에 대한 선교는 티벳 자체의 폐쇄적인 정책과 티벳 불교라는 강력한 정교합일 통치 체제 속에서 선교적인 기회가 전혀 없었다. 뒤이어 중국 공산주의의 철권 통치 상황에 놓이게 되어 또다른 선교적 장애와 협곡을 만나게 된다.

이런 상황은 1980년 이후 중국의 티벳에 대한 개혁개방 정책과 온건 통치 정책으로 전환이 되었다. 이후부터 현재까지 해외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티벳 내에 들어가 유학, 언어 습득, 영어 교수, 비즈니스 맨 등의 신분으로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워낙 그 전에 기독교의 영향력이 미미한 환경이었기에, 서구 기독교계에서 발행하는 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티벳과 전세계의 500만 티벳인 중 기독교인이 약 300명에 불과하다고 할 정도이다. 전체적인 통계면에서 볼 때 또한 자생적인 토착 교회의 설립면에서 티벳은 분명 여전히 미전도 종족임에 틀림없다.

티벳이란 거대한 미전도 종족의 필요와 또 그 기회가 다른 미전도 종족들에 비해 외재적으로 열려 있는 것은, 하나님의 중국 공산당을 통한 섭리와 예비하심이다. 이런 정치와 종교 관계 속에 있는 티벳을 이해하여야 하는데, 티벳 선교를 위해선 중국과 티벳 불교에 대한 두 가지 이해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티벳을 전략적으로 복음화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티벳을 연구함으로 티벳선교의 가능성과 그 필요를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 또한 바로 이 점에서 현재의 티벳 선교는 직접적인 복음전파와 티벳의 경제, 사회 발전을 둘 다 고려하는 총체적인 선교가 이루어져야 할 적기임을 주목하게 되었다. 이후 강력한 티벳 불교에 대한 기독교적인 변증 작업이 시급한 과제이다.

13) 중국계 정치학자 鄒讜은 그의 책 『二十世紀中國政治— 從宏觀歷史與微觀行動角度看』(香港 : 牛津, 1994)에서 토탈리즘을 정치기구의 권력이 그 어느 때나 무제한 적으로 사회의 각 계층과 모든 영역에 침입하여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14) 티벳에 대한 서구인들의 선교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책으로 僞昆明, 『早期傳教士進藏活動史』(北京 : 中國藏 學出版社, 1992)를 참고할 수 있다.

한윤숙/ AAP 종족과 도시선교 연구소 연구원

유교는 과연 중국에서 부활될 것인가?

원빈(文彬)

1995년 현 중국 국가주석 장쩌민(江澤民)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적이 있다. 근 한 주 동안이나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국의 이모저모를 관심있게 살펴보던 장쩌민 주석은 특별히 한국 문화의 저변에 깔려있는 유교(儒敎) 문화와 풍습에 깊은 감동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그는 수행원들에게 '자고로 유교는 우리 중국의 전통 문화였다. 우리도 유교전통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후문이 있다.

장쩌민 주석이 과연 그 같은 말을 했다면 그 속에는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적어도 현재 중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비롯된 전통적인 윤리도덕의 소실과 가치관의 혼란에 대한 정치 지도자들의 깊은 우려가 담겨 있음을 읽어낼 수 있다.

정치지도자들의 고뇌

20세기 초엽 서방의 철학사상이 중국에 활발히 소개되면서 신문화(新文化)운동이 발발했다. 낡은 것을 폐지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자는 개화된 지식인들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신문화운동의 본질은 서구 진보사상의 도입이었는데 그 주류가 곧 공산주의 운동이었다. 이어 1949년 중국에 공산주의 체제가 수립되면서 고유의 문화전통은 사회주의 운동에 의해 점차 숙청되었고 공산주의 사상이 유일한 진리의 기준으로 민중들에게 강요되었다.

60~70년대에 발생한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운동은 사실상 전통문화에 대한 파괴였다. 이러한 공산주의 운동의 와중에 여지없이 훼파된 전통문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곧 유교사상이었다. 누구든지 유교를 말하는 것은 곧 공산주의를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유교는 봉건 복구세력의 상징물이 되었다. 공산주의 통치하에서 유교는 더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반동세력이 되었고 민중들의 삶 속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중국 민중은 생소하지만 그토록 강력한 공산주의 붉은 물결 속에 자신들의 꿈과 생을 이어왔다. 그리하여 공산주의 사상은 모든 중국 민중들에게 있어서 항거할 수 없는 가치와 도덕의 기준이 되어 버렸다. 이것이 모택동(毛澤東)시대의 특징이다.

80년대에 이르러 덩샤오핑(鄧少平)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중국에는 개혁개방이라는 전대미문의 물꼬가 열리게 되었다. 생산력이 향상되고 민중의 생활이 점차 가난에서 벗어나면서 사람들은 서구적인 물질문명에

這封航空信寄到倫敦貼一塊錢郵票夠嗎?/ Zhè fēng hángkōngxìn jìdào Lúndūn tiē yí kuài qián yóupiào gòu ma?
(쩌 펑 항콩신 지 따오 룬둔 티에 이 콰이 치엔 요우파오 꺼우 마?)
이 항공우편을 런던에 부치는데, 1원 짜리 우표를 붙이면 됩니까?

중국 정치지도자들과 지식인들중 일부에서는 유교의 문화 전통을 되살리자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눈이 뜨이기 시작했다. 서방세계와의 빈번한 접촉은 산업기술의 발전을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기 시작하였다. 과거의 절대주의 사고방식에서 점차 상대주의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변화되었고, 이제는 이념이나 국가보다도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의식분야에서의 소리없는 혁명이요, 변화가 아닐 수 없었다. 과거의 국민적 영웅들은 더이상 민중의 가치관과 도덕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웃음거리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되었다. 이것은 곧 공산주의 사상이념의 몰락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 중국인들 가운데 공산주의를 절대 진리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공산주의는 강력한 정권의 통제하에 체제유지를 위한 방편으로만 남아있을 뿐, 민중들에 대한 의식형태 영역에서의 통제력은 이미 상실해 버렸다.

유일한 가치기준으로서의 공산주의 사상이 몰락해 가고 있는 지금, 중국 민중들은 오로지 하나의 공통된 목표인 돈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뿐이다. 돈만 있으면 된다는 황금만능주의 사상은 어느 사이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이젠 돈과 지위에 따라 개인의 가치가 평가된다. 비록 경제력은 향상되었지만 반대로 민중의 도덕성은 바닥에 떨어져 버렸다. 온갖 부정부패는 사회의 요소마다 침투되어 전사회를 좀먹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민중의 마음속에 가치와 도덕의 기준이 사라진 마당에 그 어떤 정책이나 규제도 한낱 모래성 쌓기에 불과했다. 이것이 곧 중국 정치지도자들의 고뇌이다.

중국 정치 지도자들은 지금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미 사라진 지 오랜 유교전통이 거론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식계의 일각에서도 유교의 문화전통을 되살리자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은 유교가 본래 중국에서 기원된 중국 고유의 전통문화라는 자연스러운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자국문화를 중요시하는 그러한 지식계 인사들의 주장처럼 어쩌면 유교의 부활이 시대적인 요구에 합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유교가 과연 중국에서 다시 부활될 것인가? 유교가 과연 중국 민중들의 도덕과 가치의 기준으로 다시 문화적인 통제력을 회복하게 될 것인가? 그러나 유교의 부활은 적어도 아래와 같은 높은 장벽들을 초월해야만 한다.

자유화의 시대적 흐름

엄격한 의미에서 유교는 일종의 사상체계로서 문화적인 존재이지 신적 권위를 가진 종교가 아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유교는 반드시 강력한 전제통치의 옹호와 지지하에서만이 비로소 국가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일찍 춘추전국시기에 공자와 그의 제자 맹자에 의해 유교사상은 이미 체계화 되었지만, 유교가 진정으로 국가적 이념이 되기는 전한(前漢)의 무제(武帝)통치 시기(B.C140-B.C88)에 이르러서였다. 한무제의 요구와 지지 속에 저명한 유학자 동중서(董仲舒)에 의하여 유교는 비로소 한(漢)제국의 국가적인 이론으로 발돋움 하기 시작했다. 한무제는 곧 전 제국에 영을 내려 당시 유교와 공존했던 다른 사상이론들을 폐지하고 오직 유교만 숭상하도록 하였다. 모든 국가관리직에는 유교의 엄격한 사상이론으로 세뇌된 선비들만을 등용하였다. 이러한 장기적인 유교정치로 인해 고대 중국은 귀족과 관리계층을 중심으로 한 유교국가로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이다. 세계적으로 또다른 유교국가를 찾아본다면 아마도 고대 조선과 일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들이 유교국가로 된 것도 중국처럼 전제주의 정권의 의도적인 유교정치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처럼 신적인 통제력을 구비하지 못한 유교는 강압적인 수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보편화된 적이 없었다.

현대 중국사회에 유교가 다시 국가적인 사상이론으로 부활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그것은 곧 현 중국정부의 강력한 사상통제와 아울러 장기적인 유교정치가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현대 중국사회에서 과거와 같은 사상의 식영역의 통제는 이미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중국사회가 서방세계를 향해 개방된 문호를 다시는 닫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중국은 서구식의 물질문명을 자신의 목표로 하여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서구사회로부터 시장경제를 도입했고 이러한 경제체제는 전국의 국유기업에까지 확산되었다. 경제영역에서 뿐만아니라 사회의 의식형태를 선도하는 대학가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닥쳤다. 소수의 명문대학만이 국가의 재정후원을 받을 수 있을 뿐, 기타 대학들은 모두 민영화하게 된다. 이제는 산업사회의 적자생존의 원리가 중국사회를 지배하게 된다. 중국을 더 이상 정통적인 공산주의 국가로 간주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덩샤오핑과 그의 후계자 장쩌민 주석이 계속하여 표방하고 있는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란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의 자체 정당성의 변호인 것이다. 현 중국사회의 본질을 「사회주의 정치+자본주의 경영」으로 형용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적절할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강령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경제건설을 핵심으로 하는 마당에서 효과적인 경제발전과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발전을 보호하고 자극할 수 있는 법적 질서를 갖추어야 하는 시급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제 중국은 법치사회를 지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법보다 이념에 의존하는 과거의 통치방식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서구문화의 영향

문화대혁명을 정점으로 사회주의 혁명운동이 극심했

20년에 가까운 개방과 개혁의 격변기는 젊은 세대들의 시야와 상상력을 넓혀 주었다. 매스컴을 통해 서구사회의 선진적인 물질생활이 황홀하게 다가왔고 자국과 서구간의 생활격차를 실감케 하였다.

這封信超重五克, 要貼一塊四毛錢的郵票。/ Zhè fēng xìn chāozhòng wǔ kè, yào tiē yí kuài sì máo qián de yóupiào.
(쩌 펑 신 차오중 우 커, 야오 티에 이 콰이 쓰 마오 치엔 더 요우파오.)
이 편지는 5g을 넘었어요. 1원 40전 짜리 우표를 더 붙여야 합니다.

던 그 시절, 역사적으로 주변 소수민족 문화의 희석 작용과 아울러 아편전쟁 이후의 근대 서구사상의 충격으로 휘청거리던 유교사상과 전통은 끝내 중국 민중들의 삶 속에서 철저히 소실되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교'라는 표현자체도 민중들에게는 반감을 자아내는 대명사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자라난 젊은 세대들의 정서 속에는 유교의 그림자란 더이상 찾아볼 수 없다. 이들에게 있어서 유교란 케케묵은 옛날이야기에 불과할 뿐이다. 더구나 이들의 성장시기는 절대이념이었던 공산주의 사상의 신기루가 서구의 물질문화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한 격변기였다. 전 소련의 해체와 체제전환은 젊은이들에게 크다란 충격과 함께 사회주의 체제의 절대성에 대한 의문을 던져주었다.

20년에 가까운 개방과 개혁의 격변기는 젊은 세대들의 시야와 상상력을 넓혀 주었다. 우선 이 시대는 TV가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따라서 안방에서도 세상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매스컴을 통해 서구사회의 선진적인 물질생활이 황홀하게 다가왔고 자국과 서구 간의 생활격차를 실감케 하였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래 돋친 듯 서양으로 날아가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곧 80년대를 뜨겁게 달구었던 출국열(出國熱)이었다. 자국의 전통문화를 담고 있는 서적들은 도서관이나 서점의 한 귀퉁이에서 뽀얗게 먼지가 쌓여가지만 서구의 문화와 사상을 소개하는 책자들은 불티나게 팔려 나갔다. 젊은이들의 의복단장은 해방군복에서 어느 사이에 양복으로 바뀌었고 요즘에는 캐주얼로 바뀌었다. 북경의 상업중심가인 왕푸징(王府井)거리의 유명한 전통의복점은 90년대에 들어 양복점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KFC, 피자, 맥도널드 체인점은 놀라운 속도로 도시의 곳곳에 확장되고 있다.

서구의 자기중심적인 생활방식은 젊은이들의 몸에 깊숙이 박혀가고 있다. 거리나 공원 벤치에서의 젊은 연인들의 뜨거운 애정표현은 지나가는 행인들의 얼굴을 뜨겁게 한다.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시각 따위에는 애당초 관심조차 없다. 게다가 80년대 초부터 국법으로 시행된 산아제한정책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왕자나 공주의 대접을 받으며 자라온 독자, 독녀들은 완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현대판 X세대들이다.

이들에게 과연 유교가 얼마나 매력이 있을까? 아무리 전통문화라고 할지라도 유교가 이들에게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여권의 향상

중국에서 유교의 전통이 사라지면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문화현상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이다. 이미 여성의 사회진출이 보편화된지 오래되었으며 이들은 남성들과 꼭 같이 동등한 노임을 받으면서 생산과 직업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유교의 '남존여비(男尊女卑)'사상은 도시사회를 중심으로 사라져 버렸다.

여성들의 지위향상은 무엇보다 가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보편적으로 중국가정의 핵은 아버지가 아니라 오히려 어머니이다. 대부분의 중국가정들에서 최후의 결재자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이다. 자녀들의 호적도 비록 아버지의 성씨를 따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반드시 어머니 쪽으로 호적등록을 하게 되어 있다. 물론 원하면 어머니의 성씨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 대개 중국여성들은 남성들을 의지하는 과거의 의식에서 해방되어 독립성이 매우 강하다.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생활을 윤택하게 꾸려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다.

중국 가정들에서 가사는 남편과 아내가 공평하게 담당한다.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든 남성의 수와 여성의 수는 언제나 대등하다. 일부지역에서는 자질구레한 가사를 남편들이 거의 도맡아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중국가정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는 더이상 찾아보기가 드물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사라진 가정, 이것이 중국가정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일 것이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정부나 기관의 요직에 진출하는 여성들의 수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사회공직에서 이들은 더 많은 권리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몇년전 UN세계부녀대회가 북경에서 개최된 것도 중국사회에서의 여권향상에 대한 격찬의 의미가 담겨있을 것이다.

만약 중국에서 유교를 부활시키고자 한다고 가정할 때, 제일 먼저 반기를 들게 될 사람들은 바로 여성들이 될 것이다. 가령 앞으로 중국사회의 자유화의 물결이 정치영역에까지 확산된다 할지라도 여권을 제한하는 유교문화의 부활은 오히려 더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다민족문화

중국에서 유교의 전통이 사라지면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문화현상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이다.
만약 중국에서 유교를 부활시키고자 한다고 가정할 때, 제일 먼저 반기를 들게 될 사람들은 바로 여성들이 될 것이다.

중국에는 한족(漢族)이외에도 55개의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다. 이 소수민족들은 비록 전체인구의 8%밖에 안되지만, 국토면적의 2/3가 넘는 광활한 지역에서 각기 다른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다. 특히 그 중의 많은 민족들의 문화풍습은 그들의 신성불가침의 종교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를 들면 티베트에 거주하고 있는 장족(藏族)이나 서북지역에 살고 있는 위구르족들이 대표적이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신성한 종교인 라마불교나 이슬람교를 갖고 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유교가 영향을 끼친 적은 거의 없었으며 또한 영향을 줄 수도 없었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함께 바다와 가까운 연해지역의 경제는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다. 게다가 연해지역은 전통적으로 한족들이 거주해온 지역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수민족들이 살고있는 내륙지역의 경제는 연해지역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낙후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내륙 소수민족들의 불만정서를 유발시켰고 이러한 불만정서는 드디어 민족적 갈등과 종교문제로까지 표출되고 있다.

소수민족 문제는 중국이 안고 있는 뜨거운 감자이다. 중국사회의 번영과 안정은 소수민족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과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내륙 소수민족지역의 경제개발과 아울러 교육을 발전시켜야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의 문화와 전통 및 종교를 존중하고 보호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러한 다민족문화는 유교의 부활과 확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맺는말

금세기 80년대에 시작된 개혁개방의 변혁은 중국에 놀라운 경제성장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 반면에 전통적인 윤리도덕의 소실과 가치관의 혼란이라는 결과도 초래하였다. 설상가상으로 공산주의 윤리도덕과 가치관은 더이상 민중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렸다. 이러한 의식형태 영역에서의 일대 혼란은 지난 중국역사에서도 찾아보기 드물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정치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학자와 지식인들을 고뇌에 빠져들게 하였다. 이들은 지금 애써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유교를 부활시키자는 목소리도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터져 나온 것이다. 그러나 사라진 지가 오랜 유교사상의 회복은 결코 말처럼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불교나 모슬렘, 그리고 민간종교들이 더욱 힘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때가 바로 얻기 힘든 가장 좋은 기회이다. 바로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여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영생과 사랑, 아울러 인간이 진정으로 인간다울 수 있는 바른 도덕과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한다.

文彬/ 중국 현지인

您喜歡哪套, 請自己挑吧。 / Nin xǐhuan nǎ tào, qǐng zìjǐ tiāo ba.
(닌 시환 나 타오, 칭 쯔지 티아오 바.) 어느 세트를 좋아하시는지요, 손수 골라보세요.

중국 도시민들은 무엇으로 바쁜가?

충칭 사람(重慶人)

낮에는 바쁘고 저녁에는 분주하다. 밤이든 낮이든 한가한 충칭 사람을 찾아 보기 어렵다. 항상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화끈하고 시원스런 것이 충칭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다.

청두 사람(成都人)

낮에는 돈을 버느라 바쁘고 밤에는 돈을 쓰느라 바쁘다. 청두 사람들은 예로부터 '한가'하기로 유명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품경제를 따라잡기 위해 전력질주하느라 모두가 돈 벌기에 바쁘다. 그러다가도 밤이 되면 슬리퍼를 신고 손에 부채를 든채,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이나 광장 길가에서 꼬치를 사 먹거나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야시장을 거닐거나 마작(麻雀)을 한다.

쿤밍 사람(昆明人)

돈 버는 일에 바쁘지 않고 돈 쓰는 데도 조급하지 않다. 쿤밍은 사계절이 봄 같다. 이같은 기후 환경은 쿤밍인들 특유의 성격을 형성했다. 그것은 바로 중성(中性)이다. 미지근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며, 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은 것이다. 따라서 쿤밍인들에게는 가장 바쁘거나 가장 한가한 날이란 없다.

베이징 사람(北京人)

유행을 쫓아가지 않고 유행을 창조한다. 오랫동안 황제가 거주했던 베이징에 사는 베이징인들은 가장 중국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상하이(上海) 사람들 같이 자만하지 않고 광저우(廣州) 사람들처럼 돈을 생명같이 여기지 않는다. 또한 내륙 사람처럼 보수적이지 않으며 해안 사람들처럼 개방적이지도 않다.

상하이 사람(上海人)

아침에는 집에서 주식 거래를 하고 밤에는 밖에 나가 외화를 벌어들인다. '하늘이 주신 호기'를 놓칠세라 상하이인들 가운데는 '24시간' 투자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주식, 채권, 외화 등을 가지고 돈놀이하는 사람들이 많다. 상하이인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70% 이상이 밤낮없이 돈 버는 데 바쁘다.

원저우 사람(溫州人)

돈을 벌려면 밖으로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벌 생각도 하지 말아라. 원저우 사람들의 관점은 돈이 있으면 집안에 안주하고, 중국 어디를 가든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큰 회사의 사장은 큰 돈을 노리고 작은 회사 사장은 작은 돈을 노린다. 원저우인들은 촨둥(川東 - 쓰촨성(四川省) 동부)의 벽지를 가더라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없는 데가 없다. (中國旅游報)

「베이징저널」 제63호에서 발췌

這幾種郵票我每樣要兩套。 / Zhè jǐ zhǒng yóupiào wǒ měi yàng liǎng tào.
(쩌 지 중 요우피아오 워 메이 양 야오 량 타오.) 이 몇 종류의 우표에서 각각 두 세트를 주세요.

중국의 종교정책과 기독교 상황

판옌(凡言)

지난 1997년은 중국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한 해였다. 덩샤오핑(鄧少平) 사망, 홍콩반환, 중공 15차 전국인민 대표자회의, 장쩌민(江澤民) 방미(訪美) 등 많은 일들이 일어 났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중국의 미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현재 중국의 기독교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 중국에서는 복음이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정확한 상황판단과 전략에 달려있다고 본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보고 들은 것들과 그 밖의 자료들을 가지고, 중국에서의 기독교 상황에 대한 생각들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한 개인의 생각이란 단편적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생각들을 모은다면, 보다 객관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는 다음에서 세 가지 방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정부의 종교정책, 두번째는 정부와 기독교와의 관계, 세 번째는 중국에서 기독교의 제3의 물결에 관한 것이다.

중앙 정부의 세 가지 종교정책

중화인민 공화국 헌법에서는 중국 국민들이 자유롭게 각자가 원하는 종교를 믿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국무원과 종교국에서는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의 5대 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한다고 하고 있다. 그 밖의 모든 종교는 불법이며 이들 종교들은 종교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안국에서 관리와 통제를 가한다. 5대 종교 중에서 정식 도교 신자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불교는 일반서민들 가운데 많은 신자들을 가지고 있고, 이슬람교는 10개의 소수민족들을 신자로 확보하고 있다. 천주교와 기독교는 근래들어 가장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잘 아는 대로 중국에서는 법률로 정해놓은 법조문과 정부 정책은 서로 다르며, 정부 정책이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현재 중국 정부는 각 종교에 대해 차별적인 정책을 쓰고 있다고 여겨진다. 불교에 대해서는 지지와 옹호로,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냉랭한 태도로, 기독교에 대해서는 진압과 통제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종교정책은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로 차별화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뿌리깊은 중국의 문화 유산, 불교

먼저 불교에 대해 옹호와 지지의 태도를 보이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 중국에서 개혁개방을 처음 실시할 때,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여행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 전국의 명승고적들을 복원하고 수리했다. 그런데 중국의 명산과 고적들은 대부분 불교유산인 경우가 많다. 절을 수리해 놓으

我再買五張明信片。/ Wǒ zài mǎi wǔ zhāng míngxìnpiàn.
(워 짜이 마이 우 장 밍신피엔.) 엽서 다섯 장도 더 사겠습니다.

니 자연히 중, 비구니 등 승려들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속세로 내려간 승려들을 다시 절로 불러들였는데, 심지어는 가짜 중들을 데려다가 이들에게 유적지를 지키도록 하여, 그들과 여행수입을 나누어 가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정부에서 불교를 옹호하는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중국에서 불교의 영향력이 뿌리깊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일부 관리들과 그 가족들은 과거에 부처를 섬긴 적이 있어, 불교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친근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불교 사찰들을 복구하거나 재건할 때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들 관리들은 불교가 비록 사회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고 인식할 뿐 아니라, 불교는 인내와 선행을 강조함으로 사회 안정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그 밖에 또다른 이유로는, 정부관료들이나 지식인들이 불교를 중국의 종교이자 중국 문화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전통 문화를 발전시키자면 불교문화 또한 발전시켜야 한다. 그 밖에도 불교는 홍콩, 대만, 해외 화교들 사이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 중국이 통일전선 작전을 수행하는 데 중요 고려사항이 된다.

현재 중국에서는 불경과 포교용 서적 등, 불교서적들은 아무런 제한없이 일반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1997년 가을 북경에서 열렸던 도서전시회에서 불교와 불교의 한 종파인 라마교 서적들이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이들 불교서적들은 아무 정치적 문제들을 야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출판사에 짭짤한 수입도 올려 주었다.

소수민족의 독립은 불가, 이슬람교는 시한폭탄

중국에서 이슬람교에 대해서 냉랭하게 대하는 것은 그럴 만한 속사정이 있다. 중국에서 이슬람 문제는 소수민족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이슬람을 믿는 소수민족들은 서북지방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곳의 소수민족들은 독립하려는 경향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이들 분리주의자들에 대해 강경진압하는 한편, 이들 소수민족에 대해 무마정책을 쓰고 있다. 이들이 믿는 이슬람교는 만지면 터지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국내외 이슬람교 세력의 확장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글을 발표한다든가 서적을 출판하는 일은 드물다. 이유는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 움직임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이다. 본인이 접촉해본 이슬람 연구학자들은 정부에서 이슬람교에 관한 학술서적들과 출판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데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었지만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중 대다수는 정부가 안정과 통일을 유지하려는 고충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기도 했다. 아무튼 상황이 그렇다 해도 이슬람교의 경전 《코란》은 신화서점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

기독교는 제국주의의 앞잡이, 반기독교운동

카톨릭을 포함, 기독교에 대해 제한과 탄압 조치를 하는 데에는 다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역사적인 이유이다. 근세에 기독교는 제국주의의 대포와 함께 중국에 들어왔다. 그래서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애국운동 그리고 반기독교운동이 서로 맞물려 있다. 중국 관료들과 일반 민중사이에 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

這封信寄到東京要一個星期。 / Zhè fēng xìn jìdào dōngjīng yào yí ge xīngqi.
(쩌 펑 신 지따오 둥징 야오 이 거 싱치.) 이 편지가 동경에 도달하는 데는 1주일 걸립니다.

들이 기독교를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 수단이라고 믿고 있으며, 나라를 사랑하는 중국인들이 서양 종교를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다.

또다른 원인은 현실적인 데 있다. 정부는 기독교 교회들이 중국정권을 위협하는 조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몇 년 전 중국 국가주석이었던 왕전(王震)의 발언은 이 점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그는 농촌에서 기독교가 하급 당지부 자리로 교체되고 있는데, 이는 기독교가 공산당 권력을 탈취한 것과 같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국제적으로 인권문제로 인하여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국가들은 바로 기독교 국가들이다. 이로 인해 공산당은 기독교를 적대세력으로 간주하고 통제와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중국 관리들의 기독교에 대한 무지에 있다고 본다. 무지는 편견을 부르게 되고, 두려움을 가져온다. 최근의 개혁개방 기간 동안에 기독교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는 중국 지도자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다. 교회는 통제와 탄압조치로 인해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더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 정부의 강압조치는 아무 효과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도처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사교와 이단들이 횡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기독교에 대해 무지한 관리들은 순수 기독교 활동과 이단, 사교를 가리지 않고 더욱 엄하게 진압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진압하면 할수록 그 숫자는 점점 많아졌고 적대적인 감정은 더욱 깊어졌다. 이런 악순환은 계속됐다.

이상 세 가지 종교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에서의 기독교 전파활동은 문화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다른 종교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중국 국민과 정부관리들이 기독교의 본모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중국인의 신분과 기독교 신자의 신분이 서로 대립될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또 기독교가 성장하면 사회적인 안정과 도덕성이 높아지는 데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해외 화교들의 지적(知的), 물적(物的)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관리들에게 해외에 있는 화교들 사이에서 기독교가 중요한 지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겠다. 사실, 북미(北美)에서는 화교 교회들이 불교사원들보다 수가 훨씬 더 많으며, 화교 기독교 인구도 화교 불교도들보다 많다.

지방정부와 기독교와의 세 가지 유형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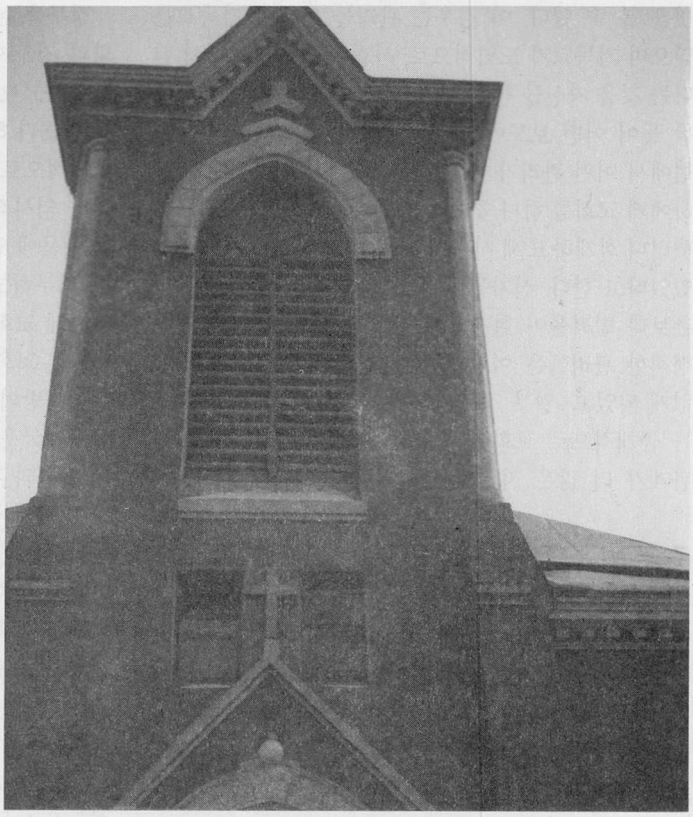
개혁개방이 강도있게 추진되면서, 각 지방마다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서로 다른 정책을 쓰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이 전국적으로 구석구석까지 시행되기 힘들게 되었다. 기독교에 대한 통제와 진압조치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지방정부와 기독교와의 관계를 세 가지 유형으로 압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정부가 교회를 통제하고 진압하는 곳, 둘째 정부가 기독교를 법대로 처리하고 보호하는 곳, 셋째 정부가 기독교의 발전을 장려하는 곳 등이다. 정부의 가정교회 탄압에 관해서는 북미의 화교 교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96년부터 시행된 <집중 단속>으로 수많은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체포되거나 구속당했고, 강제노동이나 실형을 언도 받고 징역살이를 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가 허가한 삼자교회에 대해서도 엄격한 감시와 제한사항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필자가 방문했던 동북의 어느 도시에서는 교회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는데, 집회장소는 아주 협소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교회증축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었으며, 종교국 사람들은 세례받은 사람들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 등 늘 교회에 들러 교회상황을 탐문해 가고있다. 그러면서 젊은 전도사에게는 심문을 가하고 경고 조치를 주었다. 심지어는 목사와 교회 임직원들이 모이는 정례회의에 자기들이 같이 참석하게 할 것을 요구해 오기도 했다. 교회의 목사와 전도사들은 교회신자들의 안전과 사역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 정부 관리들에게 밉보일 수 없기에 가능한 한 방법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세례자 명단을 개인 신상 기록부함에 넣지 않는다든지 법조문을 인용하면서 교회업무의 독립성을 주장하고 외부간섭을 피하고 있다.

이러한 통제나 진압활동은 베이징(北京)과 허베이(河北)성 바오딩(保定)시 등 교회활동이 활발한 곳과 대도시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는 오래

請問, 寄到南京的信要貼多少錢郵票?/ Qǐngwèn, jìdào de xìn yào tiē duōshao qián yóupiào?
(칭원, 지따오 난징 더 신 야오 티에 뚜오샤오 치엔 요우파오?) 실례지만, 남경에 부치는 편지는 얼마짜리 우표를 붙여야 하죠?



전부터 정부와 교회와의 대립이 있었고, 정부와 교회가 서로 부딪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진압을 가하는 하급관리들은 중앙정부의 전체적인 정책에 맹목적으로 순종하기에 이러한 대립관계는 앞으로도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지역에서도 어떤 정부기관이나 개별적인 관리들은 넓은 시각에서 법을 적용시키고 있기에, 중국 정부가 언제나 철벽같이 단단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보자. 동북지방의 어떤 도시에서는 해외에서 들여온 기독교 서적들과 성경을 세관에서 압수한 적이 있었다. 세관은 이 서적들을 공안국에 넘겨 처분토록 했는데, 공안국에서는 이를 넘겨받아 없애지 않고, 몰래 교회에 알려 돈을 내고 사가도록 한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교회는 기뻐하면서 구하기 힘든 자료들을 사가지고 돌아갔던 것이다.

최근 몇 년 간 그 곳의 정부관리들이 공개적으로나 비밀리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어떤 지역에서는 관리들이 기독교에 대해 특별한 대우없이 가능한 한 법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들 관리들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기독교가 성장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지만 신자들이 합법적인 요구를 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법대로 처리를 한다. 예를 들면 필자가 방문했던 화북의 한 도시는 과거에는 교회가 없었다. 그러나 90년대 초 한 기독교인이 현지 종교국에다 교회를 세우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결국 그 지방의 첫 번째 교회가 인가받아 세워지게 됐다. 그 후 교회는 원래 교회재산이었던 땅 한 곳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땅은 원래 공산화 이전 한 서양 선교사가 남긴 땅이었다. 그러나 과거 교회 건축물들은 문화 대혁명 기간동안에 허물어지고 그 터에 여러 가구의 집들이 들어섰던 것이었다. 교회소유 토지를 되찾는 과정에서 현지 종교기관의 관리들은 중재자가 돼 그곳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후에 이주를 결사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종교국 사람들도 손을 쓸 수 없게 되자 교회는 이 사건을 현지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 이주반대자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다. 현재 이 교회는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매년 수십 명이 세례를 받고 있다고 하며, 그 곳 교회와 정부기관은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주요 이유로는, 현지관리들이 과거 기독교와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으며 또 기독교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번도 기독교도들과 싸운 적도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에게 문제를 야기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법대로 이런 일들을 처리하고자 하는 정신과 현명한 관리들도 그 이유에 포함된다. 법률관념이 확산되면서 이렇게 법대로 처리하는 사례들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세 번째 관계는 더욱 재미있다. 정부관리들이 기독교의 성장에 대해 낙관적이며 심지어 장려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관리들 자신이 기독교를 믿으며 기독교가 도덕적으로, 사회치안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자신들 눈으로 직접 보고 아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어떤 보도에 따르면 윈난(雲南)성에 있는 한 현에서 어떤 관리가 매일 술에 찌들어 사는 술고래 부하에게 교회를 하나 찾아내 부하에게 교회를 다니도록 했더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 다시 출근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신자들이 많은 향촌은 그렇지 않은 향촌보다 범죄율이 현저하게 낮았는데, 이로 인해 일부 정직한 관리들은 이런 명백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일부 정부관리은 자기 자신들도 몰래 또는 공개적으로 교회에 등록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런 관계가 더 많은 지역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해본다.

중국 기독교의 큰 흐름

현재 중국의 기독교는 세 가지 유형의 조류를 보이며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다. 하나는 공개적 교회 두 번째는 가정교회 세 번째는 학문적인 기독교이다.

삼자 애국운동과 공개(삼자)교회

공개 교회란 삼자(三自)교회로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가며(自治), 자신이 신자와 목회자들을 길러내고(自養), 자신들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自傳) 교회를 말하는데, 이는 대부분 기독교 삼자 애국운동위원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교회이다. 천주교측에서 말하자면, 중국 천주교 애국회에 가입 되어있는 교회를 말한다.

삼자애국운동은 20세기 초인 20-30년대부터 시작됐다. 삼자애국운동은 50년대 다시 출현했는데, 이는 공산당 정권의 통제로 실시되다가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자 모든 삼자교회는 문을 닫았다. 그러다가 70년대 초 중국과 미국이 수교하면서 서양사절단을 배려해 북경의 충원먼(崇文門)교회를 다시 열게 했다. 1979년에는 외국 우호사절단의 방문에 때맞춰 상해의 무언탕(沐恩堂)교회가 급작스레 문을 열었고, 이어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삼자교회도 잇달아 대외에 개방하기 시작했다. 삼자교회는 중앙정부의 통제와 탄압정책하에 어렵게 어렵게 작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러한 교회들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공개적으로 예배와 정상 종교활동을 할 수 있었다.

정부측 삼자애국 운동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삼자교회의 지도자들은 법률에 합당한 종교활동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정부측의 통제는 받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삼자교회측은 끊임없이 합법적으로 공간을 늘리기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인 갈등과 삼자애국운동위원회의 지도자들 때문에 일부 기독교 신자들은 삼자교회에 출석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공개 교회에는 삼자교회 외에도 정부의 허가를 받은 또다른 교회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앞에서 언급했던 화북지방의 작은 도시의 교회로, 이 교회는 정식으로 삼자애국운동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 그러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94년 이후에 종교집회 장소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일부교회들은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정부에 등록을 했다. 그러나 그들은 삼자애국운동 조직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던 것이다. 이들 삼자 또는 비삼자의 공개 교회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1997년 여름, 중앙정부에서 하달된 문서에서는 현재 대략 1만 2천 교회와 2만 5천의 집회장소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수많은 중국인들에게 있어 이들 교회들은 그들이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는 정당한 장소이다. 필자는 미국에 오기 전, 책을 통해 기독교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 후 기독교인들과 접촉하면서 공개된 교회를 찾게 되었고, 그 후에는 또 친구들을 데리고 이들 교회에 출석했다. 그래서 공개 교회는 복음전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비공개(가정) 교회

가정교회 또는 지하교회라고도 하는 아직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교회를 말한다. 그들은 보통 예배당이 없고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세계적으로 가정교회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공산당 통치하에 생긴 특수한 부산물이다. 문화대혁명 기간 중에 모든 교회가 강제적으로 문을 닫고, 기독교인들이 공산당에 쇄뇌당하고, 인간성이 말살될 운명에 처했을 때, 집에서 몰래 드리는 예배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잇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개혁개방 후에 많은 교회들이 새롭게 개방되었지만 정부의 계속된 통제와 탄압정책 때문에 이들 가정교회들은 계속 지하에 남아 있어야 했

您奇平信還是掛號信? / Nín jī píngxìn háishì guàhàoxìn?
(닌 지 핑신 하이스 꽈하오신?) 일반우편으로 부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등기로 부치시겠습니까?

다. 현재 가정교회는 중국에서 왕성하게 성장을 계속해 가고 있다.

가정교회는 전도 활동을 중시하고 융통성 있는 움직임으로 인해 공개 교회보다 그 발전 속도가 빨라 중국 복음 전파의 대들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들은 지하교회가 비밀종교 활동의 형식을 띠고 있기에 신학과 조직상에 있어 교회들마다 차이가 벌어지기 쉽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각양각색의 이단과 사교들이 출현하고 정부에게 진압의 명분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부의 강경 진압 정책은 민중들의 정부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불만으로 심령이 메마르고 있다. 이 상태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면 <태평천국>과 같은 신앙 조직이 출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중국 정부 관리들이 만일 지혜롭다면 기독교에 대한 통제와 탄압정책을 바꿔, 이들 지하교회들을 지상을 이끌고 나온다면 정통 복음은 순적하게 전파될 뿐 아니라 이단, 사교들로부터 받는 위협도 적어지게 될 것이다.

이데올로기의 새로운 창구, 기독교 탐구

중국 기독교의 세 번째 흐름은 학문적인 기독교로서, 기독교 연구와 저술 활동에 종사하는 지식인들이 중심이다. 이들은 주로 서적, 서양 기독교 신학 자료, 철학들을 통해 기독교를 이해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기독교에 대해 탐구를 벌이는 이유는 개인적인 신앙 추구 목적 이외에 중화 민족의 정신적 출구를 찾으려는 데 있다. 중국 전통 문화의 폐허 더미 속에서, 얼마 전 무너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서양의 세속주의 물결 속에서 그들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기독교로 방향을 돌리게 된 것이다. 이들은 비록 정부가 강요하는 이데올로기의 통제를 피하지 못해 자기 생각을 모두 다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은 상부 종교 관리 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역사적인 부담감도 없으며 기독교 종파적 제한도 받지 않기에 창조적으로 기독교 사상을 학생들과 지식인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와 제국주의의 관계를 살펴본 다음, 기독교와 중국의 현실을 분석해 본 후에 이런 구호를 외치기까지 한다. "기독교가 중국에 꼭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중국에는 기독교 정신이 필요하다." 이런 학문적 기독교인들은 서적 번역이나 문장 쓰기, 문장 발표, 세미나 개최 등으로 기독교 사상을 전파할 수 있다. 그들 중 다수는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고 선교회나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예리하고 깊이있는 생각들도 많다. 또한 동서문화의 학문적 바탕을 갖추고 있음으로 해서 지식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데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그 중 대다수 사람이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일부 학문적 그리스도인들 해외로 나와 기독교인들, 교회와 교류하고 연관을 맺으며 세례받은 후 계속해서 깊이있게 신학과 문화에 대해 연구하기도 한다. 이들은 반드시 중국인들 사이에 기독교 전파에 커다란 공헌을 할 것이 틀림없다.

현재 위에서 상술한 세 가지 조류들은 각각 따로따로 일어나고 있으며 또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 집단이 서로간에 왕래가 거의 없고 각기 독자적으로 분투하고 있다. 서로간에 협력을 안하고 서로 의심과 편견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다. 이것이 장기화되면 내부적인 에너지만 소비되고 대외 이미지만 나빠지게 될 것이다. 만약 서로간의 거리감을 없애고 같이 힘을 모아 합심한다면 중국의 복음전파 사업은 더욱 효과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것이 틀림없다. 이것이 역사적인 계기가 되어 복음이 중국의 각계 각층마다 광범위하게 전파되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시간과 예정대로 행하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하루 속히 이들 여러 형태의 복음의 물결들을 한 다 모으셔서 중국 각지를 덮는 거대한 물결로 만드셔서 중국의 죄악과 타락을 씻어내시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내시기를 기도한다. 해외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중국에 전파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우리들은 진정 힘을 합해 연합하여 모두가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위대한 신세기를 열고자 원하고 있는가? 이 일은 분명 거대한 도전임에 틀림없다 우리들은 이 도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

출처/ 傳(1998年 五/六月號)
번역/ 손바울 · 본 선교회 연구부 간사

지식인 선교 - 캠퍼스 사역의 실제

마 민 호

들어가는 말 : 불균형적인 중국 교회의 성장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지 어언 20여 년이 지났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세상사(世上史)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 사회주의가 자신들의 힘에 의하여 사회주의를 현대화하겠다는 자력갱생의 고집을 꺾고 외국의 자본을 들여서라도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도움이 된다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이데올로기적 폐쇄성에서 벗어나 자본주의의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펼쳐 나가겠다는 것이다.

중국사회에 있어 대학이 가지는 의의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중요하다. 중국에서 대학 진학은 곧 국가 사회의 핵심 엘리트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사진은 닌징대학의 전경)

한편 개혁개방을 선교사(宣教史)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한층더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즉 자본주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은 결국 자본주의와의 관계 개선과 함께 중국 내의 기독교 통제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자본 중 상당부분은 기독교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개혁개방은 중국사회와 기독교와의 관계회복이라는 선교사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중국사회와 기독교는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상징되는 1840년의 아편전쟁으로 결별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개혁개방은 경제적인 실용주의 추진과 기독교와 중국사회의 관계 개선이라는 두 측면을 동전의 앞뒷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개혁개방으로 인한 기독교에 대한 통제 완화는 중국 내에 기독교를 급속히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성장의 구조적 불균형이다. 현재 중국 기독교인의 숫적 증가는 대부분 대중 선교의 결과, 농촌교회의 양적 발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필자는 중국 선교에 두 가지 중요

這封航空信寄到倫敦貼一塊錢郵票夠嗎?/ Zhè fēng hángkōngxìn jìdào Lúndūn tiē yí kuài qián yóupiào gòu ma?
(쩌 펑 항콩신 지 따오 룬둔 티에 이 콰이 치엔 요우파오 꺼우 마?)
이 항공우편을 런던에 부치는데, 1원 짜리 우표를 붙이면 됩니까?

한 축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하나는 대중 선교이며 다른 하나는 지식인 선교이다. 대중 선교의 발전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전망이 밝은 편이다(그 내부에 이단과 극단의 문제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양적 증가의 전망은 지식인 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밝다).

왜 지식인 선교인가?

반면 지식인 선교는 대중 선교에 비해 아직은 그 발전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다. 원래 지식인은 한 체제의 유지에 기여하고 그 체제로부터 상당한 특권을 제공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신론적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에서 지식인 선교는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만일 이렇게 계속하여 대중 선교와 지식인 선교가 불균형적으로 진행된다면 불행한 결과가 예상된다. 즉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고집하는 체제 유지 세력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진 대중들간의 정치적인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공산당은 전통적인 이정공종(以政控宗)의 종교통제 정책의 입장에서 체제를 위협하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과 배척을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기독교 발전의 두 축인 대중 선교와 지식인 선교가 균형있게 성장하도록 해야 하며 여기에 중국 지식인 선교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아울러 지식인 선교는 중국 교회의 차세대 지도자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식인은 한 민족의 시대적 아픔을 알고 그 아픔을 자신의 동족과 함께하는 데 강한 사명감을 가진 자들이다. 중국의 지식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중국의 역사적 질곡과 중국 인민의 아픔을 함께하며 복음을 시대적 아픔의 해결책으로 제시한다면 중국 기독교의 발전과 중국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대학은 각 나라마다 각 시대의 지식인을 배출하는 요람이다. 중국 사회에 있어 대학이 가지는 의의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중요하다. 중국에서 대학 진학은 곧 국가 사회의 핵심 엘리트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13억의 인구 중에 1%에 불과한 대학생은 졸업시 국가에 의해 당과 정부, 그리고 기업의 중요 부서에 우선 배치되어 왔다(국가에 의한 직장 안배제도는 현재 국가가 그 책임을 전적으로 지지 않고 국가와 개인이 함께 직장을 구하는 방법으로 변형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에 대한 선교는 중국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들에 대한 선교라는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공산당대회와 전인대의 양대회를 통해 선출된 간부들의 대부분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지도층에 대한 복음화 전략으로 캠퍼스 선교의 중요성이 있다.

지식인 선교의 중요성의 다른 한 측면은 중국 지식인과 대학생에 대한 선교는 중국인 스스로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데 있다. 체제유지세력에 대한 복음제시는 곧 체제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며 이는 곧 정치적인 탄압으로 이어진다. 아울러 지식인들은 자신의 기득권과 지위 보호를 위해 새로운 이념에 대한 접근이라는 모험을 삼가고 있다. 지식인 간에는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상호간에 경계를 하고 있다. 결국 중국 지식인에 의한 중국 지식인의 복음제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중국 지식인과 대학생에 대한 복음화에 외국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것이 필자가 중국 선교에서 지식인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이다(상대적으로 대중선교를 보면 현재 농촌의 교회는 나이 어린 자매들에 의해 수천 명이 인도되고 있는 등 내국인에 의한 복음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선교 대상으로서 중국의 지식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편의상 몇 가지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우선 당적보유 여부에 따라 공산당원과 비공산당원 지식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민족에 따라 한족과 소수민족 지식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출신지역에 따라 도시와 농촌 지식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업에 따라 당간부, 정부관료, 교수와 연구원, 기업인과 회사원, 과학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해외와의 관계의 친소에 따라 해외파와 국내파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식인 집단의 특성에 따라 선교의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선교사는 자신의 전략 목표 집단을 정하고 선교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지식인은 일반적으로 대단한 자존심과 상대적 우월감을 가진다. 중국의 수많은 인구 중에 선택된 소수의 지식인들의 우월감과 특권의식은 대단하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젊은 지식인은 자신의 이상과 현실적 제약 사이에서 고민하며 상대적인 박탈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다. 감정적 돌파구로서 외국과 외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크며 기독교와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음이 사실이다.

다만 이러한 지식인에 대한 선교는 그들이 이미 상당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기득권 세력으로 그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중국은 지식인들에 대한 역사적인 박해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인들은 변화에 대해 상당히 민감해 하고 두려워한다(분서갱유, 문화대혁명 등을 통해 수많은 지식인들이 박해를 받고 생명을 잃었다). 따라서 지식인에 대한 선교는 이들의 아픔과 한계를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중국 캠퍼스를 중심으로 중국 지성인 대학생의 현실과 그들에 대한 선교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식인 선교의 황금어장-캠퍼스

현재 중국에는 1,000여 개가 넘는 크고 작은 대학이 존재한다. 중국의 미래를 담당할 예비 간부의 양성기관으로 대학은 각 지역에서 몰려든 우수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인 신분으로는 그리 좋은 대접을 받고 있지 않지만 학자로서의 자존심만은 버리지 않고 있는 수많은 교수들이 있다. 이들 중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 유학파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 그들에 의한 학문적 연구 경향과 대학사회의 문화가 빠른 속도로 변해 가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대학에는 개혁개방과 함께 수많은 외국 유학생과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들어온 많은 외국 교수들이 중국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또 그들의 교과 과정도 바뀌고 있다. 영어, 컴퓨터 등의 실용학문과 첨단과학이 강조되고 각 분과 학문 분야에서도 서구의 각종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들의 연구 결과에 대한 번역작업도 활발하다.

이러한 중국 대학의 변화와 함께 중국 대학생들도 변해가고 있다. 중국 대학생들도 세계의 모든 대학생들처럼 청바지와 햄버거를 좋아하며 이성친구 사귀기를 좋아한다. 반면 중국의 대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심리적 압박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지금까지 그들이 옳다고 믿었던 이데올로기의 갑작스런 변형을 경험하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이념적인 공백을 채워 줄 새로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 캠퍼스의 또다른 특징은 그들이 집단적인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4년여의 단체 생활을 통해 대학사회 내의 동질성이 강하고 사상적 침투력이 강한 반면 그 이면에 학생 상호간의 감시와 불신 또한 심각한 편이다.

중국의 캠퍼스 선교사역의 현황을 보면 개혁개방 이후 90년대 초기까지는 서구 선교사들에 의해 주로 담당되어 오다가 한중수교 이후 한국의 선교사들에 의한 캠퍼스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 선교사에 의한 사역의 특징은 이전 서구 선교사들이 대부분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 신분으로 활동한 것에 비해 한국 선교사는 다양한 신분으로 사역하고 있다. 역시 외국어(한국어,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 신분이거나 유학생의 신분으로 캠퍼스 사역을 담당하는데 유학생의 신분으로 캠퍼스 사역을 담당하는 선교사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학교 내에 적을 두지 않고 캠퍼스 주변에 본부를 두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캠퍼스 선교단체들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구체적인 캠퍼스 사역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무엇보다도 캠퍼스 사역의 대상에 대한 분류와 그 집단의 특성에 따른 전략적 차별화가 필요하다. 먼저 대학교수들을 들 수 있다. 학생들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 중요성이 있다. 이중 퇴직교수, 나이가 많은 교수나 해외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젊은 교수들이 주요 선교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소수이긴 하지만 비당원 교수들도 주요한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학생들이다. 이들은 우선 민족별로 한족 학생, 조선족 학생과 기타 소수민족 학생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 이들을 농촌과 도시출신, 남학생과 여학생 등의 구분과 전공별 분류도 선교전략상 중요한 구분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선교사 자신이 어떠한 신분으로 사역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첫째, 유학생의 신분으로 사역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장기적인 사역의 경우로 봐야 한다. 재학 기간은 많은 언어를 충분히 습득하고 학생들 및 교수들과 교제를 하며 캠퍼스와 학생들의 생리를 파악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 기간은 신분 노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교적인 색채를 강하게 띨수 없기 때문이다. 졸업 후에는 그간의 준비된 인맥을 중심으로 대학생들과 접촉하면서 실질적인 사역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둘째, 학생의 신분이 아니고 캠퍼스 주변에 살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사역의 경우는 투입 즉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학생들과의 접촉하는데 제한이 있고 아울러 사전 언어준비와 캠퍼스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경우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은 곤란하다.

다음으로 사역의 동역자를 구하

這封信超重五克, 要貼一塊四毛錢的郵票。/ Zhè fēng xìn chāozhòng wǔ kè, yào tiē yí kuài sì máo qián de yóupiào.
(쩌 펑 신 차오중 우 커, 야오 티에 이 콰이 쓰 마오 치엔 더 요우퍄오.)
이 편지는 5g을 넘었어요. 1원 40전 짜리 우표를 더 붙여야 합니다.

는 일인데, 조선족 학생과 한국 유학생, 그리고 한족 학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조선족 학생과 한국 학생이 협력하였는데, 대부분 언어적인 한계가 있는 경우이고 언어가 준비된 경우는 한족 학생과 협력하는 것이 직접적이고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나아가 서구나 동남아 외국인 학생을 조력자로 두어 사역하는 경우에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북경의 한 모임에서는 싱가폴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학생과 함께 싱가폴 화교들에 대한 전도와 한족 학생들에 대한 사역에 많은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다).

창조적 접근방법을 적극 개발해야

다음으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역의 방법의 개발인데, 무엇보다도 선교가 허용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창조적인 선교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 활용해야 한다. 이는 선교사 자신의 배경이나 은사에 따라, 또 전략적인 선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 될 수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학과나 캠퍼스에서 만나 친구로 사귀다가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일대일 제자 양육을 실시하는 경우다. 대부분 한국 선교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은 선교사 자신의 언어준비와 신학적 정도에 따라 양육대상을 다른 선교사나 기관과 연계시켜 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의 사역의 열매로 생각하여 자신 이외의 사역자와는 관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개별 선교사가 발굴한 우수한 학생들은 기존의 신학교나 또는 지하 신학교(농촌신학교) 등을 통해 체계적인 신학공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한국 본부나 제3국의 교육기관,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한 해외 연장 교육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들 중 사역자로 헌신된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그들은 대부분 양육을 해준 선교사와는 별도로 자신의 사역 영역을 갖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이것을 허용하지 않고 계속하여 자신의 관리하에 두려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좋기는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나 관리보다는 후원자로서 기도와 물질적인 지원을 통한 간접사역이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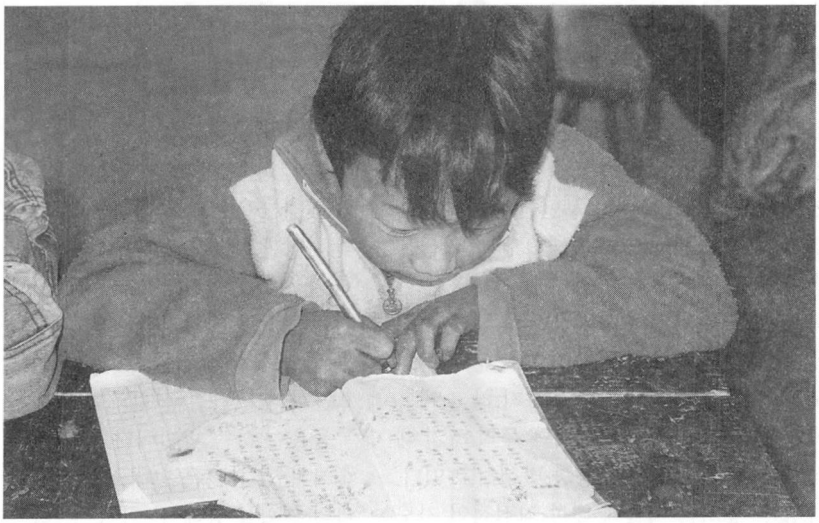
또 제자양육을 할 때 일대일로 할 것인지 그룹으로 할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그룹의 경우는 규모를 지나치게 크게 해서는 안 된다. 모 단체의 경우 일대일 양육이 성과를 보이자 수십 명을 한곳에 모아 모임을 갖으려다 공안에 발각되어 선교 상황이 기록된 지도 등 중요한 서류들을 압수당하고 해산된 경우가 있다.

중국 지식인의 외래 문물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만족시키는 방법도 활용할 만하다. 성탄절이나 각국의 명절이나 기념일에 문화행사 등을 열어 기독교 문화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북경의 한 캠퍼스에서는 성탄절날 학생들이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찬양을 부르며 중국 학생들의 기숙사를 방문하여 성경구절을 적은 쪽지를 넣은 작은 선물들을 돌린 적이 있다. 이때 많은 중국 학생들이 뒤를 따라다니며 함께 찬양하는 등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러한 행사들을 일회적으로 끝내지 말고 일년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다.

캠퍼스 사역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접촉하고 있는 중국 학생들에게 크리스천으로서 인간적인 신뢰를 얻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는 것이다. '중국 친구 만들기(making friends)'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한두 명의 학생을 집중적으로 섬기고 그들과의 인간적 신뢰의 바탕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다. 캠퍼스에 흩어져 있는 많은 크리스천 학생들과의 연합을 통해 한 학생 '한 학기 한 명의 중국친구 섬기기'등의 운동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그 외 현재 모 도시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푸다오(辅導)선교로 이는 각 캠퍼스에 공부하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중국 학생들에게 언어나 전공의 개인 레슨시, 교재를 성경과 관련된 자료를 써서 자연스럽게 중국인에게 성경에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이경우는 유학생과 현지선교사 간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 유학생들에 의해 전도된 중국학생들은 곧 신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선교사에게 연결해 주어 체계적인 양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또 학교 내의 각종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을 통해 중국 학생들과 함께 함으로써 크리스천의 삶을 보여주고 크리스천 문화를 소개하는 선교방식도 중요하다. 4년 간 학교 안에서 단체기숙하는 중국 학생들의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 유학생들과 연합으로 문화 및 체육교류 활동을 실시하는 방법들을 통해 접촉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축구 동호인 모임을 만들어 중국 학생



중국의 농촌의 소학교와 중학교에 돈이 없어 진학을 못하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희망공정(希望工程)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농촌의 어린이들에 대한 선교를 달성하는 방법도 있다

들과 교류를 한다든지, 한중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협회 등을 만들어 활동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중국 대학 내의 중국인의 각종 써클활동(協會活動)(예로 자전거협회, 경극(京劇)협회, 서예(書法)협회 등 다양한 활동이 있다.)에 참여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 중국의 농촌의 소학교와 중학교에 돈이 없어 진학을 못하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희망공정(希望工程) 활동에 참여함으로써(북경의 모 대학에는 한국학생 기도모임이 중국 학생들과 함께 소조를 구성하여 희망공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외 다수의 단체나 모임이 선교 목적으로 희망공정에 참여하고 있음) 대학생들에 대한 선교와 농촌의 어린이들에 대한 선교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법도 있다.

구체적인 선교의 방법이야 개별 선교사의 은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선교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이러한 창조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으며 중국의 여러 제한된 현실이 이러한 방법들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주의해야

지금까지 다양하게 중국에서의 캠퍼스 사역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목표로, 어떤 태도로 이 중요한 사역에 참여하느냐에 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캠퍼스 사역'을 통해 어떠한 학생들을 양육하고자 하는가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캠퍼스 사역의 내용을 보면 중국 학생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당사자의 영혼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를 통해 주변 영혼들에 대한 복음화를 추진하는 '영적 재생산'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캠퍼스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 그치지 말고 한 발 앞선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 등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가 속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사용하심으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한 민족의 복음화, 한 나라의 복음화는 그 곳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적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캠퍼스 사역의 목표는 중국의 시대적 아픔과 민족적 고통을 인민들과 함께 하며 이 아픔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에 있는 것이다. 즉 캠퍼스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중국사회를 변화시키고 중국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리더를 생산해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우리 선교사들이 중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들 민족의 아픔을 공유하는 시대적 통찰력을 지녀야 한다.

다음으로 선교사나 단체의 개별적인 사역의 결과로 발굴, 양육된 학생들의 연장교육을 위한 개별 선교사와 단체 간의 협력이 절실하다. 한 영혼에 대한 영적 양육은 한 명의 선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정한 수준까지 양육된 학생들을 현지의 신학교에 진학시키거나 선교사들의 연합으로 만든 지하신학교를 통해, 또는 몇몇 선교사들의 연합양육을 위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지하신학교는 나름대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캠퍼스 지도자들을 위한 연장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마련되지

您喜歡哪套, 請自己挑吧。/ Nín xǐhuan nǎ tào, qǐng zìjǐ tiāo ba.
(닌 시환 나 타오, 칭 쯔지 티아오 바.) 어느 세트를 좋아하시는지요, 손수 골라보세요.

않아 아쉬운 실정이다.

셋째로 현지의 캠퍼스에 퍼져 있는 크리스천 유학생들을 활용한 연합사역의 중요성이다. 중국에서 정부가 인정한 캠퍼스 사역의 합법적 텐트메이커는 유학생이다. 이들은 자유롭게 중국의 학생들과 강의실과 캠퍼스에서 접촉할 수 있으며 그다지 경계심 없이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군가에 의해 지도되고 관리 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중국 유학생들은 사역에 부담을 가진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들에게 적절한 사역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국 캠퍼스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현재 북경에 8천 명의 한국 유학생 가운데 최소한 1천 5백 명의 크리스천이 있으며, 이들 중 10~20%는 선교에 대한 부담을 가진 자들이다. 이 유용한 막대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선은 현지의 한인 교회 청년회가 이들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유학생 교회로서 선교에 대한 사명을 현지 한인 교회들이 담당해야 한다. 한인 교회의 청년회는 유학생들을 통한 캠퍼스사역의 베이스 캠프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유학생들의 헌신도에 따라 이들을 캠퍼스로 파송하고 그 성공과 실패의 결과를 청년회에서 나누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지의 선교사들과 적극적으로 연합해야 한다. 만약 현지의 한인 교회가 이 역할을 담당하지 못할 때는 별도로 '유학생 캠퍼스 사역 관리센터'와 같은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 기구는 캠퍼스 사역의 전문 경험을 가진 선교사들에 의한 연합체로서 현지의 한인 교회들과 선교사들의 지원과 긴밀한 협력에 의해 운영될 수 있다.

넷째, 캠퍼스 사역 담당선교사의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중국의 대학생은 전국의 수많은 인구 중에 가려뽑은 자들로 상당정도의 지적 수준과 나름대로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자존심 강한 자들이다. 이들은 새로운 문화나 사상에 대한 호기심이 강한 반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쉽게 무시해 버리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캠퍼스 사역에 앞서 선교사들은 중국인들과 전도 대상자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철처한 준비가 필요하다. 중국의 역사, 언어, 문화, 정치 등 각 분야에 대해, 특별히 19세기, 20세기의 중국 역사적 질곡과 인민의 아픔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다.

다섯째, 자신이 양육한 학생에게 선교사 자신이 자유로워야 한다. 대부분의 선교사는 자신이 양육한 학생을 계속해서 동역자로 남거나 자기의 영향권 아래서 활동하기를 원한다. 이 때 선교사는 그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와 영적 상태에 어느 정도의 진보가 있다고 여겨질 때는 그들에게 적합한 은사와 사역의 방향에 따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럴 때 진정한 동역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여섯째, 선교사 자신의 전공 선택에 관한 것으로 자신이 유학생의 신분을 갖기를 원할 때는 언어과정을 수강하는 것보다는 전공을 가지고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어 과정은 대부분 외국인들만으로 진행되는 반면 전공 과정은 중국 학생과 직접 접촉할 수 있고 졸업 후에도 그들과 계속하여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연결 고리가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공에 따라서는 자신의 전문 직업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사역 영역이 확대될 수도 있다.

맺는 말: 민족적 지도자의 양성을 기대하며

모든 선교사역에 왕도는 하나다. 무엇보다도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은밀한 인도하심에 따라 겸손히 행하는 것이다. 중국선교의 핵심 축의 하나인 캠퍼스 선교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위에서 캠퍼스 사역의 상황에 관한 언급은 선교지와 선교상황에 대한 올바른 상황 판단으로 효율적인 선교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점검하여 본 것이다. 아울러 선교사 개개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도의 제목과 묵상의 주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끝으로 중국 캠퍼스 선교의 목표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개별 선교사가 진정으로 자신의 캠퍼스 사역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된 몇 명의 대학생을 양육하는 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중국 민족의 아픔을 느끼며 시대적 통찰력을 지닌 영적 지도자를 길러내겠다는 사명감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 민족을 사랑하며 중국 민족을 복음화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선교사들의 섬김으로 캠퍼스 곳곳에서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아울러 이들을 통해 21세기 세계 선교 역사의 주역으로서 중국 교회의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해 본다.

마민호/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디아스포라 한국인

패션의 도시 따롄(大連)

밀 한 알

패션의 도시 따롄(大連)에 처음으로 방문한 사람들 중에는 "여기가 정말 중국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넓은 바다가 있고 아름다운 산이 있으며, 깨끗한 공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점점 발전되고 있는 도시와 시골의 모습들이 함께 어울려 있어서, 아름다운 녹색의 푸르름을 마음껏 보여주는 중국 동북의 휴식처이기도 하다.

몇 년 전에 중국 옌볜(延邊)에 계시는 한국인 한 가정이 휴가차 따롄에 오셨다. 바다와 발전되는 도시의 모습들을 보며 분위기있는 아름다움에 이끌려 며칠을 지내다가 다시 옌볜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이때 부인이 하는 말 "여보,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이 말은 중국에 와서 몇 년 동안 살았던 사람의 말이다. 그러나 중국에 잠시 왔다 가는 사람들은 별로 실감이

我再買五張明信片。/ Wǒ zài mǎi wǔ zhāng míngxìnpiàn.
(워 짜이 마이 우 장 밍신피엔.) 엽서 다섯 장도 더 사겠습니다.

따롄의 한국교회인
위광지에(玉光街)교회

나지 않을 것이다.

따롄 사람들은 따롄을 참으로 좋아한다. 다른 도시로 이사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따롄 사람들은 자신이 따롄에 사는 것에 대하여 자랑과 긍지로 살아간다. 그러나 중국 전체로 보면 따롄은 외딴 하나의 작은 해안 도시로서, 어떻게 보면 큰 중국 대륙에 있어 있으나마나한 도시이다. 삼 면은 망망한 바다로 이어져 있고 육로로 연결된 길로는 선양(沈陽)과 연결된 큰 도로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불리한 지리학적인 위치를 가진 따롄이 지금은 중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국의 대도시가 되었다. 이제 따롄은 제일의 패션의 도시, 축구의 도시, 소비의 도시, 녹색의 도시, 젊음의 도시, 유행의 도시, 자전거가 없는 도시로 꼽을 수가 있다. 시내 곳곳에는 외국 상품으로 물결을 이루고 있으며 그 화려한 한국 상품의 인기도가 이제는 크게 위축되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내가 중국 따롄에 온 지도 벌써 여러 해가 지나고 있다. 그 때는 아직 따롄이 한국과의 직통비행기나 선박의 교류가 전혀 없었으며, 그저 도시 곳곳에 큰 건물이 하나씩 올라가고 아파트 건축이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 정도였다. 그리고 유학생들과 상사 직원들도 여기 저기에서 따롄을 향하여 약간씩 들어오는 상태였다. 한국 식당도 그리 많지 않았으며 한국분들을 만나보기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5~6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한국에서 비행기가 거의 매일 운행되고 항구에는 국제선 터미널이 생겨 인천에서 매주 여객선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또 옌볜(延邊) 백두산으로 가는 한국사람들이 따롄을 경유하여 옌볜으로 들어가곤 했다. 따롄은 점점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동북3성의 관문, 무역의 도시, 북한으로 가는 지름길, 북방의 홍콩이라는 화려한 수식어와 함께 따롄은 더욱더 발전하기 시작했다.

한국 대기업들의 사무실이 들어오고 유학생들이 밀려오고 선박을 이용하여 많은 기업인들이 한국의 상품들을 가지고 들어와 따롄에다 한국을 소개하며 사업을 시작하였다. 곳곳마다 한국 식당이 생기고 선박을 이용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부두 주위에는 어느덧 한국촌이라는 이름이 붙기 시작했다. 또한 유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도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따롄도 한국과 일본 등 기타 국가들을 상대로 하여 높은 빌딩이 올라가고 도시의 개방 정책과 함께 새로운 도시 개발의 대변혁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도시 중심의 구건물들이 무너지고 좁은 도로들을 넓히며 환경이 좋은 곳에는 공원을 조성하며 중산광장을 중심으로 하여 따롄을 마치 환상의 도시로 만들어 버렸다.

이와 함께 한국인들도 따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따롄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지금 따롄 중심지 민항다사(건물이름) 앞에 현대건설 건물이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 외부는 거의 다 완공되어 가며 보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건물이다. 어쩌면 한국 건축물의 자랑이요 한국의 경제의 자랑이며 한국의 자존심을 보여주는 건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발전 속에 어느덧 따롄 외국대학 중심으로 하는 유학생들의 모임이 시작되고, 기업인 중심으로 하는 한인회 모임, 한성궁식당, 외환은행,

這封信寄到東京要一個星期。 / Zhè fēng xìn jìdào dōngjīng yào yí ge xīngqi.
(쩌 펑 신 지따오 둥징 야오 이 거 싱치.) 이 편지가 동경에 도달하는 데는 1주일 걸립니다.

따롄의 도시는 2층 버스로 시내전역을 운행한다

따롄KOTRA, 한국인 자녀들을 위한 한글학교, 한스의 언어학원, 따롄의 음악학원, 한인 교회, 또 얼마 전부터 시작된 따롄 외국어대학 내의 한국문화원 개원 등 크고 작은 모임들이 모여지면서 계속해서 한국을 알리고 있으며 한국을 알리는 책자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따롄은 위도상으로 북한의 평양과 같으며 날씨와 온도들이 한국과 매우 흡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장기적인 기업을 위해서 처음 중국에 오시는 한국 사람들은 내륙에 들어가 기업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한국 기후와 비슷한 따롄에 와서 적응 훈련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내륙에 들어 가서 중국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 기업가들도 중국의 상황을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다. 그래서 먼저 무역의 도시 따롄을 상대로 하여 사업을 준비한다면 사업 성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따롄은 참으로 낭만적인 도시다. 시와 문학이 있고, 젊음과 춤이 있는 도시다. 또한 풍성한 음식과 스포츠가 있으며 아름다운 해변과 푸르름이 가득한 가을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의 많은 남방 손님들이 자주 따롄을 방문한다. 공항과 부두에 가 보면 늘 여행하는 사람들로 붐빈다. 그 사람들의 환한 얼굴 표정에서 삶의 여유를 찾아 볼 수가 있다.

밤 8시만 되면 중산광장에는 춤과 노래들로 가득찬다. 한쪽에는 서로 얼굴을 모르는 남녀들이 서로 춤을 추며, 또다른 한쪽에서는 그 춤을 배우기 위한 사람들로 큰 인파를 이룬다. 따롄의 도시는 2층 버스로 시내전역을 운행한다. 버스에는 광고판이 가득하고, 객차가 하나뿐인 도시 전철은(거의다 여자 운전수임) 따롄의 명물이기도 하다.

자전거가 없어도 집이 없어도 자동차는 꼭 있어야 된다는 따롄.

직장도 없고 빚까지 있을지언정 삐삐와 핸드폰은 있어야 한다는 따롄.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알리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명함이 있어야 한다는 따롄. 이러한 가운데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한국인들의 위치와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IMF와 함께 한국인의 자존심이 손상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얼마 전에 손님 안내로 따롄 공항에 가 보았다. 마음 속으로 '오늘은 한국사람들이 얼마나 출국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일찍 출발하였다. 막상 가 보니 대합실은 썰렁하고 한국사람들은 얼마되지 않았다. 며칠 후 부두에도 가 보았는데 그 곳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롄 경제는 약간의 더딘 성장속도를 보이며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이전에는 한국과 일본 등 외국의 도움과 지원에 많이 의지했는데, 이제는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려 돈 있는 중국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와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따롄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국내 외부에서도 돈 있는 사람들이 따롄으로 이사를 많이 오고 있으며, 또한 남방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좋은 물건들을 사러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제 따롄은 한국과 일본의 상품을 의지하지 않고 프랑스 등 유럽의 상품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살아남기란 쉽지 않다. 한국의 상품들도 이제 신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따롄의 한국 기업인들을 볼 수가 있다.

유학생들의 감소현상도 많다. 소비의 도시 따롄의 물가는 한국 물가와 큰 차이가 없다. 싼 것이라고는 1차산업에서 조금 차이가 날 뿐이다. IMF를 맞아 소비가 많은 유학생들한테는 큰 부담이 되기도 한다. IMF가 언제 끝나고 언제 다시 경제 회복이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련의 한국인들은 살아 숨쉬고 있다. 왜냐하면 곳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인교회가 열심을 품고 있으며, 기업인들은 서로 협력하면서 내일의 한국, 중국 속의 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밀한알/ 중국 사역자

請問, 寄到南京的信要貼多少錢郵票?/ Qǐngwèn, jìdào de xìn yào tiē duōshao qián yóupiào?
(칭원, 지따오 난징 더 신 야오 티에 뚜오샤오 치엔 요우파오?) 실례지만, 남경에 부치는 편지는 얼마짜리 우표를 붙여야 하죠?

不 讓 人
(양보를 모르는 사람)

古時候, 有父子二人, 脾氣相同: 不管做什麽事, 都得是別人讓着他, 自己從來不讓別人。

有一天, 家里來了客人, 父親讓兒子進城去買肉。兒子買了肉往家走, 走到城門口的時候, 迎面走來一個人。"

路很窄, 可是兩個人誰也不愿意給對方讓路, 都挺着身子, 面對面地立在那里。

父親在家等了很久: 不見兒子回來, 就進城去找。

走到城門口, 見兒子和那個人還在那兒站着呢, 誰也不肯側一側身, 讓對方過去。父親問明情況, 一拍兒子的肩膀: "好兒子! 你做得對! 這樣吧, 你先把肉拿回去, 陪客人吃飯, 我替你在這兒站着。你吃完飯再來換我!"

옛날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다. 두 사람은 성격이 똑같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둘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그에게 양보해야지, 자신들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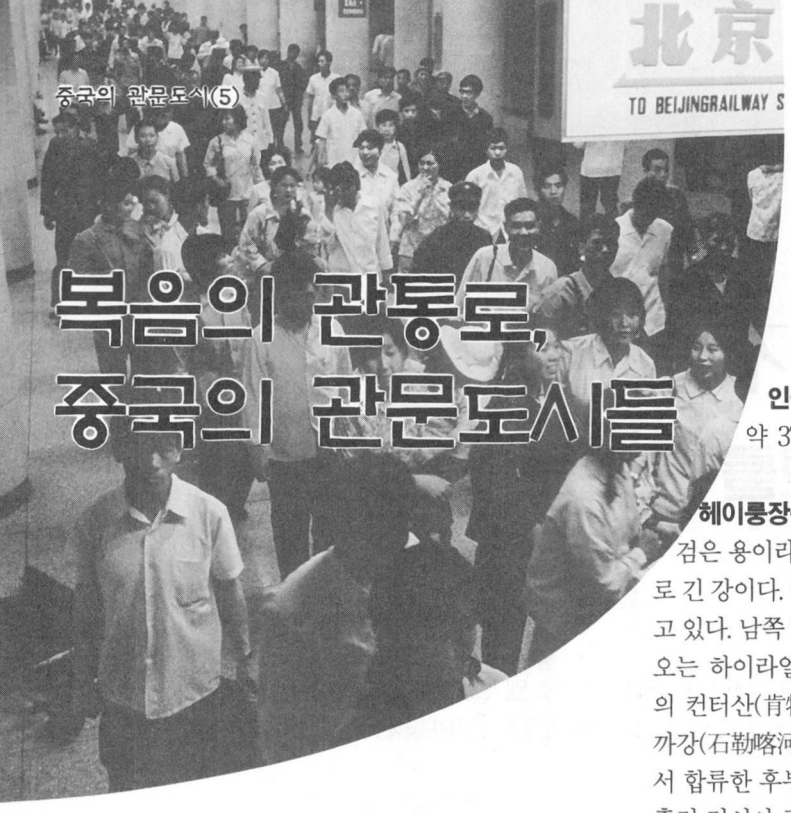
어느 날, 집에 손님이 와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읍내로 가서 고기를 사오라고 하였다. 아들이 고기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한 사람과 맞딱뜨리게 되었다. 길이 좁았지만 두 사람 중 그 누구도 몸을 비껴서 상대방에게 길을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둘 다 몸을 쭉 편 채 앞을 똑바로 보고 그 곳에 멈춰 서 있었다.

아버지는 집에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아들을 찾으러 읍내로 들어갔다. 동네 어귀에 다다랐을 때, 그 사람은 아들과 어떤 사람이 길에 계속 서 있으면서, 누구도 몸을 옆으로 틀어 비껴주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길을 터 주려 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그 사정을 아들에게서 듣고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그래, 이렇게 하자. 내가 너 대신 저기에 서있을 테니, 네가 먼저 고기를 들고 돌아가서 손님에게 음식을 차려 대접하도록 해라. 네가 음식을 다 먹고 다시 와서 나랑 교대하자꾸나."

平信八分, 航空一毛。/ Píngxìn bā fēn, hángkōng yì máo.
(핑신 빠 펀, 항콩 이 마오) 일반 우편은 8전, 항공우편은 10전입니다.



북음의 관통로, 중국의 관문도시들

하얼빈(哈爾濱)

과거 동북아의 중심지였던 탓에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헤이룽장(黑龍江)성의 성도(省都), 하얼빈은 중국 최북단에 위치하며 헤이룽장성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다.

얼마 전 대홍수로 물난리를 겪었던 넌강(嫩江)과 천지에서 발원하는 쑹화(松花)강변에 자리잡은 러시아풍의 이국적인 도시이다. 하얼빈이라는 지명은 만주어로서 "그물 말리는 곳" 이라는 뜻으로 이 곳이 예전에는 쑹화강변에 위치한 어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매년 1월이 되면 쑹화장 근처에 있는 자오린(兆林) 공원에서 하얼빈의 명물 빙등제(얼음축제)가 벌어진다. 얼어버린 쑹화강의 얼음으로 탑, 고적, 다리 등 여러 주제의 얼음 조각전이 열린다. 이 때는 눈 구경하기 힘든 중국의 남쪽 광둥(廣東), 푸젠(福建), 타이완(臺灣), 홍콩 등 중국인들뿐 아니라, 멀리 러시아, 일본, 유럽,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얼음축제를 보기 위해 모여든다.

행정구역
헤이룽장성 성도

총면적
1,637㎢

인구
약 377만

헤이룽장은 어떤 강인가?

검은 용이라는 뜻인 헤이룽장은 중국에서도 세 번째로 긴 강이다. 헤이룽장은 남·북 2개의 발원지를 가지고 있다. 남쪽 발원지는 대흥안령 서쪽산맥에서 흘러나오는 하이라얼허(海拉爾河)이고, 북쪽 발원지는 몽고의 컨터산(肯特山) 동쪽 기슭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쉴까강(石勒喀河)이다. 이 두 강이 모허(漠河)라는 곳에서 합류한 후부터를 헤이룽장이라고 하는데, 동쪽으로 흘러 러시아 경내로, 마지막에는 오호츠크해로 흘러들어간다. 하이라얼허 발원지로부터 하구까지 계산하면 헤이룽장 전체길이는 4,370㎞나 되어 세계적으로는 아홉 번째 긴 강이 된다. 헤이룽장에는 200여 개의 지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쑹화장이 가장 크다.

기후

하얼빈은 봄과 가을이 매우 짧으며 시베리아 내륙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로 인해 겨울이 6개월 가량 지속된다. 그래서 하얼빈은 일 년의 반이 겨울인 셈이다. 그러나 한 여름에는 영상 32도까지 올라가는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도 한다. 하얼빈의 한 해 평균기온은 -6~4℃이며, 가장 추운 1월의 평균기온은 -17~-32℃다.

역사

하얼빈에 세워진 최초의 정권은 말갈족이 주체가 된 발해국이었다. 대조영이 거느렸던 말갈족은 얼마 후 금나라를 세운 거란족에 의해 망하고, 차례로 이 땅은 금나라, 명, 원, 청의 영향권하에 들게 된다. 1907년 청나라 광서제 때, 청정부는(지린(吉林), 랴오닝(遼寧), 헤이룽장(黑龍江)) 동북 삼성을 정식으로 성(省)으로 승격시키면서, 헤이룽장의 역사가 정식으로 열리게 된다. 지명이 의미하는 것과 같이 하얼빈은 본래 고기잡는

您奇平信還是掛號信? / Nín jī píngxìn háishì guàhàoxìn?
(닌 지 핑신 하이스 꽈하오신?) 일반우편으로 부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등기로 부치시겠습니까?

작은 어촌에 불과했다. 그러나 1896년 러시아가 청나라와 협의하여 하얼빈에서 블라디보스톡에 이르는 철도부설권을 획득, 철도를 놓기 시작하면서 하얼빈시는 근대적인 도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04년 러일전쟁이 터지고 일본이 승리하자 도시의 한쪽에는 일본식 가옥들이 지어졌으며, 기모노 차림이 등장하게 되었다.

1917년에는 백러시아인들이 러시아의 볼셰비키혁명을 피해 하얼빈으로 대거 피난와서 러시아정교회 교회당을 세우고 번성했었다. 1932년에는 일본군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이 도시를 점령했으나, 1945년에 러시아가 다시 도시를 탈취, 1년 동안 점령하다가, 1946년 국민당 정부를 이끌던 장개석과 러시아의 스탈린이 조약에 합의하면서 최종적으로 장개석 군대가 이곳에 진주, 중국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산업

헤이룽장성은 중국에서도 유명한 곡창지대다. 중국인들은 헤이룽장을 북쪽의 대창고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다. 쑹넌(松嫩)평원이 있는 서남부와 산장(三江)평원이 있는 동부지역은 토지가 비옥해 콩, 밀, 옥수수, 고량, 감자 등이 재배되고 있으며, 헤이룽장 북쪽으로 가다보면 미국의 대평원이 연상될 만큼 드넓은 옥수수 벌판이 나타난다. 또 하얼빈에서 기차로 4시간을 가다보면 중국 제2의 석유생산 도시 따칭(大慶)이 있다. 따칭에서는 연간 500만톤의 석유가 생산돼 중국 각지로 공급된다. 헤이룽장은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탓에 과거 러시아의 기계나 기술들이 많이 도입되어 공업기계, 농기계, 비료, 방직, 건축자재 등이 비교적 발달한 중국에서도 오랜 중공업 도시로 알려져 있다.

기독교 현황

하얼빈에는 공산화되기 전 많은 교회가 있었다. 러시아정교회, 유럽 개신교회, 천주교회 등 도처에 교회와 외국인들이 있어 교회와 외국인의 도시라고 불리운 적도 있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 기간 하얼빈은 큰 시련을 겪게 되었고 유서깊은 교회건물들은 대부분 파괴되었다. 현재는 하얼빈의 자랑인 소피아성당, 난강취(南剛區)와 따오리취(道里區)에 있는 삼자교회, 천주교회, 러시아 정교회 등, 몇 몇 교회당만이 남아 과거의 영화를 말없이 웅변해 주고 있다. 헤이룽장 정부에서는 '97년 말 따오리에 있던 러시아식 소피아성당을 대대적으로 수리, 일반에 공개했는데, 웅장한 규모와 독특한 외관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최근 하얼빈의 교회들은 중국인 자체의 삼자교회와 해외선교회 등의 기도에 힘입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삼자교회로는 난강취(南崗區)에 위치한 난장(南江)교회와 따오리취(道里區)에 위한 따오리(道里)교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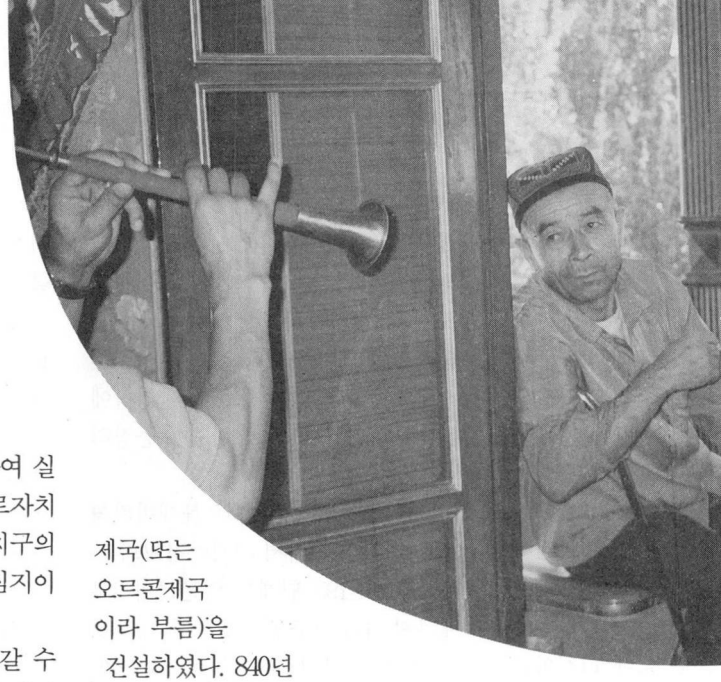
난장교회는 2층 구조물의 오래된 교회인데, 한족 예배와 조선족 예배를 별도로 드린다. 최근 이 교회는 증축 공사를 끝내고 늘어나는 신자들을 맞이하려고 잘 준비하고 있다. 이 교회 내에 있는 기독교 서점은 규모는 작지만 성경을 포함, 대륙과 대만에서 출간된 각종 신앙서적들을 판매하고 있어 신앙 서적들이 부족한 이곳 신자들의 영적 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따오리교회는 목사님이 2층에서 설교를 하고, 신자들은 1층에서 T.V로 설교를 듣는다. 규모는 작지만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철저하게 성경중심으로 진행되며, 영적인 힘과 능력이 느껴진다. 예배가 끝나고도 많은 신자들은 교제와 권면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일부 신자들은 바닥에 꿇어앉아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런 모습들은 매우 인상적이다. 교회가 협소해 주일이면 늦게 온 사람들은 비좁은 통로에 의자도 없이 서서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 교회증축 허가를 받기 힘든 중국교회의 현실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은 최근 젊은 청춘남녀들이 이들 교회에서 결혼식을 자주 올린다는 것이다.

이들 삼자교회 외에도 하얼빈에는 가정교회, 선교회를 중심으로 한 복음사업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앞으로 하얼빈을 포함한 전 흑룡강 복음화의 서광을 비춰주고 있다.

기도제목

1. 난장교회, 따오리교회 두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고, 신도들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2. 하얼빈 지역의 교회들이 말씀의 기초 위에 계속 부흥, 발전하여 지역사회 복음화에 주력할 수 있도록.
3. 하얼빈으로 온 한국인들이 삶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여 중국 민족의 새벽을 깨우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루무치(烏魯木齊)

지난호에 소개된 관문도시 시안(西安)을 시작하여 실크로드 길을 따라 서쪽으로 계속 가면 신장 위구르자치구가 나오는 데 우루무치는 바로 신장 위구르자치구의 수도의 역할을 하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이다.

이 곳을 통하여 신장의 남강과 북강을 모두 갈 수 있으며, 비행기와 철도, 버스 등이 이곳에서부터 연결되기 때문에 이곳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우루무치는 중국의 30대 도시 가운데 하나이며, 80년대 이후 개방의 물결이 들어와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빈부의 차이가 심하고 사회적으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구역

신장 위구르자치구의 중심도시로서 7개의 區와 1개의 현(縣)으로 구성.

인구

140여 만 (한족 73%, 위구르족 12%, 회족 9%. 카자크족 3%, 만족 0.5%, 몽고족 0.34%).

기후

대륙성 건조기후 지역이며, 여름과 겨울만 뚜렷하게 구별될 정도로 겨울이 길다. 여름에는 평균기온 23℃이며 밤10시에 해가 질 정도이다(중국이 동일시간대를 유지하기 때문). 겨울은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약 6개월의 긴 겨울을 지내야 하며 10월 중에 첫눈이 내리고 최저 -25℃까지도 내려간다.

역사

위구르족의 고대역사를 살펴보면 유목민족인 투르크계 부족으로서 제국시대를 거치며 744년 오르콘강 유역, 즉 지금의 외몽골 외트겐 지역을 중심으로 위구르 제국(또는 오르콘제국이라 부름)을 건설하였다. 840년 토번 및 키르키즈족에 의해 제국이 붕괴된 후 여러 개의 씨족연맹으로 분열되어 흩어졌는데, 그 중에 중요한 왕국은 칸수, 돈황, 투루판 부근에 중심을 두었고, 그 외 몇몇 소국들은 현재의 신장(新疆)지방에 있었다.

위구르라는 이름은 8세기 제국의 형성기 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그 뜻은 '연맹, 군집'이다. 이들은 위구르제국을 형성한 뒤 농업 정착민으로 변화되면서 중국과 협력-복속 및 반발-대립의 관계를 번복해 왔다.

1727년 청나라와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카흐타조약'에 의해 신장지역이 분할되어 신강지역의 위구르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흡수되었다. 이후 러시아와 이리조약을 체결한 후, 1884년 새로운 영토라는 뜻의 '신장성'을 설치하고 우루무치를 중심도시로 삼았다. 1902년 신장성은 네 개 도로 분할 관리되다가, 1955년 신장 위구르자치구로 선포되었으며, 최근 몇 년 위구르 독립운동으로 인하여 각종 테러와 지하조직운동이 일고 있다.

경제 및 사회

신장성의 중심도시로서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이다. 대부분의 신장지역은 교통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성 내의 교통중심지인 우루무치가 중국내 경제와 문화의 실질적인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유동인구의 유입과 도시화의 확산은 많은 점에서 발전을 꾀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범죄급증, 교육의 불균형, 주거지 부족 등)가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80년대 이후 중국개방의 물결이 밀려옴에 따라 외국

這封航空信寄到倫敦貼一塊錢郵票夠嗎?/ Zhè fēng hángkōngxìn jìdào Lúndūn tiē yí kuài qián yóupiào gòu ma?
(쩌 펑 항콩신 지 따오 룬둔 티에 이 콰이 치엔 요우퍄오 꺼우 마?)
이 항공우편을 런던에 부치는데, 1원 짜리 우표를 붙이면 됩니까?

우루무치는 신장성의 13개 민족이 함께 공존하면서 한족과 모슬렘(위구르족을 중심으로)의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나 국내 자본가들도 이곳의 경제적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거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인근 하자크스탄과 우즈벡스탄에서도 우루무치와의 무역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홍콩, 대만의 화교들도 많은 교류가 있다.

우루무치는 신장성의 13개 민족이 함께 공존하면서 한족과 모슬렘(위구르족을 중심으로)의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서로간의 민족적인 감정과 불신으로 사회적 분위기는 혼돈스러우며 상당히 어려운 편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주요 자리에는 한족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구르족과 다른 모슬렘들은 피해의식과 저변에 깔린 적대감으로 사사로운 일에도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종교 및 기독교현황

현재 신장은 다종교지역으로 이슬람교, 라마교, 불교, 도교, 기독교, 천주교, 정교, 샤머니즘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그 중에 위구르족을 중심으로한 10개의 소수민족은(하자크족, 회족, 키르키즈족, 타지크 등) 모두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있다. 그러나 우루무치의 대표적인 종교는 이슬람교와 기독교라고 할 수 있다.

영적 분위기로는 중국의 문화혁명 이후 강제이주정책으로 인하여 이제 50%가 넘는 한족과 12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모슬렘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불신과 갈등, 투쟁 속에서 살아가는 어두운 영적 상황이 우루무치를 누르고 있다. 즉 공산주의의 영과 모슬렘의 영, 과거 역사적 배경이 있는 불교의 영과 민족적 갈등으로 인한 분노의 영이 뒤섞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루무치에는 한족들만 2천여 명이 모이는 큰 삼자교회와 몇 개의 안정된 집회소 외에 각 처소에서 자체적으로 모이는 가정교회가 많이 있다. 한족의 기독교 인구는 모두 합하여 15만여 명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위구르 회중교회도 공개적으로는 어렵고 가정에서 모이는 것처럼 자체적인 예배모임이 형성되어 점차 발전되어 가고 있다. 또한 사역자와 함께 하는 개인적 성경공부 모임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기도제목

1. 예수님을 영접한 젊은 형제자매들이 계속하여 양육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2. 특별히 대학생들이 고향을 떠나 우루무치에서 공부할 때 예수를 영접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계속하여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3. 우루무치의 민족적 갈등들이 점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 참고

Travel survivial kit China. lonely planet, 1991.
중국의 국토환경, 대륙연구소 출판부, 1995.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제공

중국 대학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인으로 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학생입니다. 중국에 유학을 가서 중문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중문학을 공부한 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신다면 중국선교를 할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유학을 가야하는지와 중국의 대학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비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보내주신 서신 잘 받았습니다. 질문하신 유학수속 절차, 중국의 대학제도, 학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학절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학가고자 하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그 학교로 보내십시오. 신청 후 약3개월 이내에 '입학허가서'와 'JW202표'를 보내올 것입니다.

입학허가서를 기다리는 동안에 종합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입학허가서'와 'JW202표'를 받으면 '여권', '사진', '신체검사표'와 같이 중국대사관에 가지고 가서 수속을 하면 됩니다. 1주일 후면 학생비자(X-VISA)를 발급받게 됩니다(참고 『중국을 주께로』 97.11/12, 48호, 46쪽).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중국 대학에 가서 약 1년 정도 언어연수를 한 후 '한어수평고사(HSK)'를 치르어야 합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6급을 받아야 대학에 시험칠 자격이 주어집니다(석사생은 7급 이상). 해당 학교에서 요구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중국의 대학생이 됩니다.

원래 중국의 대학 입학시험은 한국의 "수능(수학능력)" 시험과 비슷한 전국통일시험을 실시하며, 형식은 "선시험, 후지원" 방식입니다. 각 대학의 정원수는 각 성(省)과 자치구(自治區)에 따라 일정 비율로 배정되어 있어, 한국처

這封信超重五克, 要貼一塊四毛錢的郵票。/ Zhè fēng xìn chāozhòng wǔ kè, yào tiē yí kuài sì máo qián de yóupiào.
(쩌 펑 신 차오중 우 커, 야오 티에 이 콰이 쓰 마오 치엔 더 요우파오.)
이 편지는 5g을 넘었어요. 1원 40전 짜리 우표를 더 붙여야 합니다.

럼 서울이나 부산 등 교육열이 비교적 높은 대도시가 합격자를 독점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중국도 한국에서처럼 대입 수험생들의 노력은 필사적 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대학생 수는 인구 1만명 당 11명이고 대학생 진학율은 50대1이나 됩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대학생은 한국 대학생 못지 않게 대단한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중국인과 똑같은 시험 제도를 거치지는 않으며, 똑같은 수준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과에 지원하느냐에 따라 시험과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중국의 대학생은 한국 대학생 못지 않게 대단한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은 랴오닝(遼寧)대학의 전경)

다음으로 중국의 대학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대학제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4년제(석, 박사과정은 3년제)이며, 1년은 봄 학기와 가을 학기로 나누어집니다. 입학시기는 9월이고, 거의 대부분의 대학은 매 학기마다 수업내용이 바뀌며, 취득학점도 한 학기 단위로 되어 있어 한국 대학에 비해 취득해야 할 학점 수가 많은 편입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에서 말하는 학과를 보통 "시(系)"라고 하는데, 이 "시" 밑에 다시 여러 개의 "좐예(專業, 전공)"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시"위에 "쉬에위엔(學院)"이라 칭하는 단위가 있는데, 이 경우 "쉬에위엔"은 단과대학을 뜻합니다. 수업과정에 있어서는 전공위주의 필수과목이나 전공선택이 대부분이며, 교양선택은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중국의 대학은 보통 4가지가 있는데, 한국의 교육부에 해당되는 국가교육위원회(國家教育委員會)의 관할하에 있는 대학과, 성(省)이 관할하는 대학, 시(市)가 관할하는 대학, 그리고 중국정부 국무원 각부(中國政府國務院各部)가 관할하는 대학으로 나뉘어집니다. 보통 국가교육위원회가 관할하는 대학을 "따쉬에(大學)"라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쉬에위엔(學院)"이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에도 외국어 계통의 단과대학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관할일지라도 "쉬에위엔"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중국 전체의 대학 수는 종합대학부터 단기의 직업전문대학까지 포함해 약 천여 개에 이르며, 재학생수는 약 180만 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학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1993년 이전에는 대학생들의 학비가 무료에 가까운 실비였습니다. 그러나 1994년부터 9월부터 학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비는 매년 인민폐 1,000원(한화 15만원)~3,000원(한화 45만원)을 내야하는데,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유학생들에게 받는 학비는 중국인들과 다릅니다. 언어연수생, 학부생, 석사생, 박사생의 학비가 각각 다릅니다. 게다가 지역과 대학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언어연수생일 때는 1년에 대략 미화 1,500불~2,500불이며, 학부생일 때는 미화 2,500불~3,000불, 석사생 및 박사생일 때는 미화 3,000불~4,000불 입니다. 여기에다 기숙사비와 식대, 용돈을 보충하면 1년에 필요한 예산이 나올 것입니다.

사전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중국에 가면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시게 될 것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체제가 다른 곳에서 다른 나라 말을 배우면서 공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중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 그들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사전 지식을 가지고 간다면 유학생활의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석은혜/ 본지 편집장

현지에서 온 소식

위로와 축복이 필요할 때

김 아 람

중국의 서북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면서 중국 선교사들의 사역의 한 면을 돌이켜 보고자 한다.

평소 잘 알고 교제하며 지내던 세 명의 한국 사역자들은 여름에 전도여행을 하고자 올해 봄부터 계획을 세웠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역하던 지역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은 곳까지 그 민족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여행을 떠났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먼저 기도로 준비하였고, 어려움 속에서도 전도지를 많이 준비하였다. 첫 번째 도착지인 H시에 도착하여 버스 안에서 전도지를 전달한 후, 어떤 현지인의 집에서 막 수박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 공안들이 들이닥쳤다.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들 세 명은 연행되었던 것이다.

결국 가지고 간 다량의 테이프, 전도지와 자료들은 모두 압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3일 간의 조사 끝에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고, "외국인 종교활동에 관한 규정"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 경고조치를 받은 후 그들이 살고있는 도시의 공안국과 학교로 이첩(移牒)되었다. 한참 후에, 살고 있던 도시의 공안국으로부터 벌금과 함께 2주 내로 떠나라는 추방명령 통보를 받게 되었다. 그들은 많은 어려움 끝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과정 중에도, 당당하게 길에서 만난 병든자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공안국에서도 조사를 받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또한 문제가 되었던 지역에서 돌아오는 기차 안에도 같이 탔던 중국의 젊은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섯 명이 예수를 영접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치고 낙심하여 그 고난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서로 힘을 합하고 마음을 나누며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

그 지역은 모두 미전도종족지역이며 강한 모슬렘의 지역이기에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 어느 지역보다 치열한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그 지역에서는 비단 이 사건 외에도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었다. 우리팀 외에도, 다른 여러 단체와 몇 교회에서 단기 선교여행을 왔었다. 그들은 단기선교로 들어와 노방전도 및 준비한 선교무용 등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지만, 마치 준비라도 한 것처럼 그 집회가 끝난 후에는 경찰에 연행되어 취조를 당하였고, 많은 어려움을 받게 되었다.

이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일어난 반응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왜 그렇게 조심하지 않고 사역을 하다가 노출되어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느냐며 비판적인 입장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과, 아무리 중국 실정법에 위반 된다 하더라도 너무 위축되지 말고, 복음은 꼭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사역자의 사명이라고 긍정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두 가지 모두 옳은 생각이다.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잘 조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您喜歡哪套, 請自己挑吧。/ Nín xǐhuan nǎ tào, qǐng zìjǐ tiāo ba.
(닌 시환 나 타오, 칭 쯔지 티아오 바.) 어느 세트를 좋아하시는지요, 손수 골라보세요.

현지에서 온 소식

그러나 고국에 있는 우리들은 어느 하나가 옳다 그르다라고 의견을 내세우기 전에, 이런 일을 당하였을 때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했으며,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중국 내의 많은 사역자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 공안당국에 노출되어 인권을 무시당한 조사 끝에 강제추방을 당하는 일들이 있음을 종종 들었다. 그런 일을 당한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국제법으로 인정된 외국인에 대한 인권을 무시당한 채 중국공안의 무례한 조사 태도로 인한 수모와 중국정부에 의하여 사역을 하지 못하고 떠나야만 하는 아픔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한채, 왜 조심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하는 사람들, 또한 그 일들을 잘 알고 있는 동료사역자의 따가운 눈초리와 어쩔 수 없는 거리감은 무엇보다도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상처였다고 당사자들은 말했다.

필자 또한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다. 몇 년 전 중국의 B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하다 노출되어 도중에 사역을 그만두고 중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역자의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위로와 축복의 기도는 커녕 '조심 하지 않고 설치더니 그렇게 됐구만'하며 비아냥 거렸던 적이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서 비판과 판단의 마음으로 그들을 정죄하였던 연약한 내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분에게 용서를 구한다.

성경에도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마7:2)는 말씀이 있다. 앞으로 우리의 사역자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와 사랑으로 그 영혼을 축복하며 감싸안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야만이 비로소 그들은 미처 알지 못하였고, 부족하였던 점들을 인정하며 더욱 새로워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렇지 않고 모두 죄인 취급하듯이 '왜 그랬는가?', '그렇게밖에 못했는가?' 라고 정죄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실 것이다.

앞으로도 중국에 있는 사역자들이 있는 한, 이런 일들을 계속하여 일어날 것이며, 예기치 못한 일을 내가 직접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 이런 일을 당한 분들은 조심스럽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에 이런 일을 맞게 되었다. 그러할 때 동료 사역자인 우리의 자세는 어떠 해야 할 것인가?

부족한 자인 저는 이번 문제지역에서 그들과 같이 사역하면서 그들을 잘 알고 그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당사자들과 먼저 상의를 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도 유익하리라는 결론으로 이글을 쓰게 되었다.

올 여름 이 지역에서 일어난 몇 가지 수난의 사건들을 통하여 얻은 것이 있다면, '단기선교 팀들은 어떻게 미개척지역을 중보하며 지혜롭게 단기 선교여행을 마칠 것인가?', '전도여행은 어떻게 준비하며 구체적인 선교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일들을 당할 때 어떠한 마음자세를 가져야 하는가?'하는 것에 관해서 귀한 것들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 가운데 부족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비판과 헤아림보다는 위로와 사랑으로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세워가며, 함께 끝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를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김아람/ 중국선교사

這幾種郵票我每樣要兩套。/ Zhè jǐ zhǒng yóupiào wǒ měi yàng liǎng tào.
(쩌 지 중 요우피아오 워 메이 양 야오 량 타오.) 이 몇 종류의 우표에서 각각 두 세트를 주세요.

황야에서 만난 예수님

어메이(蛾眉)

아주 오래전, 내가 아직 '꼬마'였을 때 나는 주말 유치원을 싫어했다. 유치원 안의 넓은 침실과 어둠 속에서 쥐들의 찍찍대는 소리, 커튼 뒤에서 흔들거리고 있던 괴물같이 서 있는 나무 형상을 두려워했었다.

그러나 몇 십 년이 지난 오늘, 나는 여전히 홀로 서재 한 구석에 누워 있지만, 주위의 모든 것은 이제 내 마음을 놀라게 하지 못한다. 두려운 것은 오히려 나 자신이며, 나 자신에게 더이상 이 세상과 싸워 나갈 용기가 없다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하지만 주께 감사드린다! 이 몇 년 동안 비록 내가 많은 것들을 잃었지만, 영적인 생명력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고, 용기와 신념도 아직 꿈틀대고 있으며 진실함과 선량함마저도 아직 사그러들지 않았다.

인간에 대해 또다시 믿겠다고는 쉽사리 말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는 하늘을 믿고 대지를 믿으며, 이 광대한 우주 속에 어떤 진실이 존재함을 믿는다. 왜냐하면 바로 그 곳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아름다운 태양과 같이 우리의 머리 위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아! 만약 당신이 계시지 않았다면, 당신의 사랑이 없었다면…. 자애로우신 내 아버지여, 이 세상의 황량한 바다 가운데에서 나는 이미 여러 번 죽었을 것입니다."

나는 한 혁명 가정에서 태어났다. 내 부모님은 두분 다 30년 대에 혁명에 참가한 열성 공산당원이셨는데, 그로 인해 나는 어려서부터 자연스레 엄격한 공산주의 교육을 비롯하여 유물론, 무신론 교육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상들은 은연 중에 내 뼛속깊이 파고들었다. 특히 '혁명 영웅주의'에 대한 숭배는 대단했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내게 주신 최초의 책은 『화지와 슐라의 이야기』로, 그것은 소련의 전국 전쟁 시기에 한 젊은 여성이 독일의 파쇼와 동일한 투쟁을 벌였던 것과 마침내 용맹스럽게 끝까지 희생한 이야기였다. 당시에 나는 이 책을 통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 후로도 나는 많은 책들을 읽었고, 나 자신도 그렇게 공산주의 사업을 위해 평생토록 분투하기를 갈망했었을 뿐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당장이라

我再買五張明信片。/ Wǒ zài mǎi wǔ zhāng míngxìnpiàn.
(워 짜이 마이 우 장 밍신피엔.) 엽서 다섯 장도 더 사겠습니다.

장승원 그림

도 전쟁에 참가하여 선혈을 전장에 뿌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조국에 봉사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이런 격정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갑자기 열려진 판도라의 상자처럼 역사상 전례가 없는 문화대혁명이, 순식간에 거짓되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인간을 향해 멋대로 튀어나오게 했다. 나는 아직 여린 한 소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추악하고 냉혹한 인간의 본성 그 자체를 똑똑히 보게 되었다. 유혈과 죽음뿐 아니라 딱딱하게 굳은 시체들, 그 침통한 울부짖음….

나는 처음으로 이 '혁명'의 잔혹성을 절실히 느꼈다.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을 때, 뜻밖에 나에게는 알 수 없는 근심과 슬픔이 천천히 마음 깊이 파고 들었다. 높은 가릉(嘉陵) 강변에 서서 떠들어대는 군중들을 멀리 바라보고 있노라니, 갑자기 인간의 우매함과 하찮음이 느껴졌다.

바로 그때, 나와 마찬가지로 그토록 혁명에 충성했던 내 부모님은 이미 반역자, 스파이, 자본주의 신봉자로 낙인 찍혀 버렸다. 당시 힘든 때를 어떻게 지내왔는지 모르겠다. 다만 조국에는 더 이상 푸른 하늘과 흰구름이 없을 거라는 것만 알았다.

비틀거리는 발걸음

어느새 세월은 흘러 세기 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중화민족은 아직도 그 낡아빠진 음울한 민요를 부르고 있다. 중국 사회도 여러 차례 발버둥 쳐봤지만, 역사의 긴 강 가운데서 용솟음치는 것은 여전히 진부한 흔적뿐이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게 되면서 내 마음은 고통과 모순으로 가득찼다. 전에는 유치하게도 직장에서 이러한 현상과 투쟁했었지만, 그것들은 다 현실을 바로 인식하지 못한 무모함이었기에, 오히려 나 자신에게 끝없는 고뇌만을 불러 일으켰을 뿐이었다. 특히, 「문혁」 이후 인간성은 심하게 뒤틀리고, 사람 사이에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어, 서로가 서로를 방어하게 되어, 어디서나 허위와 거짓이 만연하였다. 전제정치의 기운은 의식있는 모든 사람들을 질식할 지경에 이르게 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진실하고자 했던 한 인간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나는 매일 가면을 쓴 채 또다른 가면을 쓰고 있는 주위 사람들과 함께 맴돌 수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들로 고뇌하고 있을 때, 내가 줄곧 의지하여 왔고, 혁명을 위해 일생을 바치셨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 그로부터 얼마되지 않아, 남편은 나와 이혼하고 중동으로 떠나버렸다. 내게 유일하게 남은 것이라고는 어린 아들과 산산 조각난

平信八分, 航空一毛。/ Píngxìn bā fēn, hángkōng yì máo.
(핑신 빠 펀, 항콩 이 마오) 일반 우편은 8전, 항공우편은 10전입니다.

마음뿐이었다. 내 영혼은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단순한 진리를 찾아 절박하게 헤매고 있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은 프랑스 후기인상파 화가인 고갱이 사망하기 전 남태평양을 바라보며 울부짖은 최후의 물음이었다. 나 역시 고갱처럼 황망하고 고통스런 가운데 그 해답들을 집요하게 찾고 있으면서, 한동안 나는 문을 닫고 필사적으로 독서에 열중했다. 반 고호와 사르트르, 베토벤도 읽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현대주의에 이르기까지, 노장사상에서 신 유가사상에 이르기까지의 세계사를 한 편씩 뒤져가며 지식의 미궁으로부터 그 출구와 해답을 찾으려 했다.

바로 이 때에 전국을 휩쓴 '89년 6·4 민주화운동이 나를 개인적인 혼란에서 깨어나게 했다. 학생들이 주체가 된 연좌시위는 반부패, 자유쟁취, 민주의 함성을 절정에 이르도록 했다.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여론조사를 했다. 학원의 교사, 학생들과 함께 길에서 시위도 하며, 시 중심 광장에서는 나팔을 불고 열심으로 시와 문장을 쓰기도 하면서 연좌, 단식하는 우국 학생들을 지지했다. 그러나 6·4 천안문 사건의 결과는 잘 아는 대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을 빼고서는 중국인들에게 남긴 것은 비통한 기억뿐이었을 것이다.

외침

천안문 사건 이후, 나는 더욱더 견디기 힘들어졌다.이 시위 중에 내가 지은 시 《어머니, 저는 동트기 전에 곧 죽을 겁니다》,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이 두 편이 학생들에 의해 널리 전해지게 되었는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빌미로 공개적으로 나의 잘못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내 본래의 의도만을 발표했을 뿐이었다. 한동안 나는 몇몇 사람들에게 '회색분자'로 취급을 당했다. 누군가가 몰래 감시하고 있는 것이 종종 느껴지기도 했으며 사상적 압력 또한 매우 컸다. 설상가상으로 하나 밖에 없는 내 아들이 자동차에 치어 '뇌 외상 후유증'이라는 판명을 받았다. 인민폐 몇만 원이나 드는 두개골 절개 수술을 해서 뇌 속의 핏 덩어리를 빼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같은 평범한 학교 직원에게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어디 있겠는가? 더구나 나에게는 형제자매도 없는데다, 천안문 사건 이후로는 몇몇 열성파 공산당 친구들도 모두 나를 멀리했다.

'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나?', '누가 내게 도움의 손길을 펴줄 것인가?' 이 망망한 인해(人海)를 대면하며 말없이 아이가 병고에 시달리는 참상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눈물만 한없이 흐를 뿐이었다.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나는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나 자신에게 물었다. 흡사 햄릿과 같이 고독과 울분에 싸여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이 버텨 나갈 수 없음을 느꼈고, 모든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 있었다. 그래서 난 마침내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 냉혹하고 잔혹한 세상을 떠나기로 작정했다.

그러나, 나는 한 아이의 어머니였고, 그 책임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하지만 살아있는 것 또한 정말이지 너무도 힘들었다.

"벗이여, 너는 아는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이는 결코 자살한 사람이 아니라 자살할 권리조차도 없는 사람이라는걸!"

인생은 그렇게도 힘들었다.

'오, 나는 한 척의 고독한 작은 배처럼 이 세상의 황량한 바다 가운데에서 바람 부는 대로 떠돌아다닌다. 바람은 그 배를 때리고 파도는 그 배를 치는구나.'

'아! 언제나 해안을 볼 수 있을까?'

'언제나 또 조용한 항구를 향해 질주할 수 있을까?'

가끔씩, 나는 꿈속에서 깨어나 창백한 슬픈 달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다.

'어머니, 저를 도와 주세요!'

밝은 곳으로 나아가다

바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위급했던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곁에 와 주셨다. 우리 학원과 각 대학에서는 거의 매년마다 교환교수가 와서 머물렀는데, 그들은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미국에서부터 중국으로 와, 우리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는 한편, 암암리에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 나는 바로 이때, 친구의 권유로 마이크 선생님의 가정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請問, 寄到南京的信要貼多少錢郵票?/ Qǐngwèn, jìdào de xìn yào tiē duōshao qián yóupiào?
(칭원, 지따오 난징 더 신 야오 티에 뚜오샤오 치엔 요우파오?) 실례지만, 남경에 부치는 편지는 얼마짜리 우표를 붙여야 하죠?

마이크와 그의 아내 오란타는 둘 다 경건한 기독교 신자로서, 그들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다 주었고, 허물어져가는 내 마음을 강하게 일으켜 주었으며 나의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생명이 소생하는 기쁨과 세상의 따스한 온기를 느끼게 해 주었고, 더 나아가 나에게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여 전진하는 배에 돛을 높이 올리게 한 것이다.

우리는 함께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나누며 찬송가를 부르면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고, 그러는 동안 나는 인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기 시작하였다. 사실 나는 기독교 문화가 결코 낯설지 않았다. 과거에 외국소설을 읽으면서 가끔씩 접했었지만 그때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인생의 고통을 경험한 후로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나의 주의를 끌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인간들에게 오셔서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최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인류를 위해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다 쏟으신 후에 부활하셨다는, 이 감동적이며 역사적 사실이었다. 그 후로, 나는 또 수많은 당대 기독교 사상가들의 저서를 접하게 되었다.

과거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확고히 과학을 믿어야 하고 과학자들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사물을 검증하는 기준이 된다고 배워왔다. 나는 다윈의 『진화론』을 읽었는데 '종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지껏 의심해 보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다윈의 진화론 중의 심각한 결점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나는 과학이란 단지 법칙을 이용하고 그 법칙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을 뿐이지, 법칙 자체를 창조해 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과학이 인류에게 가져오는 것이 복인지 화인지, 현재 이미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우리는 대기오염을 보고 있고, 자연 자원의 고갈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으며, 과학에 의거하는 공업문명은 밤낮없이, 서슴없이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며 침해하고 있다. 지구의 생물들은 바야흐로 급속하게, 보편적으로 종말로 향하고 있다. 그것은 인류생존 위기의 엄준성을 명확히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과학이란 완전히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고, 다만 인류 자신의 지혜의 산물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인류의 사유방식과 가치관 또한 그가 생존하고 있는 지구라는 시공 범위를 영원히 넘어설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은하계에 수많은 헤아리는 천체가 있고 지구는 다만 그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하물며 인류는 지구상의 한 생물에 불과할 뿐인데, 세계의 광대함과 우주의 정묘함에 대해 인류 자신이 어찌 함부로 범위를 정할 수 있겠는가?!

명백히 알 수 있듯이, 인류의 식견은 근시안적이고 편파적이며 심각한 한계성을 지니고 있어서, 만일 인류 자신의 이성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개미가 홰나무에 기어 올라가 대국을 칭찬한다」는 격으로, 온 우주의 진상이 전혀 달라져 버릴 것이다.

소망

과학과 신앙이라는 이 두가지 큰 문제를 해결한 후에,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었다. 나는 마침내 가시나무와 진창으로 가득한 황야를 걸어 피안으로 통하는 그 빛나고 아름다운 십자가의 길을 좇게 되었다. 「그 어디서 이렇게 맑은 것을 얻겠는가 묻노니, 오직 생수의 근원에서만 나오는 것이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나를 구해 주었던 때로, 이 생수는 메말라 시들어가는 내 생명을 촉촉하게 적셔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쌓인 먼지들을 말끔히 씻어 주었으며 나의 멍한 두 눈을 맑게 해 주었다. 이는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이 세상의 마지막 진리임을 심각하게 인식하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세상의 어떠한 과학적 논리로도 넘어설 수 없으며, 또한 「자유, 민주」의 이념은 원래 하나님의 존엄한 근원에서 나왔음을 비로소 분명히 알게 해주었다.

조국을 돌아보고 깊이 생각해 보니, 오늘날의 중국은 전면적이고 철저한 문화적 전환이 절박하게 요구된다고 느껴진다. 왜냐하면 전 민족의식의 기독화라는 기초 위에서만이 자유, 민주, 번영, 부강, 현대화된

중국을 진정으로 건립할 수 있다는 걸 역사가 증명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목표를 위해 여생을 분투하며, 십자가의 진리를 내가 발을 들여 놓을 수 있는 모든 곳에 전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영적 생명의 성장에는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하며, 교회에 출석하거나 세례를 받는 즉시 빨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죄를 가진 자신의 '옛사람'을 순결한 '새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역시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이 가운데에는 물론 경건한 마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순종이 더욱 더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지식은 너무나도 적고 나 자신의 생명력과 깊이 역시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래서 나는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픈 바램을 싹틔우게 되었다. 작년에 나는 마침내 여러 가지 곡절과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북미에 오게 되었다. 그러나 무거운 채무는 오히려 나를 숨막히게 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빚을 갚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지금까지 신학의 길에 들어서질 못했다. 그러나 나는 주 예수께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알고 계심을 믿는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이런 심중의 기대를 알고 계신다. 그런 까닭에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분명히 길을 열어 주시리라 믿는다. 왜냐하면 주께선 이미 나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시고 인자하신 모습으로 나를 향해 걸어오고 계심을 이미 느꼈으니까.

출처/ 中國與福音 23期
번역/ 장은주 · 자원봉사자

중국의 여성사업

여자가 농촌 노동력의 60% 차지
참정권 향상…全人大 대표의 22%

꾸시우롄(顧秀蓮) 중화전국부녀연합회 부주석은 지난달 31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8차 전국여성대표대회 개막식 연설을 통해 지난 5년간 중국의 여성 사업이 건국 이래 가장 크게 발전한 시기였다고 지적하고 중국 사회주의 경제 · 정치 · 문화 건설에서 여성들이 이룩한 새로운 성과와 발전을 높이 평가했다.

현재 중국 농촌의 여성 노동력은 전체 농촌 노동력의 60% 이상으로 농촌 경제 발전의 주력을 이루고 있으며 도시 여성들도 경제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꾸 부주석은 강조했다.

중국 여성들의 참정 및 의정 수준도 끊임없이 향상되고 있는 바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여성 인민대표 수는 650명, 제9기 전국정치협상회의(政協)위원 가운데 여성이 341명으로 전체의 21.8%와 15.5%를 각각 차지했다.

작년말 현재 31개 성 · 자치구 · 직할시의 지구(시)급과 14개 성 · 자치구 · 직할시의 현(시)급 당정 지도부에 모두 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 교육과 여성 및 아동의 보건 상황도 크게 개선됐다.

작년말 현재 전국 여대생 수는 118만명, 연구생수는 5만여명으로 재학생 총수의 36%와 30%를 각각 차지했다.

최근 각급 당정군(黨政軍) 기관과 과학, 교육, 문화, 위생 등 사업부문에 설치된 부녀위원회는 6만 6,000개에 이르며 향진기업, 비공유경제 기업 및 새로운 경제조직들이 설치한 부녀조직은 10만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베이징저널 제65호에서-

您奇平信還是掛號信? / Nín jī píngxìn háishì guàhàoxìn?
(닌 지 핑신 하이스 꽈하오신?) 일반우편으로 부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등기로 부치시겠습니까?

33년 간 中國 宣敎師로 활동한 이대영(李大榮) 목사(4)

김 교 철

산둥선교사 시절의 이대영 목사 가족

1. 中國 산둥성(山東省) 칭다오(青島) 선교

1922년부터 산둥성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시작한 이대영 목사는 중국 산둥반도의 중앙지대라고 할 수 있는 라이양(萊陽)과 지모(卽墨) 등지에 설립된 중국인 교회들을 순행하면서 사경회와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여 부흥운동에 크게 기여하다가 1937년 8월에 제2차 안식년을 맞이하게 되어 본국(조선)으로 귀국하게 되었다.

그가 귀국하던 해에 이대영 목사의 선배 선교사 박상순 목사 가정이 1937년에 발발한 일제(日帝)의 중국 침략 전쟁으로 인하여 가족과 함께 귀국하였으며, 1937년 4월에 파송된 방지일 선교사 역시 1937년 8월 19일에 귀국하게 되었다. 그리고 1931년부터 산둥성에서 활동한 여선교사 김순호 씨는 1936년에 안식년으로 귀국하였으나, 일제의 침략 전쟁으로 임지로 가지 못하고 본국에 머물고 있었다.

안식년으로 귀국한 이대영 목사는 1937년 9월에 그의 셋째 아들(규호)이 별세하는 매우 슬픈 일을 당하였으며, 그가 안식년으로 본국에 있는 동안 1938년 5월에 선교지 지모(卽墨)에 있는 사택 가구 전부를 난민에게 약탈 당하고 말았다.

이대영 목사는 1937년 9월, 대구 남성정제일예배당(현 대구제일교회)에서 개최된 제26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출석하여,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회집된 새벽기도회를 주기철 목사와 같이 맡아 인도하였다.

그리고 산둥 선교 상황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는데, 산둥선교사업과 선교사를 위하여 이승길 목사가 기도를 하였다. 1937년, 제26회 총회기간 중 새벽기도회를 이대영 목사와 주기철 목사가 인도할 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모두 동일한 신학적, 신앙적 노선을 걷고 있었으

我要寄航空掛號信。/ Wǒ yào jì hángkōng guàhàoxìn.
(워 야오 지 항콩 꽈하오신.) 나는 항공등기우편으로 부치려 합니다.

나, 1938년 9월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주기철 목사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길을 걷게 되었고, 다수의 장로교 인사들은 시국인식과 종교보국이라는 이름하에 일제의 침략전쟁과 종교정책에 협조하는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이대영 목사는 안식년을 맞아 총회에 참석하는 한편, 전국 각지에 청함을 받아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다. 이대영 목사는 1938년 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신의주 제1, 제2 교회에서 개최된 제30회 의산노회 도사경회에 방지일 목사, 이기선 목사 등과 같이 매일 3천여 명씩 모이는 성대한 집회를 인도하였다.

이대영 목사는 안식년 기간 동안 전조선을 순회하면서 사경회와 부흥회를 38처에서 인도하였으며 신사참배 가결 총회의 지속적인 후원을 받으며 1939년 7월 하순에 본국 조선을 출발하여 8월 3일, 칭다오(青島)에 도착하였다.

장로회 총회 외국전도부는 사실 이대영 목사를 만주(滿洲)로 파송키로 작정하고 힘썼으나, 결국 산둥(山東)에서 계속 선교하게 되었다. 이대영 목사는 칭다오(青島)에 거주하면서 두어 주일은 지모(卽墨)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였으며 지모(卽墨)로 이거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파송으로, 1913년부터 중국 산둥성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한 조선 선교사들은 라이양(萊陽)과 지모(卽墨)를 스테이션으로 정하고 활동을 하였으나, 1937년 일제의 침략전쟁으로 내륙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1938년 11월부터 칭다오 미국 북장로회 선교 당국과 교섭하여 칭다오 구역을 신설하고 전도를 개시하여 집회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1939년에 선교사 박상순 목사와 여선교사 김순호 씨가 본국 총회의 소환으로 선교지를 떠나게 되어 칭다오에는 이대영, 방지일 두 목사만이 남아서 활동하게 되었다.

이대영 목사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었으나, 1940년 4월 3일에 본국에 있는 가족들이 선교지에 도착하여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이대영 목사는 1940년 6월 26일부터 일주 일간 산둥(山東) 주촌교회에서 모인 제8회 산둥대회(山東大會)에 라이양노회 대표로 루서법, 범순청, 만세겸, 방지일(方之日) 등과 같이 대회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대영, 방지일 목사는 1933년에 성립된 라이양노회원이자 교동(膠東)노회 노회원으로 이중 소속을 가지고 활동하였으며, 1941년 말에 베이징(北京)에서 조직된 조선예수교장로회 회북노회와도 관계를 유지하였다.

2.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변질과 선교사와의 관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파송으로 산둥성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은 총회의 지도를 받으며 선교사로 활동을 하였는데, 1938년 신사참배 가결 총회 이후로 총회는 일제의 정책을 따라 신사참배, 국방헌금,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연맹 결성 및 노회별로 지맹을 결성하여 침략자 일제에 협력을 하였다.

중국 산둥성과 만주국(滿洲國)에서 일하던 조선 선교사들은 이러한 총회와의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이대영 목사는 1941년 총회에서 총회기관 15년 이상 근속자로 박상순, 방효원, 권중여, 정인과 등과 같이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제30회 총회에서는 총회 설립 30주년기념식을 거행하였는데, "시난극복(時難克服)"이라는 결의문을 발표하였으며 지나주둔황군사령관(支那駐屯皇軍司令官-중국주둔 일본군 사령관)에게 축전을 보내기로 가결하였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어 중국인에게 전도하면서 한편 중국 침략전쟁의 괴수에게 축전을 보내고 국방헌금을 모아 지원하는 등 친일노선을 따르고 있었다.

당시 일본은 중국대륙 침략전쟁을 계속하면서 1942년 3월 8일에는 일화협력 "산동중화기독교회" 발회식을 거행하는 등 중국기독교를 정신적 침략에 이용하려고 노력하였다.

3. 일제 패망 후의 산둥 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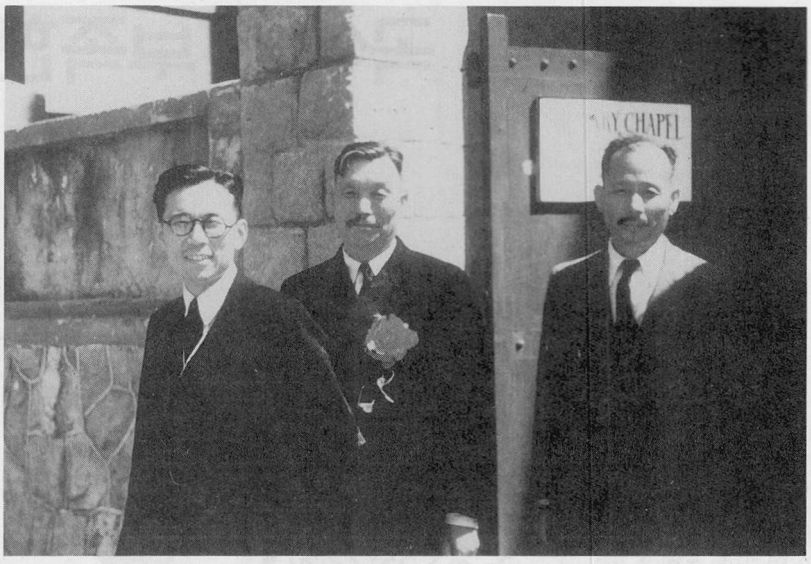
한국인과 중국인 그리고 아시아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일제의 침략전쟁은 결국 일제(日帝)의 패망으로 끝을 맺게 되었다. 침략자 일제 아래서 고통을 당하던 산둥성 인민들은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으나, 다시 내전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일제 패망과 미

這封航空信寄到倫敦貼一塊錢郵票夠嗎?/ Zhè fēng hángkōngxìn jìdào Lúndūn tiē yí kuài qián yóupiào gòu ma?
(쩌 펑 항콩신 지 따오 룬둔 티에 이 콰이 치엔 요우파오 꺼우 마?)
이 항공우편을 런던에 부치는데, 1원 짜리 우표를 붙이면 될까?

해병대가 상륙하면서 산둥에 주둔하였던 일본군이 투항하고 일제하 일본거류민 조직하에 있던 한인들은 교민회를 조직하였는데 이대영 목사가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이대영 목사는 칭다오에 거주하며 교민회 업무와 교회 업무, 난민구제사업 등으로 활동하다가 1948년 7월에 분단된 조국 남한을 방문하여 각 교회를 순회하며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1949년 공산정권이 수립되면서 이대영 목사는 가족과 생이별하게 되었다. 이대영 목사 가족은 방지일 목사 가족과 같이 산둥 칭다오에 거주하였고 이대영 목사만이 본국에서 지내게 된 것이다.



중국 칭다오 선교사 시절의 이대영 목사(가운데). 좌측 방지일 목사, 우측 김명집 목사

4. 33년 간의 중국선교사직 사면과 귀국 후의 생활

이대영 목사 가족은 공산치하에서 생활하다가 1955년 4월에 분단된 조국 남한으로 귀국하였으며, 1955년 4월 24일 오후 2시에 서울 영락교회에서 이대영 선교사 선교 33주년 기념 및 가족환영예배가 성대히 거행되었다.

그리고 1955년 총회에서 중국선교사 이대영 목사의 사면이 수리되어 1922년부터 시작한 그의 중국선교사직을 마치게 되었다. 이대영 목사와 다년간 칭다오에서 활동하였던 방지일 선교사와 가족은 1957년에 남한으로 귀국하였으며, 장로회 총회가 분열하면서 이대영 목사는 합동측 총회에, 방지일 목사는 통합측 총회에 소속되어 각각 총회장을 역임하며 한국교계에서 많은 활동을 하였다.

이대영 목사는 서울 승동교회에 위임목사로 부임하여 활동하였고, 1959년 총회 분열 이후 분쟁 속에서 지내었다. 그러다가 1968년 11월 2일, 81세의 고령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결의에 의해 1913년부터 시작된 중국 산둥성 선교는 1957년에 방지일 선교사 가족이 귀국하게 되면서 일단 막을 내리게 되었다.

선교사 박태로(1913년 5월), 사병순, 김영훈(1913년 가을), 방효원, 홍승한(1917년), 박상순(1918년), 이대영(1922년), 김순호(1931년), 방지일(1937년) 선교사 등이 산둥성 선교를 위해 수고하였으며, 이대영 선교사는 1922년부터 1948년까지 26년 간, 그리고 선교사직을 사면할 때까지 33년 간 중국선교사로 가장 오래 활동한 선교사가 되었다. 필자는 1997년 봄에 산둥성 칭다오시를 방문하여 조선 선교사들이 담당하던 교회 교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때 아주 오래된 신구약성경을 꺼내어 보여주었다. 그 성경책에는 이대영 목사의 아내 김부석 사모가 기록한 성경구절이 적혀 있었다. 중국 산둥에는 아직도 조선 선교사들을 기억하는 중국교인들이 남아 있으며 주를 섬기고 있다.

김교철/ 중국선교연구협회 연구원

請把信拿來称一下。/ Qǐng bǎ xìn nálái chēng yíxià.
(칭 바 신 나라이 청 이시아.) 편지를 좀 가져와 달아 주십시오.

추수할 곡식과 부족한 일꾼

무 명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저는 평안히 돌아왔습니다. 마치 여행과도 같이, 갈 때에는 마음속에 커다란 부담이 있었지만, 돌아올 때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과 동족에 대한 깊은 사랑의 마음을 한아름 안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저희는 세 차례의 훈련을 모두 중국 중부에 위치한-화중(華中), 농촌 한 군데에서 받을 수 있어서, 저는 현지 환경, 음식, 기후와 문화에 점차적으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로 다른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두 군데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사실 대다수 농촌교회들은 그렇게 무질서하지는 않았습니다. 각 지구 교회는 모두 동역자 모임의 한 지도자에 의해서 총괄되고 있습니다. 동역자 모임의 대표는 서로 다른 집회소로부터 선출되고 총회는 매달 한 차례의 동역자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역 내의 중요한 사역들은 모두 동역자 회의를 거쳐 결정이 됩니다. 설날을 예로 든다면, 총회에서는 몇 개 조의 전도단을 만들어 자작한 복음송과 드라마들을 가지고 야외에서 상연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 앞에서도 상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훌륭했습니다. 이 외에도 농한기에는, 농민 모두가 집안에 머물러 춘절을 보내므로 한 집 한 집 심방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결과적으로 춘절 전도활동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500여 명 정도 됩니다.

제1기 훈련을 받을 때, 총회 장로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훈련을 매우 중시하셨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에 부합되는지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은 겸손하셨고 심지어 우리에게 자신이 초등학교 학력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동역자들과 함께 듣고, 배우고, 함께 놀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 차례의 여정 중에서 나를 감동시켜 숙연하게 옷깃을 여미게 한 것은, 바로 겉에서 볼 때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시골뜨기로 알려진 이러한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수많은 무명 전도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중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젊은 동역자들은 그들에게 애정과 존경을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거나 거칠지 않았으며, 말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동일하게 과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치유와 축복을 주셨으며, 그들이 그들의 모든 삶과 그의 가정을 주님께 바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곳을 생각할 때면,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저는 제 1기 훈련생들이 심령이 피곤하고 육체가 연약해질까봐 염려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

這封信超重五克, 要貼一塊四毛錢的郵票。/ Zhè fēng xìn chāozhòng wǔ kè, yào tiē yí kuài sì máo qián de yóupiào.
(쩌 펑 신 차오중 우 커, 야오 티에 이 콰이 쓰 마오 치엔 더 요우퍄오.)
이 편지는 5g을 넘었어요. 1원 40전 짜리 우표를 더 붙여야 합니다.

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열정적으로 훈련에 참여하였으며, 마음을 찢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고 우리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반년 후에 우리가 그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는, 피곤으로 인해 그들의 얼굴에서 미소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한 달에 최소한 20일은 밖으로 뛰어다니며 많은 집회처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일주일 내내 오후와 저녁에 말씀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일, 아이 돌보는 일, 밭에 나가 일하는 것 등은 부득불 연로한 부모님과 아내가 대신하여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일꾼이 적어서 그들은 매우 초조해 하고 있습니다.

장승원 그림

제2기 훈련생들의 상황 역시 그다지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곳에는 9명의 사역자들이 있는데, 인도해야 할 교회는 1백여 개가 넘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청년들을 양육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2기에도 30여 명의 청년들이 제자양육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이미 교회에 복음전도자로 멀고 외진 곳으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저는 중국 교회의 희망을 볼 수 있으며,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중학교 교육밖에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으며,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 수업에 조금도 피곤해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때에는 그들이 자진해서 우리들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도시로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생활을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시골에서의 가난하고 힘든 생활을 벗어나고도 싶어 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생활 속에서는 서로 다른 문제와 서로 다른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만, 이런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풍요로우심을 체험케 하십니다. 나는 이런 농촌교회에서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에 상관없이 모든 사역자들을 통해 '충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1년을 돌이켜 보면, 저는 처음 머뭇거릴 때에서부터 대륙의 복음의 밭에 과감히 들어가는 과정 동안 하나님의 역사와 저의 마음 속의 변화를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복음화는 더이상 상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생생히 살아움직이는 지체들과의 교류이자 생명과 생명의 결합이며, 더욱이 무엇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더 많은 체험과 풍요를 얻게 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중에 중국 교회의 기도제목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守望中華』 98 · 7~8
번역/ 임선미 · 자원봉사자

21년 선교의 결산

방 지 일

내가 중국 선교사로 첫발을 내디딘 곳은 해안에서 약 3백리 떨어진 라이양(萊陽)이었다. 1937년 5월 7일 라이양에 도착한 나는, 모든 것이 무척 생소했다. 게다가 한국에서 온 첫 선교사였던 까닭에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개척해야만 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노구교(盧溝橋)사변이 일어났고, 일본군이 베이징(北京)에 진입하였다. 전운(戰雲)은 날로 깊어갔고, 중국 사람들의 민심 또한 흉흉해졌다. 일본 치하에서는 내 위치도 매우 위험했다. 이후 중국군은 그나마 나를 후하게 대우하였으나, 때가 때이니 만큼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칭다오(靑島)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한 선교사는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나에게도 귀국할 것을 요청했다. 그 통지를 받은 나는 무척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나는 귀국하지 않고 계속 그 곳에 남아 사역을 해나갔다. 일본군이 중국 연안은 거의 다 점령했지만 오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보낸 세월이 20년이었다. 그 동안 나는 다섯 차례 정변을 겪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무슨 선교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돌아보니 그 동안에 기존 교회들은 꾸준히 성장하였고, 선교지도 칭다오까지 확장되었다. 훌륭한 인재도 양육하면서 선교사역은 계속 이어져 나갔다.

공산군에 의해 홍콩으로 추방된 뒤 1개월을 체류한 다음, 일본을 거쳐 9월 22일 부산에 도착했다. 몸은 비록 한국에 있었지만 동고동락했던 중국동역자들과 자기 몸같이 나를 아껴주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생각이 한시도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한국에서 나의 생활은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바쁘게 돌아갔다. 여러 교회를 다니며 사역을 보고했으며, 기도 동역자를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한국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잘 몰랐지만 복음을 위해 일하겠다는 일념은 변함없었다.

총회 선교부에서는 내게 총무를 맡아 사역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무보는 일에는 재능이 없었으므로 거절하였다. 한편에서는 교회를 맡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러던 차에 영등포교회로부터 목회자가 없어 강단이 비었으니 강단을 지켜달라는 부탁이 들어와 이를 수락하였다. 영등포교회의 상황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던 나는, 홀로 빈 사택에 기거하면서 강단을 지키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였다. 목회나 선교를 하는 데 최우선은 기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즈음 한남노회가 서울노회에서 분립한뒤 창립노회를 영등포교회에서 가졌다. 거기서 나는 임시 목사로

您喜歡哪套, 請自己挑吧。 / Nín xǐhuan nǎ tào, qǐng zìjǐ tiāo ba.
(닌 시환 나 타오, 칭 쯔지 티아오 바.) 어느 세트를 좋아하시는지요, 손수 골라보세요.

청빙되었다. 나는 계속 영등포교회의 강단을 지켜나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다. 사실 목회를 하는 데는 행정능력보다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영등포교회의 성도들은 나를 무척 사랑하며 존경하였다. 당회에서는 나를 위임하고자 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이 항상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거절하였다. 지금은 고인이 된 김현각 장로는 나에게 "중국 교인만 머리에 가득하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정말 그랬다. 이렇게 해서 4년을 임시목사로만 지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교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결국 위임에 동의하였고, 1963년 총회 때에 선교사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26년 동안 중국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그만두려고 하니 중국 동역자들과 형제 자매들 생각에 마음이 무척 아팠다. 내 마음은 한시도 그들을 떠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지금 영등포교회에서 목회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부지런히 돌아보았다.

중국 선교사직을 사임했으니 중국 교회는 이제 내게서 멀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대만을 세 차례 방문하면서, 집회를 열고 중국 대륙에서 피난 온 형제자매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그 때의 감격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다. 대륙에서 했던 대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종종 그들과 소식을 주고받는다.

지금은 은퇴한 미스 폴사이르 여선교사-나와 함께 중국에서 일했던-는 아직도 중국에서 사역했던 일을 잊지 못한다. 우리는 서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주고 받았다.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두 사람은 중국 선교에 품은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

중국에서 함께 사역했던 방덕윤 목사가 당시 런던에 살고 있었다. 1947년 여름, 나는 영국에 가서 그를 만나 며칠을 함께 보냈다.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며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것이야말로 내가 체험을 통해 얻게된 나의 사역관이다.

20대 약관의 나이에 가서 오십 고개를 넘기까지 청춘의 정열을 쏟았던 중국이다. 더욱이 전란으로 혼란스러웠던 시절에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므로 절대 잊을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선교하는 동안 내가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몇 가지를 나누고 싶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는 중국에 있으면서 중국 시대, 일본군 시대, 미국군 시대, 중국군 시대, 공산당 시대, 유격대 시대 등 골고루 다 거쳤다. 그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 어떤 때는 전쟁의 상황이 나를 당황하게 하였고,

심지어 공포심에 몸을 떨기도 했다. 간혹 큰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해야만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사역은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었다.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모임들이 생겨났으며, 수양회와 대회, 그리고 총회를 열었다. 개척교회도 세워졌고, 위험을 무릅쓰고 세례식도 거행하였다. 생각해 보면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후 일본군은 내게 추방령을 내렸고, 공산당은 나를 추방했으나,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았다. 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보면서 선교사역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것이야말로 내가 체험을 통해 얻게된 나의 사역관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았다.

민족에 따라 민족성이 다른 것은 당연지사이다. 예수를 믿어도 그 민족성에 따라 나타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다고 한다. 내가 중국으로 파송되어 가기 전, 이미 선교의 경험을 갖고 계신 몇몇 분들이 중국 사람들의 신앙심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다. 공통적으로 교회의 덕을 보려고는 하지만 교회를 위해 하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것과, 헌금할 줄 모르며 사랑이 그다지 깊지 않다는 말씀들을 하셨다. 그러나 20여 년간 중국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는 깊이 체험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같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았다.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민족적 전통, 우월성, 성격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사랑에 완전히 다 녹아지고 마는 것이다.

사랑은 주고 받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바로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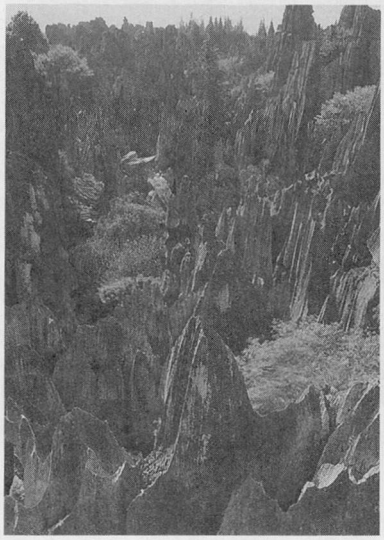
위에서 물이 흘러 내리듯, 보통 선교사역은 무지한 사람들을 개화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을 잘 살도록 도와주는 일과 함께 진행된다. 이런 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선교사역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대등한 사랑, 즉 주고 받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현지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랑을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면 예속적 사랑이 되고 만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맛을 모르는 것이다. 사랑은 대등한 위치에서만이 이루어진다.

내가 사역을 하던 그 시기는 워낙 난세였으므로, 그러한 상황이 사랑을 주고받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믿는다. 나는 힘껏 중국사람들을 사랑했고, 중국 사람들 역시 있는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했다. 이를 통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주고 받을 때만이 진정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대등한 위치에서야 서로 통하게 되며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출처:《福音歷史半百年》중에서
방지일/ 목사, 전 중국 산동성 선교사

*이번호로 「중국선교의 발자취」는 마칩니다.

我再買五張明信片。/ Wǒ zài mǎi wǔ zhāng míngxìnpiàn.
(워 짜이 마이 우 장 밍신피엔.) 엽서 다섯 장도 더 사겠습니다.



산골짜기의 백합화

-윈난(雲南)성 누장(怒江)교회

교회의 발전 속도는 빠르나 신도들의 수준은 보편적으로 낮아서 사탄은 가라지가 뿌려지는 틈을 타서 이단사설을 유포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고자 획책한다

리펑페이(李鵬飛)

아주 오래 전부터 윈난성 누장지구 소수민족 교회가 매우 번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올해 8월, 윈난성 양회의 요청으로 중국기독교 민족 교회 사역위원회는 누장지역 교회와 더불어 목회자 교육반을 개최하였다. 운 좋게도 이번 일에 참가하게 된 나는, 그곳에서 보고들은 바를 형제자매들과 나누고자 한다.

경치는 전원시처럼 아름답지만 생활은 어렵기 짝이 없다. 신기하고도 아름다운 누장 대협곡은 원래부터 "험산준령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고, 절벽은 도끼로 깎아내린 듯하며 그 사이 협곡 틈새로 거센 급류가 굽이쳐 흐르는" '세계 제3대 협곡'으로도 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다. 흰 구름은 청산에 걸려 있고 청산은 강을 감싸고 있으며, 나무꾼 노래에 새들이 화답하며, 대나무로 이은 집 사이로 올려 높디높은 가오리산(高黎山)과 삐뤄쉐산(碧羅雪山)이 남북으로 뻗어있는 사이로 누장이 끼어 있듯이 흐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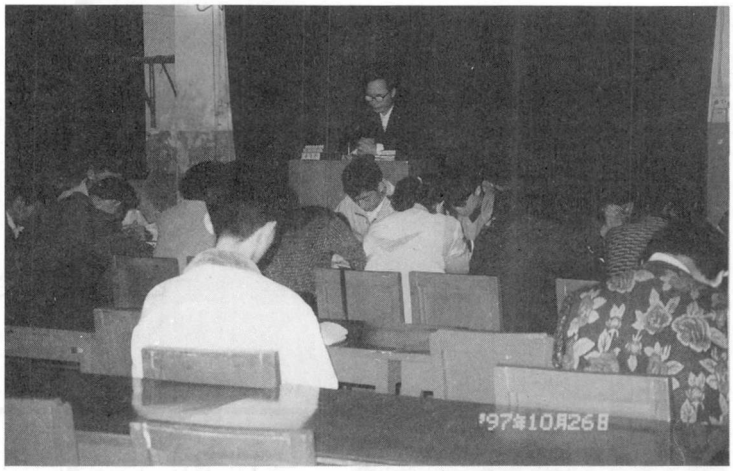
"하늘을 쳐다보면 그저 한 줄기 실낱 같은 틈만 보이고, 땅에는 한 줄기 강이 흐르니, 산양은 갈 곳 없어 헤매고, 원숭이도 이로 인해 근심하네"라고 이 지역 민요는 이 곳 풍경을 읊고 있으며, "누장 양편에는 수많은 농경지도가 걸려 있다"고 가파른 산비탈이 만들어 내는 무늬의 아름다움을 비유하는 이도 있다.

1913년 영국내지선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면서 이 지역의 선교역사는 시작되었다. 뒤이어 미국, 스웨덴, 독일 등의 선교사들이 다투어 이 곳에 선교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배경에 따라 네 개의 파로 나눌 수 있다. ①기독회(캠벌파 교회), ②하나님의 성회, ③내지회, ④오순절파 교회가 그것이다.

선교사들은 리쑤족(傈僳族)에게 그들의 문자를 만들어 주었다. 1925년 리쑤인들의 글로 된 성경과 찬송가가 번역되면서 교회는 신속히 발전하였고, 해방 직전, 신도수는 이미 전 지역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해방

這封信寄到東京要一個星期。 / Zhè fēng xìn jìdào dōngjīng yào yí ge xīngqi.
(쩌 펑 신 지따오 둥징 야오 이 거 싱치.) 이 편지가 동경에 도달하는 데는 1주일 걸립니다.

후의 몇 차례 정치운동의 와중에서 교회도 또한 세찬 시련을 겪었고 문혁이 끝난 뒤, 종교신앙 자유정책의 실시에 따라 교회는 다시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키울 수 있기 위해서는 교회지도자 양성이 절실하다.

누장주의 신도수는 1980년에 21,441명이었으나, 1989년에는 66,702명으로 늘어났다. 그 중 푸공(福貢)현은 전 현이 하나의 종교 즉 기독교만을 믿고 있다. 1997년 상반기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縣)전체 인구는 87,000명이고 이중 신도수는 54,829명으로 전체 인구의 6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촌은 98퍼센트의 인구가 기독교를 믿고 있는 곳도 있다. 현 전체에 등록된 예배당은 292곳이다. 산을 바라다 보면, 흰색의 예배당이 리쑤족 부락에 진주알처럼, 혹은 누장 대협곡에 핀 백합화처럼 흩어져 있다. 전 현에는 세 분의 목사님과 20명의 안수받은 전도원이 있다. 교회당마다 집사(사무담당), 예배장(예배 담당)과 재무담당(司財, 재무관리)등을 각 한 명씩 두고 있는데, 이 직분은 신도들의 민주적 선거에 의해 정기적으로 선출된다. 이렇게 많은 신도들의 목회는 주로 평신도 사역자에 의존하고 있다. 평신도 사역자는 한푼의 보수도 없이 열성으로 책임을 다하며, 고생하는 중에도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다. 그들의 그런 헌신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주님께서도 반드시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실 것으로 믿는다.

교회의 발전 속도는 빠르나 신도들의 수준은 보편적으로 낮아서 사탄은 가라지가 뿌려지는 틈을 타서 이단사설을 유포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고자 획책한다.

따라서 훈련반을 개설하는 것은 전도인들에게 신앙의 진리를 깨우치고 '삼자'의 의의를 올바로 인식케 하며, 이를 통해 이단사설을 억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키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번 훈련은 누장지역에서 열린 아홉 번째 목회자교육반이었고, 장소는 푸공현 구췐(古泉)촌에 있는 훈련센터에서 20일 간에 걸쳐 거행되었다. 교육 과목은 '성경으로 본 삼자', '성경연구', '교회사', '새 생명과 새 생활' 등으로 이루어졌다. 수강생은 대략 400여 명으로 지역의 4개 현과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왔다. 그들 대부분은 교회의 전도인이며, 초신자들도 일부 있었다. 통계표에 의하면, 최연소자가 14세, 최고령이 71세, 여성은 41명이었다. 대다수는 중장년이었으며, 102명이 소학교를 다녔고, 77명이 중학과정을 마쳤으며, 나머지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배우려는 열정으로 그들은 험산준령도 아랑곳 없이 4천 미터가 넘는 산을 넘고, 정글을 헤치고 며칠 동안 산길을 걸어서야 이 곳에 도달할 수 있었다. 어떤 이는 저축한 돈을 송두리째 털어서 훈련반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수백 명이 한 교실에 빽빽하게 들어앉은 데다 날씨는 무덥고, 수업시간은 길디길어 때로 노인들이나 신체가 허약한 이들은 음식이나 휴식 여건도 온전치 않은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누구

請問, 寄到南京的信要貼多少錢郵票?/ Qǐngwèn, jìdào de xìn yào tiē duōshao qián yóupiào?
(칭원, 지따오 난징 더 신 야오 티에 뚜오샤오 치엔 요우파오?) 실례지만, 남경에 부치는 편지는 얼마짜리 우표를 붙여야 하죠?

윈난성에 있는 삼자교회 전경.

하나 고달프다거나 피곤하다고 불평하는 이가 없었으며, 시종일관 진지하게 강의를 듣고 필기를 하곤 하였다. 강의를 듣는 이외에 형제자매들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강의 중이나 강의 이후에 토론회를 열어 정확한 인식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 유익 끼치기를 염원하다.

푸공현은 누장지역에서 신도수가 가장 많은 현으로 이러한 현상이 지역경제발전에 영향을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많은 신도들이 밀집해 있는 산채에는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에서 큰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파(上帕)진(鎭)의 주밍린(竹明林)촌은 90% 이상이 신도이며, 그들은 모두 학교를 지원하여 리쑤족 문맹퇴치반을 개설하거나 과학을 가르치는 반을 운영하게 하여 1986년에는 성 정부 지정 선진모범촌이 되었다. 푸공현 교회는 97년에 전 현의 신도들이 비신자들보다 세 가지 하나(돼지 한 마리 더 키우기, 닭 한 마리 더 기르기, 나무 한 그루 더 심기)를 더 하여 자신들의 마을이 가난에서 탈피하여 부유해질 것을 촉구하였다. 어떤 교회는 다리를 고치고 길을 보수하거나, 학교건물을 수리해주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당을 학생들에게 교실로 내주기도 하였다. 어떤 신도는 자신의 가정을 간이진료소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어려움에 동참하기도 하였다.

누장의 형제자매들은 이토록 주님의 말씀을 갈구하며, 그들은 더욱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들은 훈련반을 개설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아직도 많은 삶들이 식비나 교통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훈련반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누장 지역의 정부는 이 지역의 훈련반을 위한 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절반만 짓다가 중단되고 말았다.

그들의 곤란은 바로 우리 자신의 곤란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모두 주 안에서 서로 지체된 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이 모든 사정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며, 전국 각지의 형제자매들이 도움과 관심의 두 손을 우리들에게 내밀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출처/ <중국교회> 제15호에서 발췌
리펑페이(李鵬飛)/ 중국 사역자

투기장이의 무대에 선 이소벨 쿤의 삶

장승원 그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微末)에 두셨으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말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근거한 것으로, 바울이 당시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사나운 짐승에게 던지는 무서운 '투기장'의 사건을 비유하여 기록한 말이다. 이소벨 쿤은 자신의 삶을 투기장에서의 '구경거리'라고 여겼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현장에서 갖가지 시련을 겪을 수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이 때로는 마치 '투기장'과도 같게 여겨지는 것이다. 그런데, 투기장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그것은 주님을 위한 구경거리,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는 그런 구경거리인 것이다.

구경거리로서의 무대

이소벨은 남편 존 쿤과 함께 20년간 중국내륙선교회 선교사로서 버마와 중국 국경 지대의 험한 고지대에서 생활하고 있는 리쑤(傈僳) 부족을 위해 일했다. 이소벨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그녀가 선교사로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녀가 갖은 어려움과 장벽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기까지, 하나님에 대해 이소벨이 보여준 태도와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다. 즉, 그녀의 생애나 업적을 통해 나타난 삶의 일대기를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어려움과 좌절을 겪을 때마다 그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그에 따른 행동과 마음이 어떠했는지 주목해 주기 바란다.

안개 낀 평탄대로로

이소벨은 캐나다의 철저한 장로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장로교 목사였고, 아버지는 열렬한 평신도 설교자였다. 그러나 이소벨은 대학에서 영문학과 교수의 강의에 영향을 받아 '성경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되었고, 자신이 직접 확증하지 않고는 인생의 어떤 이론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런 태도는 그녀가 하나님을 향한 숭고한 길에서 영의 눈을 멀게 만들었고, 무의식중에 발길을 돌려 안개 낀 평탄대로로 들어서게 하였다. 이 안개 낀 평탄대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들이 있는 곳으로서, 그 곳

您奇平信還是掛號信? / Nín jī píngxìn háishì guàhàoxìn?
(닌 지 핑신 하이스 꽈하오신?) 일반우편으로 부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등기로 부치시겠습니까?

에서의 삶은 재미를 보는 것 외에는 아무 목적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소벨은 매일 아침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무의미하고 우스운 것으로 여겨져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영어영문학을 전공하던 이소벨은, 전공 외에 대학 내의 아마추어 연극회인 연극 클럽의 정회원이 되었고, 춤에도 재미를 붙여서 시간만 있으면 연극과 춤으로 세월을 보냈다. 당시 대학 교지에 나온 그녀의 사진에 "춤에 미친 여인의 구두 소리"라고 적힐 정도였다. 또한 2학년 때, 당시 여학생으로서는 가장 높은 학생회 총무로 당선이 되었다.

당시 이소벨은 낡은 종교적 전통에서 스스로 뛰쳐나왔지만, 아무렇게나 살지는 않았다. 가정 교육의 영향은 그녀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안개낀 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었고, 그의 거룩함과 순결함은 자신도 모르게 추한 것들을 멀리하도록 하였다.

그녀가 보았던 안개 낀 평탄대로는, 처음에는 보기에도 좋고 걷기에는 좋아서 이런 멋진 안개가 차츰 흑암 속으로 끌고갈 것을 전혀 모르게 된다. 이 시기에 이소벨을 절망케 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사귀던 남자 친구와 헤어지게 된 것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주어 긴장과 불면에 시달려 절망에 다다르게 하였으며, 나중에는 자살까지 생각하게 했다. 그 가운데서 이소벨은 "하나님, 만일 당신이 계시다면, 내게 평안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 비록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녀의 냉소적인 불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후 이소벨은 아침 저녁으로 신실하게 기도했고, 몇 차례의 놀라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잊을 수 없는 교훈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 못 하실 일이란 아무 것도 없지만, '자존심이나 허영의 승리는 결코 행복이나 평안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 후 어머니의 권유로 참석하게 된 성경 연구반에서 엘리스 교수의 강의는 그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갖도록 하였고, 그녀는 매주일 오후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또한 아버지 친구가 그녀를 위해 7년 간 기도를 해 왔다는 말은 그 때까지도 갈등 속에 있던 그녀를 깊이 흔들어 놓았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그녀의 흐릿한 안개 낀 평탄대로의 생활에서 저높은 길로 나아가게 했고, 그녀의 얼굴은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다.

고독을 버리고 헌신으로

이소벨은 1922년 5월 대학을 졸업하였다. 그녀의 포부는 대학교의 여학생 처장이 되는 것과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었으나, 벤쿠버에 있는 국민학교 3학년을 맡게 되었다. 하숙집 아홉 식구 중에서는 이소벨 혼자만 그리스도인이었다. 하숙집 젊은이들은 친절했지만, 모두 놀기 좋아해서 서로 통하는 것이 없었다. 젊은 웃음과 소란에 둘러싸인 이소벨은 아라비아의 사막 같은 곳에 있음을 느꼈다. 이곳에서 1년 반 동안 생활은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소벨을 외로움 속에 감금하신 느낌이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에 훈련받는 시기였다.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점이었으나, 이소벨은 집안이 조용해질 새벽 2시에 깨어나 한 시간 동안 기도와 성경 묵상을 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표현할 수 없는 주님과의 교제로 기쁨이 충만했다. 이소벨은 전에는 체험하지 못했던 것을 이 사막같은 곳에서 살아 있는 인격이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체득했고, 일생 동안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이 되었다.

이 기간 동안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은 바로 1923년 퍼어스에서의 여름 수양회에 참석하게 된 것이었다. 이소벨은 이 퍼어스 수양회에서 '헌신의 삶과 선교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가르치던 중국선교사 에드나 기쉬를 만나게 되었다. 이소벨은 이제까지 외국 선교를 한 번도 꿈꾸어 보지 않았고, 그녀가 생각하는 선교란 한 마디로 '고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그녀에게 안일주의를 포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을 포기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최초의 사람이 바로 에드나였다.

이 수양회에서 이소벨은 자신의 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 이소벨은 에드나와 함께 매일 반복되는 일상 생활을 통해 처음으로 성령 충만의 삶을 체험했다. 성경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갈망과 추구, 이런 것들이 이제 이소벨을 안개 낀 평탄대로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길에 서게 하였다. 그리고 다음해인 1924년, 퍼어스 수양회에서 중국내륙선교부 선교사인 프레이저를 만남으로 인해서 리쑤 부족에 대한 구체적인 선교 비전을 품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1924년 여름이 되자, 드디어

이소벨의 아라비아에서의 고독한 날들은 다 지나가게 되었다.

장승원 그림

아침 햇살이 비쳐올 때 누가 촛불을 끄기 아까워하겠는가?

퍼어스에서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이소벨은 극장이나 춤 등의 오락에 재미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생활에 유쾌함을 가져다 주었던 이 불빛 중 이소벨이 처음으로 꺼버린 것은 바로 '카드놀이'였다. 그녀는 가끔 하숙집 젊은이들과 카드놀이를 하였지만, 이소벨은 이것이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다 좋은 정신적 에너지를 지루하게 소비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별로 재미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카드놀이'의 빛은 곧 꺼져버렸다. 꺼버려야 할 두 번째 불빛은 바로 '로맨스 소설 읽기'였다. 소설은 시련과 어려움, 홀로 있는 저녁 시간으로부터의 유일한 정신적 도피처였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책을 보다가 저녁 기도 시간을 놓치게 되고, 성경을 펴도 지루하게 느껴져 아무 의미도 찾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 안에서 그녀는 저녁에 읽은 소설이 성경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때부터 잡지나 단편을 포함한 '소설 읽기'의 불빛을 단호하게 꺼버렸고, 그녀는 다시 하나님이 그녀 곁에 계심을 확인하는 등 성경 말씀은 새로운 의미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다음으로 손을 대신 불빛은 '춤'이었다. 이소벨은 춤추기를 무척 즐겼다. 어느 파티에서 우연히 만난 대학 시절 그리스도인이었던 한 친구가 독실한 신자인 이소벨이 춤추는 것을 보고 자신도 이젠 춤추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춤추는 가운데 했던 자신의 신앙간증이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큰 반발을 일으키는 것을 보자, 그녀 앞에서 흔들리던 '춤'이라는 작은 불빛이 드디어 꺼져버렸다. 이제 마지막 남은 불빛은 '극장'이었다. 어쩌다 보는 좋은 영화나 오페라 가족 극장 프로가 해로움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것들은 다시금 로맨스 소설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켰고, 기도도 성경도 그 맛을 내지 못했다. 이소벨은 자신의 어떤 습관에 대해 어떤 사람이 지적한다고 해서 포기하지는 않는 성격이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시를 구하고 복종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소벨은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게 되었으며,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밀한 비밀의 큰 기쁨을 누렸다.

여러 부분에 거쳐 여러 방법으로

1924년 9월, 이소벨은 시카고의 무디성경학교에 입학하였다. 퍼어스에서의 헌신 이후 성경학교를 가려고 경제적인 문제로 기도하던 그녀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해 주셨다.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오던 친구가 건강상의 문제로 포기를 하고, 자기 대신 이소벨을 성경 학교로 보내기로 한 것이다. 어머니의 반대 역시 기도로 해결해 나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이 서로 상충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배워 나갔다.

이소벨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허드슨 테일러가 오직 기도로써만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원리를 따랐다. 하나님은 무디성경학교 입학에서부터 졸업 때까지 모든 과정 가운데 이소벨의 경제적인 문제를 세밀하게 채워 주셨다. 겨울 외투가 필요할 때, 학비 때문에 일자리가 필요

這封航空信寄到倫敦貼一塊錢郵票夠嗎?/ Zhè fēng hángkōngxìn jìdào Lúndūn tiē yí kuài qián yóupiào gòu ma?
(쩌 펑 항콩신 지 따오 룬둔 티에 이 콰이 치엔 요우파오 꺼우 마?)
이 항공우편을 런던에 부치는데, 1원 짜리 우표를 붙이면 됩니까?

할 때, 워싱턴에서 열리는 외국 선교 총집회에 참가할 여비가 필요할 때, 졸업 원피스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고 세밀하게 필요를 채워주셨다. 한번은 졸업하기 몇주 전 마지막 학비 5달러가 모자랐을 때, 지불하는 날 아침에 온 편지 속에 정확히 5달러가 들어 있기도 했다. 이소벨은 졸업할 때까지 내내 근로활동을 하여 학비와 생활비를 벌며 공부를 해야 했다. 그러나 한 번도 돈 때문에 공부를 중단한 적은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주는 돈은 필요하지도 않으며, 복 있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친구 아버지가 주는 후원금을 세속적인 방법으로 번 돈이라는 이유로 거절하기도 했다. 이소벨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렸다. 그럴 때마다 여러 부분에 거쳐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함께 하셨다. 허드슨 테일러를 위해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무디 성경학교의 이름없는 학생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심을 이소벨은 깨달았다.

1926년 12월, 이소벨은 무디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내륙선교회에 지원하여 훈련을 받았다. 1927년부터 1928년 중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벤쿠버 여성코너클럽(직장여성 전도모임)에서 관리자로 일했다.

오직 임무를 가지고 전진하라!

1928년 10월 11일, 이소벨은 중국내륙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중국에 갔다. 중국내륙선교는 말 그대로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내륙 땅으로 들어가서 선교하는 것이다. 이소벨은 영적으로는 그 곳 농부들에게 열심으로 가까이 다가갔으나, 육체는 비위에 거슬렸다. 불결한 위생 상태, 입에 맞지 않는 음식,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장소 부족, 그리고 계속되는 여행의 피로 등은 그녀를 힘들게 했다. 그러나 이소벨이 하나님께 자신을 내맡기자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은 그녀를 리쑤로 옮겨 주셨고, 그 곳에서 이소벨은 중국에 와서 처음으로 고향에서와 같은 안정감을 느꼈다. 이소벨이 리쑤 부족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처음 느꼈던 대로부터 10년 만의 일이었다.

"만약 이 장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거부하겠습니다"라는 프레이저의 기도는, 이제 이소벨의 신앙이 되었다. 그녀는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중, 위험이 다가온다는 풍문이 들려올 때나 일기가 몹시 나쁠 때, 병에 걸려서 약해질 때 이소벨은 이렇게 기도했다.

리쑤에서 사역 할 당시, 중일 전쟁으로 인해 그녀의 선교 사역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많았다. 1936년 안식년으로 미국에 돌아간 이소벨과 남편 존은, 다시 중국으로 오기 전날 밤. 중일전쟁 때문에 항해가 연기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때 이소벨은 모든 장애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며 기도로 이를 물리치고 떠날 수 있었다.

1942년 초에는 일본이 버마를 점령했고, 이제 곧 이소벨이 있던 윈난성도 점령당하리라는 소문에 피난을 가야 할 상황이 되었다. 이소벨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나 침묵뿐이었다. 결국 리쑤와 반대 방향인 쓰촨까지 피난을 갔으나, 윈난이 점령당한다는 것은 소문에 불과했음을 알게 되었다. 1942년 우기성경학교 때, 전쟁의 위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임무를 버리고 피난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생각하며, 결국 성경학교를 개최하여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1943년 여자청년성경학교 때도 눈과 비가 오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등 날씨가 매우 나빴을 때도, 또다시 일본군의 위험과 일기 불순 등의 문제가 있었던 1943년 3월, 십대소년을 위한 단기 성경학교 때도 계획대로 실행했고, 평온한 가운데 마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때에도 교사와 필기 용품의 부족으로 개최가 불가능해 보였지만, "오직 당신의 임무를 가지고 전진하도록 하라"는 말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전진하였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도와주셨다.

일본군이 온다는 소문, 나쁜 일기, 동역자의 병, 교사와 보급품의 부족 등의 문제가 계속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서도 정상적인 계획표를 완전히 수행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발전하는 결과까지 보게 되었다. 이소벨은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였고, 그 때마다 하나님은 세밀하고 놀라운 응답을 주셨다. 이소벨의 삶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매순간마다 인정하고 느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우리에게 잘 증거하고 있다.

정리/ 김종형 · 자원봉사자

중국 전역을 휩쓰는 대학 졸업생 취업전쟁

장 쉰(江迅)

졸업 이후 쏟아져 나오는 고급인력들을 중국사회에서는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사진은 상하이시에 있는 푸단대학)

찌는 듯한 더위, 가마솥 같은 충칭(重慶)에 또 다시 창장(長江) 홍수가 엄습했다. 이러한 때 '산의 도시', 충칭의 2만여 대학 졸업생들은 하나 둘, 졸업장을 들고 교문을 나서고 있었다. 직장이 마련된 학생들은 앞으로 직장에 출근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각자 고향으로 내려가 취업대기 상태로 있어야 한다. 줄줄이 이어지는 졸업 송별만찬회, 학사모를 쓰고서 삼삼오오 기념촬영을 마친 후, 일부 학생들은 새 업무를 위해 재충전을 위해 도서관이나 컴퓨터학원으로 가기도 한다.

중국 학생들의 졸업 문화

이들은 졸업을 앞두고 몇 년 동안 같은 과에 다니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한 남녀 학생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다. 이로 인해 예전에는 번잡스런 생활과 경쟁으로 인해 쌓였던 갈등과 감정들을 안개처럼 날려버리는 것이다. 또한 졸업 전날은 모두가 '먹자분위기'가 되어 버린다. 같은 과 학생들끼리 먹기, 또는 친구 서너명씩 먹기, 같은 고향 친구끼리 먹기, 동아리 친구끼리 먹기 등, 학교 앞의 크고 작은 간이 음식점들은 대목을 누리고 따뜻한 정도 넘쳐흐른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중국 대학의 졸업 문화다. 노는 것이 있고 먹는 것이 있으며 사랑도 있다.

졸업생들의 막막함과 초조함

그러나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또한 고뇌와 스트레스도 있다. 사실 졸업하는 해에는 먹고 살기 위해 모두가 조급함과 막막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직장을 얻은 후에는 직장 잘 지키기 위한 싸움에 뛰어 들게 된다.

충칭대학 사범대의 중문과 졸업생인 셰쥐엔(謝娟)은 한 마디로 행운아다. 작년 12월 그녀는 학교의 추천으로 충칭시에 있는 제3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맡아 진행했다. 충분한 준비를 하였기에 그녀는 당일 날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민들레>라는 작품을 생동감 넘치게 강의한 것이다.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모두 신선한 느낌을 받았으며, 그 학교 교직원들도 침이 마르도록 그녀를 칭찬했다. 수업이 끝나자 교장 선생님은 즉석에서 서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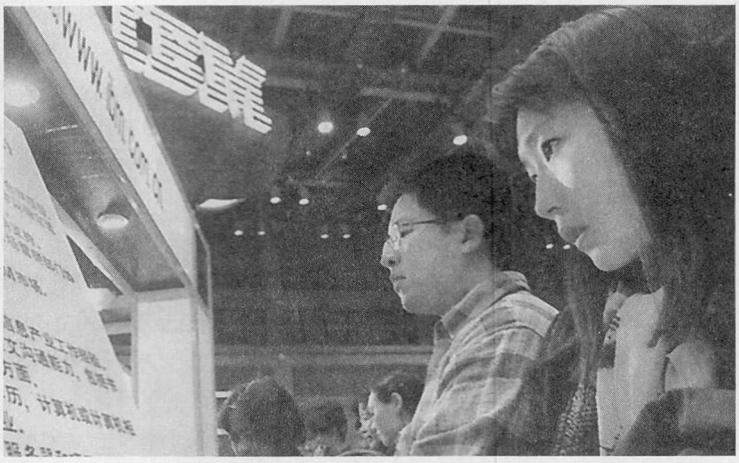
這封信超重五克, 要貼一塊四毛錢的郵票。/ Zhè fēng xìn chāozhòng wǔ kè, yào tiē yí kuài sì máo qián de yóupiào.
(쩌 펑 신 차오중 우 커, 야오 티에 이 콰이 쓰 마오 치엔 더 요우파오.)
이 편지는 5g을 넘었어요. 1원 40전 짜리 우표를 더 붙여야 합니다.

준비, 정식 교사로 임명해 주었다. 그녀의 명강의는 같은 과 학생 모두에게 영광이 되었지만 정작 본인은 이 일을 크게 떠벌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같은 과 학생들이 모두 취업난으로 가뜩이나 위축되어있어서 그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와 비교해 충칭 건축대학 졸업생 장닝(姜寧)은 비교적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 그는 올해 3월, 한 건축회사에서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이 회사 담당자는 그에게 우선 몇 달만 같이 일해 보고, 정식 채용은 다시 상의해 보자는 말만 던졌다. 졸업 날짜가 가까워옴에 따라 직장을 찾아야 하는 시간도 더욱 긴박해졌다. 다급한 마음에 장닝은 구직안내소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마침 저장성(浙江省) 황옌(黃岩)시 향진기업국에서 충칭시에 졸업생들을 구하러 왔다. 이들은 장의 이력서를 보고는 즉석에서 장에게 아무때든지 좋은 날 출근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가 고향을 떠나 직장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을 때, 원래 있었던 건축회사에서도 그를 정식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희소식을 전해왔다. 이것저것 실리를 따져보고 장은 저장성에 가서 간신히 자신의 개인 신상 기록표를 되찾아 가지고 돌아왔다. 이 과정들을 회상하면서 장은 직장이 확정되기 전, 몸과 마음이 지칠대로 지친 상태에서 자신은 늘 몇 년 동안 대학을 다니고서도 직장 하나 구하지 못하는 자신을 늘 자책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제 또다시 극심한 경쟁을 치러야 할 그는, 지금도 자신감이 서지 않는다고 한다.

졸업생들의 적극적인 자기홍보

셰쥐엔과 장닝, 그들은 어쨌거나 직장을 구한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직장이 확정되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현재 자기는 운이 없다고 불평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회가 너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고 있다. 올해 5월, 후베이(湖北)대학에서는 심리상담을 실시하였는데, 상담내용 중 47%의 졸업생들이 취업과 연관된 상담이었다. 그 중 여학생들이 69%를 차지한다. 심리학 전공의사들은 좌절감으로 인해 생긴 심리질환들이 앞으로 대학생들이 겪는 주요 정신질환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상하이 외국어 대학에서 국제기업경영학을 전공한 대학생인 마오웨이징(毛維菁)은 엘리트임에도 현재 직장 구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아주주간(亞洲周刊)에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다. "정말로 경쟁사회에 뛰어들었을 때, 고통스러웠고 두려웠어요."



졸업을 앞둔 졸업생들은 한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구직안내소를 찾고 있다.

98년, 중국 대학생들이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전면 실행되었다. 설날이 지나자 전 중국이 떠들썩한 명절 분위기에 휩싸인 가운데 중국 1천여 개 대학 졸업생들은 다 헤진 신발을 신고 열띤 자기 홍보전에 나섰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겹겹의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었다. '자기를 파는 쪽'에서는 붐비기 그지없다. 98년 자신을 팔아넘기는데 성공한 대학 졸업생들은 107만 명인데, 97년에 비해 1.8배가 증가한 숫자다. 그 중 박사가 1만명, 석사가 4만 명, 본과 졸업생이 58만 명, 전문대 졸업생은 44만 명이다. 이 거대한 무리들이 질주하는 수만 마리의 말 떼처럼 동분서주 뛰어다니고 있다.

인재를 사가는 쪽에서는 문턱이 그지없이 높다. 인재들을 영입, 소화시키는 인력시장은 현재 진퇴양난 가운데 있다. 기술인력은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또 인력을 받아들일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계획경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잉여인력들이 빠져나가면서 기술수준의 향상과 개선이 이루어지고 기업들의 구조조정, 합병하는 과정에서 노동수요는 줄어든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강제로 합병당한 기업 근로자들을 다른 기업에 떠넘기고 있어 기업들은 부득이하게 영입불가 방침을 내걸고 있다. 졸업생들이

請給我拿兩套記念郵票。/ Qǐng gěi wǒ ná liáng tào jìniàn yóupiào.
(칭 게이 워 나 량 타오 지니엔 요우파오.) 기념 우표 두 세트 주세요.

들어갈 문은 그야말로 바늘구멍만 하다.

예전처럼 정부기관이나 행정부에는 국가가 평생토록 먹을 밥을 주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벌 떼처럼 몰려들었다. 그들이 보기에 기업은 비안정적이고 변수가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도 안심할 것이 못 된다. 현재 행정요원으로는 3천7백만 명이 있는데, 3년 이내에 절반을 줄일 계획이라고 한다. 이미 심각한 과잉인력 사태를 빚고 있는 국가기관 종사자들도 현재 인사이동을 기다리는 중이니, 대학을 갓 졸업한 풋내기들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탈출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터널 같기만 하다. 입구가 없다해도 탈출구는 있게 마련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농업현대화 과정에서 흘러 들어온 대량의 농촌 노동자들이 도시로 몰려들고 있다. 총인구의 71%를 차지하는 농민 가운데 1억 2천만 명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어 수입이 높은 직업을 찾고 있으며 게다가 올해 도시에서 새로 생겨난 3백만 실업자들이 정신없이 직업을 찾고 있는 중이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는 한발짝 뒤로 물러서면 드넓은 세계가 있다는 말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대학에서도 취업대책

중국의 백만 대학생들이 직장을 마련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각 대학에서도 잇달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다. 상하이 시의 교육위원회에서는 졸업생들을 위해 전문적으로 취업알선 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데 이 취업센터와 국가교육위원회 학생과에서는 교육위원회가 상하이 시의 6개 직속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협력부를 세워줄 것을 건의했다. 이 센터는 또 학생들이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개혁과 취업시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연구모색 중이다.

금년에 갓 졸업한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우한(武漢)대학은 명문대학이라는 간판을 접어두고 현실적인 학교운영에 힘쓴 결과, 5월에는 졸업생들의 취업계약율이 85%에 달했다. 학교관계자들은, "매출이 생산을 결정한다"는 전략하에 학점제와 편입제, 주·부전공제, 2개 학위제 등 유연성 있는 학사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현지 경제구조에도 어울리며, 지역발전에도 필요한 학문을 중심으로 신입생 모집과 전공 등을 결정하고 있다.

허베이(河北)대학에서는 〈허베이르바오(河北日報)〉의 한 면 전체를 구직 광고에 할애, 우수 대학 졸업생들을 추천받고 있다. 3일 동안 광고가 나가자 50여 개의 기관들이 학교와 연결이 됐다. 이 학교에서는 1, 2년에 걸쳐 졸업생들을 위해 취업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장쑤성(江蘇省)의 인사과와 위생과로 구성된 전 성의 위생담당 기관에 1백여 개의 구인업체들이 참가, 상견례를 겸한 열띤 구인, 구직활동이 전개되었다. 시안(西安)시도 대학생들의 취업보험제도, 취업 대기자에게 보조금 지급, 그리고 구직 기한 연장 등 새로운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개혁 실행 과정에서 깜짝 쇼를 많이 연출한 바 있는 충칭의 「타이지 그룹(太極集團)」은 이번에도 전국 최고의 기록을 내놓았다. 시 전체적으로 절반이나 되는 대졸자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한꺼번에 1천 명의 대졸자들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 중 50% 이상이 충칭대 출신이다. 이 회사 사장인 쑹웨이(宋偉)는 "이번 조치가 깜짝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라 기업 자체에서 인재들이 필요했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상하이 시의 대학졸업생 취업실의 상무주임인 황시젠(黃晞建)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올해 상하이 시 일반대학에서 41,000명이 졸업을 하게 되며 7월까지 취업률은 89%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취업문이 열리고 있어 9월 말까지 취업체결율을 9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통신, 금융, 경영관리 전공 인재의 부족

소식통에 따르면 상하이에는 고학력, 고취업, 고수입이 이미 고정화되고 있다고 한다.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은 대학원 석, 박사 졸업생들마저 이 시의 대기업에서 받아들인 대학생들의 75%가 푸단(復旦)대학, 퉁지(同濟)대학, 쟈오퉁(交通)대학, 상하이 와이궈위(上海 外國語)대학 등 명문대 출신들이다. 그리고 60% 이상이 대학원생이다. 일부 고위 연구기관에는 박사가 아니면 명함도 못 내민다.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높은 보수로 인재들을 싹쓸이해가고 있고, 일부 컴퓨터, 금융, 보험, 경영관리를 전공한 고학력 졸업생들이 벌써 이 도시 고소득자층을 형성하고 있다. 화둥(華東)사범대학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졸업생들에게는 〈3, 6, 9〉 라는 공식이 퍼지고 있다. 그들이 요구하는 최고 월급이 학사, 석사와 박사의 서열대로 인민폐 3천, 6천, 9천 위안(인민

您喜歡哪套, 請自己挑吧。/ Nín xǐhuan nǎ tào, qǐng zìjǐ tiāo ba.
(닌 시환 나 타오, 칭 쯔지 티아오 바.) 어느 세트를 좋아하시는지요, 손수 골라보세요.

올해 도시에서 새로 생겨난 3백만 실업자들이 정신없이 직업을 찾고 있는 중이다.

폐 1천 원은 대략 120달러) 이라는 것이다. 수입 분배과정에서 '지식의 자본화'체계가 기본적으로 자리 잡혀가고 있는 것이다.

각 대학은 여전히 졸업생들의 취업문제로 인해 시장 수요에 맞게 학과를 설치하고 있다. 전공을 지나치게 세분화하면 직업을 구하기가 어렵기에 국가 교육위원회에서는 금년에 대학교의 400여 전공을 절반으로 줄였다. 허난(河南)성 잉양(滎陽)시의 가오춘(高村)향 스팡(史坊)촌에서는 "인재 10명이 땅 속에서 금을 캐낸다"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10명은 원래 허난성 도시에서 자란 대학 졸업생들인데, 졸업 후 이 촌에 내려와 12년 간 56무의 토지를 하청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들은 각각 허난 농업대학, 정저우(鄭州) 공업대학, 정저우대학에서 삼림, 농학, 생물학, 전산학을 전공한 학생들이다. 그들은 스팡촌에 자리를 잡고 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 실용기술 훈련반을 세워 민간 과학 기구 형식으로 운영, 주변 농촌 경제발전을 이끌고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현재 2만 위안의 자금을 확보해 놓고 첫 번째 작업 중, 채소 종자이식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한다. 이 일은 현지에 커다란 호응을 불러일으켜 허난성 농업대학 전문가들이 무상으로 기술자를 제공하고 지도할 계획이어서 많은 농민들이 농업진흥의 부푼 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런 대학생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옛날 '농촌으로, 변방 지역으로 가자'던 구호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현재 취업난은 대학생들을 괴롭히고 있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이들 대학생들에게 돌아와 뽕나무를 가꾸고, 논밭을 일구어 보자고 호소해 보지만 응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장쑤성(江蘇省) 북부의 어떤 현에서는 매년 5백여 명이 외지로 나가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그러나 학업을 마치고 되돌아오는 경우는 매우 적어 재작년에는 겨우 23명, 작년에는 40여 명 밖에 되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는 대학 졸업생들을 끌어오기 위해 너도나도 우대정책을 쓰고 있지만 환경을 다 마련해 놓아도 쓸 만한 인재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대학생들의 취업동기는 확연히 이익추구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 사회적인 요구가 크게 분리되고 있는 것이다. 만일 구인업체들이 낙후된 기술과 짧은 안목, 미비한 사회여건과 낙후된 이미지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대학을 나온 고급 인력들은 자기를 알아주는 곳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출처/《亞洲週刊》· 8月 10日-8月 16日
번역/ 손바울 · 연구부 간사

這幾種郵票我每樣要兩套。/ Zhè jǐ zhǒng yóupiào wǒ měi yàng liǎng tào
(쩌 지 중 요우피아오 워 메이 양 야오 량 타오.) 이 몇 종류의 우표에서 각각 두 세트를 주세요.

중국에 부는 인터넷 열풍

연 구 부

중국에 인터넷 열풍이 불고 있다. 중국에서 컴퓨터는 이제 지식인들과 새로 결혼하는 젊은이들에게 생활필수품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현재 인터넷 사용자는 매년 100% 이상의 폭발적 숫자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민주적인 교류, 객관성을 띤 서적, 유용한 정보들이 제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인터넷은 법적 통제가 불가능하며 많은 정보를 소유한 다른 세계들이 단 한 번의 클릭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르겠다.

최근 중국에 인터넷 열풍이 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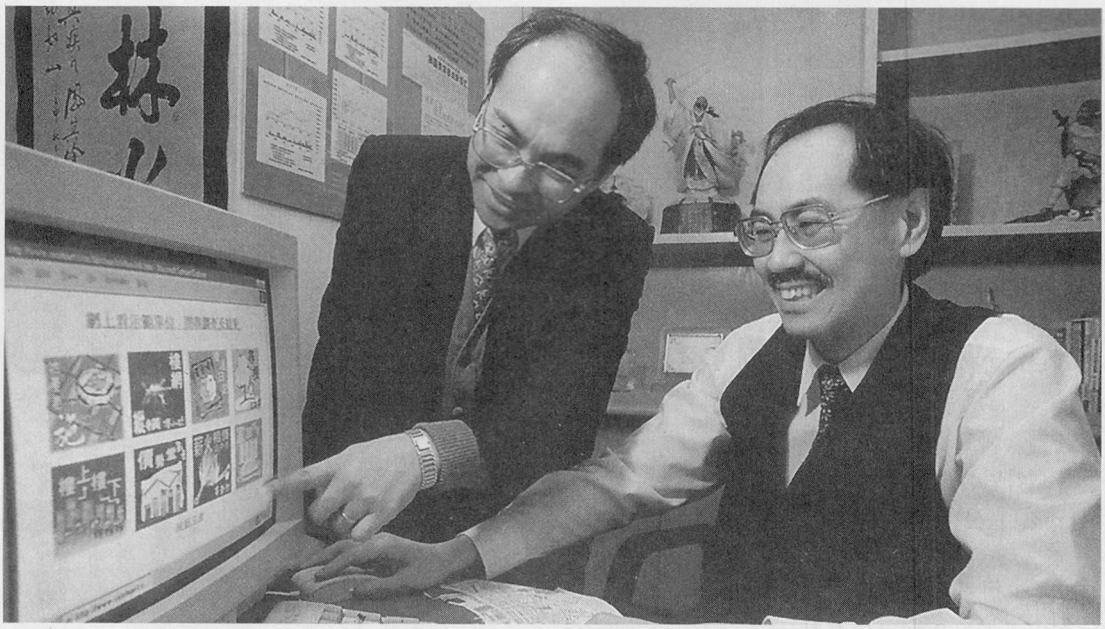
중국인들에게 인터넷의 위력을 실감케 해 준 추링 양 사건

95년 4월, 전세계 의료계를 떠들석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주인공은 북경대에서 화학을 전공하던 추링이라는 여대생이다. 추링은 본래 체육점수를 만점을 받을 정도로 건강하고, 중국 고유악기인 거금(巨琴) 연주그룹의 리더이며 국립대학 예술제에서 2등상을 받을 정도로 다재다능한 소녀였다.

그러나 그녀는 21세라는 꽃다운 나이에 원인 모를 복통과 탈모증상으로 북경대 의료센터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사들은 원인과 병명도 밝혀내지 못하였고 그녀는 혼수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러다가 양팔과 양다리에 강한 통증이 시작되었고, 현기증, 발음불능, 안면신경 손상의 증상이 나타났다. 이때 그녀를 아끼던 친구들은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인터넷상에 구조 요청을 띄워 추링 양의 증세를 알리고 병명규명과 치료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사연을 올린 지 불과 한 달, 그동안 전세계 18개국으로부터 무려 2천여 통이 넘는 답신이 날아들어왔다. 외국의 저명한 석학, 의료진들이 인터넷상에서의 추링의 친구인 바이지쳉 군이 뉴스그룹에 올린 추링 양의 사진, 임상증상, 방사선필름, 임사병리 검사결과와 그 동안의 진료과정을 상세히 분석했다. 수많은 토론과 의견이 모아진 끝에, 그녀의 병명이 납중독의 일종인 '탈리

我再買五張明信片。/ Wǒ zài mǎi wǔ zhāng míngxìnpiàn.
(워 짜이 마이 우 장 밍신피엔.) 엽서 다섯 장도 더 사겠습니다.



이제 중국은 모든 분야에서 전산화되어 가고 있다.

움'이라는 소견을 보내왔다. 그리고 추링의 치료를 위해서 4명의 탈리움 환자를 치료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독극물학 전문의 제인 박사의 처방이 최종 선택됐다. 그리하여 추링 양의 몸에 있던 탈리움은 빠르게 제거되기 시작했고,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은 기쁨의 환호를 올렸다. 추링 양은 치료 도중 심한 간염을 앓기도 했지만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 96년 1월 24일 드디어 추링은 의식을 회복했고, 약 1년 만에 처음으로 말을 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곧 신문,방송매체를 통해 전 중국에 보도되었다. 96년 1월 24일자 북경청년신문에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주인공 추링 양의 사진이 게재되었고, 추링의 홈페이지도 만들어져 그간 도움을 준 수많은 의사들과 동료들의 교신내용, 추링 어머니의 감사의 글들이 인터넷에 올려졌다.

이 사건은 원격의료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의미 외에, 그동안 컴퓨터에 문외한들이었던 일반 중국인들에게 전세계로 열려진 창, 인터넷의 위력을 실감케 해 준 계기가 되었다.

인터넷 가입자는 백십칠만 오천 명

중국의 인터넷 네트워크 센터인 중국연합 네트워크 정보중심(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가 117만5천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작년 10월의 62만 명 보다 두 배나 증가한 수치이며, 전세계 네트워크와 연결 되어 있는 컴퓨터는 64%가 증가한 54만 2천 대라고 한다. 또한 인터넷 사용자별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가입자 중 92%가 남성, 83%가 35세 이하, 59%가 대학 학사학위 소유자로 나타나고 있어, 중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고학력의 젊은 남성층을 중심으로 사용자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접속 시간으로는 41%의 사용자가 매주 10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6%가 매주 5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9%의 사용자는 접속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불만을 토로했고 61%는 인터넷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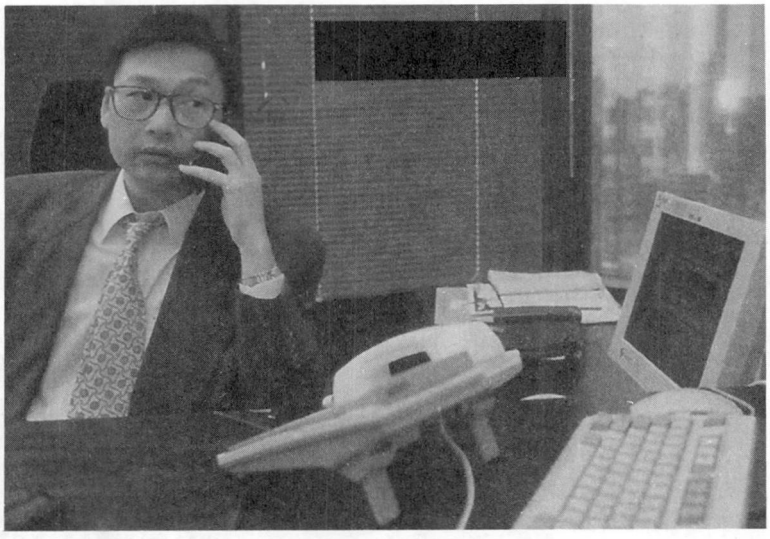
這封信寄到東京要一個星期。 / Zhè fēng xìn jìdào dōngjīng yào yí ge xīngqi.
(쩌 펑 신 지따오 둥징 야오 이 거 싱치.) 이 편지가 동경에 도달하는 데는 1주일 걸립니다.

용료가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또 45%의 이용자는 인터넷상에서 중국어 자료들이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필자도 중국에 있으면서 인터넷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데 불친절한 서비스와 가입 후 굼벵이 같은 느린 접속 속도 때문에 울화통을 터뜨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2001년에 가면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7백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인터넷 시장을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이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을 리 없다. 이미 중국에서 융단폭격을 방불케 하는 광고공세와 무상 교육지원사업을 펴부어 중국인들의 뇌리에 깊이 심겨진 〈휴렛 패커드사(H.P)〉는 최근 중국의 현지법인인 〈중국 H.P〉를 통해 중국의 인터넷 시장 선점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H.P〉는 중국을 전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거대시장으로 보고 수익성이 높은 소프트산업을 한층더 강화한다는 전략하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와 네트워크 시스템 관리 솔루션인 오픈 뷰 사업에 온 힘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 H.P.〉는 98년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북경에 있는 컨벤션 센터에서 '전자화 대세계'라는 주제로 전시회도 개최한 바 있다.



단 한번의 클릭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에는 중요한 정보 또한 속수무책 방출될 수 밖에….

인터넷으로 인한 중국과 교황청의 갈등

인터넷은 개방적인 매체로 아직까지 전세계적인 통제장치가 없다. 따라서 온갖 글과 정보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그 가운데서는 음란물, 유해한 정보, 정부에 위협을 가할 만한 정보들도 적지 않다.

중국을 목표로 만든 천주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도 중국 정부가 골치를 앓고 있는 것 중 하나이다. 98년 4월에 로마 교황청은 자체 통신사인 피데스를 통해 인터넷 중국어 서비스를 개시했다. 교황청은 새로 시작한 인터넷 중국어 서비스를 통해 중국 내 카톨릭 교회에 관한 뉴스를 널리 전파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이 중국어 홈페이지는 98년 6월 8일 '신앙 국제통신사'라는 제목하에 98년 선교일을 맞아 교황 바오로 2세의 설교문을 사진과 함께 싣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내 카톨릭 선교사나 신자들이 로마 교황청과 직접 통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홈페이지가 개설되자 중국 정부는 정치문제에 대해 늘 과민반응을 보여왔듯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주권침해자 내정간섭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정부는 카톨릭 성당의 교구별 주교나 추기경 임명권을 로마 교황청이 갖는 전통을 인정하지 않아 바티칸 측과 마찰을 빚어왔었다. 중국정부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 활동에 대해 그 단체장에 대한 임명권을 중국정부가 관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로마 교황청은 이것이 정부가 교회를 자기 수하에 두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역시 반대입장

請問, 寄到南京的信要貼多少錢郵票?/ Qǐngwèn, jìdào de xìn yào tiē duōshao qián yóupiào?
(칭원, 지따오 난징 더 신 야오 티에 뚜오샤오 치엔 요우파오?) 실례지만, 남경에 부치는 편지는 얼마짜리 우표를 붙여야 하죠?

을 보이고 있다. 현재 중국 내에서 정부의 공식 인정하에 활동하고 있는 천주교신자는 약 400만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정부방침을 따르지 않고 비밀리에 지하교회 활동을 벌이는 신자들은 그 두배인 8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제발전과 통신의 보급에 따라 이 같은 지하활동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이에 대처하여 중국정부는 개신교를 포함한 여러 지하교회 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중이어서 작년 말 푸젠성 핑탄지역에서는 지하 선교활동을 하던 신부와 40명의 신자가 체포된 적이 있다고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는 밝혔다.

한편 인터넷은 종교뿐 아니라 인권활동을 위한 도구로도 쓰이고 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중국 인권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약 10만 명의 중국연구가들과 접촉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체제 약화를 불러올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96년 2월 중국 내의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이 관계기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시키고 감시활동에 나섰다. 또 같은해 7월에는 인터넷을 통해 서방과 대만 언론의 보도 및 중국 반체제 인사들의 소식을 접하는 것을 금지시킨 바 있다. 인터넷시대, 정치와 종교가 어떤 갈등에 빠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중국의 해커들

인터넷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중국에서도 가상공간의 무법자인 해커들로 인해 골치를 썩이고 있다. 해커들은 중국의 각종 홈페이지에 들어가 얄궂은 짓을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빼내기도 하고, 인권운동 등 민감한 정치활동을 벌여 중국정부를 긴장시키기도 한다. 중국의 경제일보는 최근 중국 내 한 해커가 꾸이저우성(貴州)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포르노 사진을 띄웠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 상하이에서는 상하이 증권거래소 중앙컴퓨터 시스템에 한 해커가 침입, 각종 정보를 훔쳐갔다고 한다. 또 해커들은 정상적인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훔쳐가기도 한다.

중국은 국제적으로 해커가 창궐하는 위험한 곳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의 포천지는 미국의 국방정보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 "중국의 국가 안전부 요원들이 교수나 과학자, 대학생 등으로 가장하여 인터넷 웹사이트나 무역박람회의 공개정보는 물론 컴퓨터, 생명공학, 방위산업 등 첨단기술도 대량 수집 중" 이라고 밝히고 있다. 첩보관련 해커들을 양성하는 비밀학교까지 난징(南京)에 세워져 있다고도 한다.

'과학으로 나라를 세우자(科學立國)'라는 구호를 크게 부르짖고 있는 중국정부는 인터넷 사용을 권장하면서도 각종 불법활동이 증가하는 데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중국 인터넷 사이트를 보려면

중국어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국어 사이트를 보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한글 윈도우 환경에서 중국어 사이트와 연결하면 글자가 깨져 볼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호주에서 만든 '난지스타(南極星)'이나 '유니온 웨이(Union Way)' 등을 통신에서 다운받아 이용하면 볼 수 있다. 익스플로어(Explore) 사용자라면 보기에서 인터넷옵션을 선택한 다음 밑에 있는 언어란을 선택하고 추가를 눌러 중국어를 추가시키면 야후(Yahoo)등이 제공하는 중국어 사이트를 볼 수 있다.

중국어라도 번체자와 간체자가 사용하는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대륙, 대만, 홍콩, 싱가폴 등의 폰트를 모두 추가한다. 네스케이프의 경우에는 메뉴의 환경설정란에 있는 인코딩을 중국어로 선택해 놓으면 된다. 만일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용량이 큰 하드디스크를 설치하여 중국어 윈도우를 깔고 한글 윈도우와 따로 사용한다면 언어 설정을 매번 바꾸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이다.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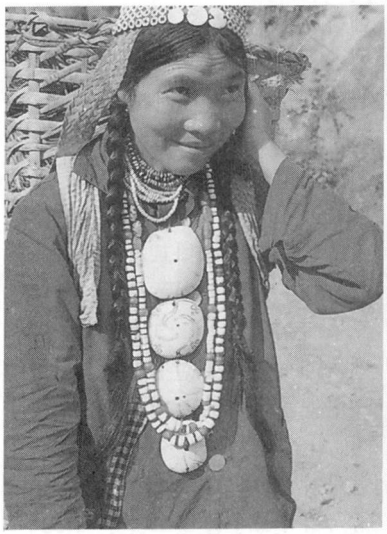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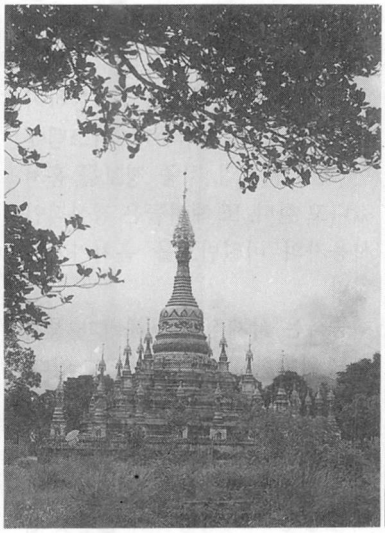
95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에서, 인터넷 사용자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인터넷은 중국에서도 해커, 음란물 유포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국경을 뛰어넘는 유리한 선교매체로 앞으로도 중국선교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기 획

중국 소수민족을 알자

중국 55개 소수민족은 숫적으로는 불과 10% 미만으로
극히 미미한 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종족이 많이 있다.
따라서 중국선교를 생각할 때, 소수민족을 간과할 수 없다.
이번호에는 윈난성의 소수민족 중 리쑤족을 다루었다.
현지 사역자가 전하는 생생한 정보를 통해
선교지 상황을 이해하고, 선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您奇平信還是掛號信? / Nín jī píngxìn háishì guàhàoxìn?
(닌 지 핑신 하이스 꽈하오신?) 일반우편으로 부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등기로 부치시겠습니까?

윈난성의 소수민족(V)

-리쑤족(傈僳族)

김 중 하

리쑤족의 "동싱주"

리쑤(傈僳)족

인구 574,856명 중에 556,500명이 윈난성(雲南省)에 거주하고 있다.

분포 미얀마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누장(怒江: 푸공(福貢), 공산(貢山), 란핑(蘭坪)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쿤밍(昆明) 북부지역 등 비교적 넓게 분포되어 있다. 그 가운데 누장지역은 선교사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중국과 미얀마의 국경이 분명하지 않았으며, 자민족 중심으로 봉건주의 사회였다. 최근에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누장지역에 있는 만여 명이 사막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아마도 첫 번 이주자들이 정착에 성공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누장지역을 떠나게 될 것이다. 누장지역의 일부 집단 거주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른 민족과 함께 거주하는 편이다. 누장지역은 강변과 산지의 해발의 차가 크고(1,500m~3,000m), 기후도 입체성 기후라고 할 정도로 차이가 많아 생활 습관의 차이도 많이 있다.

언어 한어와 리쑤어. 그러나 도시지역을 제외하면 한어를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또한 리쑤어는 대표적인 방언으로 누장지역에서 사용하는 리쑤 언어와 쿤밍 본부지역에서 사용하는 리쑤 언어가 서로 의사소통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크다.

문자 본래 사용하던 문자가 세 종류가 있었다. 1957년에 정부가 만들어준 문자외에, 선교사가 만들어준 문자가 있는데, 이것은 미얀마에 있던 선교사가 리쑤문을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했고, 이것이 점차 중국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태국과 미얀마에 있는 리쑤족들은 주로 선교사가 만들어 준 문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의 리쑤족도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행정상 사용되는 것 외에는 대부분 선교사가 만들어준 문자를 사용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교회가 많은

리쑤족은 술을 좋아하며 손님 접대하기를 좋아한다.

이유로 이 문자를 배울 기회도 많이 있는 것이다.

민족 이름의 유래 리쑤족은 오래 전부터 자신들 스스로 부르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다. 리쑤족의 전설에 의하면 리(傈)는 '네 번째'라는 의미이고, 쑤(傈)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리쑤족의 전설 속에 일곱 형제가 나오는데, 첫째가 한족(漢族)이고, 둘째가 이족(彝族), 셋째가 장족(藏族)이며, 넷째가 리쑤족(傈僳族)이다. 또다른 이야기에 의하면 리(傈)는 '고귀하다'는 의미이고, 쑤(傈)는 '사람이나 민족'을 의미한다.

역사 역사기록에 의하면 리쑤족은 북에서 남으로, 동에서 서로 이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본래 리쑤족은 쓰촨성(四川省) 서남부와 윈난성 서북부에 살고 있었는데, 13세기, 16세기, 17세기등 세 번에 걸친 민족대이동이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의 위치에 거주하게 되었다.

생활 리쑤족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은 산지인 데다, 비탈이 심해 농사도 주로 밭농사이며,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은 하기 어렵다. 아직도 화전(火田)이 많다. 수렵과 식물채집도 주된 수입원이 된다.

주식은 환경의 원인으로 인해 자연히 가장 쉽게 농사지을 수 있는 옥수수와 감자이다. 옥수수로 죽을 많이 끓여 먹는데, 옥수수로 먼저 술을 담그고 난 후에 걸러진 것으로 끓여 먹기도 한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소나 돼지 등을 길러 잡아먹는 일은 많지 않지만, 때로 산속에서 산짐승들을 잡아 양식을 대신하기도 한다. 리쑤족은 술 마시기를 즐기는 민족으로 니즈(呢戈)라고 부르는 곡주를 담가 마신다. 그리고 이 니즈는 손님 접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손님이 방문했을 때 주인은 손님에게 니즈를 대접하는데, 리쑤족은 손님을 접대할 때 니즈를 대접하지 않으면 예의가 없다고 여기며, 손님은 이를 꼭 마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필자가 어느 집을 방문했을 때 집주인이 내놓는 니즈를 마시지 않았다가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집을 방문했을 때에는 집주인이 주는 니즈를 받아 한 모금 입에 물고 얼른 밖으로 나와 뱉었다. 주인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관심이 없고 단지 니즈를 받아 마셨다는데 친근감을 느끼고 잘 대접하는 것 같았다.

리쑤족은 또한 담배를 즐겨 피운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담배를 즐겨 피우는데, 그 주된 이유는 방목을 할 때 풀밭에 많은 물것(모기 같은 곤충)들이 있어서 연기를 피워 물리지 않으려고 하던 것이 담배를 피우는 습관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또다른 하나의 이유는 산 속

這封航空信寄到倫敦貼一塊錢郵票夠嗎?/ Zhè fēng hángkōngxìn jìdào Lúndūn tiē yí kuài qián yóupiào gòu ma?
(쩌 펑 항콩신 지 따오 룬둔 티에 이 콰이 치엔 요우파오 꺼우 마?)
이 항공우편을 런던에 부치는데, 1원 짜리 우표를 붙이면 됩니까?

에서 사는 것이 힘들고 단조로워 재미로 피우던 것이 이제는 뗄 수 없는 생활의 일부분으로 변했다고 한다.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 마약류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다. 어떤 마을에서는 기독교신자를 제외한 80%의 수가 마약을 경험했다고 하고, 필자가 마을을 방문하는 중에도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들을 보았다.

이러한 술과 담배에 대한 이들의 습관 때문에 기독교 강령을 세울 때, 첫째, 둘째 항목에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던 것 같다.

주택 리쑤족은 사는 지역이 광범위하고 지형과 기후의 차이가 커서 가옥의 구조도 많이 다르고, 인근에 다른 민족들이 있을 때에는 그들의 영향을 받아 전통가옥이 변화가 생기기도 한다. 누장지역 푸공현(縣) 등에 있는 가옥들은 돌담초가집이거나 벽면을 대나무로 엮고, 지붕을 초가로 한 집들이다. 그리고 2층으로 건축하여 아래층에는 가축들을 기르고 위층에는 사람들이 거주한다. 내부구조는 방을 두 칸 또는 세 칸으로 하고 거실을 만드는데, 주방이 때로는 거실과 함께 있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햇볕이 잘 들지 않아 어둡고 습한 편이다.

교통수단 산악이 워낙 험해서 자동차가 갈 수 없는 지역이 대부분이라 주된 교통수단은 사람의 두 다리이다. 몇 시간씩 걸어서 장에 가고, 밭에 일하러 가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다.

마치 화가 난 것처럼 흐른다고 해서 누장이라고 부르는 이 강은,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강에 배를 띄울 수도 없고 고기잡이도 하지 못한다. 강을 건널 때에도 강물이 험하게 흐르기도 하지만 다리도 많지 않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리우쒀(溜索)'를 이용하여 강을 건너고 있다. 이는 강 양편에 기둥을 세워서 양쪽의 높이를 다르게 줄을 매어 놓고 도르레를 이용하여 줄을 타고 강을 건너는 방법인데, 위험성이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강을 건너는 중에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다고 한다. 필자가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마침 많은 사람들이 '리우쒀'로 강을 건너는 것을 보았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도 같은 방법으로 운반한다.

가정 일반적으로 소가족제도를 취한다.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다. 모든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분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습관이고, 막내가 결혼하여 부모와 함께 생활한다. 그리고 유산을 물려주더라도 막내가 물려받는 제도가 시행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리쑤족의 결혼제도와 관계가 깊다.

봉건주의 사회제도하에서 리쑤족의 성생활은 무질서한 편이었다. 결혼 전에 '공동의 방'이라는 곳에 모여 연애를 하는데, 무질서한 성생활로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는 것이 별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었고,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더라도 첫아이가 다른 사람의 아이인 경우들이 많았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자신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막내와 함께 살고, 막내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제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리쑤족도 부자연명제(할아버지의 이름 끝 자를 아버지의 이름 첫 자로, 아버지의 이름 끝 자를 아들의 이름 첫 자로 사용하는 제도)가 있다. 이름은 남자 아이일 경우에는 생후 7일 만에, 여자아이일 경우 생후 9일 만에 이름을 짓는다.

결혼 현재 기본적으로 일부일처제를 택하고 있고, 연애결혼이 많아졌으나 이전의 결혼 풍습은 여러 가지가 있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런 모습들이 남아 있다.

1. 매매혼: 신랑이 신부의 집에 예물(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있는 예물)을 보내고 사오는 형태를 취한다.
2. 동혼(童婚): 어려서 부모들이 짝을 지워놓는 것을 말하는데, 심지어는 출생하기 전의 아이도 짝을 지우는 경우가 있었다.
3. 약탈혼: 힘이 있는 자가 신부를 빼앗아 오거나 훔쳐다가 결혼을 하기도 한다.
4. 연애결혼: 시대가 변함에 따라 연애결혼이 점차로 늘고 있는데, 이전에는 연애결혼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도망을 가서 다른 지역에서 살기도 했다.

가장 많은 경우가 매매혼이었다. 그래서 기독교 강령 중에 다섯 번째가 '매매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다처제가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열 번째의 강령이 '일부일처제를 시행한다'이다.

결혼식은 여자의 친척이나 친구가 여자를 업어서 남자의 집에까지 온다. 남자집의 문앞에 다다르면 남자 측에서 이미 준비해 놓은 술좌석에서 여자의 일행들에게 술을 대접하면서 동시에 환영가를 부른다. 여자 측에서는 술을 받아 마신 후 다시 노래로 화답한다. 이 환영 노래가 끝나면 정식 결혼식이 시작된다. 신랑신부가 한자리에 같이 앉게 되면 중매인이나 노인이 먼저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고 축사를 한다. 그리고 모두들 함께 식사를 함으로 결혼식이 끝나게 된다.

장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리쑤족은 장례의식을 매

우 엄숙하게 진행한다. 이들은 사람이 비록 죽었지만 육체만 죽은 것이지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장례법은 매장과 화장 두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이 죽으면 모든 마을이 2~3일 동안 일을 중지하고 함께 죽음을 애도한다. 마을사람들이 상가에 올 때에는 자신들이 먹을 것을 갖고 오는 것은 물론 장례의 일체를 함께 힘을 모아 돕는다. 시체를 집안에 두는 시간은 이틀 정도이며 머리를 높은 곳으로 하여 화당(火塘) 안쪽에 둔다. 머리맡에 술과 밥과 고기를 놓고 제사를 지낸 후 제사(祭師)를 청해 활을 세 번 쏜다. 그 의미는 죽은 사람이 가야할 길을 연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체를 집에 둔 시간 동안에는 하루에 세 번씩 밥과 고기와 물을 죽은 자에게 준다.

매장은 자기들의 습관에 따라 좋은 날을 잡아서 하는데, 출상할 때 두 청년이 앞에서 칼을 휘두르면서 길을 개척한다. 그리고 가족들은 가다가 중간에 돌아온다. 무덤은 장방형으로 파서 만들고, 시체를 안장하고 나면 다시 그 곳에서 제사를 지낸 후 각자 흩어져 집으로 돌아간다.

화당은 모든 가족들이 모이는 곳이며 그곳에 모여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부른다.

금기 리쑤족은 사람의 일상생활 속에도 신령이 함께 한다고 믿기 때문에 금기사항이 많다. 여기에서는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들, 특히 방문했을 경우에 알아야 할 것들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12월 27일부터 다음해 1월 9일까지의 13일 동안의 시간은 모든 사람이 외출을 삼간다. 정월 7일은 부녀의 날로써 물긷는 일과 밥짓는 일 등 모든 일에서 손을 놓고 쉬며, 9일은 남자의 날로서 일체의 노동을 하지 않고 쉰다. 매월 보름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는데, 그 이유는 모든 해충이 곡식을 먹는다고 해서이다.

만약 마을에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전 마을 사람이 고추를 먹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죽은 사람에 대해 존중하며 추모하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만약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그 집을 방문하는 사람이 활이나 긴 칼을 갖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이를 안아줄 때에도 옆으로 뉘어서 안으면 안 되고 곧추 세워서 안아야만 한다. 죽은 사람만 옆으로 뉘어서 들고 나가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은 후 집안의 사람들이 희거나 회색의 털을 가진 닭, 암탉, 암퇘지, 암소 등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집안의 사람이 낮에 밖에 나갔다가 해가 지면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밖에서 하루를 묵게 된다. 밤에 들어오면 귀신을 데리고 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평상시에 야채를 씻을 때에도 물이 마구 튀도록 거칠게 씻어서는 안 된다. 리쑤족은 이렇게 하면 복이 도망한다고 알고 있다.

손님이 왔을 때 주인은 청소를 해서는 안 되며, 얼굴을 씻고 닭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을 하되 여자가 고기를 썰어서도 안 되고, 문 쪽에서 삶아도 안 된다. 사람이 죽었을 때만 문쪽에서 고기 등을 삶기 때문이다. 다른 집을 방문해서는 방안에 있는 나무 궤짝 위에 앉거나

這封信超重五克, 要貼一塊四毛錢的郵票。/ Zhè fēng xìn chāozhòng wǔ kè, yào tiē yí kuài sì máo qián de yóupiào.
(쩌 펑 신 차오중 우 커, 야오 티에 이 콰이 쓰 마오 치엔 더 요우퍄오.)
이 편지는 5g을 넘었어요. 1원 40전 짜리 우표를 더 붙여야 합니다.

열어보거나 해서는 안 된다. 주인의 허락없이 내실에 들어가서도 안 되며, 화당 위에 놓여있는 삼발이를 발로 건드려서는 안 되고, 그 위로 건너가서도 안 된다. 이들은 화당을 매우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화당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주인을 모욕하는 일도 된다. 손님이 집에 들어갈 때 앞문으로 들어가서 곧장 뒷문으로 가면 안 된다. 죽은 사람을 들고 나갈 때에만 이렇게 하기 때문이다.

다른 집을 방문했을 때 휘파람을 불어서는 안 된다. 특히 밤에는 절대로 안 된다. 휘파람을 부는 것은 귀신을 집으로 불러들인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해가 질 무렵 방을 드나들 때에는 꼭 문을 잘 닫아야 한다. 만약 문을 열어 놓고 있으면 귀신이 들어온다고 생각한다.

주요절기 각 지역마다 절기를 지키는 습관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다. 여기에서는 누장지역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1. 쿼스제(闊什節, 음력 12월 5일 - 다음해 1월 10일)
쿼스제는 리쑤족의 신년으로 분위기는 기타 다른 민족들의 신년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 신년 바로 전 날 모든 집들이 집안과 밖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청소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 내용은 모든 질병과 환난, 고통, 가난 등의 귀신을 내어쫓는 내용이다. 청소를 끝낸 후에는 소나무를 문밖에 세우고 솔잎을 바닥에 깐다. 이렇게 해야만 집안의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젊음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절기의 활동으로는 활쏘기 시합과 '뚜이거(對歌: 남녀 또는 마을과 마을이 편을 나누어 노래를 주고받으며 어떤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는 것)'라고 하는 노래대결로 한쪽 편에서 바로 이어가지 못하면 지게 된다. 평상시에는 젊은이들의 뚜이거(對歌)에 참여하지 못했던 장년들도 이런 절기를 지낼 때에는 함께하게 된다.

2. 다오간제(刀杆節, 음력 2월 8일)
따오간제를 리쑤족의 말로는 아탕더(阿堂得)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칼을 타고 오른다는 뜻이다. 절기가 다가오면 크고 곧은 소나무를 잘라 긴 칼들을 칼날이 위로 향하도록 묶어 만든 사다리로 20m의 높이에 중간에 칼로 된 36개의 계단이 있는 '다오간(刀杆)'을 만든다.

경축활동이 시작되면 우선 몇 명의 용감한 청년이 불 위에서 불을 밟으면서 추는 타오훠우(蹈火舞)라는 춤을 춘다. 상의를 모두 벗고 발에도 아무 것도 신지 않은 채 붉게 타오르는 탄 위에서 추는 춤이다. 이 과정

쿼스제에는 활쏘기 시합과 마을별, 남녀별로 노래 시합을 하기도 한다.

을 넘어서지 못한 사람은 다음날 '다오간'을 오를 자격을 얻지 못한다. 다음날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모여 활동을 즐기는 가운데, 전날 '다오간'을 오를 자격을 얻은 청년이 붉은색 망토를 걸치고 '다오간'을 오른다. 필자도 이런 광경을 보았는데, 칼날을 밟고 오르고 내리는데 손과 발에 아무런 상처가 나지 않는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실제였다. 혹시나 무딘 칼이 아닌가 하여 어떤 사람이 칼날에 머리카락 몇 가닥을 갖다 대보기도 했는데, 칼날은 날카로운 것이었다. 다오간지에는 절기의 이름 그대로 이렇게 '다오간'을 오르는 것으로 행사는 절정에 올라 모든 마을 사람들이 춤을 추며 즐기는 춤마당이 벌어진다. 이렇게 위험한 활동을 하는 것은 전설에 의하면 리쑤족을 위하는 어떤 영웅이 독살을 당하자 이를 위한 보복의 행위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3. 훠바제(火把節, 음력 6월 24일, 25일)

훠바제는 리족, 바이족(白族) 등 다른 민족들도 지키는 절기로써 각 민족마다 지니고 있는 전설이 다르다. 리쑤족이 사는 지역은 경작지가 작아 양식이 부족하고 사람도 많지 않은 반면에 돌과 들짐승이 많은 곳이다. 그래서 화전으로 옥수수와 감자 등을 심고, 사냥을 해서 생활을 하는데, 한 해에는 커다란 가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었다. 사람들은 먹고 살 방법을 찾다가 한번은 새끼 돼지를 따라 산 속에 들어가서 새끼 돼지가 무엇을 먹으면 사람도 따라서 그것을 먹고 배를 채웠다. 가뭄의 원인은 한 귀신이 물줄기를 틀어막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 때 제갈량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 지역에 오게 되었고, 가뭄의 원인을 아는 제갈량이 군사를 시켜서 물줄기를 막고 있는 귀신을 향해서 쏘게 했다. 귀신은 숨어 있지를 못하고 나와서 항복을 했고, 제갈량이 군사를 시켜서 물줄기의 문을 열어 가뭄을 해갈케 하였다. 뿐만 아니라 쓰촨성으로부터 벼이삭을 갖다주어 논농사도 짓도록 도와주었는데, 벼이삭을 가지러 간 병사가 빨리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리쑤족 백성들이 밤에 횃불을 들고 길을 밝혀서 환영하였다. 이 횃불로 인해 귀신과 평소에 사람들을 위협하던 맹수들도 도망을 해서 이후로는 더 나은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해마다 이를 기념하는 것이 '훠바제'이다.

4 신미제(新米節, 음력 9, 10월)

신미제는 풍성한 수확을 경축하는 절기이며, 또한 오곡의 풍성을 기원하는 절기이기도 하다. 어떤 마을은 이 절기를 지낼 때 개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기도 하다. 전설에 의하면 모든 것이 풍성해서 좋은 생활을 누리고 있을 때, 신이 보고 질투해서 모든 양식과 종자를 다 가져가서 먹을 것도 없고 심을 것도 없게 되었는데, 개가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서 종자를 가져왔다. 사람들은 이 종자를 심어서 다시 양식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신미제를 지낼 때 밥을 지어서 먼저 개에게 주고 사람들은 나중에 먹는다. 이렇게 해야만 다음의 풍년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종교 본래 리쑤족의 신앙은 만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고 자연을 숭배하는 원시종교이다. 신 중에서도 미쓰(米斯-하늘신)가 가장 큰 신으로 모든 우주만물과 신들까지도 다스린다고 믿는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물론 인간의 삶과 환경의 변화까지도 철저하게 미쓰의 손에 달려 있으며, 인간은 영원히 그 힘과 지배를 거절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간다고 믿는다.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리쑤족 사회에 기독교가 빠르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신앙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기독교가 전래된 이후 자연을 두려워하고 자연에게 제사하는 원시종교의 형태가 많이 없어졌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를 좋은 종교로 인정한다. 최근에 리우쿠(六庫)에 불교가 들어가, 점차로 영향을 받고 있다.

기독교 운남성에 있는 다른 민족보다 조금 늦게 1913년에 처음으로 리쑤족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윈난성에 있는 민족 중에서 기독교가 가장 활발하게 성장했고, 민족 사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 신구약 성경도 완전히 번역되어 있고, 민족언어로 된 찬송가도 있다.

리쑤족은 1840년 이후 외국의 식민지로 지내온 시간이 많았는데, 영국이 아편전쟁 이후에 〈남경조약〉을 수립한 후 인도와 미얀마를 거쳐서 이곳으로 들어왔고, 프랑스는 광시(廣西)지역을 통해서 윈난지역으로 들어왔다. 이들은 주로 전교사(傳教士-지금의 선교사를 당시에는 전교사라고 불렀다. 프랑스는 천주교를 전하기 위한 전교사를 많이 보냈는데, 그 결과 지금 운남성에는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있다.)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군대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독교와 천주교가 침략자의 앞잡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중

您喜歡哪套, 請自己挑吧。/ Nín xǐhuan nǎ tào, qǐng zìjǐ tiāo ba.
(닌 시환 나 타오, 칭 쯔지 티아오 바.) 어느 세트를 좋아하시는지요, 손수 골라보세요.

국에서는 용감한 리쑤족이 변경지역에서 이들 침략세력에 대항해서 국가를 지켰고, 후에는 공산당이 이 지역에 가서 이들을 외세로부터 해방시켰다고 한다.

1949년 공산당정권이 수립되기 전까지 누장주(州)의 4개현(縣)의 기독교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이 통계는 리쑤족만의 숫자는 아니다. 누장주에 있었던 모든 기독교인을 통계한 것인데, 기독교인은 주로 리쑤족이다.

<표1 통계표>

縣	신자수	교회당	密魯扒	馬扒	密支扒	瓦何苦扒
貢 山	2,913	25	1	5	30	50
福 貢	6,390	71	3	15	85	142
碧 江	8,759	67	2	16	91	152
瀘 水	3,000	41	2	9	49	82
합 계	21,062	204	8	45	255	426

1988년 8월 4일, 누장주에 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와 협회가 성립되었고, 모든 현에도 하부조직이 들어서게 되었다.

1989년 12월, 통계에 의하면 개방된 교회가 21,441곳이고, 목사 4명, 전도인 290명, 장로 37명, 관리인 545명, 예배장 535명이었으며, 1994년 3월 신자의 통계는 84,345명으로 되어있었는데, 필자가 1996년에 푸공현(縣)을 방문해서 현 종교국 직원에게 들은 바로는 현 인구의 80%가 기독교인이라고 했다.

현재 리쑤족을 위한 성경학교는 4곳(六庫, 福貢, 隴川, 盈江)으로 어떤 곳에서는 다른 민족도 함께 공부하기도 한다.

리쑤족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10가지 강령을 철저히 지킨다. 10가지 강령을 정할 때 그 내용은 아마도 그들의 전통문화와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지역에 따른 차이가 조금 있었다.

두 지역의 강령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강조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었다. 기독교의 이러한 강령으로 인해 신자들뿐만 아니라 傈僳族 사회가 경제적으로 좋아지며 위생환경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강령들을 대체로 알고 따라 지킨다.

당시의 주된 선교전략과 교회가 사회에 끼친 영향:

노래지도--노래부르기를 좋아하는 청년들에게 찬송가를 가르쳐주며 화음(4부)을 가르쳐주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노래를 배우고 부르기 위해 교회를 찾았다. 낮에 들에서 일한 후에 저녁에는 교회에 모여서 노래하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문화활동이요 낙이었다. 이들은 지금도 예배시간에 사회자가 부를 찬송의 4부 첫음을 잡아주면 아무 반주가 없어도 4부로 부르는데 참 아름답게 잘 부른다.

문맹퇴치--문맹을 퇴치하기 위해 리쑤문을 가르쳐주는 공부반도 있었고, 당시에 학교가 마땅히 세워지지 못했는데, 교회가 학교의 역할을 해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교회를 통해 신학문을 익히고 발전하게 되었다.

사랑의 섬김--선교사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길이 험하고 멀어도 마다하지 않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면 찾아다니면서 전도했다. 그리고 마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게 되면 리쑤문을 가르쳐주고, 찬송가를 가르쳐주며 힘을 다해 섬겼다. 그리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며 친구가 되려고 힘을 다했다. 이러한 선교사의 사랑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고, 복음은 점차로 확장되어 갔다.

리쑤족사회에 들어온 교회는 신자들의 신앙생활뿐

<표2 강령>

직분명	현재의 직분	역 할
密魯扒	노회(지방회)장	한 縣의 교회들을 맡아 관리하며 교회간의 일들을 처리한다. 馬扒와 密支扒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
馬扒	목회자	설교, 전도, 한 사람이 1 - 3개의 교회를 돌아본다.
密支扒	교회행정관리	교회사무, 헌금관리, 신도들의 결혼, 상벌 등을 관리한다.
瓦何苦扒	예배책임자	예배에 관계된 모든 일과 馬扒가 없을 경우에는 그 역할을 대신한다.

아니라 사회에 끼친 영향도 크다.

결혼--매매혼을 금지시키고, 일부일처제를 시행하게 하였다. 한편 신자들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여 일부 젊은이들은 이로 인해 교회를 비난하는 일도 있었다.

소송문제해결--신자들간의 문제는 법정에 가기 전에 교회 안에서 먼저 해결을 하도록 하여 문제들이 크게 비화하지 않고 잘 해결되어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은 교회를 거쳐서 지방정부의 법정으로 가도록 하였다.

교제활동--신자들은 교회에서 비신자들과의 결혼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교제활동까지 규제하여 마을에서 결혼이 있거나 상이 나거나, 아니면 집을 새로 지어도 비신자들의 일일 경우 신자들은 그리 협조하지 않음으로 교회를 비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결국은 사회를 두 무리로 구분짓는 일이 된 것이다.

문화 --교회는 성결을 강조하여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서 배우는 노래들 외에는 부르지 못하게 했다. 노래와 춤을 즐기는 민족으로서 보존해왔던 전통문화를 버리기가 쉽지 않았는데, 교회에서는 상벌규정을 만들어서 찬송만 하도록 강조했다. 이렇게 되어 신자와 비신자간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민족전통문화가 점차로 없어져 가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제사금지--당시에 제사는 필수였고, 제사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했는데, 어려운 생활환경 속에서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데 교회가 제사를 금하자 이 문제로 인해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일 년에 몇 차례씩이나 지내야 되는 제사가 없어지자 살림이 많이 윤택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병이 나도 무당을 불러다가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기도해주어 병도 낫고 돈도 안 들고 하자 이로 인해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마을 전체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게 되었다.

교파분쟁--누장 지역에는 4개 교파가 들어와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좋은 열심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였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교회세력확장을 위해 전도지역을 놓고 다투다가 결국은 지역을 구분해서 선교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역을 크게 4등분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던 교회가 자기들끼리 다투는 것을 보고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졌으며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反공산당--공산당이 중국을 점령할 즈음에 교회들은 공산당을 비난하며 신자들과 지역주민들이 일어나서 공산당에게 반기를 들도록 종용했다. 교회로서는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한 일이었음에도 결국은 공산당이 점령함으로 인해 선교사들과 주된 지도자들은 미얀마로 도피해야만했다.

결과적으로 교회가 사회에 끼친 영향 중에 좋은 영향을 끼친 것은 매매혼을 폐지하고 일부일처제를 시행케 하여 가정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도록 도와준 것과 성경학습을 통해 글을 깨우쳐 주었으며, 금주, 금연, 제사금지로 인해 전반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위생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해 전 리쑤족사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수준이 향상되도록 도와주었다.

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도 있는데, 지나치게 성속을 구별하는 입장에서 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거리를 너무 멀게 해놓았다는 것과 전통문화를 완전히 무시하여 일부의 사람들로부터 강한 반감을 자아냈다는 것이다. 또 있다면 지나친 열심이 가져온 결과로 서로의 전도구역 확장을 위하여 분쟁이 있었던 것이 일부의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상의 교회가 사회에 끼친 영향의 내용은 현재에도 기억하고 참고할 만한 당시의 교훈이라고 생각된다. 하나님께서 불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모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자기 개인이나 자기가 속한 기관과 교단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님을 재삼 되새기며 일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리쑤족 기독교 역사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처음 이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외국에서 온 선교사가 아니라 윈난성 다른 지역에서 믿고 훈련을 받은 다른 민족- 나씨족(納西族)-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도 직접 이들에게 전도한 선교사가 번역한 것이 아니고 이미 번역된 성경을 갖고 들어와서 선교했다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점들이 이 지역에서 교회가 부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다음 페이지 표3 참조).

리쑤족이 사는 지역을 방문하려면 다음과 같다. 이 지역들은 외부인이 쉽게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방문하려고 할 때 인원을 최대한 소수로 해야 하며, 여러 가지 면에서 주의를 요한다.

我再買五張明信片。/ Wǒ zài mǎi wǔ zhāng míngxìnpiàn.
(워 짜이 마이 우 장 밍신피엔.) 엽서 다섯 장도 더 사겠습니다.

<표3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A지역	B지역
1	술을 마시지 않는다	담배를 피지 않는다
2	담배를 피지 않는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
3	도박을 하지 않는다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4	살인을 하지 않는다	도박을 하지 않는다
5	매매혼(賣買婚)을 하지 않는다	부녀자를 희롱하지 않는다
6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귀신을 섬기지 않는다
7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민족전통노래와 춤을 금한다
8	귀신을 섬기지 않는다	비신자와의 결혼을 금한다
9	철저한 위생생활을 한다	매매혼(賣買婚)을 하지 않는다
10	일부일처제를 실행한다	비신자와 함께 공동으로 일하지 않는다

* 한국에서 (홍콩, 베이징, 상하이)를 경유하여 쿤밍에 도착

쿤밍 북부지역

* 쿤밍에서 버스로 우딩(武定)(대략5시간), 우딩(武定)에서 다시 리쑤족이 사는 지역까지 도보로 가거나 기타의 교통수단(경운기, 마차 등)을 빌려서 갈 수도 있다.

누장(怒江)지역

* 쿤밍(昆明)에서 버스로 리우쿠(六庫)까지(대략 16시간), 리우쿠에서 가기를 원하는 지역으로 다시 연결함(리우쿠 근처에도 리쑤족이 사는 마을들을 방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푸공(福貢),궁산(貢山)에 가서도 볼 수 있는데, 교회가 가장 발전한 곳은 푸공 이다.)

바오안(保山), 더홍(德宏)지역

* 쿤밍에서 버스로 바오산(保山)까지(대략 15시간), 바오산(保山)에서 다시 룽촨(隴川), 잉장 (盈江), 텅충(騰冲) 등지로 버스를 타고 가서 다시 마을을 찾아가야 한다.

태국과 미얀마에도 리쑤족이 있는데, 다른 민족들과 달리 민족이름이 리쑤족으로 통일되어있다. 미얀마에는 약 5만 명의 인구가 미얀마의 북부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태국에서는 약3만 명의 인구가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해서 태국의 북부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누장 지역에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고, 적은 수가 다른 민족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는데, 태국과 미얀마의 리쑤족은 다른 민족들과 많이 혼합해서 거주하고 있다.

기도제목

1. 이미 세워져 있는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양육되도록
2. 인근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민족이 되도록
3. 교회가 많아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교회를 찾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어린이나 학생들을 위한 집회가 없다. 모든 교회마다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집회가 생겨나도록
4.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약을 통해 이 지역에 침투해 들어오는 사단의 세력들이 깨어지고, 마약환자들이 사단으로부터 놓임을 받고 해방을 얻도록

참고서적

1. 云南簡史, 云南人民出版社
2. 中華民族, 華夏出版社
3. 中國少數民族禁忌大觀, 廣西民族出版社
4. 中國少數民族宗教概覽, 中央民族出版社
5. 云南宗教概況, 云南大學出版社
6. 西南少數民族風俗志, 中國民間文藝出版社
7. 中國少數民族節會大觀, 江西教育出版社
8. 中國跨界民族, 民族出版社
9. 傈僳族風俗誌, 中央民族大學出版社
10. 傈僳族簡史, 云南人民出版社
11. 維西傈僳族自治縣概況, 云南民族出版社
12. 傈僳族, 民族出版社
13. 傈僳族風俗志, 中央民族大學出版社
14. 怒江文史資料選輯(하권), 德宏民族出版社
15. 傈僳族怒族勒墨人(白族支系)社會歷史調查, 云南人民出版社
16. 云南民族情況滙集(상권), 云南民族出版社

김중하/ 중국선교사

내가 만난 베이징의 보통 여성들

석 은 혜

개혁개방으로 시장이 개방되고, 서양문물이 들어오자 중국인들의 종교관, 가치관, 인생관, 행동 규범, 직업관, 윤리 · 도덕 관념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의 행동 양식, 직업선택이나 교제 방식, 관리 방식 등도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든 그 과정은 동일하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 문화, 사회 풍조에서 살아왔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종교관, 윤리 · 도덕에 대한 관념이 결정된다.

닫혀진 나라로 알려졌던 중국이 1980년대를 기점으로 개혁 · 개방되면서 중국 사람들은 많은 변화를 갖게 되었다. 어느 작가는 자신의 책에서 지금 중국에서는 '입대 바람, 벼슬 바람, 진학 바람, 출국 바람, 장사 바람' 등의 5 가지 바람이 맹렬하게 불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을 알고, 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중국과 중국인들의 삶의 방식이 계속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무튼 개혁개방으로 시장이 개방되고, 서양문물이 들어오자 중국인들의 종교관, 가치관, 인생관, 행동 규범, 직업관, 윤리 · 도덕 관념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의 행동 양식, 직업선택이나 교제 방식, 관리 방식 등도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필자는 베이징에 머물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중국인들을 만나보았다. 본지에서는 특별히 중국 젊은 여성들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지금 중국의 젊은 여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으며, 그들이 종교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크리스천 여성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하고자 한다.

본지에 언급된 여성들은 베이징에 살고 있고, 이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며, 대부분 가정을 이룬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직장여성들이다. 이들이 중국여성 모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내가 만나본 여성 중 일부라는 사실을 밝혀 둔다.

주님을 만난 열성형의 여인

나는 A를 어느 한국 사역자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그녀는 베이징의 어느 가정교회에 다니고 있었다. 그녀의 오랜 소망이었던 '영어 성경' 구하는 일을 한국 사역자가 이루어 주었다. 남부지방이 고향인 그녀는 모 대학의 연구원인 남편, 6살 되는 아이와 같이 살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으나 그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

그녀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베이징에 살고 있는 외삼촌 때문이었다. 그녀의 외삼촌은 해외 유학시절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다. A는 많은 갈등 끝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외삼촌이 소개해 준 가정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請問, 寄到南京的信要貼多少錢郵票?/ Qǐngwèn, jìdào de xìn yào tiē duōshao qián yóupiào?
(칭원, 지따오 난징 더 신 야오 티에 뚜오샤오 치엔 요우파오?) 실례지만, 남경에 부치는 편지는 얼마짜리 우표를 붙여야 하죠?

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다니는 가정교회는 토요일과 주일에 집회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그녀는 토요집회만 참석했다. 주일엔 다른 사람들처럼 남편, 아이와 같이 쇼핑도 하고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였다.

말씀을 깊이있게 공부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그녀에게 있었지만, 단지 토요일 오전에 평신도의 인도로 잠깐 드리는 예배로는 그녀의 욕구를 채울 수 없었다. 직장이 비교적 먼 곳에 있어 퇴근 후 별도의 시간을 내어 성경공부를 하는 것도 여의치 않았다.

주일에 아무 거리낌 없이 놀러다니는 그에게 신앙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주일성수, 헌금, 봉사의 중요성에 대해 말해줄까 망설이다가 결국 그만두었다. 아직까지 신앙 경력이 짧고, 남편이 믿지 않는 상황에서 갈등과 어려움만 초래할 것 같아서였다. 그녀가 하루빨리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바라면서 몇 권의 신앙서적을 구해 전달해 주었다. 최근 전해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녀는 미국 선교사가 지도하는 영어성경 공부반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성경공부를 지도하는 자리에까지 성장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미국을 동경하는 출국형의 여성

베이징의 한 삼자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가 아주 세련된 멋쟁이 아가씨 B를 알게 되었다. 그녀의 화사함이 유난히 눈에 띄였는데, 처음에 중국인이 아닌줄 알았다. 유명대학을 졸업한 그녀는 영어를 아주 잘했고, 그 덕에 외국인 합자 회사에 전산요원으로 취직하여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강권에 못이겨 삼자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한 것일 뿐 거듭난 성도는 아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문화대혁명 이전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가 없던 시절 혼자서 예배를 드려오다가 최근 삼자교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B의 어머니는 연로한 분이셨는데 한국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다. 특별히 한국 교회의 부흥을 부러워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나는 B와 친구가 되었고, 공휴일엔 함께 베이징의 명승고적에 놀러가곤 했다. 그녀는 외국인 합자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친구를 사귀는 매너도 세련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듯했다. 그녀의 미국에 대한 동경은 아주 강했고, 유일한 꿈은 미국에 가서 사는 것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왜 미국으로 유학을 가지 않고, 가난하고 배울 것도 없는 중국으로 왔느냐며 한심스러워했다.

그렇게 미국을 갈망하던 그녀는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오빠의 초청으로 여행 비자를 얻어 미국으로 갔다. 6개월 후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녀는 미국에서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알고 보니 나이도 많고 아이가 둘이나 있는 이혼한 미국인이었다.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와 결혼하여 미국인이 되고 싶어했다. 미국에 살면 더 자유스럽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그녀의 변명이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미국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는 바람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설득시켜 달라고 나에게 부탁을 했다. 그러나 그녀의 굳은 의지 앞에 나는 무력한 존재일 수 밖에 없었다. 지금쯤 그녀는 미국인이 되어 풍요를 만끽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는 잘 믿고 있는지 궁금하다.

구원자를 찾고 있던 갈망형의 여성

C는 어느 대학의 교수로 나의 중국어 개인교습 선생이었다. 처음 우리의 관계는 사무적인 관계로 몹시 서먹했다. 처음 그녀가 요구한 중국어 교습비가 너무 비싼 데 비해, 끝나는 시간은 1분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녀의 수업 방식 중 하나는 가끔씩 중국 잡지를 읽어보고 서로 의견을 나누어보는 것이었다. 중국어 의사 표현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였다.

어느 날 잡지에 실린 "손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크리스천이며 손금을 믿지 않는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뜻밖에 그녀는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말에 놀라면서 반가

워했다.

알고보니 그녀의 외할아버지는 목사였다. 그녀가 어린 시절 문화대혁명이 일어났고, 외할아버지는 목사라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받고 옥살이를 하다가 돌아가셨다. 그일 이후로 어린 그녀의 눈에 비친 기독교는 '사람을 죽게 하는 종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게 되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서남지방 어느 가정교회의 신실한 신앙인이었지만 그녀를 기독교인이 되도록 설득시키지는 못했다.

대학 진학을 위해 베이징으로 올 때, 그녀의 어머니는 꼭 가정교회에 참석하라고 교회주소까지 주면서 신신 당부를 하셨단다. 그러나 그녀는 교회에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학교 공부에 바빠서 교회를 찾아가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바라던 교수가 되었고, 결혼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공허감과 인생에 대해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일까?", "마음속의 공허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등. 그런 와중에 나를 만난 것이다.

그 날 이후 중국어 공부 교재는 "신생명(新生命)"이라는 중국어 제자훈련 교재로 바뀌었다. 한 영혼을 위해 비싼 중국어 교습비를 내면서 나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그녀를 위한 공부를 하였다. 유물론 사상에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물든 한 지성인이 기독교에 대해 갖고 있는 의문은 끝이 없었다. 우리말로도 설명하기 힘든 내용을 중국어로 설명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녀는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은 너무나 컸다. 삼자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할 것을 권유했으나 외할아버지가 받은 핍박 때문에 영향을 받는 탓인지,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했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가정교회에 다니고 있는, 위에 언급한 A와 한국 사역자 한 분을 그녀에게 소개해 주었다. 그녀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지금도 가끔 그녀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내가 많은 외국인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 중 한 사람도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 중에 분명히 크리스천이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을 만나보고 싶었고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현실에 자족하는 거부형의 여인

D는 한국어 선생이면서 친구의 중국어 개인교습 선생이었다. 베이징의 유명 대학을 졸업했고, 한국어 언어연수를 위해 한국을 다녀간 사람이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고, 한국어를 잘해 우리는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그녀는 집으로 초청하여 종종 식사를 대접해 주기도 했다.

그녀는 대학시절부터 친구였던 남자친구와 결혼하여 이미 가정을 이루었지만 아이는 아직 없었다. 이유인즉 중국 정부당국에서 직장마다 한 해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의

您奇平信還是掛號信? / Nín jī píngxìn háishi guàhàoxìn?
(닌 지 핑신 하이스 꽈하오신?) 일반우편으로 부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등기로 부치시겠습니까?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수를 분배해 주는데, 그녀는 아직 분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 이년 후면 자신의 차례가 된다고 했다(아이를 허락받고 낳아야 한다는 말이 너무 생소해 놀랐다).

성격이 활달하고, 친구 사귀기를 좋아하는 그녀는 한국 학생들로 구성된 크리스천 모임에도 참석한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나는 D를 전도해야 겠다는 생각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했다.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자, 아직은 잘 모르지만 괜찮은 종교인 것 같고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주일날 한국인 교회에도 참석하는 열성을 보였다.

그녀는 내가 살고 있는 집 가까이에 살고 있었기에 어느 날 저녁 그녀의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중국어 성경책과 약간의 선물을 가지고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게 지내다가 돌아왔다. 그런데 그날 이후 학교에서나 길에서 우연히 만나면 그녀는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분명한 이유를 모르는 나는 의아할 뿐이었다. 나중에 들은 바에 의하면 공산당원인 그녀의 남편이 그녀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때문에 나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녀의 남편은 베이징의 유명한 언론기관의 직원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다. 부인의 종교 문제로 자신의 장래가 위협받는 것을 염려한 탓이었다. 그녀 역시 위험을 무릅쓰고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지금도 많은 사람을 사귀면서 부족함을 없이 잘 살고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그 즐거움과 행복이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주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너나없이 기쁘고 즐겁게 지낸다. 주일은 왠지 흥분되고, 분주하면서도 사람 만나는 기쁨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삼자교회 교인들은 성도간의 교제가 없는 듯하다. 대부분의 성도들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 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성도간에 교제 없이 곧장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 간다. 이런 환경과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면 어려운 것 같다.

그러나 위에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주로 농촌 지역의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믿어왔던 하나님을 이제는 대학을 졸업한 지식인들도 많이 믿고 있다. 유물론 사상에 물들었던 그들이 하루 아침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다. 그들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만난 이 중국 여성들을 다 사랑한다. 그들이 크리스천이든 지 아니든지 간에 앞으로 계속해서 중국의 여성들이 많이 예수 믿고 변화되길 기도한다. 여성이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면 직장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면 사회가 변화된다. 사회가 변하고나면 결국 중국도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석은혜/ 본지 편집장

醫病禱告(치유 기도문)

Yībìng dǎogào

萬有憐憫的主, 我們來到你的面前. 仰望你施恩給我們。我們當中有許多身體軟弱, 生病的肢體, 懇求你用你的大能的手, 撫摸他們並醫治他們。
好讓他們起來服事你。

(Wànyǒu liánmǐn de zhǔ, wǒmen láidào nǐ de miànqián, yǎngwàng nǐ shi'ēn gěi wǒmen. Wǒmen dāngzhōng yǒu xǔduō shēntǐ ruǎnruò, shēngbìng de zhītǐ, kěnqiú nǐ yòng nǐ de dànéng de shǒu, fǔmō tāmen bìng yīzhì tāmen, hǎo ràng tāmen qǐlái fúshì n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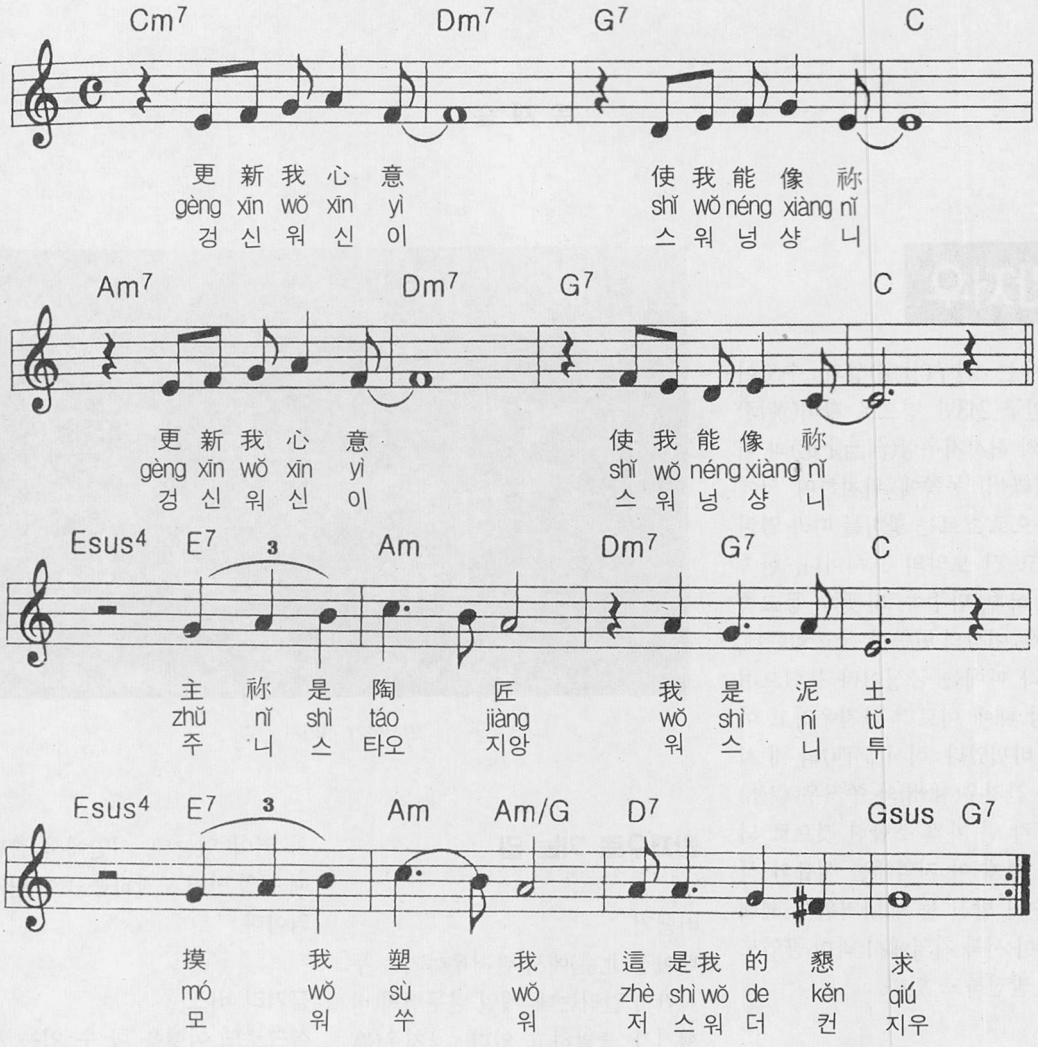
모든 만물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몸이 약하여 병에 걸린 지체가 많습니다. 간절히 비오니 당신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만져주셔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주께 봉사하며 섬기게 하소서.

主你乃是大能的醫生, 我相信因你所受的鞭傷我們得醫治, 因你所受的刑罰, 我們得平安。這是你寶貴的應許。哈利路亞, 讚美主! 我們禱告, 奉我主耶穌得勝的名求。阿門。
(Zhǔ nǐ nǎishì dànéng de yīshēng, wǒ xiāngxìn yīn nǐ suǒ shòu de biānshāng wǒmen dé yīzhì, yīn nǐ suǒ shòu de xíngfá, wǒmen dé píng'ān.
Zhè shì nǐ bǎoguì de yìngxǔ. hālílùyà, zànměi zhǔ! Wǒmen dǎogào, fèng wǒ zhǔ Yēsū déshèngde míngqiú. Amen.)

주님, 당신은 큰 능력이 있는 의사입니다. 당신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며, 당신이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주신 소중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를 승리하신 내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這封航空信寄到倫敦貼一塊錢郵票夠嗎?/ Zhè fēng hángkōngxìn jìdào Lúndūn tiē yí kuài qián yóupiào gòu ma?
(쩌 펑 항콩신 지 따오 룬둔 티에 이 콰이 치엔 요우파오 꺼우 마?)
이 항공우편을 런던에 부치는데, 1원 짜리 우표를 붙이면 됩니까?

更新我心意
항상 진실케



우리말 가사

항상 진실케 내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請把信拿來祢一下。 / Qǐng bǎ xìn nálái chēng yíxià.
(칭 바 신 나라이 청 이시아.) 편지를 좀 가져와 달아 주십시오.

찬란한 고대의 유적지로 남은 란저우(蘭州)와 둔황(敦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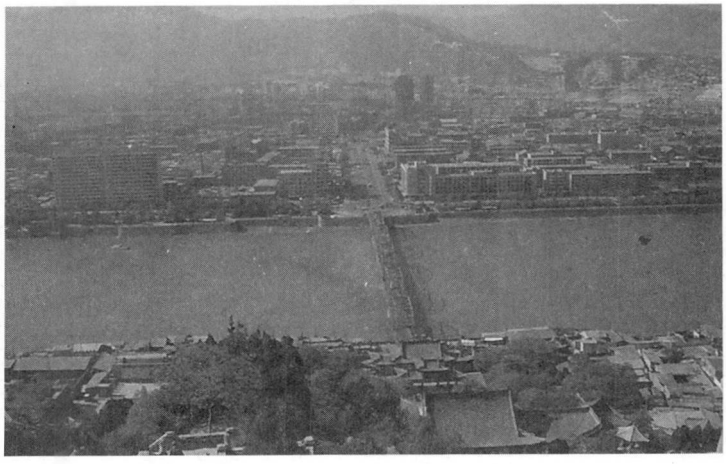
유 재 승

란저우

란저우는 간쑤(甘肅)성의 수도이며, 인구 243만 명으로 황허(黃河) 상류의 허시저우랑(河西走廊)의 뤼저우(綠州) 동쪽에 위치하며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황허를 따라 열린 가늘고 긴 모양의 도시이다. 한족 외에 회족, 만주족, 티벳족, 몽고족 등 40% 이상의 민족이 살고 있는데, 한나라 때에는 금성이라 불렸으며 수, 당 때에 이르러 란저우라고 이름이 바뀌었다. 허시(河西)의 네 지역 중 간저우(甘州)와 쑤저우(肅州)에서 각 한 자씩 조합한 것으로 되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석유와 석탄, 수력 발전 등 에너지원의 혜택을 받아 서북 지역에서 최대 공업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기후

간쑤(甘肅)성은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지역이다. 따라서 아침엔 모피 코트를 걸치고, 낮에는 엷은 비단옷을 입어야 할 만큼 기온의 변화가 크다. 또한 사막지대를 지나가므로 반드시 선그라스를 준비해야만 한다.



란저우가 시가지 전경

란저우로 가는 길

비행기

베이징(北京)에서 란저우까지는 두 시간이 걸리는데, 매일 한두편의 비행기가 출발하고 있다. 광저우(廣州)에서 세 시간, 시안(西安)에서 한 시간 십오 분이 걸린다.

열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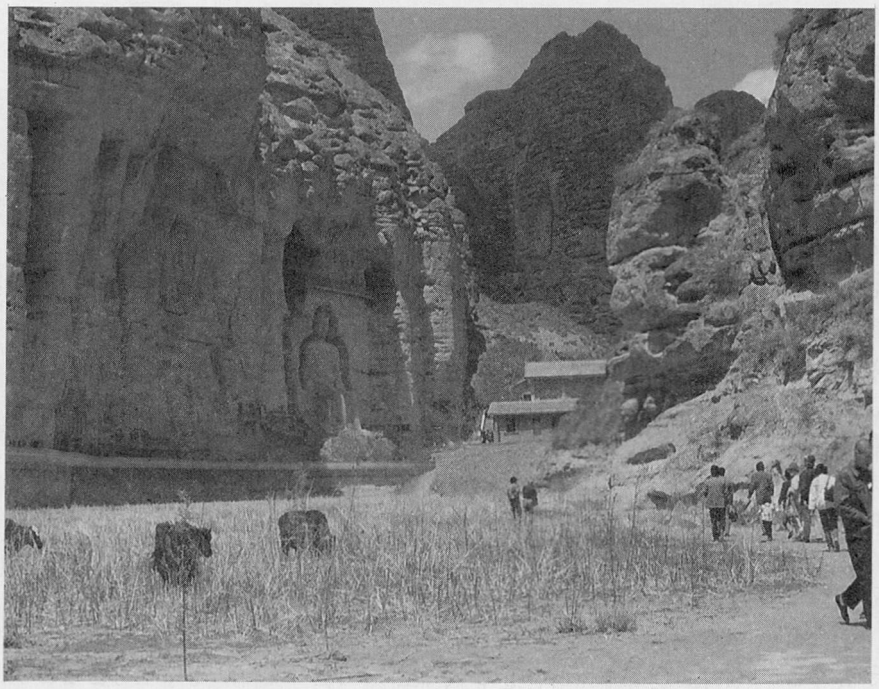
베이징에서 란저우까지 터콰이(特快)로 29시간, 시안에서 터콰이로 12시간이 걸린다. 란저우에는 5개의 역이 있는데, 시안에서 출발할 때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 란저우 역이다.

장거리 버스

실크로드 여행을 할 수 있는 시안(西安), 시닝(西寧), 지우촨(酒泉) 등지에서 장거리 버스편이 있다. 다른 하나는 회화와 연결되는 장거리 버스편과 쓰촨(四川)성 청두(成都)로 연결되는 버스편이 있다.

란저우의 관광명소

這封信超重五克, 要貼一塊四毛錢的郵票。/ Zhè fēng xìn chāozhòng wǔ kè, yào tiē yí kuài sì máo qián de yóupiào.
(쩌 펑 신 차오중 우 커, 야오 티에 이 콰이 쓰 마오 치엔 더 요우퍄오.)
이 편지는 5g을 넘었어요. 1원 40전 짜리 우표를 더 붙여야 합니다.



중국의 주요 불교 유적지인 빙링스(炳靈寺)석굴 전경.

간쑤성박물관(甘肅省博物館)

신석기시대부터 명나라에 이르기까지의 허시저우랑(河西走廊)에서 출토된 문물들을 중심으로 수장 전시하는 박물관이 회색의 3층 건물 안에 꾸며져 있다. 자위관(嘉峪關)에 있던 위진시대의 묘가 그대로 이장되어 전시된 위진벽화묘를 비롯, 별칭으로 마도비연(馬跳飛燕)이라 부르기도 하며 동분마(銅奔馬)라고 하는 우웨이(武威)에서 출토된 청동상 등이 눈길을 끈다. 그 외에 매머드의 화석으로 여겨지는 황허검치상화석(黃河劍齒象化石)도 전시되어 있다. 중국의 다른 박문관에서와는 달리 관내에서는 촬영도 가능하다.

바이타산공원(白塔山公園)

황허의 북쪽 연아에 위치한 야산에 꾸며진 공원으로, 산 정상에 백탑이 있어서 이 이름으로 불린다. 이 백탑은 높이 17m의 각 8층으로 윗부분은 중국의 전통 양식, 아랫부분은 인도 양식으로 만들어졌다. 공원 안에는 백탑 이외에 정자나 누각이 많고, 휴게실도 꾸며져 있다. 황허 바로 연안에 위치해 있어서 이 위에서 바라보이는 황허와 란저우 시가지의 조망이 볼 만하다. 공원 안에서 가장 볼 만한 백탑사는 원나라 때 지어진 것으로, 징기즈칸이 몽고에 파견된 티베트의 승려를 기념하여 만들었다.

우촨산공원(五泉山公園)

란저우 남쪽에 있는 우촨산 일대에 위치한 공원으로 한무제 때의 장군 곽거병(霍去病)에 얽힌 고사가 있는 곳이다. 현재 고사에 얽힌 다섯 개의 샘으로 짐작되는 혜천(惠泉), 감로천(甘露泉), 국월천(鞠月泉), 모자천(模子泉), 몽천(朦泉) 등에서는 아직도 맑은 물이 나오고 있다. 그 외에 이 공원 안에는 1372년에 창건된 숭경사(崇慶寺)가 있다. 이 안에는 1202년에 주조된 태화철종(泰和鐵鐘)이 있고, 1370년에 만들어진 높이 5m의 동접인불(銅接引佛)등이 있다. 정상에서는 황허 건너 맞은편으로 백탑산이 보인다.

옌탄공원(雁灘公園)

란저우의 북쪽에서 흐르는 황허의 연안에 조성된 공원이며, 기러기들의 서식지였던 까닭으로 이 이름이 붙었다. 주변에는 멜론이나 사과로 유명한 과수원이 있는 시민들의 휴식장소이다.

빙링스석굴(炳靈寺石窟)

란저우의 최대 볼거리이다. 란저우에서 가자면 4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란저우에 와서 이 곳을 보지 않으면 여행의 핵을 빠뜨린 셈이다. 마른 황토흙과 풀 한 포기 없는 바

위로 된 산이 황량하게 드러난 곳에 꾸며져 있는데, 수직으로 선 절벽에 새겨진 불상들이 60m 정도의 높이로 약 2km에 걸쳐서 늘어선 모습에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온다.

이 곳의 불상들은 서진(西秦) 때인 4~5세기경부터 새겨지기 시작하여 북위, 북주, 수, 당 그리고 명나라 때까지 계속이어져 조각된 것들이다. 그 중에는 당나라 때 새겨진 것들이 가장 많다. 가장 큰 불상은 171굴에 있는 마애석각대불(摩崖石彫大佛)로 이것 역시 당나라 때의 것이다. 이 석굴군은 183개의 굴안에 694개의 석상, 82개의 소상, 990m^{2}에 그려진 벽화 등을 안고 있다.

절벽에 만들어져 있어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들지만, 주변의 기암괴석들과 어울려 썩 괜찮은 광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란저우의 숙박

란저우반점 東崗西路 204호,
TEL(0931) 841-6321
금성빈관 天水路 363호.
TEL(0931) 882-7759,841-6638,6390
화의대주점 西津西路 14호.
TEL(0931)233-3051
승리빈관 中山路 127호.
TEL(0931)846-5221
영와장빈관 天水路 238호.
TEL(0931)841-6221

둔황

2천 년 전부터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한 오아시스의 도시 둔황은 우리에게는 신라의 고승 혜초의 왕오전축국전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실크로드의 요충지로서 번영을 누리던 옛날의 흔적만 남기고 있는 현재의 둔황은 1725년 청나라 때 조성된 것이다.

둔황으로 가는 길

비행기

둔황의 공항은 둔황 시내에서 12km 정도의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이 곳으로 베이징에서 5시간 25분(월, 목, 토 각 1회), 자위관에서 40분(수, 일요일에 1편씩 운행)이 소요된다. 란저우에서는 1시간 40분(매일 1, 2회), 시안에서는 2시간 40분(매일 2회씩 운행)이 소요되는 항공편이 있다.

열차

열차로 둔황에 가려면 둔황 시내로 연결된 열차편이 없기 때문에 우선 약 128km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류위엔(柳園)역까지 간 뒤 다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란저우에서 류위엔역까지는 터콰이로 25시간 10분이 소요된다. 상하이에서는 70시간, 베이징에서 온다면 약55시간으로 3박 4일 정도 걸린다.

버스

가까운 도시에서는 다른 교통수단보다는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 약 2시간 30분 소요되며 2시간마다 운행한다. 주변의 주취안이나 자위관에서 버스로 올 경우 사막 안을 달리게 된다(약 7시간 소요)

칭하이(青海)성의 거얼무(格爾木)에서 오는 버스편도 있다. 이 버스편은 10시간 정도 걸리는데, 주변의 경관이 아름다워 이용해 볼 만한 코스이다. 둔황의 버스터미널에서는 그 밖의 주요 도시로 통하는 미니버스도 운행되고 있다.

둔황의 여행 계획

둔황의 거리는 그리 복잡하거나 크지 않아 동서남북 끝에서 끝까지 도는 데에 자전거로 1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시내에는 다른 교통수단은 없으므로 시내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빌려서 돌아보는 것이 좋다(대여료 1시간에 2元).

명사산(鳴沙山)이나 월아천(月牙泉), 막고굴(莫高窟) 등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자리한 명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여러 명소들을 묶어서 돌아볼 수 있는 관광버스나 미니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둔황 시내 관광에 반나절에서 하루, 둔황 주변 면소 관광에 역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일정을 잡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둔황 전체 관광에 1박 2일에서 2박 3일 정도 잡으면 여유 있는 일정이 된다.

둔황의 관광명소

둔황박물관(敦惶博物館)

둔황 시내 중심에 위치해 있는 박물관이며 둔황 주변에서 발견도 출토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둔황이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당시의 유적들이 주를 이룬다. 전체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막고굴의 제17굴에서 출토된 것들, 한나라와 당나라로부터 온 제물들, 그리고 나머지는 양관(陽關)이나 옥문(玉門)에서 출토된 것들을 각각 전시하고 있다.

백마탑(白馬塔)

둔황의 남동쪽으로 4km떨어진 곳에 있는 탑으로, 위치는 둔황이 샤저우(沙州)라고 불릴 때 지어진 샤저우 고성의 한 가운데 있다. 높이 12m, 9층으로 황백색이다. 장안(지

您喜歡哪套, 請自己挑吧。/ Nín xǐhuan nǎ tào, qǐng zìjǐ tiāo ba.
(닌 시환 나 타오, 칭 쯔지 티아오 바.) 어느 세트를 좋아하시는지요, 손수 골라보세요.

금의 시안)에서 많은 불전들을 한역(漢譯)했던 후진(後秦)대의 고승 구마라십(鳩摩羅什)의 애마인 백마가 병사하자, 말을 수장(手葬)하고 그곳에 탑을 세운 것이다.

명사산(明沙山)

명사산을 둔황의 남쪽으로 5km 떨어진 곳에 뾰족하게 솟아 있는 모래산이다. 남북으로 20km, 동서로 40km 정도 넓이의 모래산군으로 곳곳에 뾰족뾰족한 모양의 산들이 마치 수면에 물결이 이는 모양으로 늘어서 있다. 이 곳의 모래는 아주 가늘어 바람에 쉽게 날릴 정도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려 발자국이 흩어져 있어도 하루만 지나면 깨끗하게 지워지고 다음날에는 다시 뾰족한 능선을 과시하는 산들이 일어선다.

이 곳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는 일몰이다. 뾰족한 모래산의 능선으로 붉게 물드는 일몰은 이곳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고정시킨다. 부드러운 모래 사이를 걷는 동안 발에 전해지는 감촉 또한 일품이다.

월아천(月牙泉)

명사산 안에 있는 작은 오아시스. 이 곳은 모래산에 둘러싸인 채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잠시도 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하는 신비한 샘이다. 초생달 모양의 샘과 주변에 서 있는 나무들이 어우러진 풍경은 사막 안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멋진 모양이다.

둔황고성(敦煌古城)

둔황의 남동쪽, 명사산이 있는 사막이 이어지는 곳에 우뚝하고 하나의 성이 나타난다. 이곳은 중·일합작으로 만들어진 영화 "둔황"의 세트장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성은 송나라 당시의 성을 재현한 것. 1987년에 제작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중국에서는 역사극 등을 만들 때 야외 세트장으로 종종 활용하고 있다. 성의 내부에는 민가와 주점들이 잘 정돈되어 길 양옆으로 늘어서 있다.

석굴문물보존연구진열중심 (石窟文物保存研究陳列中心)

1994년 3월에 개관한 박물관으로 있는 동굴을 실물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볼 만하다. 전부 재현해 놓은 것은 아니고, 275국, 249굴, 285굴, 419굴, 220굴, 217굴, 3굴 등을 재현해 놓았다. 크기도 실제 그대로 이며, 비교적 정교하게 재현해 놓아 거의 실물에 가깝다. 실제의 동굴에는 조명시설이 없어서 어두운 채로 보아야 하는데, 이 속에서는 충분한 조명시설로 그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다. 제17굴에서 발견된 둔황문서도 일부 전시되어 있다.

양관(陽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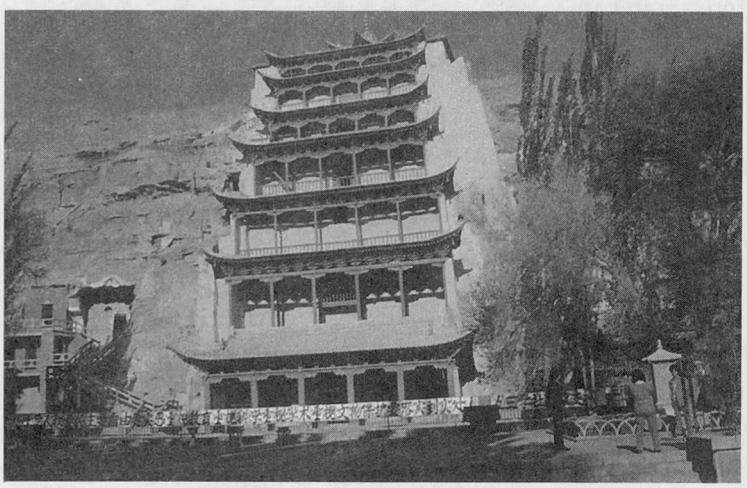
둔황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으며, 실크로드 중 서역 남로 상에 있다. 한나라 무제가 서방으로부터 수비를 하기 위해 성벽을 쌓은 곳인데, 대부분 풍랑에 훼손되고, 그 중 일부만이 사방으로 넓게 펼쳐진 사막 위에 우뚝 솟은 채 남아 있다. 이곳에서는 병기와 도기, 당시 화폐 등이 발견되었다.

둔황의 숙박

비천빈관: 南大 丁字路 22호.
TEL(09473)22337
둔황빈관: 東大 1호.
TEL(09473)22415,22538
사로빈관: 東大 2호.
TEL(09472)23807
금엽빈관: 嗎沙路 37호
TEL(09473)21470

* 이번호로 단기 선교여행 코스를 마칩니다. -편집자 주

둔황막고굴 북대전 7층 누각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유재승/ 배재대학교수 · 천지여행사 부사장

중국인의 무속관념

이민선

무속과

신화란 인류가 세계를 어떻게 독특하게 표현하여 상징하고 있는지, 또한 그들만의 독특한 신화적 사유방식이란 어떤 것인지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이것은 일방적인 인간 본래의 모습을 구현하는 것이며, 과학적인 사고와는 다르다.

우리 삶의 배경이 되는 천지만물(天地萬物)은 초자연성과 초인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마치 인간과 유사한 활동을 갖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 이를 인간의 삶과 관련지어, 때로 친밀하게 생각하여 인격화하는 속성이 드러났다. 또한 공존성이 있어, 신화를 지지하는 관념과 신앙이 내면세계에서 겉으로 표출되는 생활방식 등에 현저히 드러난다.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줄곧 사회학자나 인류학자들은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난 무속의 가치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성 짙은 생활의 여러 현상

인간의 원시적인 관념과 신앙이 원시사회의 생산력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인식수준도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사람들은 그들 특유의 직관성(直觀性)과 경험으로 객관적 물질세계와 물질세계 밖의 초현실, 초자연의 힘은 서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해서 무속활동은 자연 생산활동과 생활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중요한 생활이 되었다.

원시인들은 무속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초자연력(혹은 神)이 인간 세상에 내린 사자라고 생각했다. 해방 이후 중국의 소수민족 지구에서는 적지 않은 벽화 고적들을 발견하였는데, 헤이룽장(黑龍江) 어원커(鄂溫克)의 암화(岩畵)와 네이멍구차허(內蒙古岔河), 간쑤(甘肅) 장자촨(張家川)의 흑산암화(黑山岩畵), 칭하이(青海)의 롱거우(龍溝) 등 모두가 중국의 옛민족이 활동한 지역으로, 집단 수렵생활 무속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무속의 집단적인 성질은 약해졌고, 일부 현대 종교와 섞이거나 많은 봉건 미신으로 민간에서 유전되고 있다.

전통적인 주술, 바이(白)족의 횃불절

무속은 매우 복잡한 사회 문화현상인데, 하나의 집단적인 활동으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변형시켰으며, 강제 수단 및 일정한 의식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초자연적

하북농가에서 신봉하는 全神

我再買五張明信片。/ Wǒ zài mǎi wǔ zhāng míngxìnpiàn.
(워 짜이 마이 우 장 밍신피엔.) 엽서 다섯 장도 더 사겠습니다.

인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생활 가운데에도 뿌리 깊게 무속신앙의 모습들이 남아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주술과 무속비의(巫俗比擬), 저주, 주문, 점복(占卜), 점치기 등이 있다.

농업민족 가운데 바이족의 횃불절은 대체로 원시적인 주술무속이 변화되어 온 것이다. 음력 6월 25일에 모든 사람들이 중앙에 집결하여 큰 횃불더미를 세워놓고, 여러 가지 채색 띠로 횃불을 매어 횃불 주위를 장식한다. 각자 집에서 준비해온 작은 횃불을 지펴 주위를 밝게 만든다. 즉, '불빛으로 농작을 빈다'는 의미로, 횃불로 벼싹을 밝혀 추수의 풍작을 기원하는 것이다.

접촉주술은 일정한 매개물을 통하여 주술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인데, 보통 머리칼, 손톱, 옷 등 적(敵)이 사용하였던 물건을 가지고 그 물건의 주인처럼 다루어 저주하게 된다. 유감(類感)주술은, 이와 반대로 몸의 질병을 주술의 힘을 빌어 쫓아내는 방법이다. 하이난다오(海南島)의 리(黎)족은 병에 걸리거나 불행한 일이 닥치면, 조상 귀신 등을 청하여 가축을 죽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

허난(河南)성 왕강(王崗)에서 양소문화(仰韶文化) 말기의 점복 치는 뼈를 발견했는데, 주로 동물의 뼈와 갑골문이나 금문 등의 회의문자(會意文字)를 풀어 길흉을 알 수 있도록 점복을 치기도 한다.

제사는 특히 무당의 주요 직무로서, 신이나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생산활동에서 큰 일을 차지했다. 윈난(雲南)성의 지눠(基諾)족은 천신(天神), 지신(地神), 산신(山神) 및 풍수의 신선, 수렵의 신선들을 숭배한다. 매년 제사활동이 많아 천신한테 제사하는 것만도 세 차례나 된다. 와(佤)족의 '나무북 옮기기'와 '소꼬리 자르기'는 비교적 큰 집단적 제사에 속한다. 주문을 외고 큰 나무를 베어 나무북을 만들고, 소를 죽여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 와족의 창세사인 "시강리(西崗里)"를 읊는다.

여러 가지 부적들

부적은 읽기 어려운 그림 문자인데, 집안에 붙여서 귀신을 쫓거나 몸에 지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적은 인생의 모든 면에 사용되고 있으며, 부적이나 호부는 보통 붉은 색이나 노란색 종이 띠에 글을 쓰거나 인쇄하여 문과 담벼락에 풀로 붙인다.

소회탄부(燒灰呑符)는 재를 삼키는 부적인데, 악귀에 대항하는 주문을 노란 종이 위에 써서 태운 다음, 그 재를 물에 타서 삼키는 것이다. 사람이 차고 다니는 것도 있지만, 알갱이로 만들거나, 재로 만들어 영약처럼 삼키는 것이다.

종이 부적들 가운데 기묘한 그림이나 상징적인 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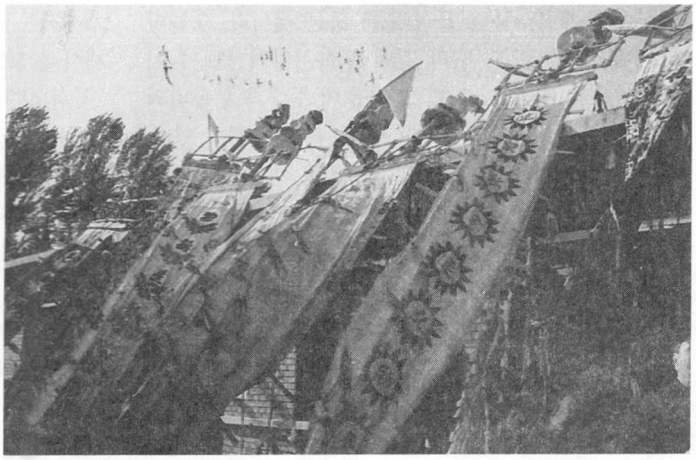
라마교의 푸자(굿놀이)

這封信寄到東京要一個星期。 / Zhè fēng xìn jìdào dōngjīng yào yí ge xīngqi.
(쩌 펑 신 지따오 둥징 야오 이 거 싱치.) 이 편지가 동경에 도달하는 데는 1주일 걸립니다.

가 담긴 것도 있지만, 때때로 몇 개의 오래된 청동이나 동전을 칼의 형태로 꿰어 중앙에 쇠조각을 대고 똑바로 만든 다음 그것을 침상이나 머리맡에 두어 그 동전이 주조된 당시, 힘세고 강하게 통치했던 군주가 나타나 악령들을 막아 주기 바라는 것이다.

백가쇄(百家鎖)는 '백가구의 자물쇠'라는 뜻을 가진 부적인데, 이것은 친구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각각 다른 1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서너 개의 동전을 얻어내어 자물쇠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자신의 어린 자녀의 목에 걸어 주는데, 그 이유는 어린 자녀가 생명의 세계에 거하는 동안 일백 명의 사람이 자녀가 노인이 될 때까지 그의 보증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어린이는 물론 여성들도 이와 유사한 부적을 차고 다니는데, 이것은 경권쇄(頸圈鎖)라고 하는 목걸이 자물쇠이다.

그 밖에 '호랑이 발톱(虎爪)'이나 '복숭아 돌의 부적(桃符)'은 악령에 대한 강력한 액막이로 여기고 있다.



그림(上) 음력설 신을 영접하는 축제에서 사용하는 깃발
그림(下) 절강 금화 요촌(姚村)의 용을 영접하는 의식에서 사용하는 도구

중국 민간에 흐르는 자연 숭배 사상

제일 처음 종교의 표현은 자연현상과 일기의 변화에 따른 경축활동이 자연숭배로 옮아갔다. 주로 일월성신에 대한 숭배가 푸미(普米)족에게서 보이고 있고, 나씨족은 태양을 대표한 불을 섬기는데 부뚜막신 '잠바라'를 모시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는 대체로 토지에 대한 숭배가 큰데, 이것은 자연에 대한 숭배이기도 하다.

중국 민간에서 뿌리깊은 생활 문화로 자리한 재신(財神), 복신(福神), 불(火)신 등 갖가지 이름으로 중국인들 스스로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키며, 발전시킨다고 생각하는 근원적인 힘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중국에서는 매번 춘절을 맞이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재신(財神)'을 만나려고 애쓴다. '재신'이 원보(圓寶)를 먹고 나서 재물을 듬뿍 내려주기를 원하는 미신적인 무속신앙이 중국인들의 생활 문화를 낳은 것 중 대표적인 것이다.

허베이(河北)성, 허난(河南)성 할 것 없이 농가에는 갖가지 모양의 주문을 적은 위패를 천지신에게 바치고, 주택 안에 작은 신당을 꾸며 놓고, 조상신을 섬기고 있다. 왠만한 한족(漢族)들이 삼국지의 인물인 관우상(關羽像)에 절하는 모습이나 중국인들이 일월신, 토지신, 재신, 부엌신을 섬기는 것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소수민족들에게서 주로 발견되고 있는 선조(先祖)나 선조모(先祖母) 등의 신인(神人)에게 제사하거나 본 민족의 창세사를 읊고, 조상의 공적을 서술하고, 후대로 하여금 번성하고 오곡의 풍작을 기원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雅俗文化書系, 『神文化』 黃盛華 編著 中國經濟出版社
『中國民俗學의 理解』, 陶立璠 著/ 金宗植 譯, 집문당
『중국문화 중국 정신』, C.A.S. 윌리암스 지음 · 이용찬 외 공역, 대원사

이민선/ 본지 편집기자

請問, 寄到南京的信要貼多少錢郵票?/ Qǐngwèn, jìdào de xìn yào tiē duōshao qián yóupiào?
(칭원, 지따오 난징 더 신 야오 티에 뚜오샤오 치엔 요우파오?) 실례지만, 남경에 부치는 편지는 얼마짜리 우표를 붙여야 하죠?

중국은 지금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 중국 동향

종교 · 선교

조선족 통한 식량공급 차단

북한이 최근 중국 옌볜(延邊)과 투먼(圖們) 등지를 통해 중국 조선족이나 국·내외 기독교단체가 지원하는 식량 루트를 사실상 차단해 북한 주민들의 식량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중국 조선족자치주 내에는 올해 초부터 '김정일 타도조직 중앙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동북3성 기독교인, 남한의 기독교단체가 연대해 김정일을 타도해야 한다'는 괴유인물이 나돌고 있으며 이는 북한내에 기독교 세력의 확산을 두려워 한 북한당국이 흑색선전으로 만든 유인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국민.98.8.19)

"중국선교 이렇게…" 이색모델 제시

IMF난국으로 해외선교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조선족자치주의 옌지(延吉)와 투먼(圖們) 시장이 "시 지역에 있는 양로원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면 양로원을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김 사무총장은 두 시장이 "중국에 교회당을 설립하는 것은 중국정부가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는 사안"이라면서, "한국 교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무료로 예배드릴 수 있는 양로원의 운영비 지원을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국민.98.8.25)

정치 · 군사 · 외교

[중국-대만] 첫 합작사업…광둥(廣東)성 인근해서 석유시추

타이완(臺灣)과 중국은 양국간 첫 합작사업으로 중국 대륙 연안에서 공동 석유시추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타이완의 한 관계자가 밝혔다.

타이완의 중국석유공사(CPC) 관계자는 CPC와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이 프로젝트에 각각 45만 달러를 투자하고, 광둥성 주장 입구 동남쪽 1만5천4백㎢에 걸친 해역에서 공동시추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98.8.19)

중국 前개혁파 등 34인 法治강화 민주화 등 촉구

중국에서 89년 톈안먼(天安門)사태이후 처음으로 민주화와 정치개혁의 가속화를 요구하는 논문집이 '정치개혁'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간됐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베이징(北京)發(발)로 보도했다.
(문화.98.8.20)

개혁, 국유기업-공무원 정리 난항

중국의 당정 지도부는 최근 양쯔(揚子)강 중남부와 동북지방 쑹화(松花)강 유역을 한꺼번에 강타한 금세기 최대의 대홍수와 동남아시아 금융위기 여파로 야기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대대적 개혁정책을 재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베이징(北京)의 외교소식통들이 밝혔다.
(문화.98.8.24)

中좌파, 장쩌민(江澤民)의 對美외교 비난

마오쩌둥(毛澤東) 노선을 추구하는 중국의 급진적 좌파 지도자들은 빌 클린턴 美 대통령의 지난6월 訪中과 관련,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 겸 당총서기가 미국에 굴복했다고 비난하면서 장 주석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고 홍콩 스탠더드紙가 보도했다.
(서울.98.9.01)

2008년올림픽 유치에 나서기로

중국올림픽위원회(COC) 위샤오주(伍紹祖)위원장은 톈진완바오(天津晩報)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올림픽 유치전에 다시 한 번 나설 것" 이라며 "그 목표는 2008년 하계올림픽"이라고 올림픽 유치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98.9.01)

中.타이완 지도층서 헤지펀드 동향에 촉각

중국, 홍콩, 타이완(臺灣) 등 중화권이 국제투기세력인 헤지펀드 단속에 나선 가운데 중국의 주룽지(朱鎔基) 총리가 홍콩과 헤지펀드 간의 증시 대결 상황을 직접 관장하고 있고 타이완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이 선봉에 나선 것으로 보도됐다.
(중앙.98.9.02)

中회사, 퇴역 항모 민스크 한국서 구입

중국의 한 회사가 러시아가 한국에 고철로 판매한 퇴역 항공모함 민스크를 사들인 것으로 밝혀져 중국이 이를 군사력 증강에 이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홍콩의 애플 데일리紙는 20년 된 4만3천t급 항모 민스크가 중국 고위 군사령관의 자제들이 활동무대로 삼고 있는 중국 남부 동관市 인근에 정박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국.98.9.03)

中, 지방정부의 중앙노선 적극 동참 방안마련 착수

중국 지도부는 올해 8%의 경제성장 목표 달성과 대홍수 피해복구와 관련, 지

방정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했다고 홍콩신문들이 보도했다. 지역 이기주의를 타파, 중앙 차원에서 지방을 장악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98.9.04)

中, 유엔의 對北제재 반대

중국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의 對北제재에 반대하고 있다고 베이징(北京)의 외교관들이 밝혔다. 중국은 북한과 보조를 달리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북경에 주재하는 한 아시아 외교관은 말했다.
(한국.98.9.09)

韓.日.中 내달 '의원 국제농업회의' 창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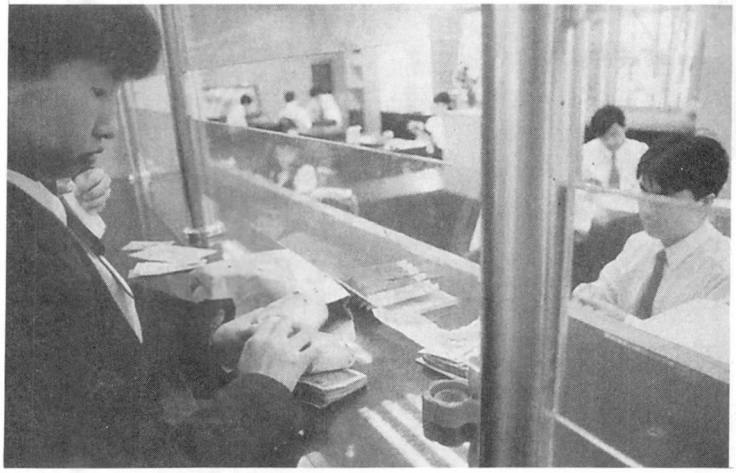
한국, 일본, 중국 등 3국 의원들은 오는 2000년 세계무역기구(WTO) 재협상에 대비, '국회의원 국제농업회의'(가칭) 창립총회를 오는 10월 서울서 개최키로 했다고 김영진(金泳鎭)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이 밝혔다. 서울 창립회의에는 ▲아시아지역 농업의 다면적 기능, 식량안전보장, 환경보전 등에 대한 배려 ▲수출보조금에 관한 수출국과 수입국의 불평등 시정 ▲관세화의 특례조치 적용 등을 협의, 미국, 캐나다 등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金의원은 전했다.
(서울.98.9.09)

경제

홍수로 韓-日철강업계 판로확대

중국 양쯔(揚子)강의 홍수로 중국 국내의 상당수 금속산업이 마비 상태에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제강업체들이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프랑스의 경제전문 라 트리뷘지가 국제 금속시장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라 트리뷘은 양쯔강의 대홍수로 중국 내 제강업체의 약4분의1이 원료인 철광석이나 석탄을 공급받지 못해 가동 중단 상태에 있으며 이같은 상태가 수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문화.98.8.15)



중국 지도부는 아시아의 전반적 금융위기 속에서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홍콩 경제상황을 검토하고 있다.

'스마트카드' 내년 본격 도입

중국 당국이 내년에 컴퓨터 칩이 내장된 '스마트 카드'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어서 이 나라의 거대한 신흥 소비자 시장이 이 첨단 지불 수단의 야심적인 실험장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인민은행은 내년에 1백50만-2백만장의 '스마트카드'를 발행할 계획이다.
(조선.98.8.24)

보험 국가독점 해제

중국은 개혁 방침에 따라 보험업을 독점해 온 국영 중국인민 보험공사(PICC)를 해체할 계획이라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3년 전에 설립된 인민보험공사는 생명보험, 재산보험, 재보험 등 3개사로 각각 독립하고 당국은 보험규제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이다. 당국은 또 정책적 차원에서 농업보험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보험약정금은 연간 1천87억 위안(元.130억 달러)에 이르며 연간 4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세계은행은 금세기 말에는 그 규모가 2천4백억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앙.98.8.26)

홍콩특구 정부 증시개입 지지

중국 지부도는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증시 개입과 관련, 이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다고 홍콩의 명보가 베이징(北京) 소식통들을 인용, 보도했다. 지도부는 아시아의 전반적 금융위기 속에서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홍콩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국제 헤지펀드들의 공략을 물리치기 위해 홍콩특구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이용해 증시에 개입한 조치를 지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선.98.8.26)

지도층서 위안화 평가절하 견해 부상

중국은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의 환율 '1달러=1백 50엔'을 위안(元)화 평가절하의 한 기준으로 보는 견해가 지도층 내부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共同)통신이 중국의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엔화약세로 인해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고 일본의 對中(대중)투자가 줄어들면서 중국 국내기업들의 반발이 강해지고 있는 점을 그 배경으로 꼽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문화.98.8.27)

'뉴딜정책' 추진…소비진작 등 9개정책 제시

중국 정부가 양쯔(揚子)강 대홍수로 인한 국가위기를 경제발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중국판 뉴딜정책]을 하반기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수요를 진작하고 기초건설에 투자하기 위해 10년 장기국채를 발행해 부족

您奇平信還是掛號信? / Nín jī píngxìn háishì guàhàoxìn?
(닌 지 핑신 하이스 꽈하오신?) 일반우편으로 부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등기로 부치시겠습니까?

한 투자재원을 보충할 계획이며 홍수방지와 수리시설 개선, 홍수지역의 교통통신 기초시설 건설, 식수조림사업 등에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고 한다.
(조선.98.8.30)

홍콩, 제2 證市 개장 모색

홍콩 증권거래소는 경쟁력을 제고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로 제2의 주식시장을 설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마련할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제2 증시가 개장될 경우 홍콩 증권거래소의 12년 간에 걸친 독점은 종식된다.
(한국.98.9.03)

中, 보유외환 대거 유로貨 전환 가능

중국은 앞으로 달러貨 가치가 떨어지면 보유 외환 중 상당액을 유럽에서 단일화폐로 발행될 유로貨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관영영자紙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했다. 국가개발계획위원회 소속 경제학자 왕젠은 내년 1월 1일부터 유로貨가 도입되면 美경제의 "거품"이 빠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중국의 외환보유고 구성비를 달러 40%, 유로 40%, 엔 20% 등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98.9.04)

홍수 경제손실 2백11억 달러, 국가예산 16%

지난 6월 말부터 중국 중부를 휩쓴 대규모 홍수로 국가예산의 16%에 해당하는 1천7백억 위안(元.미화 2백11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초래됐으며 2억2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중국 정부가 밝혔다. 또 홍수에 따른 사망자는 3천4명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홍수까지 겹침으로써 올해의 경제성장 목표치 8%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98.9.07)

사회

중국 최대 따칭유전 넌강 홍수로 위협

중국 동북지방 헤이룽장(黑龍江)성 서부를 흐르는 넌(嫩)강 제방이 무너져 중국 최대 따칭(大慶)유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따칭시 도르보드 몽골족 자치현 내의 넌강 주제방이 무너졌으나 인원부족으로 물막이 작업을 포기했다면서 다칭시 주민 2만여 명이 대피했다고 전했다.
(국민.98.8.15)

中 언론단체, '권리.이익수호협회' 결성

중국 정부가 언론인들의 취재.보도 범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언론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단체가 결성됐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최근 한 공장 사장의 부패 사건을 보도한 뒤 명예훼손 혐의로 제소된 공인일보의 왕 샤오-룽 부총편집(편집부국장)은 영문 일간 차이나 데일리지와의 회견에서 "심층 보도 등 부조리 사건등을 다룰 때마다 불안감을 느낄 때가 많다"면서 언론인 권리수호 단체 결성 배경을 설명했다.
(조선.98.8.20)

중국, 검찰 내부사정서 검사 수천 명 해임

중국정부는 지난 7개월 간 전국적으로 벌인 사정작업 결과 7만여 건의 부패및 직무유기 사례를 적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지도자급 인사만도 1천1백26명이 연루됐으며 검찰 내부 사정 결과 검사 수천 명이 해임되고 7백56명이 징계조치되는 등 사법부 관계자들도 "전례없는" 대격동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98.8.26)

[중국] 위구르 자치구에 6.6도 지진

중국 서북부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 쟈셔현에서 지난 8월 말 6.6도의 강진이 발생, 수많은 가옥이 파괴됐다고 베이징(北京)일보가 보도했다. 이번 지진으로 쟈셔 인근 13개 향진이 피해를 입었으며, 가장 피해가 큰 워리투오후라크(와리탁호납극)향은 수많은 노후 가옥들이 무너지거나 파괴됐다고 전했다. 인명피해에 대해 중국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으나, 적지 않은 사망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선.98.8.28)

양쯔강 유역에 대규모 식목사업 벌이기로

중국 정부는 양쯔(揚子)강 유역이 무분별한 벌목으로 큰 홍수피해를 입음에 따라 식목과 토양보호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원자바오(溫家寶) 부총리는 중앙정부는 수자원관리와 환경건설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차이나 데일리지는 원 부총리의 말을 인용, 이 프로젝트는 주요 수로주변에 대한 재조림사업에 집중될 것이며 강과 호수들은 유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래의 규모로 복구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98.8.28)

인터넷 전자신문-방송 구축 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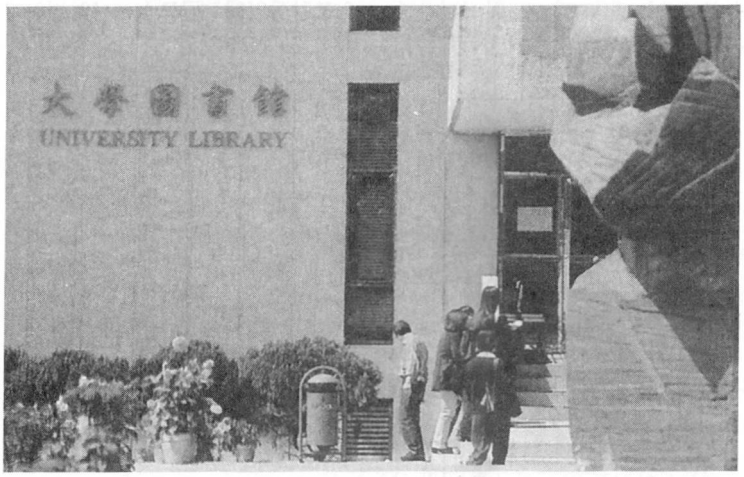
런민르바오(人民日報)와 중앙방송(CCTV)을 비롯한 중국의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인터넷 전자신문과 방송의 구축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약 2백여 개의 신문과 방송이 자사 사이트를 개설, '왕민(網民)'으로 불리는 1백여만 명의 네티즌들을 독자나 시청자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중국의 네티즌은 연 평균 30%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인터넷 전자신문이나 방송의 구축은 더욱 확대일로로 치달을 전망이다.
(문화.98.8.31)

中반체제 인사, 노동수용소 철폐 촉구

중국 반체제 인사 100여 명은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 고등판무관에게 재판 없이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야만적인 중국의 '노동수용소' 제도를 철폐하도록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반체제 인사들은 공안 당국이 자의적으로 재판 없이 최고 3년 간 인신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수용소 수감 제도는 수감 전에 재판을 받을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고 중국 헌법을 위반하는 야만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국.98.9.06)

중국, 지난해 1천8백여 명 사형

중국은 지난 해 최소 1천8백76명을 처형했으며 이는 전세계 나머지 국가들에서의 처형자 총수보다 많다고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가 밝혔다.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사면위는 중국의 지난해 처형자수가 96



중국은 저장성에 있는 4개 대학을 합쳐 세계 최고 의과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년 보고된 4천3백67명보다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96년은 중국의 反부패운동이 정점에 달했던 특히 가혹한 시기였다면서 중국정부의 정책이 변화화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국제사면위가 중국의 사형 집행자 수를 발표할 즈음에 남부 푸젠(福建)성에서 여성과 어린이 인신매매죄로 7명을 추가로 사형에 처했다고 중국 관영 법제일보(法制日報)가 보도했다.
(서울.98.9.08)

중국 浙江省 내 4개대학 합병

중국은 저장(浙江)성에 있는 4개의 대학을 합쳐 세계 최고의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紙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판 윈허 저장대학 총장의 말을 인용, 항저우(杭州)대학과 저장 의과.농업대학이 다음주에 저장 대학과 합쳐진다면서 이번 합병은 저장대학을 세계최고의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98.9.08)

한·중 관계

'한국여권' 밀매급증

중국에서 거액을 받고 한국 여권을 밀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중 연계 브로커들이 한국에서 여행객을 중국으로 유인하는 [조직적 여권밀매]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는 16일 {올 들어 하루 평균 3~5건의 여권분실신고가 접수되고 있는데, 이 중 절반 가량은 분실상황이 의심스러운 것들}이라며 {이런 경우 대부분은 한국인 여행자가 여권을 중국인 브로커들에게 고액을 받고 밀매한 뒤, 대사관에는 분실신고를 내 중국에서 밀매된 한국여권은 사진 등을 교체해 조선족이나 중국인들이 한국이나 일본 미국 등으로 불법입국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대사관측은 밝혔다.
(조선.98.8.16)

韓中 수교6년-180도 바뀐 中

韓·中(한·중)수교 6년.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한국은 괜찮은 이미지의 국가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위상은 언급하기조차 민망할만큼 가라앉고 있다. 세계11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저력과 대대적 對中(대중)투자가 아주 화려하게 비쳤지만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 그렇듯, 그 실상을 알고 보니 거품 경제의 결과라는 부정적 인식이 중국인들 사이에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98.8.22)

中國 화물 김포공항 '점령'

한국수출품이 공항에서 급격히 퇴출되는 반면 수출에 호조를 보이는 중국이 자국제품을 한국비행기에 실어 해외로 수출하는 중계무역량을 늘리며 김포공항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국내 항공사와 운송업체들도 이같은 시류에 맞춰 중국 현지영업을 강화, 수출대행으로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 '시앤드에어(Sea & Air)로 불리는 이같은 운송대행업체는 10여 곳이 성업중이다.
(문화.98.8.22)

中훈춘 장애인학교 건립후원 원불교 박청수교무

원불교 강남교당 박청수(朴淸秀. 61)교무가 중국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시의 장애아 특수교육학교 건립 후원자로 나섰다. 훈춘특수교육학교는 옌볜자치주 8개 시·현 가운데 유일한 종합특수초등교육기관으로 4천㎡의 대지에 건평 1천㎡ 규모로 건립되었다.
(문화.98.8.22)

남북차관급회의서 백두산개발 논의

지난 10월 남북한 차관급 경제관료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만나 백두산 관광개발계획을 논의하였다. 참가국들은 속초-나진 카페리호 운항과 관련, 여행객들의 신변안전 보장과 국적기 게양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경부 관계자는 두만강개발회의가 몽골에서 개최되는 것은 사실이나 백두산 관광개발계획 등 구체적인 의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98.8.25)

[한진] 중국 내 육-해-공 수송망 구축 나서

한진그룹이 중국 내 육해공 종합수송망 구축에 나섰다. 한진그룹은 {대한항공이 지난8월27일부터 서울~상하이(上海)간에 70t급 MD-11F화물전용기를 주1회 정기 운항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상하이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중국의 톈진(天津), 따롄(大蓮) 등지에 정기 화물노선을 추가 개설, 이 지역 물동량을 선점해나갈 계획이다.
(조선.98.8.27)

겨울 '중국제' 대기오염물질 국내 발생량의 2배

겨울철 중국에서 넘어오는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양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

這封航空信寄到倫敦貼一塊錢郵票夠嗎?/ Zhè fēng hángkōngxìn jìdào Lúndūn tiē yí kuài qián yóupiào gòu ma?
(쩌 펑 항콩신 지 따오 룬둔 티에 이 콰이 치엔 요우파오 꺼우 마?)
이 항공우편을 런던에 부치는데, 1원 짜리 우표를 붙이면 됩니까?

다. 한국과학기술원(KIST)이 환경부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겨울철 중국에서 바람을 타고 국내 유입되는 아황산가스가 시간당 3백-3백40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98.8.27)

중국,자국산 농산물 수입확대 강력요구

방한중인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리우산짜이(劉山在) 부장 일행은 한덕수(韓悳洙)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통상회담을 갖고 92년 양국 수교이후 계속되고 있는 대한 무역적자의 개선을 위해 옥수수 등 중국산농산물의 수입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외통부 당국자가 밝혔다.
(국민.98.8.27)

북경 호치민 한국국제학교 개교

교육부는 중국 북경과 베트남 호치민에 국내 학교와 동일한 학력을 인정해주는 초중과정 한국국제학교의 설립을 인가, 개교하였다. 북경 및 호치민학교에는 각각 2백26명, 82명의 초중등생이 입학할 예정이다. 이들 학교는 본국과 같은 정규교육과정을 밟게 되며 방과후와 주말을 이용한 모국어 한국문화강좌 등 모국 이해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동아.98.8.29)

韓-中 통신장관회담 개최

제7차 韓-中 통신장관회담이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다. 裵洵勳 정보통신부 장관은 중국 우지추안 정보산업부장과 韓-中 통신장관회의를 갖고 양국간 정보통신 협력증진방안을 논의하였다. 정통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간 초고속 통신망구축사업과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등 국가정보화 분야의 협력확대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동아.98.8.29)

'십자가대행진' 백두산 올랐다

부산 판문점 평양(PPP) 98 한일십자가 대행진단은 지난 8월 말 중국을 경유, 백두산에 올라 통일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 행진단은 천지에서 "남북통일 및 한·일화해, 동서화합을 위한 기도문"을 발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남북한 및 일본땅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40일동안 십자가를 지고 남한 전역을 행진한 행진단은 당초 계획했던 평양방문이 북한측의 무성의로 무산되자 통일을 향한 상징적 표현으로 백두산을 등정했다.
(국민.98.8.31)

양쯔강담수, 제주해상에 접근…어패류 집단폐사 우려

중국 양쯔(揚子)강 대홍수로 인한 민물이 제주도 남서쪽 64마일 해상까지 접근한 것으로 조사돼 어패류의 집단폐사가 우려된다. 제주지역 저염분수 합동관측팀에 따르면 남제주군 모슬포 남서쪽 10마일 해상에서 연안수의 유입경로 및 염분농도를 측정한 결과 이 지역의 염분농도가 28.7퍼밀리로 떨어졌다. 이같이 염분농도가 수산생물의 폐사위험수위에 접근하자 합동관측팀은 "염분농도가 낮은 물이 마을 어장까지 유입될 경우 상황실을 설치한 뒤 양식 어패류를 안전지역으로 옮기고 육상수조의 사육수를 지하해수로 교체하는 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98.8.31)

중국 랴오닝省 한국백화점 개점

중국 랴오닝(遼寧)성 판진(盤錦)시에서 9월 말 한국백화점이 문을 열었다. '韓中개발'(대표 전승범)은 중국 랴오허(遼河)유전 지역의 자치도시인 판진시의 국영백화점인 '판진인허쌍샤(盤錦銀河商厦)'의 4층 매장을 2년간 임대하기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판진시 중심부에 위치한 이 백화점 4층은 1천여 평 규모로 50여개 한국 업체가 입주할 수 있으며 매출의 32%를 임대료로 중국 정부에 주게 된다.
(한국.98.9.05)

中, 駐 선양 한국 영사관 개설 지연

중국은 한국의 재외동포지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駐선양(瀋陽) 한국영사관의 개설 승인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홍콩의 명보(明報)가 한국정부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베이징(北京) 당국은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의 지위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이는 중국내 조선족을 선동할 우려가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동아.98.9.06)

한·중 국제여객선 승객 급감

한·중 국제여객선 승객수가 크게 줄었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8월 한달간 6개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한 승객은 1만9천6백7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1% 줄었다. 내국인 여행자는 1만3천1백31명으로 작년보다 33%, 중국인(조선족 포함)은 1천3백명으로 53% 감소한 데 비해 대만인은 4천8백74명으로 4% 증가했다.
(조선.98.9.07)

韓-中간 컨테이너 운임 덤핑 경쟁

한국-중국간 컨테이너 수송 업체들간에 제살깎기식 덤핑경쟁이 심해져 일부 업체들의 부도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한-중간 수출입 물동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컨테이너 운임도 공식요금 이하로 크게 내려가 업체들간의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곧 운임 실태 조사에 나서 해당 업체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98.9.09)

중국인 관광객 위해 화교를 통역으로 육성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거주 화교들이 관광통역안내원으로 양성된다.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를 위해 9월달부터 연말까지 여행업계에 종사하는 화교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관광통역안내원 교육을 실시, 일정 성적 이상으로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관광안내원 자격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98.9.10)

정부,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이전 복원 계획 추진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申樂均 문화관광부 장관은 "상하이시정부가 상해 총영사를 통해 임정청사를 비롯,주변 건물들이 너무 낡아 재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측과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 재개발 시기와 추진방법, 비용부담, 상업지구 전환 시 재개발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반대급부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98.9.10)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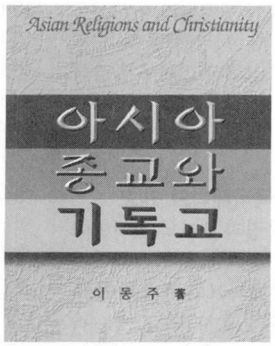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소중한 사람들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수년 동안의 준비와 훈련을 거쳐 파송된 선교사들이 중도에 사역을 포기한다면 이는 큰 문제이다. 세계복음주의협의회(WEF)가 1992년부터 1994년까지 14개 국가를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8명에 한 명꼴(5.6%)로 탈락선교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가운데 개인적 사유, 가족문제, 단체 및 사역문제, 문화적 문제 등 사전 예방이 가능한 요소들이 문제가 돼 탈락되는 비율이 70%를 상회한다는 것이다.

죠이선교회 출판부가 최근 발행한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은 현재 세계선교계의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인 선교사 관리와 중도탈락의 상관관계를 밝힌 흔치 않은 보고서이다. 선교사 허입, 훈련, 후원과 중도탈락의 관련상황을 각종 조사 자료, 국가별 통계, 선교전문가들의 논문을 통해 자세히 밝히고 그 대안을 제시, 선교행정가는 물론 선교관심자에게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죠이선교회 출판부 간, 윌리엄 테일러 편집, 백인숙 등 번역, 358쪽, 값 1만 3천 원

아시아 종교와 기독교



모든 종교의 배후에는 하나의 절대자가 있고 모든 종교는 동일한 신을 섬기고 있다는 막연한 전제를 가지고 현재 급성장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 신학은 21세기 탈현대적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종교다원주의 사상은 아시아 문화와 종교들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아직 아시아 문화와 고등 종교들에 관해서 깊이 있게 통찰하지 못하고 있다.

본서는 세계선교에 강력한 도전이 되고 있는 아시아 종교들을 관찰하면서 선교신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 탐색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세계선교의 근거를 제시하며 복음의 올바른 토착화를 위하여 준비한 하나의 기초작업이다. 그러나 토착화 신학과 상황화 신학을 올바로 수립하려면 복음을 타종교 문화권에 전달할 때에 왜곡되지 않도록 번역해야 하고 그래서 다원적인 문화 속에 유일하고 절대적인 복음을 전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저자는 역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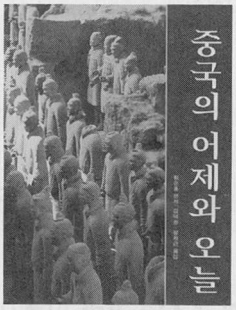
기독교문서선교회 간, 이동주 저, 317쪽, 값 9천 원

這封信超重五克, 要貼一塊四毛錢的郵票。/ Zhè fēng xìn chāozhòng wǔ kè, yào tiē yí kuài sì máo qián de yóupiào.
(쩌 펑 신 차오중 우 커, 야오 티에 이 콰이 쓰 마오 치엔 더 요우퍄오.)
이 편지는 5g을 넘었어요. 1원 40전 짜리 우표를 더 붙여야 합니다.

신간도서

중국의 어제와 오늘

왕순홍 편저 · 정차근 · 김덕환 옮김 384쪽 · 11,000원 · 평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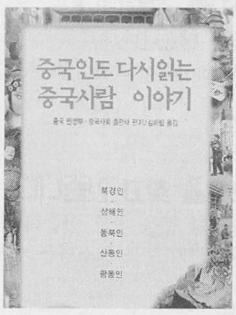
『중국개황』이라는 제목으로 중국에서 처음 출판된 이 책은 말 그대로 중국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중국이란 나라가 지리적으로 어떠한 나라이며, 역사 · 사회 · 문화 · 정치 등 여러 방면을 통해 중국에 관해 전면적이고 개괄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본서는 현 북경대학교에 재직 중인 왕순홍 교수가 중국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외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의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유학생들을 위해 편찬된 것인 만큼, 본서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나, 중국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관련서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그리고 쉽게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해시키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본서는 14장에 걸쳐 중국의 역사, 인구, 민족, 정치, 경제 등 전반적인 것을 다루고 있다. 각 항의 주제를 논리 정연하고 통속적인 논조로써 각 관련 지식들을 조명하였고, 중국인의 입장에서 본 중국의 어제와 오늘의 총체적인 모습을 책 전체에 담아내었다. 무엇보다도 평이한 언어로 씌여진 본서는 중국에 관해 문외한이거나, 중국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중국이란 나라를 정확히 이해하는 충분한 디딤돌이 되어 줄 것이다.

중국인도 다시 읽는 중국 사람이야기

중국 민정부 중국사회출판사 편저 · 김하림 옮김 392쪽 · 9,500원 · 에디터



중국은 지역에 따라 기후와 지형의 격차도 크기 때문에 역사적 경험과 문화의 수용에도 현격한 차이가 나 사람들의 기질, 관습, 성품 그리고 사고방식도 다르다. 이 때문에 현대 중국의 문학가이며 개혁 사상가인 노신(魯迅) 조차도 "북방인의 장점은 중후함이오, 남방인의 장점은 기민함이다. 중후함의 폐단은 우둔이오, 기민함의 폐단은 교활이다."라고 분석, 지역적 특성을 지적한 일이 있다.

한국과 중국은 5천 년의 역사를 이웃해 접해 오고 있고, 한국인들은 『삼국지 연의』 같은 소설도 많이 읽기도 하지만, 실제로 중국인의 인문적 환경과 품성에 관해서는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은 지금 개혁 개방의 시류를 타고 21세기는 '중국의 시대'라는 기대와 발전에 고무되어 활발한 경제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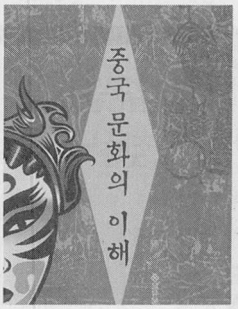
원제 〈한화 중국인(閑話中國人)〉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은 그들이 개혁 개방을 맞아 각 지역민들의 약점과 결점을 분석하고 비판하며 '새로운 중국'건설을 위해 각 지역민끼리 서로 배우고 상통하기 위해 편찬된 것으로 외국인에게도 중국의 올바른 면모를 이해하는 데 커다란 참고로 제공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 지나치게 거시적으로, 혹은 전체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연구해 왔다고 보여진다.

최근 개혁 개방에 따라 한국의 기업가들이나 문화 교류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진출 중이나 중국을 이해하자면 먼저 그들의 지역적 기질과 합리적 인간관계를 잘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

이 책은 중국인들이 오랫동안 스스로 풀이한 중국 사람들의 이야기로서 중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필독서라고 보여진다.

중국문화의 이해

김원중 지음 410쪽 · 15,000원·· 을유문화사



중국 문학을 공부하거나 문화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계속되는 질문이 있다. 그것은 바로 '문화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마땅한 답변을 하기 위해 중국 문화를 찾아가는 것이 저자가 이 글을 쓴 동기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중국문화의 개념과 특징, 중국문화의 사상적 토대-철학, 중국문화의 내세적, 현세적 지향-종교, 중국 문화의 심미적 표출-미술, 중국문화의 언어적 표현-문학 등 크게 5장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전반적인 내용은 다소 학술적인 접근으로 서술되었기 때문에 다소 딱딱한 느낌을 준다.

이 책의 특징은 각 장의 장르마다 역사적 흐름을 중심으로, 시대적 변화와 문명의 발달로 인해 지나간 세대의 중국인들의 정신적, 물질적인 관념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교편에서는 중국 문화의 내세적, 현세적 지향을 주제로 하여 유교, 도교 및 여러 종교들과 조상숭배 의식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인상적이다.

선교단신

인터콥 '99 선교캠프

2천년을 한 해 앞두고 새로운 출발을 소망하는 가운데, 회복과 경건한 삶의 부흥이 있는 선교캠프를 실시한다.

주제: 회복, 경건, 비전
장소: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일시: 98년 12월 31일(목)부터 99년 1월 2일(토)까지
주강사: 최바울, 주누가, 이길로 선교사
자세한 문의는 전화 02) 796-3541(교환 6번)

인터콥 제5기 비전스쿨

중국 내 소수민족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등의 미전도종족 선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장소: 박립빌딩 1층 세미나실
일시: 98년 10월 10일(토)부터 12월 19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9시
참가비: 일인당 16만 원, 부부 30만 원
자세한 문의는 전화 02) 796-3541(교환 2번)

F.I.M. 국제선교회 겨울 비전트립 모집

한국 F.I.M. 국제선교회에서는 겨울 단기선교여행을 갈 여행팀을 모집한다.

일시: 99년 1월 12일부터 1월 30일까지
방문국가: 이슬람권 5개국(이집트, 이스라엘, 이스탄불, 불가리아, 영국)
비용: 177만 원
모집마감: 12월 10일(선착순 50명)
자세한 문의는 전화 02) 835-5256

한국 AAP 정탐 인텐시브 훈련 모집

한국 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에서는 미전도종족선교를 위한 정탐훈련 인텐시브 코스 훈련을 실시한다.

기간: 98년 12월 21일부터 12월 25일까지
훈련비: 15만 원
자세한 문의는 전화 02) 402-4967

새 일꾼을 찾습니다.

중국어문선교회 훈련원 간사와 행정 간사를 찾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뜨거운 젊음을 불태우시지 않으시렵니까?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교사 훈련 사역에 소명이 있는 분은 훈련원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문의: Tel. 535-4255 이성은 선교사
행정사역에 소명이 있는 분은 행정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문의: Tel. 592-0132 정광숙 간사

갈릴리 세계선교회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본부 간사님들의 일손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1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라도 GWM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문의: Tel. 420-1450

동아시아선교회 선교사 후보생을 찾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혹은 본부 사무실에서 사역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지도자 교육, 제자훈련, 교회교육, 행정사역 부분에 소명을 가진 선교사 후보생은 지금 바로 연락해 주십시오.
문의: Tel. 878-3750(주성구 간사)

您喜歡哪套, 請自己挑吧。/ Nín xǐhuan nǎ tào, qǐng zìjǐ tiāo ba.
(닌 시환 나 타오, 칭 쯔지 티아오 바.) 어느 세트를 좋아하시는지요, 손수 골라보세요.

알려 드립니다.

제3회 중국 유학생 훈련 캠프

대사명협회(大使命中心), 중국복음회(中國福音會), 『해외교원(海外校園)』 잡지사와 중국대사명사역위원회(神州大使命事工會)가 연합하여 발기한 제3회 중국 유학생 훈련 캠프가 1998년 12월에 대사명협회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훈련 캠프의 목적은 해외의 중국 크리스찬을 훈련하여 그들에게 성경을 나눠 주고, 사역 훈련과 선교 훈련을 통해 그들이 교회와 모임에 돌아가 사역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돕게 하는데 있다.

제1회 훈련 캠프는 1996년 대사명협회에서 거행이 되었는데, 100여 명이 참가하였고, 1997년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에서 거행된 제2회 훈련 캠프는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훈련 캠프는 네 기관에서 번갈아 가며 주최를 하게 되는데, 올해는 『해외교원』 잡지사에서 주최하게 되었다.

목표:

※영적 부흥의 체험과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한다.
※헌신자가 되기 위한 원칙과 방법을 알게 한다.
※소그룹 모임과 교회와의 교류와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한다.
※중국을 향한 비전과 사명을 갖게 한다.

장소:

Great Commission Center International, 769 Orchid Hill Lane Argyle, Texas 76226

제1기

1998년 12월 25일~30일

대상:

※중국 유학생 기독교인 중에서 헌신자 또는 헌신을 원하는 자

제2기

1998년 12월 30일~1999년 1월 3일

대상:

※협력사역이나 전임사역에 뜻이 있는 기독교인

※각 교회와 선교회에서는 3명의 사역자들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참가하고자 하시는 분은 『해외교원』 잡지사로 연락주십시오.
(해외교원 잡지사: OCM, p.o.Box 638, Lomita, CA 90717, USA
전화/ 팩스: (310) 325-7968

광고

중국어 찬양 Tape이 나왔습니다.

ORTV와 라이센스 계약에 의해 진 기획에서 발행하였습니다.

①**회념적시가** - 찬송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예수사랑하심은,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는 나의 힘이요 등). 총17곡
②**찬미단가** - 경배와 찬양곡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목마른 사슴, 주는 토기장이, 거룩하신 하나님 등). 총 18곡
③**부위명천적우려** - 중국어 성경에 곡을 붙여 만든 찬양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오직 성령의 열매는 등). 총 13곡
④**금아진정적자요** - 중국인이 작사작곡한 중국복음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예수님은 당신에게 평안을 줍니다 등). 총 13곡
⑤**수몽향** - 성경의 이야기들이 중국어 낭송과 함께 노래로 불려집니다(천지창조이야기, 다윗이야기 등). 총 18곡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중국어문선교회나 유명 기독교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 금성레코드사. 가격: 개당 4,500원
▶다량을 원하시는 분은 진 기획으로 연락주십시오. Tel. 997-9291, 011-688-9992

這幾種郵票我每樣要兩套。/ Zhè jǐ zhǒng yóupiào wǒ měi yàng liǎng tào.
(쩌 지 중 요우피아오 워 메이 양 야오 량 타오.) 이 몇 종류의 우표에서 각각 두 세트를 주세요.

유럽 및 미대륙에서 중국에 파송한 선교단체 명단
歐米教派名中國語歐米語對照表(1842년~19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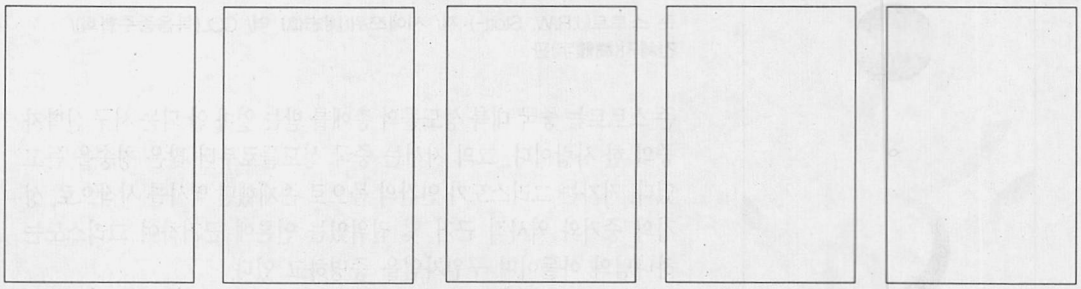
중국어	영 어	약 칭	파송국
安息日浸禮會	Seventh-Day Baptist Missionary Society	SDB	미국
衛理公會	Wesleyan Methodist Church		영국
澳州基督會	Federal Foreign Mission Committee of Churches of Christ in Australia	CCAu	영국
恩典會	Grace Evangelical Mission	GEM	미국
恩典會	Grace Mission	GMC	미국
監理會	Methodist Episcopal Mission (South)	MES	미국
歸正基督教會	Board of Missions of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CRC	미국
歸正教會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Dutch)	RCA	미국
基督會	Foreig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Disciples of Christ)	FCMS	미국
基督徒會	Christians' Mission	CM	영국
基督同寅會	United Brethren in Christ Mission	UB	미국
基督復臨安息日會	Seventh-Day Adventist Mission Board	SDA	미국
喜信會	Swedish Independent Baptist Mission	SIBM	스웨덴
喜迪堪會	Hildesheimer Verein für die Deutsche Blinden Mission in China	HVBC	독일
貴格會	American Friends' Mission (Ohio Yearly Meeting)	AFO	미국
救恩會	Ebenezer Missions	EbM	미국
救世軍	Salvation Army	SA	(영국)
協同會	Scandinavian Alliance Mission in Mongolia	SAMM	미국
兄弟會	Christian Missions in Many Lands (Brethren)	CMML	영국
五旬會	Pentecostal Missionary Union	PMU	영국
公誼會	Friends' Foreign Mission Association	FFMA	영국
公里會	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s	ABCFM	미국
行道會	Svenska Missions-Förbundet	SMF	스웨덴
根本論長老會	Cumberland Presbyterian Mission	CPW	미국
自由會	Fria Missionen i Finland	FFC(CIM)	핀란드
自立信義會	Independent Lutheran Mission	ILM	미국
循道會	Methodist Missionary Society	MMS	영국
循里會	American Free Methodist Mission	FMA	미국
遵道會	American Lutheran Brethren Mission	LB	미국
遵道會	United Evangelical Church Mission	UE	미국
女執事會	Fiedenshort Deaconess Mission	FDM(CIM)	독일
上帝教會	General Council of the Assemblies of God	AG	미국

중국어	영 어	약 칭	파송국
信義會	Svenska Kyrkaus Missionsstryrelse	SKM	스웨덴
信義會	Finska Missions-Sällskapet		핀란드
信義會	Augustana Synod of the Evangelical Lutheran Church of North America	ELAug	미국
信義會	Norske Missions-Selskab	NMS	노르웨이
信義會	Evangelical Lutheran Synod of Missouri and other States	ELMo	미국
信義公里會	Lutheran Board of Missions (Lutheran Free Church of the USA)	LBM	미국
信義長老會	Norske Evangeliske Lutheriske Frikirkes Kinamission	NLF	노르웨이
信公會	Faith Mission	FaM	미국
神召會	Pentecostal Assemblies of the World	PAW	미국
神的教會	Church of God Mission	CGM	미국
浸信會	Foreign Mission Board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SBC	미국
浸信會	Swedish Baptist Mission	SBM	스웨덴
浸禮會	American Baptist Foreign Mission Society (North)	ABF	미국
浸禮會	Baptist Missionary Society	BMS	영국
蘇格蘭聖經會	National Bible Society of Scotland	NBSS	영국
瑞華會	Svenska Missionen i Kina	SMC(CIM)	스웨덴
瑞華盟會	Svenska Allians-Missionen	SvAM(CIM)	스웨덴
聖潔會	Canadian Holiness Movement Mission	CHM	캐나다
聖潔會	Helgelse-Förbundet	HF(CIM)	스웨덴
聖公會	Protestant Episcopal Church, U. S. A.	PE	미국
聖公會	Church Missionary Society	CMS	영국
聖公會	Church of England Zenana Missionary Society	CMS	영국
聖公會	Missionary Society of the Church of England in Canada	MSCC	캐나다
聖公會	Society for the Propagation of the Gospel (Church of England Mission)	SPG	영국
聖道會	Evangel Mission	EvM	미국
聖道公會	United Methodist Church Mission	UMC	영국
宣聖會	General Missionary Board of the Pentecostal Church of the Nazarene	PCN	미국
大英聖書公會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BFBS	영국
長老會	English Presbyterian Mission	EPM	영국
長老會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PCC	캐나다
長老會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Ireland	PCI	영국
長老會	Foreign Mission Committee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New Zealand	PCNZ	영국
長老會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North	PN	미국
長老會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South	PS	미국

중국어	영 어	약 칭	파송국
長老會	United Free Church of Scotland Mission	UFS	영국
長老教會	Kieler China Mission	KCM	독일
通聖會	National Holiness Mission	NHM	미국
伝道會	Emmanuel Medical Mission	EMM	영국
同善會	Allgemeiner Evangelisch-Protestantischer Missionsverein (Weimar Mission)	AEPM	독일
德華盟會	German China Alliance Mission in Barmen	GCAM(CIM)	독일
挪威會	Norske Mission i Kina	NMC(CIM)	노르웨이
挪威盟會	Norske Missions-Selskab	NMF(CIM)	노르웨이
內地會	China Inland Mission	CIM	(영국)
巴色會	Evangelische Missionsgesellschaft zu Basel (Basel Mission)	B	스위스
巴陵女書院	Berliner Frauen-Missionsverein	BFM	독일
巴陵信義會	Berliner Missionsgesellschaft	Bn	독일
美以美會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North)	MEFB	미국
美國聖經會	American Bible Society	ABS	미국
美道會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Church in Canada	MCC	캐나다
復初會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Reformed Church in the United States (German)	RCUS	미국
福音會	Church of Scotland Foreign Mission Committee	CSFM	영국
福音會	Missionary Society of the Evangelical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EA	미국
福音會	Nerges Frie Evangeliske Missions-forbund	NFEM	노르웨이
希伯崙會	Hebron Mission	Heb	미국
輔道福音會	Christian Faith Mission	CFM	미국
孟那浸信會	Mennonite Brethren Mission	MBM	미국
孟那福音會	China Mennonite Missionary Society	ChMMS	미국
約老會	Reformed Presbyterian Mission	RPC	미국
友愛會	General Mission Board of the Church of the Brethren	GBB	미국
予鄂信義會	Lutheran United Mission	LUM	미국
來復會	American Advent Mission Society	AAM	미국
立本責信義會	Liebenzeiler Mission	L(CIM)	독일
倫敦會	London Missionary Society	LMS	영국
禮賢會	Rheinische Missionsgesellschaft	RM	독일
路德會	Danske Missions-Selskab	DMS	덴마크
路德會	Norske Lutheriske Kinamissions-forbund	NLK	노르웨이

출처/ 山本澄子 著 『中國キリスト教史研究』, 近代中國研究委員會.

선교도서안내



중국선교 소책자 시리즈

1. 만남(중국성도 간증 소책자)/ 中國語文宣敎會 번역	2,000원
2. 전도중국어/ 중국어문선교회 교육부 역(Tape:1,000원)	1,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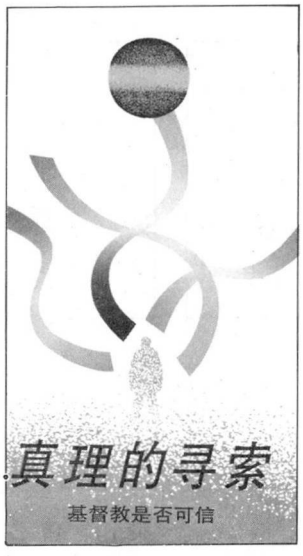
중 국 어 학습 교재

1. 使徒信經, 主禱文 외 (Tape:1,000원)	2,000원
2. 經文背誦 (Tape:1,000원)	1,500원
3. 神愛世人 (Tape:1,000원)	2,000원
4. 我的第一本聖經 (Tape:1,000원)	2,500원
5. 信仰讀本	5,000원
6. 구약성경 이야기 (Tape 25개)	25,000원
7. 中・韓 주제별 성경암송 카드(60구절:네비게이토 출판사)	900원
8. 중국어 신구약 성경(번체자, 주음부호)	35,000원
9. 중조양어 대조와 오류분석	18,000원
10. 중국어 찬양 Tape	
◆耶和華是我的牧者(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4,000원
◆我的中國心(나의 중국 마음)	4,000원
◆是愛(사랑은)	3,000원
◆奉主耶穌的名	3,000원
11. 종합선교중국어	8,000원
12. 讚美歌	5,000원

위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교재들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방법 :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인 경우 우편발송이 가능하오니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우편으로 신청하실 때는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우편요금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CCL 소책자 소개



眞理的尋索

(Basic christianity 기독교의 기본진리)

존 스토트(J.R.W. Stott-) 저/ 시에쯔위(謝志偉) 역/ CCL(복음증주협회)/
간체자(簡體字)판

존 스토트는 중국 대륙 성도들의 총애를 받는 얼마 안 되는 서구 신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저서는 중국 성도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듣고 있다. 저자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존재했던 역사를 시작으로, 성경의 증거와 역사적 근거 및 권위있는 언론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권한다. 이는 기독교의 본질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진리이다.

중국 성도들이나 국내 중국인(근로자, 유학생)들을 위해 이 책이 필요하신 분은
중국어문선교회 CCL 협력부를 방문하셔서 구입하십시오. CCL 협력부는
이 외에도 중국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필요한 소책자와 문서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도들이
영의 양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에 자주 가신다고요?
중국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신다고요?

중국어문선교회 CCL 협력부로 오십시오.
중국인을 위한 전도소책자와 양육 · 훈련교재가 있습니다.
여행, 단기선교, 비지니스 등으로 중국을 방문하시려는 분들이 갖고 가는 이 책은,
중국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기쁨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국내 중국인 근로자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회나 개인도 환영합니다.

담당/ 중국어문선교회 심영아 간사(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오시기 전에 꼭 전화를 주십시오.
☏ **02)594-8038**

1999년도 1학기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M.T.I for CHINA)
제14기 훈련생 모집

선교현장에 임하기에 앞서 준비를 철저히 함은 선교사의 필수적 요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실하게 중국선교를 준비하는 분들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훈련기간은 6개월입니다.
선교현지에 무리없이 정착하기 위해 투자하는 6개월은 결코 많은 시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 상	교회, 교단 선교부 및 선교단체가 위탁하는 장·단기 선교사. 중국선교에 부름받은 예비 선교사.
참가인원	20명 내외.
선 발	본 훈련원의 훈련생 선발기준에 의함.
본 훈련원의 과정을 수료하면	중국에 대한 바른 이해로 현지적응 능력 배양. 생활중국어와 선교중국어를 자신있게 구사. 중국선교 사역에 대한 비전 구체화.

〈교육기간 매년 3월, 9월 개강〉

원서교부 및 접수마감 : 98년 12월 15일~99년 1월 30일

구비서류/ 신청서(소정양식) - 1통, 서약서(소정양식) - 1통, 추천서(소정양식) - 3통
자기 소개서(소정양식) - 1통, 위탁서(소정양식)-1통
원서대금 및 접수비/ 원서대금 2,000원, 접수비 10,000원
문의 및 접수처/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TEL: 535-4255, 594-8038 FAX : 599-2786 담당: 이성은 주임

개강예배 99년 3월 2일(화) 오전 9시
장소 :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강의실

중국어문선교회

중국선교훈련원(원장:박성주 장로)은 중국선교를 위한 언어 훈련과 중국문화적응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사랑하는 이들의 동반자

중국을 주께로

1998년 11·12월호(통권54호)

발행처/ 시님(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대 표/ 박성주
발행·편집인/ 이동화
편집위원/ 강성광·김중선·김중하·김피득
왕쓰웨·지인성·한수아(가나다 순)
편 집 장/ 석은혜
편집기자/ 한영혜·이민선·최귀례·곽숙·박정희
편집디자인/ 안상희

중국을 주께로
등록일자/ 1994년 2월 14일
등록번호/ 바 - 2078
발행일자/ 1998년 10월 20일
인쇄처/ 신구인쇄 ☎ 02) 264-5354
인쇄인/ 김기환
총판/ 크리스찬 매거진 ☎ 0344)906-9191~4
값/ 5,000원
(1년 정기구독 30,000원)

중국어문선교회
본부, 출판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3층)
전화: 02)533-5497, 02)592-0132
팩스: 02)599-2786
중국선교훈련원, 선교국, CCL 협력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3층)
전화: 02)594-8038, 02)535-4255
팩스: 02)599-2786
인천지부
인천시 중구 답동 44-24
원지당 약국 3층
전화: 032)762-0748

독자투고 및 정보제공

<중국을 주께로>는 중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만드는 잡지입니다. 본지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독자들의 정성어린 의견과 정보에 귀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지를 읽은 소감 및 의견을 전자우편을 통해 보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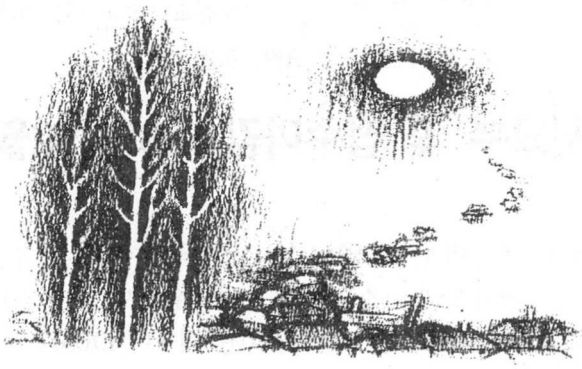
☆ **인터넷 홈페이지**
www.Dadream.co.kr/~sinim
☆ **E-mail**
sinim@chollian.net
☆ **PC 통신 천리안, 하이텔**
sinim

편집후기

또 한 해가 간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되면서 숱한 사건과 사건들이 저 역사의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려 한다. 과연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이 1년의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던가? 그리고 결국엔 어떤 열매를 거둔 것일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묵묵히 주신 책임을 잘 감당했노라 고백할 수 있을까? 또다시 우리는 올 한 해의 결산을 앞에 놓고 '주여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긍휼을 베푸소서!' 겸손히 주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

비록 우리가 중국 선교를 위해 한 일이 미미하게 느껴지고, 결실로서 손에 잡힌 그 무엇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는다. 우리가 끝까지 주 안에 있어, 이 길을 가면 주님은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한 해 동안 『중국을 주께로』를 애독해 주시고, 기도로, 물질로, 또는 애정어린 충고로 중국 선교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편집부 일동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외 정기구독료(1년)
항공우편

1지역	일본, 홍콩, 대만, 마카오 책값 30,000원, 우편료 12,900원, 합계 42,900원
2지역	필리핀, 태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책값 30,000원, 우편료 17,400원, 합계 47,400
3지역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 스리랑카, 뉴질랜드, 네팔, 파키스탄 책값 30,000원, 우편료 19,200원, 합계 53,400원
4지역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아시아 책값 30,000원, 우편료 31,200원, 합계 61,200원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중국을 주께로>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그림은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의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국어문선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국을주께로는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반잡지입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소개하며 특히 중국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교회 소식, 선교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국내의 교회와 관심자들에게 중국을 알려주는 중국선교 전문정보지입니다.

우 편 엽 서

우편요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1998.4.1~2000.3.31
서초우체국승인
제340호

보내는 사람

_____

전화
□□□-□□□

받는 사람
중국을 주께로 편집부 앞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3층)

1 3 7 - 0 6 9

우 편 엽 서

우편요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1998.4.1~2000.3.31
서초우체국승인
제340호

보내는 사람

_____

전화
□□□-□□□

받는 사람
중국을 주께로 편집부 앞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3층)

1 3 7 - 0 6 9

중국을 주께로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 신청요령

정기구독 및 주소를 변경하실 분은 신청서를 이용하시거나
직접 전화(02-592-0132, 02-533-5497)를 주시면 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정기구독을 신청하신 분은 아래로 대금을 입금하신 후, 반드시 전화주십시오.

시중은행 99번 창구/ 지로번호 7602362(정기구독으로 표시)

국민은행/ 008-01-0454-178(예금주: 박성주)

독자카드 1998년 11·12월호

귀하의 의견은 「**중국을 주께로**」의 발전에 더없이 소중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던(도움이 되는) 기사는 무엇이었습니까?

2. 「**중국을 주께로**」에 보완될 부분이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3. 앞으로 「**중국을 주께로**」를 통해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기사나 주제가 있다면?

4. 그밖에 편집자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정기구독 신청서

1.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하십시오.

□ 신규구독 □ 재구독

구독기간(신규 및 재구독) : 19 년 월부터 19 년 월까지

□ 1년 30,000원(6권) □ 2년 60,000원(12권) □ 3년 90,000원(18권)

년 월 일 위와같이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이 름		(남, 여)	전화번호		
	주 소	(우 -)		(통 반)	출석교회	
주소변경	회원번호					
	변경주소	(우 -)				(통 반)

전화신청 및 문의 02) 533-5497, 02) 592-0132

"중국을 주께로" 월례 중보기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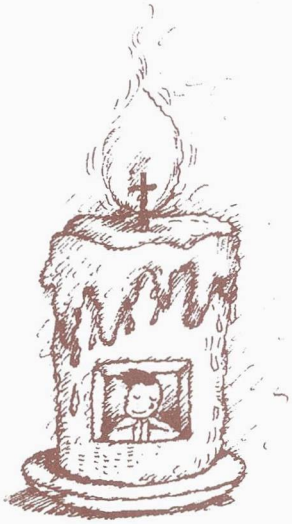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 33: 3)

중국 선교의 문이 왜 열리지 않는가를 묻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중국을 위해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지 자문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로써 모든 닫힌 문들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선교의 모든 문들이 닫힌 채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은 크고 그 책임 또한 막중합니다. 누가 이 세대에 기도의 큰 용사로, 이 영광된 책임을 다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제,
『중국을 주께로』 월례 중보기도가 98년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어문선교회의 양 팔을 붙들고, "아론과 훌"처럼 기도의 팔을 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중보기도로 후원하실 여러분들을 향해 문을 열고 기다립니다.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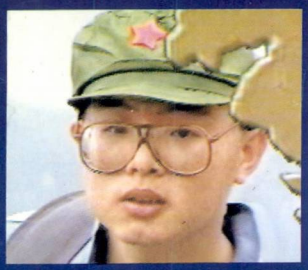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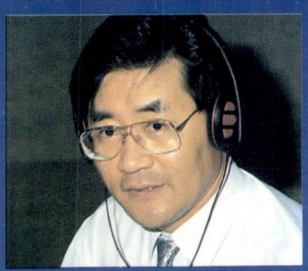
시간: 매월 셋째 월요일 (저녁 7:00~9:00)

장소: 이수성결교회(중국어문선교회 맞은편)

잠깐 !! 그 외,
매주 첫째, 둘째, 넷째 월요일은 저녁 6 : 30~8:30
"중국을 주께로" 기도합주회가 원래대로 진행됩니다.

장소: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3층) 우137-069
전화: 02)592-0132, 594-8038





극동방송
아세아방송

아직도 선교사 파송과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북방지역에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은 전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기도와 헌금으로 동역할 전파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방송의 메아리

벌목장에서 귀순한 북한주민

"시베리아 벌목장에서 남몰래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유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한 끝에 목숨을 걸고 남조선으로 귀순하게 됐습니다."

러시아의 시골주부

"주부인 저는 사는 것이 고달퍼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귀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지요. 지금은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중국교회 지도자

"지금 중국에 처소교회가 약 3만 군데 있는데, 그들은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을 들으며 믿음 생활을 한답니다. 어느 한 집에 라디오가 있으면 밤중에, 시간에 맞춰, 그 집에 모여 설교를 듣습니다."

북한지역 주민

"하루는 새벽에 방송을 들으니까 합창(찬송)이 끝난 후에 어느 사람이 연설(설교)을 하는데 참 좋더군요. 그후 하루라도 그 방송을 듣지 않고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불안했습니다. 이제 저는 공산주의자도 민족주의자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부터 예수주의자입니다."

전파선교사 신·청·방·법

1 저희 방송사에 전화(또는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 전용 전화 번호 / (서울 02) 322-0 • 6 • 9 • 1 영 육 구 원

(서울 02) 320-0283, 0290

2 어느 은행이든 99번 창구에 가셔서 지로 용지를 요청, 아래 번호를 적어 작정 금액을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전용 지로구좌번호

1 • 1 • 2 • 0 • 6 • 9 • 1

일 일 이 - 영 육 구 원

주님! 기도와 헌금으로 북방선교 사역에 동역할 전파선교사 100,000명을 주옵소서!